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박사학위논문

신라 고분의 구성 정형 연구

-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격 복원을 중심으로 -

2019년 1월

서울대학교 大學院
考古美術史學科 考古學專攻
河大龍

신라 고분의 구성 정형 연구
-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격 복원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이 준 정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하 대 룡

하대룡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1월

위 원 장 _____ 김 장 석 _____ (인)

부 위 원 장 _____ 이 준 정 _____ (인)

위 원 _____ 권 오 영 _____ (인)

위 원 _____ 김 재 홍 _____ (인)

위 원 _____ 최 종 택 _____ (인)

【국문초록】

신라 고분의 구성 정형 연구

-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격 복원을 중심으로 -

월성북고분군을 중심으로 축조된 적석목곽묘군은 신라 고분 연구의 핵심 자료로써, 이를 핵심으로 하여 신라 고분의 시공간적 전개 양상이 규명되고, 사회 구조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석목곽묘의 부장품과 유구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구성이 경주지역 내적으로 갖는 사회적 의미는 무엇이며, 지방 고분의 구성은 경주와 어떻게 같고 다르며 그 정치적 함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된 바가 많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피장자의 성격 규명에서 시작하여 적석목곽묘를 비롯한 신라 고분의 구성 원리와 그 사회적 의미에 대해 접근하였다.

먼저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격 규명은 연구사적 검토를 토대로 착장 이식과 성별, 계서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착장 이식에 대해서는 현존 인골 자료와 대조한 결과 기존 논의와 달리 세환이식과 태환이식이 남녀 성별과 대응하지 않아, 기존에 논의된 것처럼 성별이 아닌 직능이나 사회적 역할 등 피장자 성격의 다른 측면에 대응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피장자 성별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위해, 인골 자료의 부재를 보충할 수 있도록 피장자 신체 대소의 차이를 담보할 수 있는 자료인 천을 분석하였다. 금속제 고정형 천의 내경 크기 분포에서 나타나는 계층적 차이를 손 너비의 성별이형성(性別異形性)을 토대로 해석하고, 이를 일본 야요이 시대의 남녀 착장 패천, 무령왕비 소유품, 그리고 현대의 것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신라 고분 출토 천은 여성만이 착장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또한 천의 착장 여부는 적석목곽묘의 부곽 설치 여부와 완전히 연동하는 양상이 확인되어 묘곽 형식과 피장자 성별 간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으로는 피장자의 계서를 복원하였다. 성별과 착장 이식에 따라 착장위세품이 차별적으로 구성된 양상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고려하여 남성 세환군, 남성 태환군, 여성 세환군, 여성 태환군의 4개 군으로 구별하여 계서를 검토하여 각각이 경식, 천, 지환, 대도 등의 착장에 있어서 서로 다른 착장 규정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각 군에서는 대체로 이식-대장식구-대관-금속제 모관(부장)까지 이어지는 공통적인 누적적·위계적 구성을 보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계서를 설정하여 위세품이 전혀 없는 F군에서부터 금속제 모관의 부장이 이루어진 A군까지 여섯 단위로 계서를 설정하였다.

그 이후로는 앞서 밝혀진 피장자 성격에 따라, 즉 피장자의 성별, 착장 이식, 계서에 따라서 적석목곽묘의 부장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았다. 무구와 마구의 경우는 성별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착장 이식에 따라 부장 여부가 결정되는 측면이 컸다. 세환군의 분묘에서는 성시구와 갑주, 등자가 높은 부장비를 보였으나, 태환군에서는 매우 한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철기의 부장량에서도 착장 이식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는데 세환군의 철기 출토량이 태환군에 비해 우세하였으며 특히 무기류가 그러하였다. 다만 모든 철기류에서 일관적으로 세환군이 우세하지는 않았으며, 기경구적 성격을 갖는 농구류는 높은 계서의 태환군에서 부장률이 더 높았다.

반면에 토기의 부장은 성별과 높은 관련성을 보여 평균적으로 남성묘에 여성묘의 두배에 달하는 수량이 부장되었고 부장 수량과 연관된 기종 다양성 역시 남성묘에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 간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은 배류로써, 남성묘에서는 이단고배의 부장비율이, 여성묘에서는 일단고배와 개배의 부장비율이 높았다. 토기의 부장은 계서에 따라서 결정되는 측면도 컸는데 높은 위계에 있는 피장자의 부장량이 일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기종 다양성도 상위위계에서 더 높았다. 다만 계서에 따른 수량의 증가양상은 성별 간 차이를 보이는데 남성은 계서에 따라 부장량의 증가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반면 여성은 상대적으로 균등한 부장량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철기와 토기의 부장은 피장자의 계서, 성별, 착장 이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임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조묘자들은 부장품의

종류와 양을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며 모종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적석목곽묘의 부장품을 조성하였던 것으로 해석되었다.

다음으로 적석목곽묘의 군집화와 피장자의 성격이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였는데, 군집화 양상은 크게 봉토와 호석을 공유하는 연접축조와 일정 지점에 모이되 봉토와 호석을 공유하지 않는 소군집화로 구분할 수 있었다. 먼저 연접축조에 대해 검토한 결과 표형분을 비롯한 연접분 대부분이 하나의 성별로 구성되어 부부묘나 핵가족적 가족 구성으로 한정시킬 수 없음이 확인되었고, 오히려 남성묘와 여성묘가 각각 별도의 연접을 이루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그리고 남성묘와 여성묘가 함께 연접되는 경우는 마지막에 여성묘가 축조되면서 연접이 중단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또한 착장 이식에 따른 양상을 살펴보면 주로 세환군이 우세한 가운데 자유롭게 구성된 듯 보이지만, 태환군과 태환군이 연달아 축조된 연접분은 존재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연접에 있어서 후축분의 조묘자가 선축분 피장자의 착장 이식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며, 그들이 가까운 사회적 관계에 있었음을 암시한다.

다음으로 소군집화는 조사 현황을 고려하여 왕릉군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는데, 봉토의 규모를 토대로 피장자의 계서를 추정하고, 앞서 실시된 분석을 토대로 성별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추정 하에 분석을 시행한 결과 왕릉군의 군집화는 황남대총 남분, 봉황대, 서봉황대 등 남성 세환군 피장자를 중심으로 여성 피장자가 그 주변에 종속분으로 입지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적석목곽묘 조영 기간 내내 반복되므로, 부장품에서와 마찬가지로 유구에 있어서도 모종의 합의가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적석목곽묘에서 피장자와 고분 구성 간의 관계가 이러하였다면, 그 다음으로 낙동강 이동의 각 지방 고분에서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성별을 검토한 결과 지방 고분에서는 적석목곽묘에서처럼 성별에 따라 묘곽 형식, 특히 부곽의 설치를 차별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적석목곽묘의 분석에서처럼 성별에 따른 차이는 검토할 수 없었으며, 주로 착장 이식에 따라 부장품의 구성과 유구 배치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착장위세품 구성이 세환군과 태환군으로 양분

되고 두 개의 군에서 무구, 마구가 차별적으로 부장되는 양상이 적석목곽묘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이식→대장식구→관류의 착장 또는 부장으로 이어지는 계서 구분도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철기의 부장양상에 있어서는 경주의 세환군, 태환군과 지방의 세환군, 태환군이 각각 복식군별로 유사한 출토율을 보였으며, 연접축조 역시 태환군과 태환군 사이의 연접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이 적석목곽묘와 동일하였다.

지방의 전반적인 착장 위세품의 출토율이 약간 낮고, 경주에서 나타나지 않는 금속제 관모와 관식의 착장이 확인되는 점, 그리고 경식과 대도의 동시착장이 경산지역에서만 나타나는 등 경주와 지방 간의 차이, 그리고 지역들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대체로 동일한 부장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경주와 지방을 포괄하는 장례 규범 혹은 부장 규범이 존재하였고 그것이 준수된 양상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격에 따라 부장품의 구성과 유구 배치의 양상에 있어 상당한 정형성이 관찰되어, 피장자의 성격을 규정하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일련의 장례 수행 방식이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장례 수행 방식이 어떠한 과정과 배경을 통해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체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착장위세품의 출현 시점을 살펴본 결과 이들이 일정한 공반양상을 보이면서 피장자의 신체에 착장되는 시기는 최병현의 편년에 따르면 신라 전기의 1B기로 파악되었다. 이 시기는 또한 신라양식 토기의 성립, 적석목곽묘의 축조, 신라 고분의 고층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여, 신라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때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의 분화는 현재 자료 상황남대총 북분을 시작으로 전기 2기부터 나타나는데, 이는 성별에 따른 사회적 구분이 계서에 의한 수직적 구분과 이식에 의한 수평적 분화보다 후행하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성별과 착장 이식에 따른 부장 양상의 차이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남성묘와 여성묘의 차이는 착장위세품과 부장품 중 어느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른, 즉 위세 형성 방식에 차이의 의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착장 이식의 차이는 세환군에 전반적으로 철기 부장량이 더 많고 무구와 마구가 많이 부장되는 점을 고려하여 세환군은 경

제력과 무력을 바탕으로 하는 세속적 권력을, 후자는 그와 상보적 관계를 갖는 의례적·종교적 권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권력의 분장에 따른 신라 엘리트의 평면적 분화로 판단된다. 이처럼 적석목곽묘 피장자 집단은 성별과 착장 이식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화되어 남성 세환군, 남성 태환군, 여성 세환군, 여성 태환군의 네 가지 복식군으로 분리되었고, 각각은 계서에 의해 수직적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각 복식군은 부장품과 묘곽 형식에 있어 뚜렷이 차별화되는 부장 규범을 갖는 바, 적석목곽묘에는 이러한 원리에 의해 구조화된 신라 사회의 질서가 이상화된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 고분의 고분 구성에서는 피장자의 착장 이식을 중심으로 부장품 구성과 유구 배치 방식에 있어서 적석목곽묘와 동일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경주 내부의 사회적 질서와 구조화 방식이 다른 지역의 엘리트에게 파급되었고, 지역 엘리트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장례 의례 과정에서 재생산한 것으로 해석되며, 고분 자료의 지역성은 그러한 재생산 과정에서 나타난 부수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신라 고분 전반의 유물과 유구의 구성에 나타난 정형성은 당시 엘리트들이 사회 구조적, 이념적으로 공통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하므로, 신라 고분의 지역색이 정치적·의례적 독립성을 바탕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고총기는 적석목곽묘 축조집단의 사회질서와 구조가 지방에 파급되는 시기로써, 지역 엘리트는 이를 수용하여 신라 중앙에 동화하는 과정에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어 : 신라 고분, 고총, 적석목곽묘, 피장자, 사회적 정체성, 성별, 계서, 사회 구조, 장례 의례, 지방 지배, 부장 양상, 연접분

학 번 : 2012-30029

〈목 차〉

I. 서론	1
II. 연구 목적과 방법	7
1. 연구 목적	7
2. 연구사 검토	13
1)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계서	13
2)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별	16
3. 이론적 배경	25
1) 피장자와 무덤	25
2) 부장품의 구성과 의미	30
4. 연구 방법과 대상	35
1) 연구 방법	35
2) 연구 대상	38
III.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격 검토	42
1. 착장 이식	42
2. 성별	46
1) 성별 추정의 대안적 방법론	47

2) 천(鈿) 계측을 통한 신라 고분 피장자의 성별 추정	62
3)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별	85
3. 계서	106
1) 피장자 성별에 따른 착장위세품의 출토양상	106
2) 착장 이식에 따른 착장위세품 출토양상	114
3) 계서의 설정	117
4. 소결 :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격	127

IV. 적석목곽묘의 부장품 구성 129

1. 피장자의 성격과 무구·마구의 구성	129
1) 성별과 무구·마구의 부장 양상	130
2) 착장 이식과 무구·마구의 부장 양상	134
2. 피장자 성격과 토기 및 철기의 구성	138
1) 분석 방법과 대상	138
2) 토기의 부장양상	151
3) 철기의 부장양상	166
3. 소결 : 부장품의 구성 방식	179

V. 적석목곽묘의 균집화 방식 182

1. 피장자 성격과 연접 축조 양상	182
1) 연접축조와 피장자의 성별	182

2) 연접축조와 피장자의 착장 이식	190
3) 연접분 내의 계서 구성	191
2. 적석목곽묘의 소군집화	194
3. 소결 : 연접축조 및 소군집화의 양상과 피장자	202

VI. 지방 고분 피장자의 성격과 고분 구성 205

1. 지방 고분 피장자의 성별	206
2. 위세품의 구성	211
1) 착장위세품	211
2) 무구와 마구	219
3. 토기와 철기의 구성	222
1) 토기의 부장양상	223
2) 철기의 부장양상	229
4. 지방 고분의 연접축조	235
5. 소결 : 착장 이식을 중심으로 한 공통성	239

VII. 고총기 피장자 성격 표현의 사회·정치적 함의 242

1. 적석목곽묘 피장자 성격을 통해 본 신라 사회의 구조	242
1) 착장위세품을 통해 본 피장자 성격 표현의 형성과정	243
2) 성별에 따른 고분 구성의 차이	253
3) 착장 이식의 사회적 의미	260

4) 적석목곽묘의 구성 원리와 월성북고분군 축조집단의 사회구조 ..	271
2. 지방 고분의 피장자 성격 표현의 정치적 함의	279
1) 지방 고분의 구성 정형과 그 함의	279
2) 피장자 성격과 신라 고분의 지역적 다양성	282
3. 소결 : 고분 구성의 핵심 요소로써 피장자 성격	285
VIII. 결론	287

〈표 목차〉

〈표 1〉 신라 고분 출토 인골의 성별과 이식부 착장유물	43
〈표 2〉 주요 천 출토 고분의 착장 위세품 출토 양상 (1)	65
〈표 3〉 주요 천 출토 고분의 착장 위세품 출토 양상 (2)	66
〈표 4〉 주요 천 출토 고분의 착장 위세품 출토 양상 (3)	67
〈표 5〉 주요 천 출토 고분의 착장 위세품 출토 양상 (4)	68
〈표 6〉 중북 착장을 제외한 천 내경 분포의 정규성 검정 결과	77
〈표 7〉 성별, 연령별 천 크기와 신라 고분 출토품의 비교	79
〈표 8〉 월성북고분군 적석목곽묘의 착장 위세품 출토 양상과 묘곽 형식	87
〈표 9〉 적석목곽묘의 묘곽 형식과 피장자의 천 착장 여부	90
〈표 10〉 착장유물이 3점 이상 출토된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천 착장 여부와 묘곽 형식과 분기, 계서	94
〈표 12〉 적석목곽묘에서 부곽의 존재 여부에 따른 묘곽 형식 분류와 주피장자 천 착장 여부	97
〈표 13〉 경주시내 적석목곽묘 출토 인골의 성별과 묘곽 형식	98
〈표 14〉 적석목곽묘의 착장 위세품 출토 현황	109
〈표 15〉 성별 및 이식에 따른 착장위세품의 위계적 구성	122
〈표 16〉 착장위세품의 구성에 따른 계서 등급화	125
〈표 17〉 적석목곽묘의 무구류·마구류의 출토 현황	133
〈표 18〉 남성묘와 여성묘의 무구류·마구류 출토 비율 비교	133
〈표 19〉 피장자의 착장 이식 별 무구류 및 마구류 부장 비율	134

〈표 20〉 피장자 계서와 기종 구성	158
〈표 21〉 토기 부장양상 분석 대상 적석목곽묘	160
〈표 22〉 피장자의 계서와 철기의 구성	170
〈표 23〉 적석목곽묘 부장 철기 수량의 주성분 분석 결과	177
〈표 24〉 월성북고분군 적석목곽묘 연접사례 종합	183
〈표 25〉 연접분의 연접 사례 별 성별 구성	185
〈표 26〉 연접분의 묘곽 형식과 편년	186
〈표 27〉 연접분의 연접 사례 별 착장 이식 구성	190
〈표 28〉 연접 사례 별 계서 변동	192
〈표 29〉 지방 고분의 천 착장 사례	208
〈표 30〉 지방 고분 출토 착장위세품과 공반 무구류, 마구류	211
〈표 31〉 지방 고분의 연접사례와 피장자 성격 종합	235
〈표 32〉 지방 연접분의 연접 사례 별 이식 구성	237
〈표 33〉 착장위세품의 시간대 별 추가·구성 양상	245
〈표 34〉 착장 이식에 따른 적석목곽묘의 구성 양상 비교	261
〈표 35〉 금령총 출토 기마인물형토기와 세환군·태환군의 복식·마구 비교	265
〈표 36〉 피장자의 성격에 따른 적석목곽묘의 구성	272
〈표 37〉 피장자의 복식군에 따른 적석목곽묘의 부장 경향과 묘곽 형식	275
〈부표 1〉 신라 고분 출토 천 목록 및 계측치	313
〈부표 2〉 수량분석 대상 월성북고분군 적석목곽묘와 출토 유물	318
〈부표 3〉 수량분석 대상 지방 고분과 출토 유물	320

〈그림 목차〉

〈그림 1〉 남녀 신장의 분포 양상에서 나타나는 성별이형성	48
〈그림 2〉 성별에 따른 계측치 이봉곡선 분포의 예와 계측치에 의한 성별판단 점이지대의 예	49
〈그림 3〉 야요이시대 고희우라제 패천(좌)와 이모가이제 패천(우)의 예 ...	51
〈그림 4〉 일본 야요이시대 성인 남성·여성, 아동 인골 145개체가 착장한 천의 내경 장지름과 단지름 분포	52
〈그림 5〉 천 착장시 손의 형태.	55
〈그림 6〉 천의 착장 과정 모식도	56
〈그림 7〉 손너비의 계측지점	56
〈그림 8〉 현대 한국인(18세 이상 6,577명)의 손너비 계측치 분포.	57
〈그림 9〉 천 계측치의 분포 모델과 해석	59
〈그림 10〉 신라 고분 피장자의	63
〈그림 11〉 무령왕과 왕비의 관 내 유물 출토 상황	70
〈그림 12〉 천의 계측 내용과 방법	72
〈그림 13〉 내경 계측이 가능한 천 86점의 최대 내경, 최소 내경 분포	76
〈그림 14〉 신라 고분 출토 성인용 천의 최대 내경 빈도분포	76
〈그림 15〉 신라 고분 출토 천의 최대 내경 분포와 각종 남녀 착장 천의 최대 내경 분포 범위 비교	81
〈그림 16〉 회귀선을 이용한 천 내경의 추정	83
〈그림 17〉 신라시대에서 최근까지의 신장과 손너비 변화 추세	83

〈그림 18〉 대좌골절흔에 의한 성별 판단 예	99
〈그림 19〉 이상면과 대좌골절흔이 이루는 복합궁에 의한 성별 판단 예 ..	99
〈그림 20〉 황오동 34호 1, 2, 3곽의 유구배치도	102
〈그림 21〉 적석목곽묘의 피장자 성별과 착장 위세품 출토 양상	109
〈그림 22〉 중위 위계 고분 피장자 성별과 착장 위세품 출토 양상	111
〈그림 23〉 성별에 따른 위세품의 착장 숫자 상자도표	114
〈그림 24〉 착장 이식 별 착장위세품의 공반 비율	115
〈그림 25〉 성별과 이식에 따른 착장위세품의 누층구조	123
〈그림 26〉 철기 출토량에 대한 조사 시기 별 비교	149
〈그림 27〉 피장자 계서와 토기의 출토량	152
〈그림 28〉 남성묘와 여성묘의 계서와 토기 부장량	153
〈그림 29〉 계서와 부장량 분석 대상 분묘의 편년 분포	154
〈그림 30〉 분기 별 남성묘와 여성묘의 부장 토기	155
〈그림 31〉 적석목곽묘의 기종 별 출토 수량 box and jitter plot	161
〈그림 32〉 적석목곽묘의 피장자 성별 별 토기 출토율	162
〈그림 33〉 남성묘와 여성묘의 토기 조성 비교	163
〈그림 34〉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일단고배, 이단고배, 개배 부장비 삼각도표	164
〈그림 35〉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착장 이식 별 토기 출토율	164
〈그림 36〉 피장자 계서와 철기의 출토량	167
〈그림 37〉 세환군과 태환군의 계서와 철기 부장량	169
〈그림 38〉 적석목곽묘의 철기 종류 별 box and jitter plot	173

〈그림 39〉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착장 이식 별 철기 출토율	174
〈그림 40〉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별과 철기 출토율	175
〈그림 41〉 대릉원 일대의 군집화에 대한 여러 시안	194
〈그림 42〉 계서와 봉토 크기(장축)의 관계	195
〈그림 43〉 월성북고분군 왕릉군 소집단과 피장자의 성별 및 복식군	200
〈그림 44〉 창녕 교동 12호 매장주체부 실측도	206
〈그림 45〉 착장 이식이 분명한 월성 북고분군 적석목곽묘와 지방 고분의 복식군 별 착장위세품 출토율 및 요약	214
〈그림 46〉 착장 이식이 분명한 고분 128기의 착장위세품 구성의 Jaccard 상수에 의한 MDS 결과	214
〈그림 47〉 경주지역 적석목곽묘와 지방 고분의 복식군 별 무구·마구 출토율 비교	219
〈그림 48〉 토기 및 철기의 부장양상 검토에 사용된 지방 고분의 지역별 분포	222
〈그림 49〉 지방 고분의 기종 별 출토 수량 box and jitter plot	225
〈그림 50〉 적석목곽묘와 지방 고분의 기종 구성	225
〈그림 51〉 경주와 지방 고분의 일단고배, 이단고배, 개배 부장비 비교 ..	228
〈그림 52〉 경주지역 적석목곽묘와 지방 고분의 착장 이식 별 철기 출토량	230
〈그림 53〉 지방 고분의 착장 이식 별 철기 출토량의 box and jitter plot	231
〈그림 54〉 적석목곽묘와 지방 고분의 복식군 별 철기 출토율 비교	231
〈그림 55〉 적석목곽묘와 지방 고분의 철기 구성	232
〈그림 56〉 월성로 가-13호분과 출토 위세품 일부	247

〈그림 57〉 월성로 가-13호의 중공구+곡옥 출토 정황과 황오동 14호 2곽의 태환이식+중공구+곡옥 조합 양상	248
〈그림 58〉 적석목곽묘의 남성묘와 여성묘의 부장품 출토량 비교	254
〈그림 59〉 여성묘의 주분 배치 사례	258
〈그림 60〉 적석목곽묘의 세환군과 태환군의 부장품 출토량 비교	262
〈그림 61〉 성별과 착장 이식에 따른 토기·철기 부장량 모델과 실제	275
〈그림 62〉 월성북고분군 피장자집단과 주요 구조화 원리의 모식도	277

I. 서론

신라의 고총은 분구를 양적으로 강조한 점에서 목곽묘 단계의 전대 고분과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며, 그렇기에 모종의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음을 강하게 암시한다(이희준 2007: 83). 낙동강 이동지역에서 이러한 변화를 선도한 것이 경주의 적석목곽묘이며, 이는 적석목곽묘가 신라 중심지인 경주에서 왕족과 귀족들을 위한 중요한 묘제였음을 의미한다(崔秉鉉 1992: 113). 무덤 자료에 과거 사회의 조직과 구조에서부터 이데올로기와 세계관까지 반영되어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점에서 적석목곽묘는 신라 사회의 핵심적인 측면들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월성북고분군을 중심으로 하는 적석목곽묘군은 신라 고분 연구의 핵심 자료로써, 신라 고분의 상대편년은 이들을 주된 자료로 하여 거의 안정된 상태를 이루어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이루었다(金斗喆 2011a; 金龍星 2003; 李盛周 1993; 이희준 2007; 최병현 2014a). 그와 동시에 경주의 중앙 양식과 대비되는 지방 양식 또한 규명이 이루어지면서(金元龍 1960; 金龍星 1998; 南翼熙 2009, 2011; 朴光烈 1992; 박천수 2010; 李熙濬 2000a; 조성원 2010), 신라 고분 문화의 시공간적 전개 양상이 점차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또한 시간성의 규명에 뒤이어 1980년대 이래 최병현(1980, 1981)의 연구를 기조로 하여, 지역 단위고분군 내의 계층 규명을 중심으로 사회 구조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고분 자료의 시공간적 전개에 대한 기술을 중심으로 하여 신라 고고학에 큰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 고분과 관련하여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여러 핵심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는 적석목곽묘의 부장품과 유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적석목곽묘에는 수십 점에서 수천 점에 이르는 다종 다양한 유물이 부장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부장품이 부장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부장양상이 어떤 경향을 보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거의 연구된 바 없다.

대표적인 예로 황남대총 남북분에 대한 논의를 들면, 적석목곽묘의 계서를 추적한 여러 연구에서 두 무덤이 동급으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부장품의 수량에 있어서는 수천 점에 이르는 막대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만족할 만한 설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두 고분 피장자의 성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데(김성태 2016; 이주헌 2015), 만약 부장량의 차이가 피장자 성별에 의한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두 고분 간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며, 다른 고분에서는 성별에 의한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전반적인 부장 경향은 어떻게 같고 다르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하였다. 또한 남북분의 차이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부장품 수량의 축소와 연관시키는 견해도 존재하나(崔秉鉉 1992), 남북분의 조성 시간 차이를 고려한다면 매우 급격한 변화로써, 구체적으로 어떤 기종·기물이 어떻게 축소되고 그러한 변화가 적석목곽묘 전반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한 검토되지 못하였다. 이는 사회조직과 구조에 접근할 수 있는 고분 자료가 갖는 잠재력을 생각할 때 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적석목곽묘의 공간적 구성이라 할 수 있는 배치양상에 대해서도, 최근의 쪽샘지구 발굴 성과에 힘입어 전반적인 묘역의 배치와 축조 순서가 점차 드러나고 있지만, 전반적인 무덤 간의 연결 상태와 군집화에 대해서는 묘곽형식의 시간적 변화와 관련하여 주로 언급될 뿐, 서로 연결한 무덤이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군집 배치에 어떠한 경향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현재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그것이 부부관계나 직계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를 반영한다는 것인데, 피장자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한 추론은 드물어 채론의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이 적석목곽묘의 부장품과 고분의 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반적인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토대로 진행되어야 할 고분 축조 집단의 조직과 구성에 대한 연구도 아직은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 구조에 대한 연구는 부장품의 양과 질, 봉토의 크기 등을 종합하여 고분을 등급화하고 위계 구조를 확인하는 방법

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합화란 수직적인 분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간의 수평적인 분화 또한 포괄하는 것이므로, 신라 사회의 조직과 구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이러한 경주지역 적석목곽묘 연구의 한계는 지방의 고총고분과의 비교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간 경주와 지방의 고분은 출토 유물의 양식적 측면을 중심으로 비교되었을 뿐, 부장품의 내적 구성과 유구 배치의 외적 구성이 어떠한지 비교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부장품의 구성이나 유구의 배치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같고 다르며 어떠한 경향을 띠는지 구체적인 비교가 없는 상황에서, 양식적인 상사와 상이가 곧바로 정치적 영역 문제로 환원되는 경우가 많았고 여기에서 신라 고고학의 중요한 논쟁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적석목곽묘를 비롯한 신라 고분은 피장자의 죽음에서 시작된 일련의 장례 의례의 물질적 결과물이자 기념물이므로, 단순히 양식적 비교를 통해서만 경주와 지방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고분의 전체적인 구성이 중앙과 지방에서 어떻게 같고 다른지 비교를 통해 그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요컨대 적석목곽묘의 연구사적 흐름은 편년 연구에서 지역성의 규명을 거쳐 사회 구조에 대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은 적석목곽묘의 부장품과 유구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구성이 경주지역 내적으로 갖는 사회적 의미는 무엇이며 경주지역 외에서 정치적 함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된 바가 많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는 신라 고분의 연구사적 측면에서 볼 때, 고분 문화의 시공간적 전개 과정의 규명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편년의 확보가 최우선이었고, 그 과정에서 개별 고분과 그 출토 유물은 시간성과 지역성, 혹은 정치적 영역을 측정하는 단위로서 주로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고분문화의 시공간적 전개 과정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접근법의 방법론적 타당성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무덤 자료가 과거 사회의 조직과 구성을 밝히고 나아가 사회적 의미에 접근하는 데 유용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그 자료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른 접근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된다.

즉 보다 총합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핵심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무덤의 주인공인 피장자이다. 무덤이 기본적으로 피장자를 위한 시설이며 피장자의 죽음과 함께 무덤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피장자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밝히는 것, 다시 말해서 피장자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무덤을 분류하고 분석하는 방식은 무덤의 제 요소를 분석하고 나아가 그 구성 원리와 방식을 연구하는 데 있어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기존 연구에서도 적석목곽묘의 피장자에 대한 관심이 적지는 않았다. 신라 고분 피장자에 대한 연구는 일제 강점기 보문동 합장분(舊 보문리 부부총) 발굴의 성별 추정에서부터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으며, 김원용(1974)의 논의 이후로 여러 연구자들이 피장자에 대한 다면적 차원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구체적인 신원을 추정하거나, 계서와 신분제도, 혹은 거기서 더 나아가 관위나 관등에 대한 추론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왕릉 비정도 중요하게 다루어져 호우총, 황남대총 등을 대상으로 주인공의 신원 복원 역시 중요한 논쟁 거리가 되어 왔다. 즉 피장자 성별 문제, 계서 규명, 왕릉 비정 등 피장자와 관련된 많은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어, 신라의 중심묘제로써 적석목곽묘 피장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그 초점이 피장자에게 맞추어져 있다기 보다는, 주로 부장품의 양과 질, 유구의 규모를 다루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피장자의 성격을 다룬 경우가 많다. 성별과 관련된 문제는 특정 부장품이 성별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 계서와 관련된 문제는 피장자의 성별이나 직능 등 개별 피장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부장품과 유구의 규모를 중심으로 등급화하여 다룬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로 인해 성별과 계서를 비롯한 피장자 성격의 제 측면이 어떠하며,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상호 결합되어 있는지, 적석목곽묘의 부장품 구성이나 배치와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의 신라 고분 연구에서 피장자의 성격과 관련된 변수는 언제나 분석의 결과였으며, 분석의 시발점이 되어 적극적으로 고분 자료를 해석하는 토대가 되지는 못하였다. 다시 말해 신라 고분의 조묘자들이 피장자의 성격에 따라 그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배치하였으며, 어떠한 부장품을 마련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 적석목곽묘 전반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표현되었고, 무엇이 강조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적석목곽묘의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고 설명하는 데도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적석목곽묘의 전반적인 구성을 검토하고 그 구성 원리와 방식, 나아가 사회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장자를 중심으로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피장자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피장자 성격의 여러 측면을 우선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적석목곽묘의 제 요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접근하는 방식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시도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피장자의 성격 복원에서 시작하여 적석목곽묘의 구성 원리를 밝히고, 그 사회적 함의를 시론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은 피장자가 갖는 다양한 정체성 중에서 무엇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설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구사적으로 주목받아 온 피장자의 성격은 성별과 계서였으며, 각각의 주제는 오랜 연구사를 갖는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이를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지만, 이에 접근하고자 한 기존의 방법론은 한계가 뚜렷하였으므로 대안적인 접근법을 택할 것이다. 성별의 경우 특정한 부장품이 피장자의 성별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는 가정 하에 판단된 경우가 많았는데, 그와 별도로 피장자의 생물학적 차이를 담보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내어 복원할 필요가 있다. 계서의 경우 유물의 양과 종류, 그리고 유구의 크기를 함께 종합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러한 방법론으로 도출되는 것은 피장자의 계서가 아닌 고분 전반의 등급화이며, 결국 앞서 남북분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일 등급에 있는 개별 고분의 변이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고분의 등급이 아니라 피장자의 계서를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변수를 한정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피장자의 성별이나 직능 등 다른 변수를 고려하

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복원된 피장자의 성격 제 측면이 적석 목곽묘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어 있으며, 부장품과 유구가 그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며 어떠한 정형성이 나타나는지 파악할 것이다. 만약 피장자 성격에 따라 적석목곽묘의 특정한 측면이 어떻게 다르게 구성되었는지 파악된다면, 그러한 정형성을 토대로 적석목곽묘의 조묘자들이 피장자들의 무엇을 어떻게 무덤에 표현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사회적 함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표현 방식에 있어서 경주의 적석목곽묘와 낙동강 이동 여러 지방의 고분이 갖는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비교의 과정에서 신라 고분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도 기존의 관점과는 다른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II. 연구 목적과 방법

1. 연구 목적

본고에서는 신라고분 피장자의 성격 복원을 중심으로 적석목곽묘의 구성 원리를 밝히고, 그 사회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피장자의 연구에서 시작하여 논의를 전개하는데, 이는 피장자를 중심으로 무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상세히 검토될 때 비로소 신라 사회의 조직과 구성, 나아가 적석목곽묘의 사회적인 의미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령 성별에 대한 논의를 예로 들면, 피장자의 성별에 따라서 무덤의 내용에 일관적인 차이가 있는지, 혹은 없는지 밝혀진 이후에야 그것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 접근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비로소 성별이 고분 조성에 있어 어떠한 의미와 역할을 가졌는지 논의할 수 있게 된다.

피장자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념적인 차원에서 피장자의 성격 혹은 정체성의 어떠한 측면에 접근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집합적으로 다루는 개념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사회적 인격(social persona) 개념이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정의는 ‘피장자가 살아있을 때의 사회적 정체성과, 죽었을 때 부여할 만하다고 인정된 정체성의 종합’ (Binford 1971: 17)이다. 빈포드는 그 주요한 구성 요소의 예로 성별, 연령, 사회적 지위, 사회 내 특정 집단의 귀속 여부 등을 들었으며, 이에 따라서 무덤의 축조와 부장품, 그리고 장례 의례가 직접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물론 이는 오늘날 무덤 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지나치게 단순화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후기과정주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이후의 비판에서 잘 드러나듯, 무덤은 피장자와 당시 사회를 직접적으로 단순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인격 개념은 그 배후의 역할이론(role theory)이 갖는 수동성으로 인해 비판받았다(Shanks and Tilley 1987). 때문에 최근 영미권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의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을 많이 사용한다(Insoll 2007; Stone 2003).¹⁾ 사회적 정체성은 젠더, 출신 지역이나 중

족적 정체성, 그리고 정치적 정체성(특정 정치체 또는 국가의 소속 여부) 등을 모두 포괄하는 매우 넓은 개념으로, 그 전반을 본고에서 다루는 것은 어렵고, 연구 목적과 방법에 적합한 일부 요소를 선택하여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된다.

신라 고분 연구에서는 사회적 인격 개념을 인용한 경우가 많은데, 김용성(1998: 33)이 이론적 차원에서 간략히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이희준(2002: 68)이 착장위세품을 통해 피장자 계서와 복식제도에 대해 다루면서 고찰의 대상으로써 그 필요성을 논한 바 있고, 최병현(2017a) 또한 피장자의 계서의 측면과 관련하여 사회적 인격과 복식품의 관계에 대해 천착한 바 있다. 이처럼 신라고고학에서는 사회적 인격의 개념이 사용되었지만 주로 계서 연구와 연관되어 다소 제한적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으며, 한국 고고학계에서 널리 통용되고 쉽게 인식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도 하므로,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 인격 대신에 신라 고고학에서 주로 이용되는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피장자의 여러 정체성 중 무엇을 검토할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라 고분 피장자의 여러 정체성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모든 측면을 다 다루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연구사적 상황과 현 자료에서의 접근 가능성을 검토하여 검토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된다. 신라 고분 연구에서 연구사적으로 주목받아 온 피장자의 성격은 성별과 계서로써, 그 이유는 이 두 가지 측면이 고분 자료를 통해 사회 구조와 성격을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그 중요성과 다양한 접근 시도에도 불구하고 성별과 계서 연구는 아직까지 한계가 크다. 성별의 경우 착장 이식의 종류, 대도의 착장

1) 피장자의 성격 내지는 정체성을 다루는 다른 개념으로는 한 인물의 삶과 죽음의 여러 과정 중에서 사회적 실천을 통해 변화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인격성(personhood) 개념(Fowler 2004), 그리고 젠더를 중심으로 중간범주적 복합성을 강조하여 젠더, 연령, 계층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계된 것을 강조하는 교차성(intersectionality) 개념 등이 있다(Arnold 2016). 이러한 개념 또한 유용하고 참고가 되겠지만, 지역집단의 고분 전반에 나타나는 경향성에 접근하고자 하는 본고의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여부 등 특정 유물을 토대로 추정되었지만 성별에 관한 현대적 관점에 기반한 간접적인 추정에 기반한 것으로 이를 분명히 입증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계서의 경우에는 유물의 양, 종류, 그리고 유구의 크기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연구들이 많았는데 그 결과는 피장자의 계서라기보다는 고분의 등급이라 할 수 있어, 고분 간 변이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성별과 계서를 분리하여 검토하였는데, 무덤의 구성은 피장자의 성별, 연령, 계층, 지위, 직능 등 여러 측면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은 피장자 연구에 한계를 가진다. 즉 지금까지 성별과 계서는 신라 고분 피장자 연구의 중요 대상이었지만 방법론적 한계가 크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면적이면서도 복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피장자의 성별, 계서, 직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고분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피장자 성격’을 이용하고자 한다. 즉 본고의 첫 번째 연구 목적은 신라 고분 자료를 분석하여 피장자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시작하여 복원된 피장자의 성격 제 측면이 적석목곽묘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 파악할 것이다. 만약 피장자 성격에 따라 적석목곽묘의 특정한 측면이 어떻게 다르게 구성되었는지 일정한 정형성이 파악된다면, 이를 토대로 적석목곽묘의 조묘자들이 피장자들의 무엇을 어떻게 무덤에 표현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사회적 함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표현 방식에 있어서 경주의 적석목곽묘와 낙동강 이동 여러 지방의 고분이 갖는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비교의 과정에서 신라 고분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도 기존의 관점과는 다른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무덤이 개인 혹은 사회의 직접적이고 수동적인 반영물이 아니라는 점이다(Chapman and Randsborg 1981; Hodder 1980; O’ Shea 1981; Parker-Pearson 1982, 1999). 무덤의 제 요소가 피장자의 성격을 일정 부분 반영할 가능성은 높지만, 종교적, 사회적, 이념적 요인 또한

다양한 차원에서 복잡하게 개재되며(김종일 2007; Carr 1995), 장례의례의 맥락 하에서 최종적으로 조묘자의 선택을 거친 것들만 물질적 잔존물로 남게 된다.²⁾

따라서 본고에서는 무덤의 시작이자 핵심 요소는 피장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피장자의 성격을 토대로 적석목곽묘 자료를 분석할 것이지만, 이처럼 무덤은 사회와 개인의 간접적인 반영물이자, 조묘자의 의사결정과 선별행위의 결과물임을 염두에 두고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에 따라서 개별 유물과 유구에서 관찰되는 고고학적 특징을 즉물적으로 피장자와 당시 사회의 특징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여러 무덤에서 피장자의 성격 제 측면과 유물·유구의 구성 사이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일관성과 정형성, 반복적인 선택을 찾도록 시도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 신라 고분이 어떠한 선택의 조합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종합함으로써 그 구성 방식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하여 적석목곽묘를 비롯한 신라 고분의 사회적 함의를 추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상을 정리하자면, 피장자의 성격에 대한 규명이 선결되어야 그를 바탕으로 유물과 유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할 수 있으며, 다시 이를 토대로 적석목곽묘의 구성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회적 의미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고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다.

첫째는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격을 복원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요소가 포함될 것이지만, 연구 진행의 차원에서 가장 긴요한 두 가지는 피장자의 성별과 계서이기 때문에 이들을 우선적으로 다룰 필요성이 있다. 그

2) 즉 무덤 자료는 피장자, 그리고 장례 의례의 물질적인 측면과 이념, 종교, 사후관 등 여러 유형 무형의 요소를 반영하지만, 어디까지나 조묘자에 의해 의도적 선택을 거친 것만 무덤에 남게 되므로, 고고학자는 그에 대한 복원 작업을 조묘자의 의도와 선택이라는 한계 내에서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소위 ‘의도성의 문제(the problem of intentionality)’이며 무덤 자료를 연구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Härke 1997a). 하지만 반대의 측면에서 볼 때, 만약 다수의 무덤에서 일정한 정형성이 나타난다면, 조묘자의 선택과 행위를 일정하게 조정하였던 사회적 함의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무덤 해석의 토대로 삼을 수도 있게 된다.

리고 성별에 의한 구분과 계서에 의한 구분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사회 조직 내에서 개별 무덤의 피장자가 지녔던 좌표를 보다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적석목곽묘에서는 인골 자료가 희소하기 때문에, 피장자의 성별에 직접적으로 접근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 본고의 주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 피장자 성격에는 성별과 계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사적 검토 과정에서 다른 요소를 추출하여 함께 다루도록 할 것이다.

둘째는 복원된 피장자의 성격을 바탕으로 적석목곽묘의 구성 방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크게 나누어 유물과 유구의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유물의 경우 위세품, 토기와 철기를 비롯한 제 부장품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적석목곽묘의 경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부장 유물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이러한 유물이 피장자가 갖는 성격의 어떤 측면에 따라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패턴과 경향성을 보이는지 파악 가능할 것이다. 또한 유구에 대해서도 피장자에 따라 유구의 형태와 배치 양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고분군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도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적석목곽묘 전반을 관통하는 어떠한 정형성이 존재하는지, 혹은 존재하지 않는지 인지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함의는 무엇인지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낙동강 이동각지의 고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하여 경주의 적석목곽묘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이상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적석목곽묘를 비롯한 신라 고분 축조 집단의 조직과 구성에 대해 시론적으로 논의하는 것이다. 피장자 성격의 구성과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 적석목곽묘와 낙동강 이동각지의 다른 묘제를 갖는 고분 간에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한다면 그 정치·사회적 함의에 대해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신라 고분은 단순한 무덤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기념물이기 때문에(李熙濬 1996a), 그 구성 방식의 공유 양상에 따라 기존에 논의되던 유물의 양식론과는 다른 관점에

서 정치적, 사회적 함의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피장자의 성격에 따라 어떻게 적석목곽묘의 유물이 구성되고 유구가 배치되는지 파악한다면, 그리고 그 구성 방식에 접근할 수 있다면 신라 고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크게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라 사회의 조직과 구조에 대해서도 새로운 측면에서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절에서는 본격적인 논지 전개에 앞서 본 연구의 토대가 되는 기존의 연구 성과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

2. 연구사 검토

신라 고분 연구 전반에 있어서 피장자의 성격 중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은 그 여러 측면 중에서 특히 계서와 성별이다. 이번 절에서는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계서와 성별을 다룬 연구를 각각 정리하고, 그 방법론적 특징과 의의, 그리고 한계에 대해 검토하여 본 연구의 분석 방향을 설정하도록 한다.

1)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계서

적석목곽묘를 대상으로 한 피장자의 계서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부장품 전반의 종류와 구성, 유구의 크기와 구조, 봉토의 크기 등을 통해 사회적 위계와 계층화 분석에 집중하였다. 피장자의 계서에 대한 연구사를 일별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피장자 계서 분석에서 방법론적으로 큰 진전을 이룬 연구로는 최병현(1980, 198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 이전의 연구가 특정 유물의 부장 여부와 같은 단편적인 접근을 통해 피장자의 사회적 지위를 추론하는 방식의 접근을 시도하였다면, 최병현의 연구는 유구 형태와 위세품, 그리고 다른 유물의 전반적인 부장양상을 연계하여 계층과 직능의 분화를 설명하고자 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시간적 변화와 관련하여 인식해 온 유구 간 연결 방식을 墓型 개념의 도입을 통해 계층성과 연결지은 것은, 모든 물질 자료의 변화상을 편년 일변도로 생각해 온 기존의 통념을 깬 것이었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접근하되, 착장형 위세품을 보다 중심에 놓고 계층 분화를 설명하고자 한 毛利光俊彦(1983)의 연구 또한, 그 구성에 있어서 일정한 규칙성을 찾고 복식제도와 같은 제도적 장치와 연결지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기서 제시된 위세품의 재질에 의한 등급 설정, 그리고 관모와 대장식구, 요패 등의 조합관계를 통한 계서 설정은 이후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70년대 이후 월성북고분군에서 적석목곽묘의 조사 사례가 급증하면서, 계서 분석에 있어 점차 많은 숫자의 고분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볼 수 있는 것이 Pearson 등(1989)에 의한 통계적 분석이다. 이 연구에서는 월성북고분군의 고분 62기에 대해, 토기를 제외한 금은제 장신구와 마구, 무기류, 철기류의 출토 여부를 이분변수화하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장품의 유무에 따라 5개 군집이 산출되었고, 이를 왕족과 귀족 내 분화된 지위집단으로 보고 이후 골품제도로 연결되는 계급체계(caste-like rank system)로 이해하였다. 통계적인 분석 결과를 곧바로 사회 내의 집단과 연결시키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는 접근이지만, 대량의 자료 처리를 통계적 방법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격적으로 신라 사회의 구조에 접근하고자 한 박보현(1995)의 연구에서도 방법론적 진전이 이루어지는데, 그간 장신구로 다루어지던 관류와 과대, 장식대도 등에 경제인류학의 위세품

여기서 더욱 발전된 이희준(2002)의 연구는, 적석목곽묘와 지방의 고분에서 출토되는 위세품의 착장에 있어 공반관계에 일정한 정형성이 있음을 밝혔다. 각각의 착장위세품이 임의로 결집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위계로 가면서 다른 종류의 위세품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파악한 것이다. 그리고 그 누층적이고 단층적인 착장 양상을 통해 수직적인 복식군을 구별하고 복식제도를 추론하였다. 즉 착장위세품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단순히 지위의 고저 판별을 넘어서 사회적, 정치적 함의까지 살펴본 것이다.

이상의 연구사에서 피장자 계서에 대한 분석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는 최병현(1981)의 연구가 예증하듯, 기존에는 시간성과 관련하여 생각하여 온 변수가 피장자의 계서를 비롯한 다른 측면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적석목곽묘에서 이식과 관모의 등장 시점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피장자와 관련한 모든 고고학적 변

수가 특정 시점에 일거에 완성되었으리라 볼 수는 없고, 점차 여러 요소가 추가되면서 완성되어 갔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에는 그 등장 순서를 통해 편년과 관련한 것으로 보았던 변수들이, 관점을 달리해서 본다면 최병현의 묘형 개념의 적용에서 본 바와 같이 시간성이 아니라 피장자의 성격과 관련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적석목곽묘의 여러 변수를 다루는 데 있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어떤 패턴을 찾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는 Pearson 등(1989)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대량의 적석목곽묘 자료를 다루기 위해서는 통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 세기 동안 축적된 적석목곽묘 자료는 이제 양적으로 방대해져서, 단순한 표 분석을 통해 어떤 패턴을 찾기에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간의 연구가 공통적으로 토기의 기종이나 수량 분석을 미루어 온 것도, 구성이 다양하고 대량인 자료에 대한 분석 방법론이 부족하였음을 시사한다.

셋째는 앞서 언급한 다른 연구, 그리고 박보현(1995)과 이희준(2002)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듯, 적석목곽묘에서 출토된 위세품이 피장자의 성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다. 또한 위세품 중에서도 피장자의 신체에 착장한 위세품이, 연구사적 진전을 통해 드러났듯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출토 장신구 전부가 복식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부장하지 않고 착장한 것이야말로 피장자의 생전 복식을 잘 반영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 다시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실제로 신라 고분에서는 착장이 가능함에도 굳이 착장하지 않고 부장한 사례가 자주 확인된다. 적석목곽묘에서는 금속제 모관처럼 반드시 비착장 부장하는 것이 규칙적으로 지켜지는 종류도 있지만, 대도의 경우 착장 가능한 위치가 비어있음에도 착장하지 않고 부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피장자 생전의 복식과 복식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행위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나아가 피장자의 소유물이 아닌 것을 착장시키는 행위가 장례 규범 상 제한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착장위세품은 피장자의 소유물 또는 생전의 복식 등, 피장자의 성격과 깊게 연관된 유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착장위세품은 분석 방법에 따라 피

장자의 성격 여러 측면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방법론과 관련하여 기존의 계서와 관련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출토 유물 전반을 종합하여 그 질과 양으로 계서를 설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피장자의 착장위세품의 구성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전자의 경우는 엄밀히 말하자면 피장자의 계서가 아닌 고분 전반 등급에 대한 판단이라 할 수 있는데,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겠으나 개별 고분의 변이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착장위세품에 의한 계서와 부장품의 수량 및 종류에 의한 계서가 서로 다른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는 착장위세품을 중심으로 보다 일관적인 설명을 제공하지만, 그러한 계서가 무덤의 다른 부분과 어떠한 상관을 갖는지는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장자의 성별이나 직능과 같이 복식, 즉 착장위세품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고려하지 않고 단지 계서만을 추적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이성주 2017).

따라서 피장자의 계서와 관련하여 착장위세품이 유효한 접근 수단임은 분명하지만, 이를 통하여 계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신라 고분의 구성을 검토한다고 할 때, 앞서 언급된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착장위세품의 구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피장자 성격의 다른 측면을 먼저 검토하여 그것이 착장위세품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이후 해당 변수를 고려한 상태에서 피장자의 계서를 확인한 다음에 무덤의 다른 부분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때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에서는 피장자 성격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성별에 대한 연구사를 살펴보도록 한다.

2)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별

적석목곽묘를 비롯한 신라 고분 피장자의 성별 추정의 연구사는 김용성(1998: 362-363)과 김선주(2010)에 의해 이미 세밀하게 정리된 바 있다. 그러

므로 여기에서는 기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한다기 보다는, 성별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추정의 근거와 논리, 그리고 최근의 연구사례에 대해서 보충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신라 고분 피장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최초의 성별 추정은 1915년 보문동 합장분(舊 보문리 부부총) 발굴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부총이라는 명칭은 최초에 외견상 표형분이기 때문에 붙인 것으로 보이며(國立中央博物館 2011: 26), 조사 과정에서 적석목곽묘에서 출토된 대도와 석실에서 출토된 화려한 태환이식을 근거로, 다시금 각각을 부부로 추정(朝鮮總督府 1916)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신라 고분 조사의 아주 이른 시기에서부터 피장자의 성별 추정이 시도되었으며, 그 근거로 대도와 이식, 그리고 봉토의 연결 상태(표형분)가 근거로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시각은 이후 100년 가까이 큰 변화없이 지속되며, 신라 고분 연구에서 성별 추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표형분을 부부묘로 가정하고 피장자 중 하나를 남성, 다른 하나를 여성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특정 유물, 특히 대도에 남성성을 부여하고 해당 유물의 부장 또는 착장 여부를 통해 성별을 판단하는 것이다.

부장품을 통한 성별 추정의 주된 논리는 부장품이 피장자의 성별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고 보고 그 부장, 혹은 착장 여부로 성별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특정 유물을 젠더화된 사물(gendered object)로 판단하고 그 착장 혹은 부장 여부로 성별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유물이 대도로써, 대도의 유무를 통해 성별을 구분하는 방식은 보문리 부부총에 이어 금령총(梅原末治 1931)에서도 계속되고, 호우총과 은령총(金載元 1948), 노서리 138호분(金載元·金元龍 1955), 황오리 1호분(金元龍 1965) 등 일제 강점기 이후의 연구에서도 이어져 최근까지도 큰 반론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이한상 2004). 주목해야 할 점은 김원용(1974: 17)에 의해 제시되고 이후 널리 받아들여진, 이식의 주환 종류와 성별이 대응한다는 가설도, 기실은 세환이식 착장과 대도 부장의 강한 공반관계를 간파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제안된 것으로,³⁾ 그 중심 논리는 역시 대도와 남성을

연관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윤무병(1974) 또한 관식이 출토된 고분을 남성묘로 볼 수 있다 하였는데, 마찬가지로 관식과 대도의 공반관계를 근거로 이뤄진 추정이었다. 이처럼 칼의 남성성에 주목하여 성별 추정이 이뤄진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방추차에는 여성성을 부여하여 출토 여부가 곧 여성으로 판단되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는데(金載元 1948; 朴永福 1977; 崔秉鉉 1981), 이는 신라 사회에서 직조는 여성이 담당하였다는 사서의 기록을 근거로 하였다.⁴⁾

이처럼 봉토의 연결과 젠더화한 유물의 부장 여부를 통해 성별을 추정하는 방법론은 신라 고분 연구의 초창기에 제시된 이후 다소간 변용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연구자들이 대체로 같은 연구 방법론을 따랐으며, 그 기본 논리에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유물에 남성성 혹은 여성성을 부여할 것이냐의 문제는 연구자마다 달랐고,⁵⁾ 남성성과 여성성을 지닌 유물이 동시에 출토되는 경우에는 성별 추정이 곤란하였다.⁶⁾

이러한 상황에서 세환이식 착장자는 남성, 태환이식 착장자는 여성이라는 가설(이하 이식-성별 가설)은 최초 제시 이후 점차 지지를 얻게 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세환이식과 태환이식은 결코 공반되지 않고 상호 배타적으로 출토되는 동시에, 세환이식은 대도와 공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둘째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황남대총 남·북분, 황오동 14호분 1·2곽과 같은 표형분에서 세환이식과 태환이식이 짝

3) 본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 有刀者로서 細鑲金耳飾을 차고 있는 것은 10例인데 대해 太鑲耳飾佩用은 3例에 불과하다. 또 無刀者로서 細鑲耳飾은 2例뿐이나 太鑲耳飾은 3例이다. (중략)...慶州에서는 男子는 주로 細鑲式, 女子는 주로 太鑲式을 쓰고 있었다고 믿어진다.”

4) 三國史記 新羅本紀 儒理尼師今 九年條, “...使王女二人 各率部內女子 分朋造黨 自秋七月既望 每日早集大部之庭績麻 乙夜而罷...”

5) 김원용과 윤무병의 견해 차이에서 보듯, 기본적으로 대도가 남성성을 갖는다는 전제는 암묵적으로 동의한다 하여도 대도와 주요한 공반관계를 갖는 표지유물을 세환이식으로 볼 것이냐, 관식으로 볼 것이냐는 의견이 나뉘었다. 이와 유사한 차이가 많은 연구자들에게서 나타나며, 대도, 이식의 주환 종류, 관·관식의 부장, 요패의 위치, 방추차의 부장 여부 등 여러 안이 제시되었다.

6) 이러한 문제는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가령 금관총에서는 태환이식과 갑주가 공반하여 기존 방법론으로는 성별 판단이 곤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을 이루며 출토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체로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식-성별 가설은 표형분을 부부묘로 본 관점과 대도 착장은 남성으로 본 관점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인골의 출토가 희소하여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점차 널리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 과정을 보면 최초 제안에서부터 박보현(1990)의 연구까지는 경주지역 적석목곽분에서만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여 지역적 한계를 두었지만, 김용성(1998)은 세환이식-대도 / 태환이식의 배타적 공반관계를 낙동강 이동 전역에서 확인하고 직능 또는 성별의 차이일 것이지만 후자에 중점을 두어 해석하였다. 복식품 착장 정형을 종합한 이희준(2002) 또한 이식의 차이가 직능 또는 성별의 차이일 것이지만, 이식을 착장한 아동의 경우 사회적 직능의 담당을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역시 성별의 차이로 보았다. 이후로 이식-성별 가설은 널리 적용되어, 계림로 14호묘(尹相憲 2010), (구)보문리부부총(朴普鉉 2000) 및 합장분으로 재명명(尹相憲 2011) 등에서 성별 판단의 근거로 사용되었다.

이식-성별 가설이 이처럼 널리 지지를 받는 이유는, 세환이식과 태환이식이 갖는 특수한 배타적 맥락에 있을 것이다. 양자는 결코 공반되지 않는 동시에 표형분의 두 피장자에서 쌍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 인골 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피장자의 성별을 찾고자 한다면, 신라 고분의 특정 물질자료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피장자 성별에 의해 이원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을 것으로 전제하여야 한다. 이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남녀 성별과 같이 대립적이고 배타적인 관계를 갖는 가장 명확한 물질자료가 바로 이식의 주환이기 때문에, 이를 성별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식-성별 가설은 특정 이식과 생물학적 성별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맥락 하에 있는지 전반적인 검증을 거친 적이 없다는 것이다.

2010년대 이후 최근의 성별 관련 논의는 특정 고분 피장자의 성별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그 과정에서 기존에 제시되었던 성별 관련 근거들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주요 쟁점은 황남대총 북분, 그리고 금관총의 피장자 성별이다. 먼저 황남대총 북분을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면, 이주헌(2015)은 북분 피장자를 여성으로 보았던 여러 근거들, 가령 ‘夫人帶’ 명 과대, 대도의 미착장과 태환이식의 착장, 방추차

부장 등을 논박하고, 표형분을 부부묘로 보고 성별을 추정하는 것이나 유물을 통한 성별 추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표형분을 3대에 걸친 성공적인 권력승계의 증거로 판단하여 남북분을 각각 눌지마립간과 자비마립간의 능으로 추정하였다. 비록 정치적 상황을 정황적 근거로 들고 있어 간접적인 추정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기존 관점의 비판이라는 점에서 크게 고무적이다. 한편 김성태(2016)는 이에 반박하면서, 다시금 방추차, ‘夫人帶’ 명 과대, 무기류의 출토 양상 등 전통적인 성별 추정의 근거들을 점검하고, 가체(加髭), 흑갈유소병 등을 새로운 보완 자료로 제시하면서 북분 피장자가 여성임을 주장하였다.

이 두 연구는 특정 사례에 대해 깊이 천착하였다는 점에서 주로 일반 경향을 다룬 연구와 다소 다르며, 그 과정에서 성별 추정 논의의 깊이와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추정의 근거를 고분자료 이외의 정황에서 끌어올 수밖에 없거나, 논증의 방식 자체는 기존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인골 자료가 영성한 현시점의 한계를 보여주며 방법론적 돌파구가 절실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 윤상덕(2016)의 금관총 피장자 성별 추정은, 적석목곽묘 피장자군 ‘집단’을 대상으로 판별분석을 비롯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여 성별 구분으로 볼 수 있는 경향을 추출하고 그 안에서 금관총 피장자의 성별을 추론하였다는 점에서 다소 다르다. 이는 개별 사례의 해명을 넘어서 전체적 설명의 맥락 내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착장유물의 부장 경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추정하고자 한 것은 결국 금관총 피장자의 착장 이식이 어느 종류인가였고, 그에 따라 성별을 결정하였다는 점에서,⁷⁾ 기본적인 전제는 기존 관점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7) 금관총과 같은 경우, 착장 위세품의 부장경향은 다른 태환이식 착장 고분과 유사하나, 갑주나 마구의 부장양상은 세환이식 착장 고분과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 과정에서 대상으로 설정한 변수의 숫자가 세환이식과 더 공반 경향이 큰 유물인 무구나 마구류 쪽이 많다면, 판별분석이나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세환이식 착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윤상덕의 분석 결과는 세환이식 착장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태환이식과 공반 경향이 큰 유물인 중공구수식, 지환, 천 등을 변수를 추가하였다면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서 금관총 피장자의 성별을 여성으로 보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이 경향성 분석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세환이식과 태환이식이 성별과 일대일로 대응한다는 가설은 외부적 증거를 통해 검증된 바 없다.

한편 표형분도 성별 추정의 보조적인 근거로 활용되었는데, 표형분이 부부묘라고 전제한다면 연결된 두 무덤 중 하나는 남성, 다른 하나는 여성이라고 한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모든 표형분을 부부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金善珠 2002; 이주현 2015; 趙由典 1989), 최근에는 특히 남북으로 연결된 표형분의 경우에 한정하여서는 부부묘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최병현 2017a).

표형분이 부부관계를 의미한다는 시각은 부부총 발굴에서 제시된 이래 이후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곧이어 봉토의 연결이 부모-자식관계를 포함한 가족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외연을 확장한 시각이 등장한다. 봉토의 연결을 세대에 걸친 가족관계로 본 해석은 황남동 109호분 1~4곽의 해석에서부터 시작하며(齊藤忠 1937a), 이후 경주지역의 다장묘는 가족묘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박진욱 1964; 金基雄 1970; 李仁淑 1974). 그러나 박보현(1990)의 논의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피장자의 성별 구성(이식)과 연령(묘곽의 크기), 시기차를 검토한 결과 다장묘가 혈연에 원리를 둔 가족묘가 아니라 특정 집단이 연속적으로 축조한 무덤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김용성(1998)은 임당 유적 고총군 피장자 집단의 성별 추정과 봉토의 연결관계, 편년을 종합하여, 고총군이 부계를 중심으로 한 부모자식으로 이루어진 기본가족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고, 신라 사회의 기본단위 또한 마찬가지로 보았다. 한편 이와는 다소 다른 관점에서, 가족묘의 등장을 국가성립기에 국가 통제력이 강화된 결과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으며, 박순발(2000)은 황남동 109호분과 같은 가족묘의 등장을 씨족단위의 사회편제가 해체되고 ‘編戶齊民’을 통해 국가 통제력이 강화된 결과, 가족이 사회 기본단위로 보편화되면서 그것이 무덤의 축조에도 반영되었다고 해석하였다.

이상을 정리하자면, 표형분의 해석에서 가족묘에 대한 논의의 확장에서

의 한계라 할 수 있으며, 부장경향이 아닌 다른 독립변수를 통해 성별추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보듯 피장자의 성별 문제는 단지 개별 무덤의 해석 문제가 아니라, 고분의 배치 방식에서부터 멀리는 사회 구조의 해석까지 관련된 문제이기에 이에 대한 적절한 논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의 잠정적인 성별 추정안인 이식-성별 가설의 논리적 근간은 대도와 남성성을 연계하여, 대도라는 유물을 젠더화하고 그 부장 여부에 따라 성별을 판단한 데 있다. 그러나 칼과 남성성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현대의 특정한 관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가정이 어디까지 통용될 수 있는지는 근본적인 문제로 남는다(Arnold 2016). 신라 사회의 부장관습에서 대도와 성별 또는 젠더가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으며, 따라서 우리의 선입견일지도 모르는 인식이 과거 무덤 자료의 해석에 근거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칼과 남성성이 연관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연관이 삶과 죽음 모든 맥락에서, 시대와 지역과 사회에 상관없이 같은 방식으로 젠더화한다고 보는 관점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이다.⁸⁾

마찬가지로 표형분을 부부묘로 파악하는 것이나 봉토의 연접을 가족묘로 해석하는 것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부부 공동매장의 장례개념이나 핵가족적 가족구성이 시대와 지역에 상관없이 과거 사회에서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신라 사회의 조묘자들이 장례 의례의 맥락 안에서 특정 유물과 피장자의 성별을 어떻게 연관지었는지, 그리고 무덤의 배치관계에서 표현하고자 하였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현대의 선입견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인골을 토대로 한 피장자 검토 사례를 살펴보면, 표형분인 경산 임당 G5, 6호의 경우나, 동일 석관 내 합장인 일본 나라현 후지노키 고분의 경우, 배치관계를 통해서는 남녀 피장자의 연접 혹은 합장으로 여겨

8) 이처럼 모든 사물이 모든 시대와 지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젠더화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칼은 남성적이고 장신구는 여성적이라는 젠더화된 사물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를 완전히 폐기하자는 식의 논의가 아니라, 이러한 유물들이 어떠한 맥락적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이다(쓰렌센 2014: 148). 대도나 방추차와 같은 유물이 실제로 검증된 피장자의 성별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지 점검한 다음에야 이후의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이상 사상누각의 논의에 불과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졌으나, 인골의 분석을 통해서는 모두 남성 2인의 매장으로 밝혀졌다(김재현 등 2001; 池田・片山 1994; 片山 2013). 경산 임당 유적 고총군에 대해서도 가족묘로 본 해석이 있으나, 피장자 집단의 mtDNA 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바 적어도 핵가족적 가족구성이 무덤배치에 반영된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이준정 외 2008). 따라서 선입견을 배제한 상태에서 고분 자료를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별 추정 연구사 검토를 통해서, 본고의 진행 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과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잠정 가설인 이식-성별 가설이 타당한 설명력을 지니고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⁹⁾ 그리고 만약 그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현대의 문화적 선입견과는 무관한 자료를 근거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 피장자의 생물학적 성별을 높은 정도로 반영하는 자료를 찾아 성별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성별이 피장자 성격의 하나로써 적석목곽묘 전반의 구성에 어떤 변수가 되는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착장 이식이 성별과 무관한 것이라면, 이식의 종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세환 이식과 태환이식은 완전히 배타적인 착장 양상을 보이고, 등자를 비롯한 적어도 일부 부장품은 차별적인 부장 양상을 보이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하대룡 2016). 따라서 성별과 무관하다 하여도 다른 종류의 피장자 성격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여전히 주요한 분석의 대상으로 둘 필요가 있다.

이처럼 연구사적 검토를 바탕으로 현 단계에서 신라 고분 피장자의 성격을 설정하면 첫째는 계서이고, 둘째는 성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성별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착장 이식 또한 피장자 성격과 관련된

9) 경산 지역의 고총군의 인골 자료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검토에서 이미 이식-성별 가설에 일부 한계가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이준정 외 2008). 본고에서는 신라권 전반의 인골 자료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장에서 보는 바와 같다.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¹⁰⁾ 본고에서는 피장자 성격의 측면 중에서도 이와 같은 측면을 중심으로, 부장품의 구성과 유구의 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하여 신라 고분의 조성 방식을 이해하고 그 함의에 대해 논할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이론적 바탕이 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한다.

10) 이 외에도 연령과 같은 변수 또한 피장자의 성격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하지만 신라 고분에서 기본적으로 영유아와 같은 특정한 연령대는 옹관묘라는 별도의 묘제를 사용하고, 적석목곽묘에는 일정 연령 이상의 피장자가 안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특정한 연령대에 도달해야 성인용의 묘제에 매장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을 뜻하며, 연령과 성원권(membership), 그리고 묘제가 연동하는 체계가 존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의 주요 목적이 부장양상을 비롯한 고분 구성의 규명에 있으므로, 부장품이 적어 해당 분석이 어려운 옹관묘는 분석 범주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적석목곽묘 피장자라 하더라도 청소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 범주가 있을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인골 자료의 부재로 인해 접근에 명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령의 측면은 금령총과 같은 소수의 아동 피장자에 대해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밖에 다룰 수 없음을 미리 언급해 두고자 한다.

3.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앞서 설정한 피장자의 성격 제 측면을 확인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적석목곽묘의 구성 원리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이는 착장 위세품과 마구, 토기, 철기에 이르는 각종 부장품과, 연접과 군집화 등 유구의 공간적 배치 등 여러 단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이러한 양상이 서로 다른 계층 및 시대에 따라, 그리고 중앙과 지방에서 어떻게 같고 다른지에 대해 검토하고 그 사회적 함의에 대해서도 시론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과 사회가 무덤에 어떻게 반영되고 그 부장품은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 나아가 무덤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본고에서 실시될 작업에서는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피장자와 무덤이 갖는 관계, 그리고 부장품의 구성과 의미에 대해서 각각 사안을 나누어 살펴보고 본고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한다.

1) 피장자와 무덤

무덤이 기본적으로 피장자를 위한 시설이므로 거기에는 피장자의 정체성이 적어도 일정 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결국 무덤을 만드는 것은 조묘자이므로 무덤을 만드는 과정과 결과물이 단순하게 결정되지는 않는다. 여기에는 복수의 주체가 복잡하게 관여하기에 수많은 변수와 예외가 있고, 이념과 세계관, 사후관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기도 하다. 따라서 피장자의 성격이 무덤에 적어도 일정 부분 반영될 것이라 본다면 다른 종류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즉 피장자의 성격이 어느 정도, 어떠한 과정을 거쳐 무덤에 반영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더 넓은 틀에서 무덤은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론적, 학사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피장자와 무덤 간의 관계에 대해 학사적으로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본고의 시각을 정리하였다.

주지하다시피 고고학에서 무덤 자료는 과거 사회의 조직과 구조에서부

터 이데올로기와 세계관까지 반영하는 자료이다(김승옥 2001; Carr 1995). 과정주의 고고학자들은 무덤 자료의 여러 측면이 피장자의 사회적 인격을 반영한다는 관점 하에서(Binford 1971; Goodenough 1965), 무덤의 크기나 부장품의 양과 질을 통해 위계와 같은 사회 조직의 복원 측면에서 무덤 자료에 접근하였다(Goldstein 1981; O'Shea 1984; Peebles and Kus 1977; Shennan 1975; Tainter 1975). 이러한 연구는 무덤이 피장자의 역할과 지위, 부는 물론, 사회의 조직과 구조를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은 장례 잔존물의 이질성(heterogeneity) 정도가 사회조직의 복잡도와 정비례할 것이라는 언급에서 잘 드러나며(Binford 1971, Saxe 1970),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족지적 자료가 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무덤이 사회와 개인의 다양한 측면들을 일률적으로, 직접적으로 반영한다기 보다는 무덤을 만든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와 실재를 재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창조한 구성물이라는 관점이 대두되었다(Hodder 1980; Parker-Pearson 1982, 1993, 1999). 이러한 후기과정주의 관점에 따르면 무덤은 생전의 직접적인 반영물이 아니라 조묘자(造墓者)¹¹⁾의 의도에 따라 만들어진 사회적 행위의 매개물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사회의 해석에 적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결론에 가깝게 된다. 가령 Kamp(1998)의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덤에서 실제로 관찰되는 사회적 지위의 다양성이 매우 큰 이유는 고고학자가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위계가 아니라 사회

11) 영미권에서는 피장자(the dead)와 대비하여 살아있는 사람들(the living)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대로 번역할 경우 특정성이 희박해지기 때문에 한국 고고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인 조묘자를 사용하였다. 부연하자면 본고에서 조묘자는 말 그대로 무덤의 축조를 담당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피장자의 죽음에서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무덤이 만들어지게 되는 일련의 장례의례와 의사결정을 총괄하는 개인 혹은 집단을 뜻한다. 무덤의 입지와 형태, 부장품의 양과 질 등 무덤 전반의 구성이 모두 조묘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겠으나, 그 선택 또한 해당 사회가 갖는 규범과 질서를 바탕에 둔 것이기에 조묘자 임의에 의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합의나 규범에 따라 장례의례의 단계마다 다른 조묘자가 절차를 주도할 수도 있고, 장례 이후의 무덤 관리나 의례를 주도하는 인물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 성격의 조묘자가 사회적 규범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각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하고 행위하였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적 경쟁이기 때문일 수 있다.

이처럼 무덤이 피장자와 사회의 여러 측면을 실제에 가깝게 반영한다는 관점과, 조묘자에 의해 재구성 혹은 재창조를 거치기 때문에 단순하고 직접적인 재현물이 아니라는 두 관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여러 연구들이 이러한 두 가지 관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양자택일적 입장에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적석목곽묘 혹은 석실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주로 전자의 입장에서, 부장품 전반의 종류와 구성(최수형 2013), 유구의 크기(최병현 2012a)와 구조(權龍大 2009), 봉토의 크기(윤상덕 2014) 등을 통해 사회적 위계와 계층화 분석에 집중하였다. 이는 주로 이전 시기에 비한 사회복합화의 심화나 국가 형성을 전제에 두고 위계화의 심화 관련 증거를 찾으려는 노력과 일정 정도 맞닿아 있다. 하지만 피장자의 성별과 직능과 같이 다른 차별화를 낳는 변수는 고려하지 않고 단지 사회적 위계만을 생각했다는 지적이 있으며(이성주 2017), 더 넓은 틀에서, 한국 고고학 전반의 무덤 연구의 계층성 분석에 대한 매몰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김종일 2007).

적석목곽묘 연구에서 후자의 입장에 선 연구는 아직 찾기가 어렵다. 다만 최근 들어서 계층정보다는 기념물로써 신라 고분을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그에 따라서 표형분과 같은 봉분의 연접을 자신의 권력 정당성을 확인하고 재생산하려는 조묘자의 전략적 행위가 반영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金大煥 2016a, 2017).

주의할 점은 두 가지 입장이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기에, 양자 모두 고려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Brown 1995; Chapman 2013; Jaffe and Cao 2017). 가령 조묘자는 피장자의 권위를 무덤의 축조를 통해 재현하고 그 과정을 주도함으로써 자신의 권력 정당화를 시도할 수 있다. 또한 고창기의 신라 사회와 같이 고도화된 복합화를 이룬 사회 내에서는, 착장위세품의 부장 정형에서 나타나듯 복식제도와 같은 규범화된 장치를 통해 피장자가 생전에 부여받은 사회적 정체성이 표현되었을 가능성이 크고(李熙濬 2002), 착장 이식에 따른 차별적인 무구와 마구의 부장 양상에서도 보이듯이 부장품의 구성과 관련하여서도 일정한 규범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하대룡 2016). 즉 적석목곽묘 축조 집단은 일정 정도 고정된 신분제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을 계서에 따라 구분하는 복식제도를 운용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장례에 있어서도 수평적인 분화를 바탕으로 분할된 장례 규범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상정된다. 적석목곽묘 축조 집단이 이러한 정도로 제도적 바탕 하에 구조화되고 규범적인 사회에 속해 있었다 한다면, 경주지역의 적석목곽묘 자료 전반이 전적으로 조묘자에 의한 전략적 선택과 경쟁으로써만 구성되었으리라 보기는 어렵고, 일정 부분 피장자 성격과 그에 따른 규범에 기반하고 있었으리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무덤 자료 중에서, 피장자 고유의 것부터 완전히 조묘자에 의한 조정 내지는 조작을 거친 것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개별 무덤 내에서, 여러 무덤의 연결 관계에서, 혹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여러 층위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피장자가 갖는 여러 사회적 정체성 중에서, 신라 고분 전반을 관통하는 설명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앞서 본 연구사적 검토를 통해 볼 때, 본고에서는 이를 일차적으로 피장자의 성별과 계서로 판단한다. 착장 이식 또한 일정 위계 피장자가 모두 지니는 속성이면서 세환이식과 태환이식이 배타적인 착장 양상을 보이므로, 만약 성별과 무관할 경우 유효한 분석의 기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착장 이식에 따라 서로 다른 유물의 부장양상이 존재함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자 간 부장 경향의 차이를 밝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피장자의 성격 제 측면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확립한다면, 계서나 성별을 독립변수로 두고 그에 따라 어떠한 무덤의 속성이 종속변수로 변화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어 무덤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각 무덤의 연결 관계에 있어서도 흔히 알려진 바와 같이 표형분이 과연 부부묘인지, 또는 연접분이 핵가족적 가족구성에 따라 구성되었는지, 계서나 착장 이식은 연접과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 결과에 따라서 기존 가설을 유지할 것인지 새로운 설명이 필요한지가 확인될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신라 고분에 피장자의 사회적 정체성이 상당한 정도로 반영되어 있되, 거기에는 조묘자에 의한 조정이 일정 정도 개재되어 있는 것으로 전제한다. 다만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를 볼 때 고충기의 신라 사회가 고도로 복합화된 사회인 점, 세습에 의한 신분제를 갖추고 장례와 관련하여서도 일정한 규범과 규칙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상정되는 점을 들어 조묘자에 의한 완전한 재창조는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달리 말하자면 피장자와 조묘자에 더해, 사회적 규범이라는 변수가 하나 더 추가된다는 것이다. 무덤이 조묘자에 의한 조정을 거쳐 피장자를 일정 정도 재현하되, 이는 사회 구성원들의 기대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다. 높은 정도로 계서화된 사회라면 어떤 특수한 정치적인 필요성과 상황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조묘자가 순수히 전략적 행위으로써 낮은 위계에 있던 피장자의 무덤을 극도로 과장해서 축조하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높은 위계에 있던 피장자의 무덤을 조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준 이하로 축조하거나 전혀 다른 기준으로 축조하게 된다면 구성원들의 비난은 물론 자신의 사회적 입지도 곤란해질 것이다.¹²⁾

따라서 조묘자의 무덤 축조는 자신과 피장자를 과시할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기대를 만족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조묘자의 행위는 이러한 전략적 기회와 사회적 책무 사이에서 제한되어 있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물론 조묘자는 단지 규범만을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장품의 양이나 유구의 크기는 규범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조묘자 간의 경쟁이나 다른 전략적 선택에 의해 상당 부분 변화될 수 있다. 때문에 특정 유물의 출토 여부나 수량, 유구의 크기를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곧바로 사회적 계급으로 환원하는 방식은

12) 이와 관련하여 볼 수 있는 것이 조선후기 윤지충의 사례이다. 양반계급이었으나 천주교 신자였던 윤지충은 천주교식으로 모친의 상을 치렀고, 이것이 알려져 大明律의 發塚條 등이 적용되어 참수되었다(吳桂鉉 2007: 24). 조묘자에게 있어 무덤의 축조가 전략적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책임이자 의무이기도 하며, 다소 극단적이기는 하나 그것이 사회적 기대와 다를 경우의 결과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가능한 지양한다. 그보다는 피장자의 성격을 검토하고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아, 그 제 요소에 따라 어떻게 신라 고분의 유물과 유구가 구성되었는지 검토하여 적석목곽묘의 구성 원리에 대해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2) 부장품의 구성과 의미

앞서 본 바와 같이 무덤 자료가 조묘자에 의해 조정을 거친 피장자와 사회의 간접적인 반영물이라 본다면, 부장품 전반에 대해 분석할 때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무덤 자료의 중심을 이루는 부장품은 고고학에서 크게 몇 가지 함의를 갖는다. 고고학이 본격적인 학문 분야로 성장한 19세기부터, 부장품은 형식학적 접근의 대상으로 편년의 수단이자, 양식적 접근을 통해 종족성, 민족성을 추적하는 단위이며, 마지막으로 차별적 양과 질을 통해 사회 위계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Härke 2014).

부장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신라 고분의 연구에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시되었지만 부장품의 성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룬 경우는 찾기 어렵다. 여기에서는 여러 경우를 상정한 다음 각각의 맥락을 좇는 방법이 유효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부장품에 대한 가장 대표적이고 전통적인 해석은 내세에 필요한 물품으로 보는 것이다. 당시 사회가 정의하는 사후세계에 도달하는 수단이거나 거기서 삶을 이어가기 위해 부장품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신라 고분 연구에서 이와 같은 해석을 본격적으로 적용한 것은 변태섭(1958, 1959)의 연구로써, 이른바 繼世思想으로 인해 식량과 생필품, 장신구 등의 부장은 물론, 순장과 부부합장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신라 고분 조영의 배후에 계세사상이 존재한다는 시각은 이후의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예를 들면 金龍星 1998), 기마인물형토기, 주형토기, 압형토기 등 상형토기의 부장 목적을 피장자의 사후세계 인도로 해석한 시각(권오영 1999; 愼仁珠 2002; 李殷昌 1991)도 특정한 부장품의 상징성을 계세사상의 관점 하에서 해석한 것이

다.¹³⁾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신라 고분 자체를 사후의 주택(陰宅)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金龍星 1998), 같은 맥락에서 적석목곽묘의 지상적석부를 당시의 주택을 모방한 것으로 본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金大煥 2016b). 계세사상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명은 어렵지만, 특히 고총기 신라 고분 전반에 나타나는 후장 경향이나 순장은 신라인의 사후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반적인 유물의 구성을 해석하는 데 있어 사후세계의 대비 일변도로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장품은 다양한 맥락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부장품을 피장자의 소유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부장품의 질과 양이 피장자의 계서나 지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해석과 연관될 수 있다. 신라 고분에서는 특히 착장 위세품을 피장자의 소유물이자 생전의 복식으로 보는 시각이 강한데, 이는 그 출토 맥락에서 착장한 것과 부장한 것이 명백히 구분될뿐더러, 착장 양상에서도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어 복식제도의 존재가 상정되기 때문이다(李熙濬 2002). 굳이 착장하지 않고 미착장 부장시킨 위세품이 분명히 확인되는 점에서 피장자의 복식(혹은 소유물)이 아니었던 것은 분리시켰던 정황이 명백하다.

따라서 착장 위세품은 피장자의 생전 복식을 그대로 반영할 가능성이 크고, 피장자의 계서나 지위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고에서는 특히 착장 위세품과 관련하여서는 피장자의 복식이자 소유물로 판단하는 견해를 따르고자 한다. 다른 부장품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서 논의하였다시피 그 양의 많고 적음을 계층으로 환원하는 방식은 지양하며, 먼저 피장자와 관련한 변수를 확인한 후에 접근하도록 하겠다.

부장품의 성격에 대한 또 다른 관점으로는 조묘자나 장례의례 참가자의 공헌물로 보는 것이 있다. 이는 넓게 보아서는 장례의례에 사용된 음식이나

13) 반면 상형토기를 영혼 운반의 매개가 아니라 피장자의 직능이나 신분 표지로 본 견해도 있다(홍보식 2015).

물품을 부장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다. 신라 고분 연구에서는 특히 부장된 토기를 장례의례의 제사상 등 상차림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공헌유물로 해석한 사례가 있고(김용성 2009), 토기 기종 구성이 음식의 봉헌과 관련되어 있다는 해석도 있다(이성주 2014). 요컨대 토기 자체의 부장이 목적이 아니라 음식의 봉헌이 목적이라는 것으로, 신라 고분에서 가장 주된 부장품인 토기가 피장자보다는 오히려 조묘자나 그가 중심이 된 의례행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겠다.

때로는 특정 부장품이 공헌물인지 피장자의 소유물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령 최근 금관총의 兪斯智王銘 대도를 둘러싼 논의에서는 해당 유물을 피장자의 것으로 판단할지(김창호 2014), 혹은 이사지왕의 공헌물로 판단할지에 따라(金在弘 2014) 피장자의 성격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또한 대도 부장에 있어 ‘봉납’의 가능성을 고려하게 된다면(구자봉 2005), 착장이 아닌 부장이라 하여도 피장자의 소유물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된다(김대환 2017).

또한 일부 부장품이 조묘자의 공헌물이라면, 별도의 근거 없이 부장품을 토대로 피장자의 성격을 추론하는 논리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가령 갑주나 무기류의 부장 여부로 피장자의 성별을 판단한다고 하면, 먼저 그러한 부장품이 피장자의 소유물이되 조묘자의 공헌물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별 부장품에 대해 모두 이러한 판단을 거치는 것은 어려우므로, 역으로 피장자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유리하다 하겠다.

그 외에도 부장품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구성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다. 아직 신라 고분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특정한 부장품이 피장자의 삶이나 삶에서 있었던 특정한 사건, 혹은 역할에 대한 은유라는 해석이 있다. Solberg(2004)는 노르웨이 지역의 바이킹 무덤에서 출토되는 로마제 유리잔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러한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는데, 가령 수리흔이 있는 유리잔은 그것이 중요한 의례나 연회의 회상물이기 때문에 버려지지 않고 수리되어 부장되었다는 것이다.¹⁴⁾

이처럼 부장품의 성격과 부장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당연

한 말이지만 이와 같이 다양한 사유들이 하나의 부장품에서 반드시 서로 배타적이지 않을 수 있고, 하나의 무덤에서 출토된 부장품의 최종적인 구성이 여러 가지로 구성될 수도 있다. 가령 김용성(2009)은 임당 유적에서 주곽의 부장품은 피장자의 신분과 관련이 있고, 부곽의 부장품은 의례적 성격이 강한 공헌유물이 부장된다고 보아 출토 위치에 따라 부장 맥락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본고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할 것이지만, 적석목곽묘를 비롯한 신라 고분의 특성과 기존 연구의 관점을 참조하여 본고의 목적에 맞게 기본적인 범주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크게 나누어 피장자에게 직접적으로 종속된 것인가, 아니면 조묘자에 의해 선택된 것인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다.

첫째는 피장자의 개인적 소유물으로써, 피장자 성격과 깊은 관계를 갖는 부장품이다. 기본적으로 출토 맥락에서 피장자가 직접 신체에 착장한 것으로 밝혀지는 착장형 위세품이 그에 속하는데, 그 착장/미착장 부장 여부와, 착장 양상의 집단적인 반복에서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복식의 일부였을 것으로 상정되기 때문이다(李熙濬 2002). 물론 무덤 내의 복식이 피장자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는지, 아니면 사후에 재구성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착장위세품은 그 가시성으로 인해 그간 심도있는 연구를 거쳐왔고, 다른 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토 맥락부터 상세하게 연구되어 왔다. 그렇기에 신체에 착장하는 속인성(屬人性)(崔鐘圭 2011)과 착장/미착장품의 의도적 구분 매장 양상이 상당히 자세히 밝혀져 있고, 이를 종합할 때 개인적 소유물 혹은 그에 준하는 부장품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부장품의 경우 조묘자에 의한 간섭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어 여타 부장품 분석의 토대로

14) 신라 고분에서도 동로마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김차규 2009) 유리용기가 종종 출토되며, 그 중에서는 황남대총 남분 출토 鳳首形琉璃瓶처럼 수리혼이 관찰되는 것도 있다. 하지만 신라 고분의 유리용기는 소수의 최상위계고분에만 한정되어 보다 위세품적인 성격이 강하고, 피장자의 계서와 보다 깊은 상관이 있다고 해석된다. 즉 같은 유물이라 하더라도 시대와 지역에 따라 피장자의 다른 측면과 연관될 수 있는 것이다.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는 조묘자가 선택한 부장품으로 토기와 철기를 비롯한 여타 부장품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양과 질은 피장자의 계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실제로 착장위세품의 종류, 숫자와 다른 부장품의 양과 질 사이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지적되어 왔다(金龍星 1998; 최병현 2017a).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정량적인 분석을 실시한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장자의 성격 중 계서 이외의 다른 요소에 따라서 전반적인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무구, 마구와 같은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가 이루어졌을 뿐, 아직 검토가 미흡하므로 부장품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피장자의 성격이 갖는 제 요소에 따라서 어떠한 부장양상이 나타나는지를 가장 우선에 두고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피장자/조묘자에 의한 부장품 구성 구분은 어디까지나 방법론적 차원에서의 구분일 뿐 실제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고 유동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가령 부장된 토기와 철기 중에는 피장자의 소유물인 것과 조묘자가 장송용으로 준비한 것, 장례 과정에서 사용한 것이 섞여 있을 수 있다. 또한 갑주나 성시구와 같은 무구, 그리고 재갈, 등자, 안교와 같은 부장품은 신체에 직접 착장하고 부장되지는 않지만, 그 운용 방식이나 재질에 있어서 착장위세품과 대단히 유사한 성격을 갖는 면이 있다. 따라서 착장품은 아니지만 다른 부장품과 비교한다면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의 구분이 분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어디까지나 방법론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유념해 두고자 한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론적인 차원에서 부장품은 매우 다양한 맥락에서 구성되며, 그 양이나 질이 반드시 피장자에게 종속되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조묘자 간 경쟁이나 다른 가변적인 상황에 의해 유동적으로 변화한다는 점 또한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4. 연구 방법과 대상

1) 연구 방법

본고의 목적은 첫째로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격 제 요소에 대해 검토하고, 둘째로는 그에 따라 부장품과 유구의 구성에서 나타나는 정형성을 찾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그 사회·정치적 함의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 방법상 먼저 피장자 성격의 주요 요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주의할 것은 본고의 목적이 피장자 개인 차원의 검토에 있지 않고, 적석목곽묘 전반에서 감지되는 피장자 성격의 표현 방식을 검출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부장품과 유구의 제 양상을 검토하여 고분 구성의 정형성을 추출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피장자 성격에는 여러 측면이 있을 것이지만, 정형성의 추출에 적합하고 집단 차원에서 접근 가능한 것들을 선별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본고에서 앞서 설정한 것이 계서와 성별, 그리고 착장 이식의 세 가지이며, 각각을 토대로 신라 고분의 유물과 유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비교하여 검토하는 것이 본고의 주된 연구 방법이다.

이 중에서 착장 이식은 그 출토 여부만으로 자명한 판별 기준이 되어 접근에 용이한 측면이 있으나,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피장자 성격의 한 측면으로 판단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세환이식과 태환이식은 신라 고분의 피장자를 양분하는 가장 가시적인 자료였기 때문에, 피장자의 정체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상정되어 왔다. 크게 성별 또는 직능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었지만(金龍星 1998; 李熙濬 2002), 양자가 양측적인 대립을 보이면서 출토되고, 특히 세환이식은 대도와 공반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성별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인골 자료를 통해 검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까지 부분적으로 검토된 바에 따르면, 착장 이식이 성별과 일대일로 대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식에 따라서 대도 이외의 착장위세품에도 상당히 다른 구성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현재로서는 그 성격이 분명하지 않으나 피장자가 갖는 모종의

성격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잠정적으로 성별, 계서와 함께 주요한 검토 대상으로 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장자의 계서에 대해서는 그간 착장위세품의 종류와 수, 유물의 양과 질, 봉토의 크기 등 여러 측면에서 평가되어 왔으나, 피장자를 중심으로 놓는다면 역시 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착장위세품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착장위세품의 구성이 성별이나 착장 이식 등 피장자 성격의 다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별의 판단 이후 기존 연구 성과를 토대로 다시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착장 이식과 성별, 계서의 피장자 성격 세 가지 측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이후, 그에 따른 적석목곽묘의 구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적석목곽묘의 구성 검토는 크게 부장품의 부장양상과 유구의 배치양상으로 나누어 진행할 것인데, 피장자 성격의 세 요소에 따라서 각각이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는지 검토할 것이다. 부장품은 크게 무구·마구를 중심으로 한 위세품과 토기·철기로 나누어 볼 것이며, 유구에 대한 검토는 연결 방식과 소군집화 방식으로 나누어 검토할 것이다. 적석목곽묘의 부장품과 유구가 피장자의 성격에 따라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공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 적석목곽묘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론이 하나 더 추가된다고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연구 성과에 더해 적석목곽묘의 구성과 축조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그간 주로 계층성의 측면에서만 논의되어 오던 피장자를 본고에서 설정한 피장자 성격의 세 가지 측면에서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적석목곽묘의 세 요소가 피장자와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 실증적인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피장자 성격과 그에 따른 고분의 구성이 시간적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관찰할 수 있게 되므로 신라 사회의 성장과 변화에 따라 피장자와 그 무덤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장자 성격과 그에 따른 고분 구성이 중앙과 지방에서 어떻게 같고 다른지 비교할 수 있게 되므로 묘제와 계층성, 토기 양식과는 별도로 신라의 고분문화를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

전반적인 연구의 흐름이 이렇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은 피장자 성격의 제 측면에 대한 검토이다. 따라서 착장 이식이 성별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검증하고, 만약 양자간 관련이 없다면 피장자의 성별에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착장 이식과 성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피장자의 계서를 판단할 것인데, 착장 이식에 따라서 여타 착장위세품의 구성이 달라지는 점이 이미 지적된 바 있고,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성별에 따라서도 그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이후 피장자 성격의 제 측면에 따라 부장 양상과 유구 배치가 어떻게 달라지며 어떠한 경향성이 나타나는지 차례로 검토하고, 지방 고분의 피장자 성격과 고분 구성에 대해 검토한 뒤 고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논문의 구성과 진행 방식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다.

분석의 첫 번째 장인 III장에서는 신라 고분 피장자의 성격에 대한 복원을 실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착장 이식과 성별, 계서 세 측면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우선적으로 착장 이식이 기존 논의에 따라 성별을 반영하는 것인지 현존하는 인골 자료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그리고 뒤이어 성별 추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인골 자료가 제한된 현 상황에서도 성별 추정을 가능토록 할 만한 방법론의 구축을 위해, 관련 연구 사례를 검토하여 신라 고분에서 피장자의 성별 판단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설정하고 적용하였다.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신체의 대소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착장 유물의 크기에서 인간의 성별이형성(性別異形性)에 의한 계측적 차이를 찾아내고 그를 토대로 착장자의 성별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출토 양상과 피장자 안치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 또한 병행하였다. 이후 이러한 방법론이 적석목곽묘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한 변수를 찾고, 이를 토대로 성별과 관련된 가설을 세우고 현존하는 인골 자료를 통해 검증하였다.

IV장에서는 피장자의 성격에 따라 적석목곽묘의 부장품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본격적으로 검토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피장자의 착장 이식과 성별, 계서에 따라서 무구와 마구(1절), 토기와 철기(2절)가 어떻게 부장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무구와 마구는 성시구·갑주와 재갈·등자·운

주·행업·안교로 각각 분류하였고, 토기와 철기는 각각 12개 기종과 19 종류로 분류하여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의 내용은 피장자의 성별이나 착장 이식에 따른 출토율, 계서와 출토 수량의 상관관계, 전반적인 구성의 통계적 분석 등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장자 성격의 특정한 측면이 특정 부장품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살폈다. 그를 통하여 어떠한 경향성이 존재하는지 파악하여 부장품의 구성 원리에 접근하였다.

V장은 피장자 성격에 따라서 적석목곽묘의 유구가 어떻게 배치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피장자의 성별과 착장이식, 계서가 유구의 배치 및 소군집화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검토하여, 1절에서는 연접축조 양상에서 나타나는 정형성을, 2절에서는 왕릉군의 소군집화에서 나타나는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VI장에서는 피장자 성격에 따른 고분의 구성이 경주의 적석목곽묘와 지방의 여타 묘제에서 어떻게 같고 다른지, 적석목곽묘에서 사용한 방법론과 동일한 것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비교하였으며, 마지막 VIII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피장자 성격에 따른 신라 고분의 구성 양상을 중심으로 그 사회·정치적 함의에 대해 시론적으로 논하였다. 먼저 1절에서는 월성북고분군의 적석목곽묘 축조집단을 중심으로 하여 경주지역 내적으로 피장자와 고분 구성이 갖는 사회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고, 2절에서는 지방 고분 자료가 보여주는 정형성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 논하였다.

2) 연구 대상

이상의 접근을 이루기 위해 본고에서 다룰 핵심 자료는 신라 고분 연구의 중심을 이루는 월성북고분군의 적석목곽묘이며, 비교를 위해 지방의 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한 고분 또한 일부 포함할 것이다.

연구 대상 적석목곽묘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적석목곽묘의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기원과 범주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복잡다단한 논의가 있고 때로는 상반되는 견해가 대립하기도 한다. 크게 나누어서는 적석목곽묘의 범주를 넓게 보아 사방적석식도 포함시키는 견해와(李熙濬 1996b), 목곽 상부까지 돌로 덮은 상부적석식만 적석

목곽묘로 한정하는 시각이 있다(김두철 2009; 최병현 2016a, 2016b). 후자에 대해서는 형식 분류 과정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이후의 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부적석식의 적석목곽묘에만 한정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구성원리가 확인되며, 이러한 점에서 상부적석식은 분류적 개념이 아니라 경주지역의 상위 엘리트만이 다른 신라 엘리트를 배제하고 의례적 차별성, 혹은 고층화(심현철 2013a)를 지향하여 배타적으로 축조한 묘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상부적석식 적석목곽묘는 일정한 의도와 기획의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유효한 분석 단위인 바, 사방적석식과는 다른 형식으로 분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하 본고에서 적석목곽묘로 칭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부적석식(및 지상적석식)만을 말하는 것이고 사방적석식은 제외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상부적석의 존재 여부가 적석목곽묘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나, 상부적석의 규모와 정도도 실제 사례 내에서는 매우 다양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일부 보고 중에서는 상부적석의 존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가 간혹 있고, 보고자와 연구자 간에 상부적석의 존재 여부 판단이 서로 다른 경우도 없지 않아 석재충전목곽묘로 볼 것인지 적석목곽묘로 볼 것인지 의견이 나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 대체로 보고서의 기술과 보고자의 판단을 존중하여 적석목곽묘 여부를 판단하였다.¹⁵⁾

이상의 기준을 따라서 월성북고분군에서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모든 적

15) 본고에서 다룬 적석목곽묘의 범주는 이상과 같은데, 최근 최병현(2016a, 2017a)은 기존에 상부적석의 판정이 곤란하였던 계림로 48~53호분과 같은 다곽묘에 상부적석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하고, 적석목곽묘로 재분류하였다. 상부적석의 존부를 최우선 기준으로 한 면에서, 즉 묘곽의 구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판단이다. 하지만 사주적석을 다른 무덤과 전면적으로 공유하면서 정연히 연결을 이루는 방식이나, 호석의 구성이 다른 유형의 적석목곽묘와는 크게 달라, 같은 범주로 들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도 여타 유형의 적석목곽묘와는 축조가 완료되었을 시의 외형이 완전히 달랐을 것이므로, 당시 구성원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소형의 적석목곽묘와는 다른 종류의 범주를 가진 무덤으로 여겨졌을 공산이 크다고 생각되며, 아마도 그것을 다곽분의 조묘자들이 의도하였을(혹은 강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바 본고의 적석목곽묘 분석에서 다곽분은 일단 제외하여 두고자 한다.

석목곽묘를 대상으로 한다. 그에 따라 분석 대상의 시간대 또한 월성북고분군에서 적석목곽묘가 주로 조영되는 시기인 신라 전기(崔秉鉉 1992) 혹은 고충단계(金龍星 1998)가 될 것이며, 편년안은 현존하는 월성북고분군의 가장 상세한 안인 최병현(2016a, 2017a)의 분기를 따를 것이다. 그에 따라서 절대연대는 연구자 간 차이가 있지만 대략 4세기 중·후반 ~ 6세기 전반에 해당한다. 이는 경주에서 황남동 109호 3, 4곽에서부터 석실이 본격적으로 축조되는 시기 이전까지이다.¹⁶⁾ 다만 지난 100년 간 발굴된 적석목곽묘의 보고 수준은 착장위세품만 보고된 것에서부터 출토 유물이 전량 보고된 것까지 다양하여, 각각의 분석 대상의 숫자에는 차이가 있다. 착장위세품의 분석에는 2종 이상이 출토된 고분 71기를 대상으로 하였고, 토기와 철기의 분석에는 출토 유물이 전량 보고된 고분 24기를 대상으로 하였다.¹⁷⁾

또한 적석목곽묘와의 비교를 위해 지방의 신라 고분 또한 다룰 것이다. 이들은 지역적으로는 낙동강 이동이되 금호강 이북에서는 이서 지역도 일부 포함하며, 강릉 등 동해안 지역도 포괄한다. 다만 이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여러 지역 단위의 자료를 대상으로 별도의 분석을 수행하였으므로, 분석마다 필요에 따라서 계층과 지역을 달리한 경우가 있다. 가령 필요에 따라서는 적석목곽묘 내에서도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을 분리하여 분석한 경우도 있고, 지방의 고분은 용이한 비교를 위해 일정한 기준을 두어 상위 위계의 것만 택하여 적석목곽묘와 비교할 것이다. 이 또한 적석목곽묘와 마찬가지로 보고 자료의 수준에 차이가 있어, 착장위세품의 분석 대상은 69기, 토기와 철기의 분석 대상 고분은 39기이다.¹⁸⁾

분고의 분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무덤의 제 요소가 피장자의 성격 제 측면을 기본 배경으로 하되 최종적인 결과는 조묘자에 의한 선택에 의해 구성된 것이라는 관점에서 수행되었다. 따라서 특정 유물이나 기종에 대한 분

16)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전한 박장(薄葬)이 이루어지기 전의 일부 석실분의 경우는 분석 대상에 포함된 경우도 있다.

17) 착장위세품 분석 대상 적석목곽묘의 내역은 <표 14>에서, 토기와 철기 분석 대상 적석목곽묘의 내역은 <부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18) 착장위세품 분석 대상 지방 고분의 내역은 <표 30>에서, 토기와 철기 분석 대상 지방 고분의 내역은 <부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석이 아니라 여러 유물의 공반관계, 출토 여부, 출토 비율 등 부장품이 어떠한 복합체를 이루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기본적으로 도굴되지 않은, 그리고 출토 유물이 전량 보고된 유구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있다. 신라 고분 조사의 초기 단계에서는 출토 유물을 전량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III.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격 검토

이 장에서는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격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첫째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통해 피장자 집단을 양분하는 것으로 밝혀진 착장 이식이고, 둘째는 피장자의 성별이며, 마지막으로는 피장자의 계서이다.

먼저 1절에서는 착장 이식의 주환 종류가 기존의 논의대로 피장자의 성별을 반영하는지 현재까지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인골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다. 결론부터 밝히면 성별과 착장 이식은 상응관계를 보이지 않으며, 그러므로 피장자의 다른 측면을 반영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2절에서는 피장자 성별에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문화적인 선입견이 아니라 피장자의 생물학적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 성별 추정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현존하는 인골 자료로 이를 검증하여 적석목곽묘 전반에 적용 가능한 추정안을 제안하였다.

3절에서는 착장위세품의 구성을 검토하여 피장자의 위계에 대해 접근하였는데, 단순히 종류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1절과 2절의 분석을 바탕으로 피장자의 성격 다른 부분과 착장위세품이 어떻게 조응하는지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피장자 집단을 분할하여 착장위세품의 위계적 구성을 검토하고 계서를 설정하여, 차후 실시될 여타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다.

1. 착장 이식

앞서 연구사적 검토에서 보았다시피, 신라 고고학에서는 착장 이식을 기준으로 세환이식 착장자는 남성, 태환이식 착장자는 여성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근거는 특히 경주지역에서 세환이식과 대도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보였기 때문이며, 그렇기에 최근 황남동 95-6번지 1호 적석목곽묘에서와 같이 세환이식을 착장한 여성 인골의 존재가 알려지자 다시금 대도의 착장 여부로 성별을 판단하려는 시각도 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일반론인 이식-성별 가설, 또는 대도를 통한 성

별 판단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지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인골자료를 통해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신라 고분에서 인골의 출토가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 축적된 모든 인골 자료를 집대성하여 본다면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표 1>은 지금까지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인골 중에서, 착장 이식이 분명한 경우만 선택하여 인골의 성별 판단 결과와 대조한 30개 사례이다.

<표 1> 신라 고분 출토 인골의 성별과 이식부 착장유물

지역	출토 유구	이식부 착장유물	대도 착장	성별 판단	판단 근거	출전 ¹⁹⁾
경주	황남대총 남분	세환이식	착장	남성	두개골·치아계측	張·金 1994
경주	황남동 106-3번지 3호	세환이식	×	남성	두개골	慶州 1995
경주	황남동 106-3번지 6호	세환이식	×	남성	두개골	慶州 1995
경주	황남동 106-3번지 7호	세환이식	×	남성	두개골	慶州 1995
경주	황남동 95-6번지 1호 ²⁰⁾	세환이식?	×	여성	사지골	신라 2015
경주	황남동 95-6번지 4호	세환이식	×	남성	사지골	신라 2015
경산	조영 1A 17호	세환이식	×	남성	두개골·사지골	영남대 2013
경산	조영 1A 24호	세환이식	×	여성	두개골·사지골	영남대 2013
경산	조영 1A 29호	세환이식	×	남성	두개골·사지골	영남대 2013
경산	조영 1B 27호	세환이식	×	남성	두개골·사지골	영남대 2013
경산	조영 1B 30호	세환이식	×	여성	두개골·사지골	영남대 2013
경산	임당 2북호 부곽1순장자	세환이식	×	남성	사지골	영남대 2013
경산	임당 5B2호 주피장자	태환이식	×	여성	두개골·사지골	영남대 2013
경산	임당 6A호 주피장자	세환이식	착장	남성	골반	영남대 2013
경산	조영 CI-1호 주피장자	세환이식	착장	남성	골반	영남대 2013
경산	조영 CI-1호 주곽1순장자	세환이식	×	남성	골반	영남대 2013
경산	조영 CI-2호 주피장자	중공구	×	여성	골반	영남대 2013
경산	조영 CII-1호 주피장자	곡옥수식	×	남성	두개골·사지골	영남대 2013
경산	조영 CII-1호 부곽1순장자	세환이식	×	남성	두개골·사지골	영남대 2013
경산	조영 CII-2호 주피장자	세환이식	×	남성	두개골	영남대 2013
경산	조영 EI-1호 주곽1순장자	세환이식	×	여성	사지골	영남대 2013
창녕	계성 24호	세환이식	×	여성	치아계측	金東鎬 1990
김해	예안리 3호	세환이식	×	여성	두개골	부산대 1985·1993
김해	예안리 4호	세환이식	×	남성	사지골	부산대 1985·1993
김해	예안리 46호	세환이식	×	여성	사지골	부산대 1985·1993
김해	예안리 57호	세환이식	착장	여성	사지골	부산대 1985·1993
김해	예안리 58호	세환이식	×	여성	사지골	부산대 1985·1993
김해	예안리 65호	세환이식	×	남성	사지골	부산대 1985·1993
김해	예안리 126호	세환이식	×	남성	미기재	부산대 1985·1993
김해	예안리 154호	세환이식	소도	여성	미기재	부산대 1985·1993

현존 30개 사례 중 세환이식을 착장한 것이 27개체, 태환이식이나 곡옥

수식을 착장한 것은 3개체로 세환이식 착장자가 대부분인 것이 자료적 한계이다. 하지만 대조 결과를 확인하여 보면, 세환이식을 착장한 27개체 중에서 여성이 9개체나 되며, 태환이식이나 곡옥수식을 착장한 3개체 중에서도 남성으로 판단된 것이 한 개체 존재한다. 대도에 대해서도, 경주지역 내에서만 한정하여 보아도 남성 인골이되 대도를 착장하지 않은 사례가 네 건이나 존재한다. 따라서 대도의 착장여부로 성별을 판단하는 것에도 설명력에 한계가 있다.

물론 인골의 성별 추정은 여러 방법론에 의해 결정되는 통계적인 것이다. 따라서 오차가 존재하고, 다수의 개체를 판별하게 되면 오차로 인해 실제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²¹⁾ 특히 보존상태가 불량한 인골이라면 그 오차의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나 30개체 중에서 11개체(약 37%)가 이식-성별 가설과는 맞지 않으며, 인골의 성별 추정 오차를 고려한다 하여

19) 張・金 1994: 張信堯・金達澤 1994, 慶州 1995: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995, 영남대 2013: 영남대학교박물관 2013, 신라 2015: 신라문화재연구소 2015, 부산대 1985・1993: 부산대학교박물관 1985, 1993.

20) 황남동 95-6번지 1호는 여성 주피장자가 세환이식을 착장하고, 상하방향으로 겹쳐서 출토된 남성 피장자는 순장자로 알려졌다. 양자 간에는 어떤 구조물이 존재하였던 흔적이 없는데, 경주지역의 적석목곽묘는 아니지만 동일한 상황에서 하부가 아닌 상부의 피장자가 주피장자인 경우가 최근 보고된 바 있다(하대룡 2017). 또한 상하방향으로 두 피장자가 겹쳐있던 만큼 출토된 이식과 교구가 어느 피장자의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따라서 어느 피장자가 주피장자인지는 자료의 축적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1) 가령 가장 높은 성별 판단의 정확도를 지닌 골반의 형태적 특징을 통한 판단 방법도, 정확도는 96%정도이며(Sutherland and Suchey 1991), 이 정도의 정확도라 한다면 25개체를 판단하였을 때 한 개체 정도에서 틀릴 수 있다는 뜻도 된다. 다른 부위에서는 더 낮아지게 되어, 두개골의 형태적 특징에서는 약 90%(Meindl *et al.* 1985), 사지골은 80~90%(Bass 1995), 치아계측치를 근거로 하였을 경우 75~80%(White and Folkens 2000) 정도로 알려져 있다. 즉 인골의 성별 판단 결과를 이해하는 데에는 확률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국내 성별 판단 사례 중에서는 골반을 근거로 하였을 경우 남성・여성으로 표기하고 그 외의 부위를 근거로 하였을 때에는 남성적・여성적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각에서는 전자는 반드시 옳고 후자는 믿을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방법론에 따라 다소간 정확도의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지, 확률적 추산의 결과라는 점 자체에는 차이가 없다.

도 이와 같은 수치는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여러 분석자에 의해서, 그리고 다양한 판단 근거를 통해서 이처럼 일관된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식-성별 가설, 그리고 대도의 착장 여부로 성별을 판단하는 방식의 설명력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사실 <표 1>의 자료만을 놓고 보자면, 이식의 주환 종류가 다른 것을 의미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가령 피장자가 어떠한 이식을 착장하는지는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일차적으로는 계서의 문제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하위위계의 중소형 고분군에서는 태환이식 착장자가 매우 적고, 경주지역의 적석목곽묘와 지방의 상위위계 고분으로 한정해서 볼 때 비로소 세환이식과 태환이식으로 양분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대도의 경우도 경주와 지방을 막론하고 하위 위계의 남성묘에서는 미착장 사례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착장 여부로 성별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이식의 착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있으나 기존 논의에서는 성별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짓는 경향이 뚜렷하여 아쉬움이 있다.

이상의 검토에서 이식 또는 대도와 착장자의 성별 사이에는 뚜렷한 대응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으므로, 피장자의 성별을 추정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와 동시에, 착장 이식의 주환 종류가 과연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또 다른 설명이 요구된다. 현 단계에서 이식의 주환 종류가 무엇을 의미하였는지 곧바로 논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전론한 바와 같이, 세환이식과 태환이식은 반드시 서로 배타적으로 착장하고, 또한 착장 이식에 따라 적어도 일부 부장품, 특히 등자가 매우 차별적으로 부장되고 이러한 양상이 고총기의 영남지역 신라고분 전반에서 공통적이라는 점은 이미 지적된 바 있어(하대룡 2016), 장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였음이 틀림없다. 이러한 점에서 아마도 피장자가 생전에 부여받았던 모종의 직능이나 사회적 역할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따라서 무덤에 반영된 피장자 성격의 한 측면으로 보고 본고의 분석에서 주요한 변수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하의 분석에서는 이식의 주환 종류 또한 피장자 성격의 주요 요소로 보고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며, 착

장 이식에 따라서 고분의 부장품과 유구의 배치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주의깊게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식에 따라 어떠한 경향성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최종적으로는 그 의미에 대해 시론적인 논의를 시도할 것이다.

다시 성별과 관련된 논의로 돌아가서, 이식-성별 가설의 설명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드러나,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다 아는 바와 같이 자료의 부족과 방법론적 한계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워, 그로 인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재하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인골 자료를 통해 적절한 가설을 구성하는 것이겠으나, 앞서 보았듯이 인골을 통해서도 기존 가설의 기각만 가능하였지,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절대적인 사례 수가 부족하고 자료의 지역적, 계층적 편중도 심하다. 따라서 대안의 제시를 위해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방법론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대적인 관점의 유추를 벗어나 구체적이고 실증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은 물론 현존하는 적석목곽묘 인골 자료를 통해 검증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음 절에서는 현대의 선입관을 배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한 가설의 설정과 검증을 통해 신라 고분 피장자의 성별에 대한 추정안을 제시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2. 성별

이 절에서는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별 추정을 시도한다. 적석목곽묘의 인골 출토 사례는 절대적인 숫자가 매우 부족하고, 그나마 양호한 상태의 인골은 매우 제한되어, 인골 자료가 상당 부분 배제된 상태에서 생물학적 성별을 추정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인골 자료가 부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피장자의 신체와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된 물질자료를 통해 성별을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그 원리와 관련된 연구 사례, 그리고 적석목곽묘를 비롯한 신라 고분 전반에서 출토된 자료를 차례로 검토하여 피장자의 생물학적 성별의 구체적인 추정안을 마련하고, 적석목곽묘 전반에 적용 가능한 성별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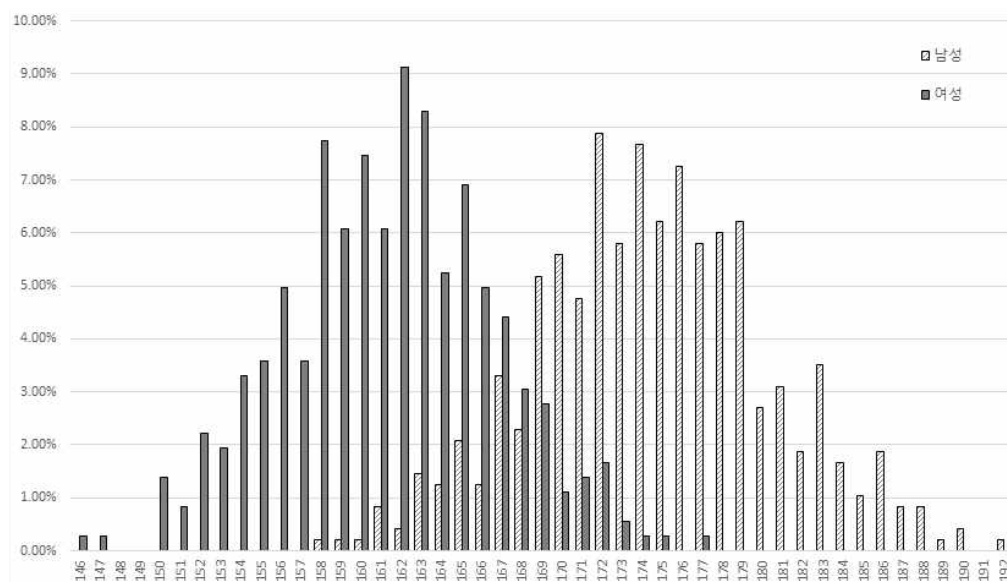
정과 관련된 가설을 설정하도록 한다. 또한 마지막 단계에서는 현존하는 인골 자료를 통해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도록 한다.

먼저 1항에서는 본고에서 사용할 성별 추정의 방법론적 배경과 적용 사례를 설명할 것인데, 성별이형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설명하고 그것이 유물에 반영된 사례로써 일본의 야요이시대 패천의 내경 크기에서 나타나는 성별이형성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신라 고분 출토 자료 중에서 그와 비견되는 자료인 금속제 천에 대해 살펴보고, 착장자의 성별에 따라 예견되는 내경 분포의 모델을 설정하도록 한다. 그 다음으로 2항에서는 본격적으로 신라 고분에서 출토되는 천의 출토 및 착장 양상을 검토하고, 착장이 확실시 되는 자료를 대상으로 계측치를 종합, 그 결과를 해석하여 착장자의 성별을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3항에서는 천을 통한 성별 추정 결과를 적석목곽묘 전반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 천에서 나타난 성별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적석목곽묘의 특징을 찾아내어 피장자 집단의 성별을 종합적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1) 성별 추정의 대안적 방법론

인간을 포함한 여러 생물종은 성별이형성(性別異形性; sexual dimorphism)을 갖는다. 이는 같은 종이 생식기관 이외에서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며(Lee 1999), 인간의 경우 신체 여러 부분의 크기와 형태, 강건성에서 차이가 난다. 전반적으로 형질적 특징과 체격, 신장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크며 뼈대만 남아있는 경우라 하여도 골반과 두개골의 형태적 특징이나 사지골의 크기의 비교를 통해 높은 정확도로 성별을 추정할 수 있다. 인골고고학(oste archaeology)이나 인체계측학(anthropometry)에서 두개골이나 사지골 등 여러 부위의 골격을 계측하여 성별을 구별하는 계측적 성별판단(metric sex determination)이 바로 그러한 방법이다. 계측적 성별판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크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키, 팔, 다리, 손, 발의 길이 등 신체의 여러 계측치의 분포가 대체로 두 개의 정규분포곡선이 겹쳐진 이봉

곡선(二峰曲線; bimodal curve)을 그리게 되며, 이봉곡선 중에서 작은 것에는 여성의, 그리고 큰 것에는 남성의 계측치 분포가 집중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그림 1>은 오늘날 20~24세 한국인 남성과 여성의 신장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남성의 평균 신장은 174.2cm(표준편차 5.9cm), 여성의 평균신장은 160.9cm(표준편차 5.2cm)로써 이봉분포를 보이며 평균값의 차이가 13.3cm에 달한다. (국가기술표준원 2015). 즉 신장만으로도 특정 집단의 성별을 대략 구별할 수 있으며, 다른 신체부위에서도 그러한 계측적인 차이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림 1> 남녀 신장의 분포 양상에서 나타나는 성별이형성
(20~24세 845명의 신장 분포. 자료 출처는 국가기술표준원(2015))

하지만 인간의 성별이형성은 극단적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작다고 해서 모두 여성이거나 크다고 해서 모두 남성인 것이 아니며, 일정한 회색 지대 혹은 점이지대가 존재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역 바깥에서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성별을 추정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정리하자면, 인간의 신체 크기는 성별에 따라 상당히 구분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크기 차이가 뼈대에도 반영되어서 뼈의 계측치를 통해서도

통계적으로 남성, 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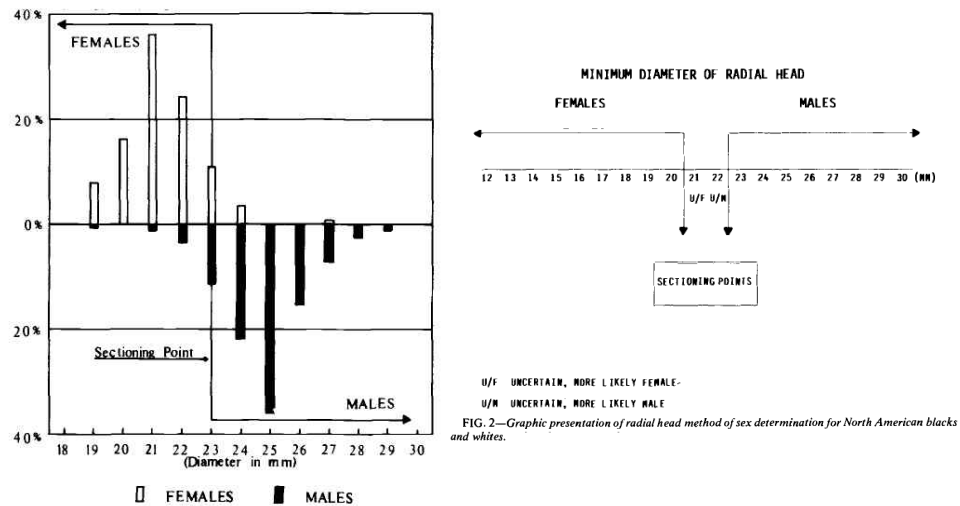


FIG. 1—Adjusted relative frequencies of right radial head maximum diameter in blacks.

<그림 2> 성별에 따른 계측치 이분곡선 분포의 예(좌)와 계측치에 의한 성별판단 점이지대의 예(우) : 요골두(橈骨頭; radial head) 직경의 연구사례. (Berrizbeitia 1989에서 전제)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성별이형성은 물질문화의 여러 부분에는 성별에 따른 일정한 차이를 발생시킨다. 가령 신체에 걸치게 되는 의복에서부터 시작해서, 유사한 방식으로 신체에 착용, 패용하는 시계, 팔찌, 반지 등 다양한 물품에서 남성의 것이 여성의 것보다 크다. 오늘날에도 일상생활에서 옷이나 신발을 비롯한 의복에서부터 장신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품이 남녀 성별에 따라 다른 크기로 제작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자료를 선택하여 접근한다면, 성별이형성에 따라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물질 자료의 계측적 차이를 토대로 생물학적 성별을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방법을 활용한 다수의 연구사례가 존재는데, 가령 선사시대의 동굴벽화에 남아있는 손도장(hand print)의 계측치에서 성별이형성을 추적하고 제작자의 성별을 추적하거나(Chazine and Noury 2006; Gunn 2006; Mackie 2015; Snow 2006, 2013; Wang *et al.* 2010), 로마시대 군

사 유적에서 출토되는 신발 크기에서 착장자의 성별을 추정하고 역사기록을 통해 검증한 경우도 있다(van Driel-Murray 1995).²²⁾

신라 고분에서 출토되는 피장자의 복식품, 즉 착장 유물 중에서도 이러한 차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다. 과대의 수식 길이는 착장 위치를 고려할 때 착장자의 다리에서 허리까지의 높이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주고, 마찬가지로 경식이나 이식의 크기도 착용자의 특정 신체 부위의 크기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물들은 일단 유물 자체의 정확한 크기 복원에도 어려움이 있고, 착용자의 신체 크기를 민감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대관, 식리, 팔찌, 지환은 신체에 직접 접촉하여 착장하는 방식인 만큼, 신체의 대소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대관과 식리는 보존상태가 온전한 것이 소수에 불과하여 통계적인 검토가 어렵고, 지환은 착장 부위를 생각할 때 개인 차이가 매우 작아 유물의 계측치 상에서는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선택한 유물은 팔찌이며, 후술하겠지만 그 재료와 제작 방식, 그리고 착장 방식으로 인하여 손 크기, 특히 손 너비의 성별이형성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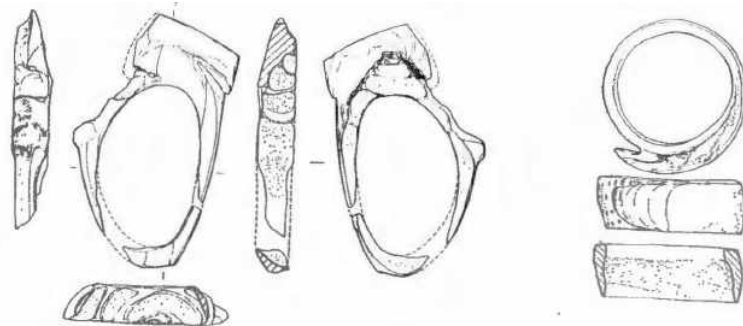
또한 오늘날 제작되고 있는 팔찌와 무령왕릉 왕비가 착장한 천, 후술할 일본 야요이 시대의 패천 등과 비교하여 착장자의 성별을 비교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 먼저 일본의 야요이 시대 패천 착장자의 성별과 관련된 논의를 살펴보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신라 고분 출토 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1) 일본 야요이시대 패천(貝釧) 착장자의 성별

일본의 야요이 시대에는 북부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오키나와 산 패류로 제작한 패천이 다수 출토되며, 고분의 피장자들도 착장한 사례가 다수

22) van Driel-Murray(1995)의 연구에 따르면, 로마의 군사유적 출토 신발에서 군인의 혼인금지법이 적용되던 시기와 혼인이 허용되는 시기의 신발 크기 분포 양상이 크게 달랐으며, 이를 남성과 여성의 성별이형성이 신발에 드러난 결과로 보았다.

발견된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고히우라(ゴホウラ)제, 여성은 이모가이(イモガイ)제 패천을 착용하는 등 성별에 따라 다른 종류의 패류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小栗 2008)(그림 3), 그에 따라 야요이 시대 패천의 크기와 착용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다. 1980년대 이전까지는 당시 연구자들이 보기에 성인이 착용하기에는 작은 패천이 다수 발견되어, 유아기때부터 빼지 않고 착용을 유지한 것이거나(中山 1934), 또는 관찰을 탈골 시키고 착용하였다고 추정하였다(樋口 1972).



<그림 3> 야요이시대 고히우라제 패천(좌)와 이모가이제
패천(우)의 예
(木下(1996)에서 전재)

하지만 이처럼 성인이 착용하기에는 내경이 작다는 일반론은 모형 천을 사용한 대규모의 착용 실험을 통해 폐기되었다. 坂田 등의 연구(1984, 1987)에서는 여러 크기, 면적, 종횡비 등을 갖는 모형 천을 제작하여 성인 515명(남성 157명, 여성 358명)을 대상으로 착용 가능 여부와 신장 간의 상관관계를 구하여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거기에 야요이 인골이 착용한 패천을 대입한 결과, 유적에서 확인된 모든 성인 착용 천이 자유롭게 착용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²³⁾ 또한 아동이 착용한 패천은 아동용으로 별도 제작한 사례도

23) 아쉽게도 모형 천의 구체적인 크기는 공개되지 않아서 다른 분석에 활용 가능성은 제한되어 있다. 다만 해당 연구에서 검증한 야요이 성인 인골이 착용한 고히우라

다수 확인되어, 야요이시대 패천은 기본적으로 착장자에 맞게 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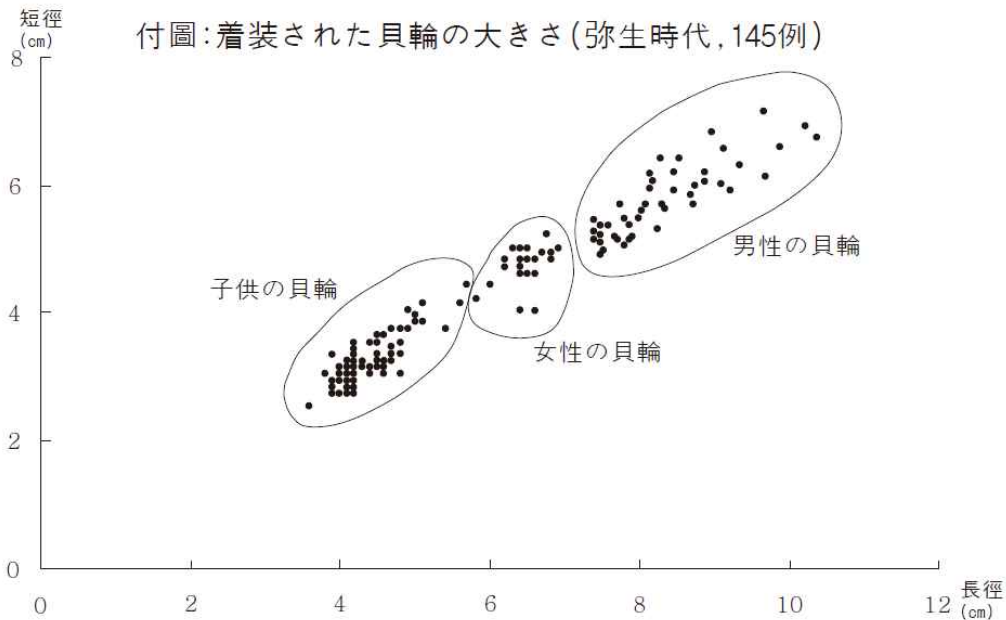
따라서 본고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적 배경인 성별이형성에 따르면, 성인들이 착장한 야요이 패천의 크기에서도 성별이형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신장과 마찬가지로, 남성의 손이 여성의 손보다 크기 때문에, 남성이 착장한 천은 여성이 착장한 것 보다 상대적으로 클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야요이 시대 인골 145개체의 연령 및 성별과 그들이 착장한 패천의 크기를 종합한 검토에 따르면(木下 2005), 아동이 착장한 천의 내경은 36~57mm, 여성의 것은 58~69mm, 남성의 것은 74~104mm 내에 분포하여, 성별이형성 뿐만 아니라 연령차에 따른 구분도 상당히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4 참조).

한편 이와 비견되는 한국의 자료로는 신석기시대 패륜이 있다. 산등패총, 안도패총이나 가덕도 등지에서 패천을 착장한 인골이 확인된 사례도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의 신석기시대 패천은 일본 야요이 시대의 패천과는 다르게 보아야 할 것 같다. 그 이유는 생전의 착장품이 아니라 사후에 착장시킨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가령 안도패총 착장품의 경우, 내연부가 마연되어 있지 않고 거칠게 마무리되어 착장시에 통증이 유발되었을 것이므로, 생전의 착장품이 아니라 사후에 착장시킨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김건수 2008). 또한 가덕도에서 출토된 패륜도 내연지름이 2.2~7.0cm 범위에 분포하는데 성인이 착장 불가능한 크기인 것이 많은 점, 사용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착장 인골이 육탈 후에 재배치된 점 등에서 사후에 시신이 완전히 부패한 다음 의례를 통해 착장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한국문화연구원 2014).²⁴⁾

따라서 한국의 신석기시대 패륜 크기는 성별이형성과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는 천을 비롯한 물질자료의 성별

호우라제 천 24점의 평균 최대 내경은 79mm, 이모가이제 천 15점의 평균 최대 내경은 63mm로써(板田 1984: 36의 표 14에서 산출함), 뒤에서 보는 木下(2005)의 남녀 착장 천 자료의 범위 내에 있다.

24) 따라서 보고자는 이를 집합적인 의미에서는 패천이 아닌 패륜으로 칭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림 4〉 일본 야요이시대 성인 남성·여성, 아동(12세 이하) 인골
145개체가 착용한 천의 내경 장지름과 단지름 분포(木下 2005에서 전재)

이형성을 토대로 성별을 추정한다고 할 때, 해당 자료의 착장·부장 여부, 사후의 착장 가능성 등 출토 맥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또한 일본과 한국의 패천 관련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인간 유체가 직접적으로 잔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체의 크기를 반영하는 자료, 가령 착용한 장신구의 성별이형성을 통해서도 착장자 집단의 성별 판단이 가능함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상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음에서는 본격적으로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별을 추정하도록 한다.

(2)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별 추정

야요이시대 패천의 연구 사례에서 보다시피 신체와 관련된 물질적 자료에서도 성별이형성이 나타나 남성과 여성의 천을 뚜렷이 구분하는 것이 가

능하다. 이를 신라 고분 출토 천의 분석에 응용한다면, 계측적 차이를 통해서 성별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착장 방식과 피장자의 착장 여부, 제작 기법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검토 또한 수행하였다.

① 손 크기의 성별이형성과 천(釧)의 내경

신라 고분 출토 팔찌는 보통 천(釧)으로 불리며, 일제 강점기 시대의 보고서에서부터 그렇게 칭한 것으로 보인다. 신라 고분에서 출토되는 천은 재질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서 청동제, 금동제, 은제, 금제 등의 금속제와, 유리옥제 구슬에 간혹 호박옥제 구슬이나 청옥제 곡옥을 첨가하여 켜 유리옥제로 나뉜다.²⁵⁾ 두 가지 중에서 본고의 목적에 맞는 것, 즉 신체의 계측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전자인 금속제 고정형의 천인데, 후자인 유리옥을 켜 것은 정확한 크기 복원이 어렵고 본래 유동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 천을 언급할 때에는 금속제 고정형의 천을 뜻하는 것으로 한다.

신라 고분에서 출토되는 천에 대해서는 주로 시기·지역별 형식 변이, 제작 기법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국립경주박물관 2001; 朴熙明 2001; 申恩憲 2005). 제작 기법에 대해 살펴보면 큰 틀에서 5세기 대의 단조와 6세기 대의 주조로 대별되며,²⁶⁾ 주조방식을 제작된 것은 그 형태가 고정되기 때문에 제작 시 착장자의 손 크기에 맞추어 설계되었다 볼 수 있

25) 금속제 고정형의 천과 구슬 등을 켜 천을 구분하는 정확한 용어는 우리말에 없는 듯하다. 영어권에서는 전자를 bangle, 후자를 bracelet으로 칭하고 있으며, 벙글 중에서도 두 끝을 땀질하여 붙이거나, 애초에 하나로 주조하여 완전한 원형을 이룬 것을 closed bangle, 그렇지 않고 한쪽 끝이 열려 있어 착장시에 어느 정도 크기 조절이 가능한 것을 opened bangle이라 하여 구분하고 있다. 신라 고분에서 출토되는 것은 일부 단조 방식으로 제작된 것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닫힌 벙글이며, 크기 조절이 불가능한 만큼 제작시에 착장자 별로 맞춤제작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26) 주조 방식으로 제작된 것 중에는 금은제 뿐만 아니라 서봉총 출토품이나 국은수집품(尹相憲 200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리제도 있으며, 금속제 주조품과 마찬가지로 제작 완료 이후에는 형태 변화가 불가능하여 금속제 천과 동일한 방식으로 착장하여야 하는 바,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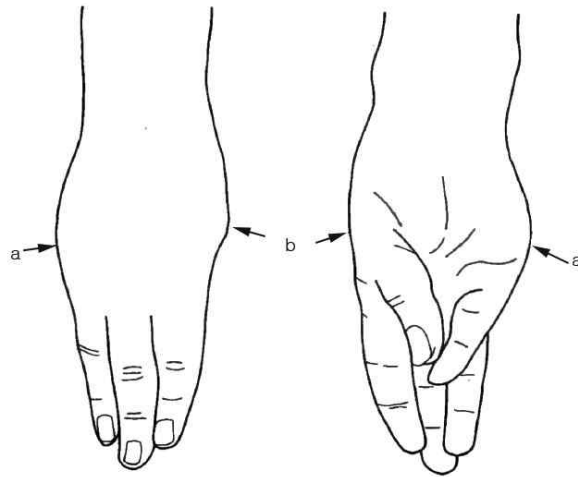
다. 단조 방식으로 만든 것은 금속 봉을 구부려 만든 것으로 양단을 접합시킨 것(closed bangle)과 접합시키지 않은 것(open bangle)이 있다. 후자의 경우 외형상으로는 착장 시 벌어져 크기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황남대총 북분 착장품 10점 중 5점과 같이 속이 빈 금봉을 구부려 中空 기법으로 만든 것이 있고,²⁷⁾ 이처럼 속이 빈 금제 천의 선단부를 강제로 벌리는 방식으로 착장한다면 금속봉의 접합부가 벌어지거나 금속봉 자체가 변형될 수 있다. 또한 황오리 5호분과 같이 청동제 천에 금판을 말아 제작한 것은 청동이 금보다 전성·연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역시 강제로 벌려서 착장하는 방식은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단조 기법으로 제작된, 선단부를 접합시키지 않은 천 또한, 제작 기법이나 재질을 고려할 때 벌어져 착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처럼 형태가 고정된 천의 착장 방식에 대해 살펴보면, 다른 방식으로 는 착장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손끝에서 손등을 통과시켜 손목 또는 下膊에 패용하는 것으로,²⁸⁾ 어느 위치에 착장하였든 손등을 통과하여 착장하는 방식에는 변함이 없다. 즉 천의 직경은 착장자가 손등을 굽혔을 때 손가쪽점에서 손안쪽점의 최단거리보다 반드시 커야 하며, 그 값보다 작으면 착장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크기가 고정된 금속제 천의 특성상, 보행이나 기립 시에 손이 아래로 향하게 되었을 때 손등의 가장 넓은 부분보다 큰 것을 착장한다면 빠져버릴 수가 있다. 따라서 천의 직경은 손등의 너비보다 약간 작아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천은 착장시에 손등을 아치모양으로 약간 굽혀서 착장하게 된다(그림 5 참조). 이상의 사항은 오늘날 제작, 판매되고 있는 같은 형태의 금속제 고정형 팔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상에서 보다시피, 천의 너비는 손등의 너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손등의 너비보다 지나치게 작으면 착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천 내경의 최소

27) 이처럼 중공 방식으로 제작된 것은 황남대총 북분을 시작으로 금령총, 천마총, 호우총 출토품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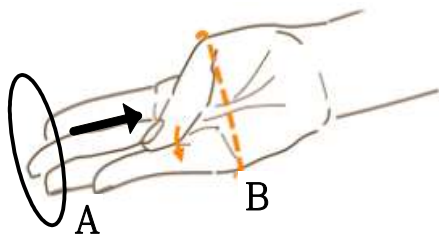
28) 실제 천의 출토 사례들을 일별해 보면 양 팔에 착장하였음이 생생히 드러나는 데, 과대의 위치를 놓고 볼 때 손목 보다는 약간 위쪽에서 발견되는 것이 보통이며 따라서 손목보다는 팔꿈치에 가까운 아래팔이 더 주된 착장위치였던 것 같다.



〈그림 5〉 천 착장시 손의 형태.

손안쪽점(a: Metacarpale radiale)과 손가쪽점(b: Metacarpale ulnare)이 각각 최외곽에 위치하며, a-b의 직선거리는 손너비 보다 작지만 천 착장시에는 손에서 착장 가능한 천의 최소값을 정하는 변수가 됨.

(板田 등(1984) 일부 개변)



〈그림 6〉 천의 착장 과정 모식도

※ 천의 직경(A의 직경)이
굽힌 손등 너비의 직경(B의 직경)
보다 작으면 착장이 불가능함



〈그림 7〉 손너비의 계측지점

(국가기술표준원 2015에서 전제)

값(그림 6에서 A의 직경)은 손등을 아치 모양으로 굽혔을 때의 폭(그림 6에서 B의 직경, 그림 5의 a-b 직선거리) 보다 커야만 한다. 또 지나치게 크면

손을 아래로 하였을 때 천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천 내경의 최대값은 손등의 너비보다 약간 작게 만들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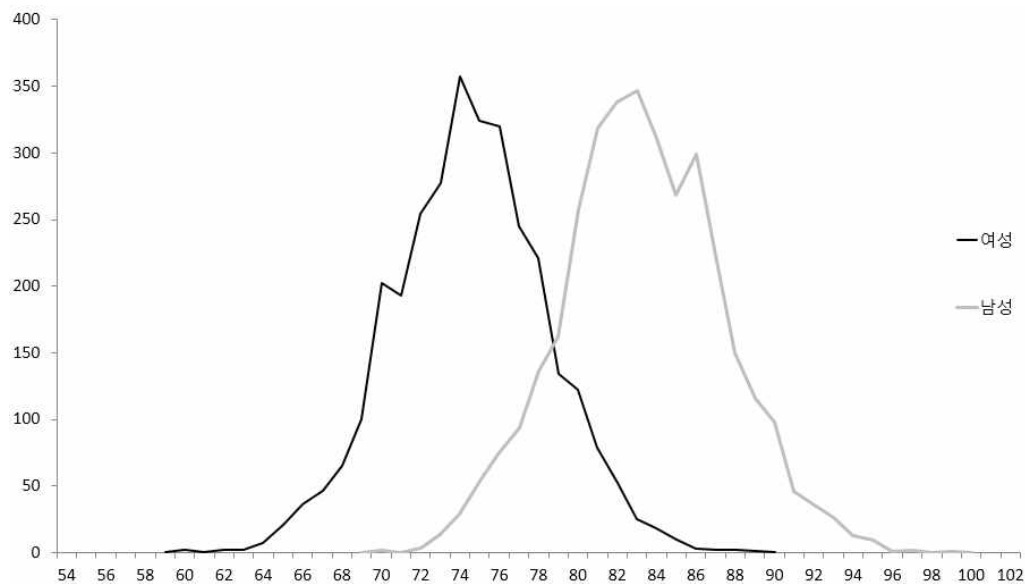
이와 같이 천의 너비와 관련이 있는 계측치는 인체계측학에서 손너비(hand breadth)라 칭하고 있으며, Metacarpale radiale(제2 중수골과 지골 관절에서 최외곽점)에서 Metacarpale ulnare(제5 중수골과 지골 관절에서 최내곽점)까지의 직선거리로 정의된다(그림 7).²⁹⁾ 또한 천의 착장시 손의 형태를 살펴보면, <그림 5>에서 a-b간의 거리보다 천의 최대 내경이 커야 착장이 가능할 것이므로, 천의 착장 가능 크기는 인체계측학에서 말하는 손너비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의 손에서도 성별이형성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서 남녀가 서로 다른 분포치를 갖는다. <그림 8>은 현대 한국인을 대상으로, 18세 이상의 성인 6,577명의 손너비 계측치를 조사한 계측치의 분포양상이다. 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리고 <그림 1>에서 본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 계측치 분포가 차별화되어 있어, 성별에 따른 이봉곡선을 그리고 있다.³⁰⁾ 이러한 성별이형성은 특정 시대와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해외의 손너비 분포 조사를 종합한 결과를 보아도, 각국의 조사 결과는 대동소이하며 남녀 계측치의 분포가 이봉곡선을 그리는 것도 동일하다(기도형 2010: 151-152).

그리고 앞서 논증하였다시피 천 내경의 분포는 손너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천 내경값의 분포 또한 그것을 착장하였던 피장자군의 손너비 분포와 유사한 형태의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천의 내경값도 성별이형성에 따라 남녀의 것에 계측적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신라고분 출토 천의 내경값 분포를 통해서, 그것을 착장하였던 피장자 집단의 성별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서 천의 계측치 분포에 대한 모델 설정과 검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29) 더 정확히는 제5 중수골의 내측연 끝점에서 제2 중수골의 외측연 끝점까지의 거리로 정의한다.

30) 남녀 손너비 분포 판별함수의 판별력은 86.9%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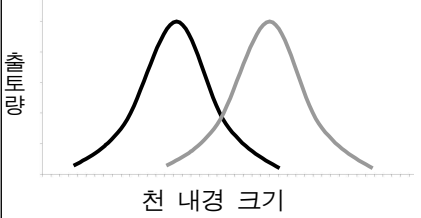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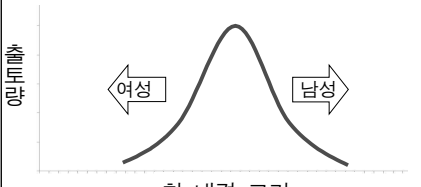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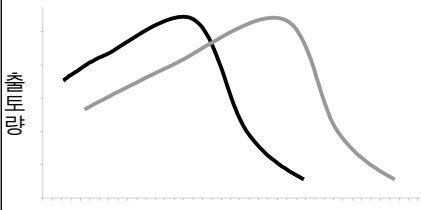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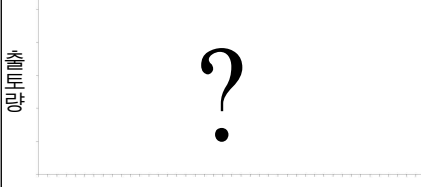
<그림 8> 현대 한국인(18세 이상 6,577명)의 손너비 계측치 분포.

(자료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2015))

② 성별이형성에 근거한 천 계측치 분포의 모델 설정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성별이형성으로 인해 남성의 손은 대체로 크고, 여성의 손은 대체로 작으므로, 천 크기의 전반적인 분포 양상을 검토하면 남녀의 대략적인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성인 남녀만 천 착장이 가능하였다는 전제 하에서의 이야기이고, 만약 천 착장에 성별 또는 연령에 따른 제한이 있었다면 계측치의 분포 양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차후 분석에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여러 상황을 상정한 일련의 모델의 필요하다. <그림 9>는 천의 착장에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여러 제한이 있었다는 가정 하에 천 계측치의 분포를 예측한 것이다.

 <p>출도량</p> <p>천 내경 크기</p>	<p>① 성인남녀 착장 모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 내경 계측치의 분포가 이봉곡선을 그림 - 천 내경의 분포 구간이 다소 넓음 - 두 곡선이 별도로 정규분포할 것이기 때문에 각각 통계적으로 정규성이 인정되어야 함 - 남녀 손의 유연성 차이로 인해 실제로는 이봉곡선 간의 거리가 더 멀고 회색지대는 더 작을 것으로 예측됨
 <p>출도량</p> <p>천 내경 크기</p>	<p>② 성인 남성, 또는 여성의 독점적 착장 모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 내경의 계측치 분포가 단봉곡선을 그림 - 계측치 분포 구간이 매우 좁음 - 남성, 또는 여성의 여부는 비교 자료(야요이 시대 패천, 현대 뱅글 등)와 대조하여 확인 - 통계적으로 정규성이 인정될 것
 <p>출도량</p> <p>천 내경 크기</p>	<p>③ 성별, 연령의 구분 없이 착장하는 경우의 계측치 분포 모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 내경의 계측치 분포 형태 파악이 어려움 - 계측치 분포 구간이 매우 넓음 - 천의 계측치 분포를 통한 성별 추정이 사실상 어려움
 <p>출도량</p> <p>천 내경 크기</p>	<p>④ 이상의 모델이 부분적으로 혼재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인 분포 양상을 통해 추론 시도

〈그림 9〉 천 계측치의 분포 모델과 해석

각 모델에 대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성인 남녀만 천을 착장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천 내경의 계측치 분포는 〈그림 8〉과 같이 남성군과 여성군으로 뚜렷하게 분리될 것으로, 다시 말해서 봉우리 간에 일정한 간격이 있는 이봉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그림 9의 ①). 또한

앞서 설명하였다시피, 천의 착장은 손등을 약간 굽혀서 하게 되므로, 내경의 계측치는 손너비 계측치보다 약간 작을 것이다. 따라서 손너비와 유사한 형태의 이봉곡선이되, 각각 그보다 작은 수치일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녀 모두 착장이 가능하므로, 천 너비의 분포 범주도 상당히 넓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만약 남녀 계측치의 분포가 구분 가능하다면, 두 개의 곡선은 정규 분포할 것이고, 통계적 분석에서도 각각 정규성 검정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³¹⁾

둘째는 성인 남녀 중에서 특정 성별만 착장하는 경우로, 만약 이러하다면 첫 번째 경우와는 달리 계측치 분포가 단봉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9의 ②). 그리고 천 너비의 분포 범주도 상당히 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일정 샘플 숫자 이상의 자료가 모인다면, 하나의 성별에 의한 계측치이므로 마찬가지로 정규성 검정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해당 분포치의 성별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오늘날에도 만들어지고 있는 현대의 자료를 참고하고, 착장자의 성별이 알려진 삼국시대 천 자료와 비교하여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현존하는 삼국시대 천 중에서, 착장자의 성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령왕릉 출토품(소위 多利作銘銀釧 등 4점)이 유일하다. 무령왕릉에서는 부장된 2매의 지석에서 피장자의 성별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출토 정황에서도 왕비의 착장 정황이 뚜렷한데다가, 천에 새겨진 명문에서 “大夫人”의 소유물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천을 착장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천 분포치가 대단히 다양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그림9의 ③), 미성년 남성과 성인 여성의 분포역이 겹치고, 미성년 남녀의 분포역 또한 겹치기 때문에, 남성/여성, 성년/미성년자의 구분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처럼 성별에 따른 분포치가 혼재하는 양상이라면, 사실상 천을 통한 성별 추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31) 성별이형성에 의해 서로 다른 평균을 갖기 때문에, 중심극한정리에 의해 각 성별에 따라 손 너비와 천 너비가 별도의 정규분포 곡선을 가져야 한다. 만약 천 너비가 정규분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른 성별이나 미성년자의 천이 섞여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정규성검정을 통과한다면 그것은 특정 성별에 한정된 계측치 분포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이상의 가정이 부분적으로 혼재하는 경우로서, 전반적인 분포 양상을 통해 추론해 나가는 방법 밖에 없다.

이처럼 대략 네 가지 정도의 분포 양상이 예상되는 바, 이를 앞서 살펴본 야요이시대 패천의 사례와 비교하여 모델을 점검해 보도록 하자. 야요이시대 패천은 145개체 인골이 착장한 사례에서 보았드시피 아동의 착장품은 내경이 36~57mm, 여성은 58~69mm, 남성은 74~104mm에 분포하고 있었다. 이는 <그림 9>의 ①번 모델에 아동 착장군이 추가된 형태라 할 수 있다. 남녀노소 모두 착장하였음에도 ③번 모델이 아닌 ①번 모델과 유사한 것은 남성, 여성, 아동 천의 크기 분포 영역 간에 겹치는 영역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 글의 목적과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 간에 겹치는 영역이 없다는 점이 주목되는데 <그림 8>에서 보았드시피 본래 남성과 여성의 손너비 간에는 상당한 회색지대가 존재하며, 그에 따라서 남성 착장 천과 여성 착장 천의 너비 사이에도 회색지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木下(2005)의 집성에서는 그렇지 않고 상당한 격차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板田의 착장 실험이 한 가지 단서를 준다. 그에 따르면 여성의 손이 남성에 비해 유연성이 높아 천의 착장시에 손등의 횡단면을 원형에 가깝게 굽힐 수 있어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은 더 작은 천을 착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板田 1984: 19-21). 요컨대 손등을 신장(extension)하였을 때의 손너비(hand breadth, 그림 6)는 성별이형성이 나타나되 <그림 8>의 중심부와 같이 일정한 회색지대가 존재하고, 손등을 굴곡(flexion)하였을 때의 손너비는 여성의 손이 상대적으로 더 유연하여 신장시의 손너비 보다 회색지대가 더 축소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①번 모델은 야요이시대의 천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분석된 계측치를 종합한다면 두 곡선 간의 거리가 더 멀고 회색지대가 축소되는 쪽으로 나타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성별이형성이 보다 증폭되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성별 추정에 더 유리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다음 항에서는 이러한 모델에 따라 본격적으로 신라 고분 출토 천의 계측을 실시하고, 그 계측치의 분포 양상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천(鈿) 계측을 통한 신라 고분 피장자의 성별 추정

이 항에서는 성별이형성에 기초한 계측적 성별 추정을 실시하였다. 단, 성별 추정 이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천의 생전 착장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고훈시대처럼 천이 착장이 아닌 부장 위주였을 수 있고(小栗 2008), 우리나라 신석기시대에 사후 착장시키는 방식의 의례처럼, 신라 고분에서도 殯 등 모종의 장례적 절차에 따라 시신이 완전히 육탈된 이후 착장 혹은 부장하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라 고분에서 출토되는 천의 착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천의 계측치에서 성별이형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금속제 고정형의 천으로, 지금까지 보고된 모든 자료를 집성하여 성별이형성을 판단하고, 앞서 본 야요이시대 패천 자료 및 오늘날 제작되는 천 등 여러 자료와 비교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1) 천 착장 여부의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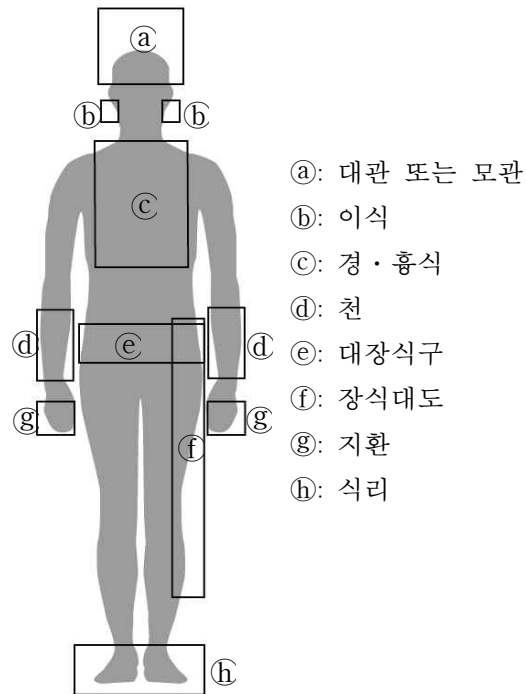
분석에 앞서 다음의 세 가지를 검토하였다. 첫째로 신라 고분에서 출토되는 천이 착장품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피장자의 신체와 천의 위치 관계를 확인하였으며둘째로 천의 크기가 착장 당시의 성별이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즉 탈된 시신에 천을 비롯한 착장 위세품을 부장시켰을 가능성을 있는지 살펴보고자 매장 당시의 사체 상태를 검토하였다.

① 신라 고분 착장 위세품의 출토 양상

신라 고분에서는 여러 가지 착장 위세품이 확인되며, 비록 인골이 남아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출토 맥락에서 매장 당시의 착장 여부가 비교적 뚜렷하게 판단된다(李熙濬 2002). 즉 대관과 모관, 경흉식, 천, 지환, 대장식구 등이 각각의 착장 부위인 두부와 흉부, 하완부와 수부, 요부에서 착장 정황을 그대로 유지한 채 확인되는 것이다. 이상의 착장 양상은 경주 지역을 중

심으로 한 여러 신라 고분에서 그간 누차 확인된 것으로, 지면 관계상 천착장 사례를 중심으로 대표적인 예를 정리하면 <표 2 ~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일반적인 착장 양상을 살펴보면, 대략 두개골의 좌우측에 해당하는 부위에서 20cm 정도 간격을 두고 이식이 출토되는 것을 기준으로, 상부의 두위에서는 대관³²⁾ 또는 모관³³⁾이, 하부에서는 경흉식이 확인된다. 그 아래의 복부에서는 대장식구가, 그리고 대장식구의 좌우에 인접해서는 천이 확인되며, 천의 하부에서는 지환이 출토된다. 주로 대장식구의 좌측에서 착장한 장식대도가 확인되며, 착장하지 않은 대도는 시신의 좌우나 꼭 내 다른 부위에서 출토된다. 족부에는 식리를 착장한 경우가 있는데 식리는 착장하지 않고 부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金載烈 2011).



<그림 10> 신라 고분 피장자의 착장 위세품 출토 위치

(심현철 2013b: 121에서 일부 개변)

이상의 착장 위치를 정리하면 <그림 10>의 ㉠~㉨에서 보는 바와 같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착장과 비착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위치에서 출토된 것이라면 비착장 부장이거나 순장자의 착장품으로 볼 수 있다. 이 안에 따르자면 신라 고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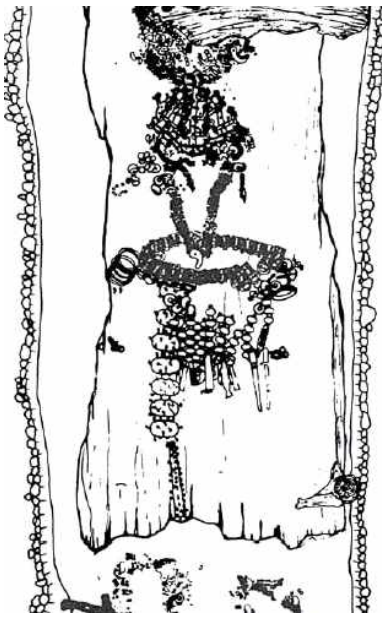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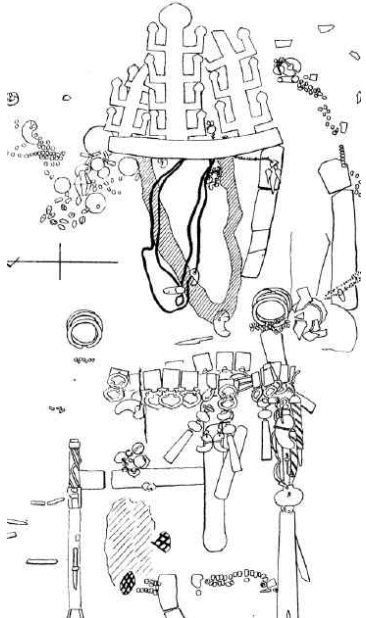


32) 대관의 출토 형태를 근거로 대관을 두부에 착장한 것이 아니라 안면에 씌우는 방식으로 착장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으나(이한상 2004), 대부분 대관의 대륜 하부에서 이식이 출토되므로 역시 두부에 착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33) 기존의 검토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경주지역에서 모관을 착장한 예는 없고, 지방에서는 착장례가 다수 발견된다(이한상 2014; 李熙濬 2002; 하대룡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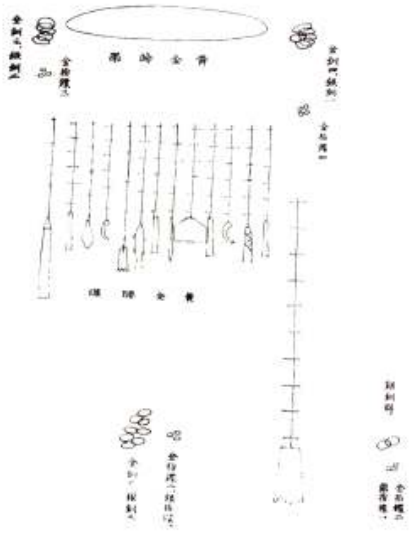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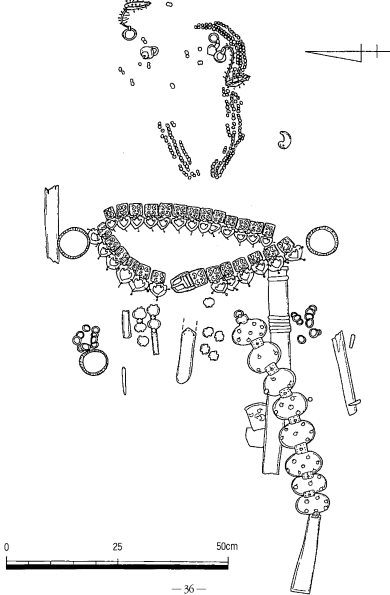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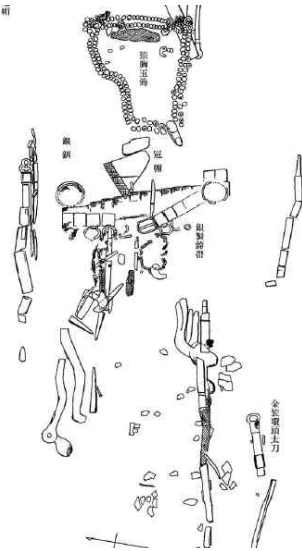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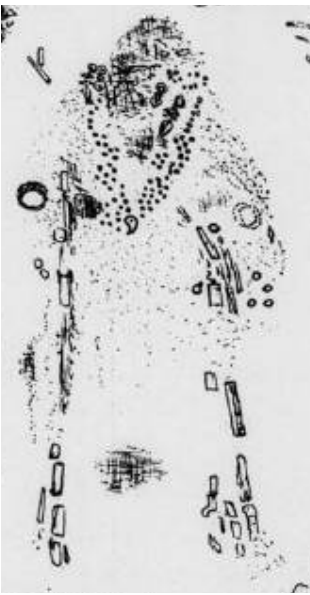
서 출토된 천은, 주피장자가 착장한 경우라면 대장식구 옆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간혹 주피장자의 완부 이외의 지점에서 출토되는 경우가 있는데, 별도의 경식이나 이식과 공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예로는 금관총 주피장자의 족하부, 미추왕릉 C지구 3호분 주피장자의 우측, 의성 대리리 47-1호 주피장자의 족하부, 부산 복천동 15호분 주피장자의 족하부 등이 있다. 이러한 경우는 순장자의 착장품으로 판단되며, 비록 주피장자의 착장품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성별이형성을 통해 착장자의 성별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주피장자의 그것과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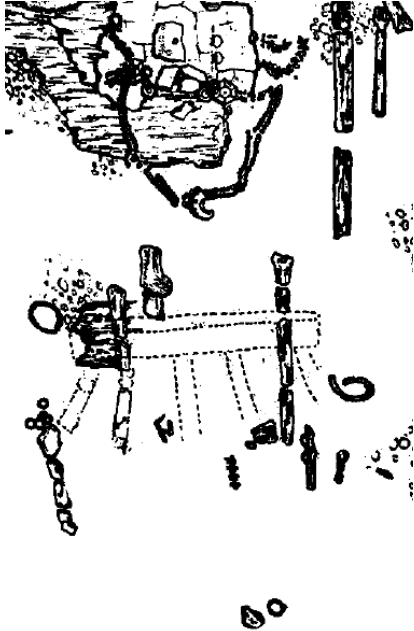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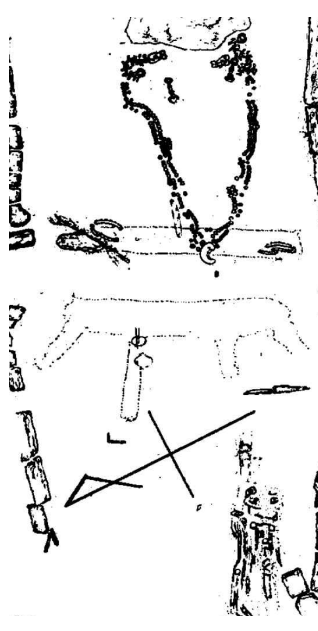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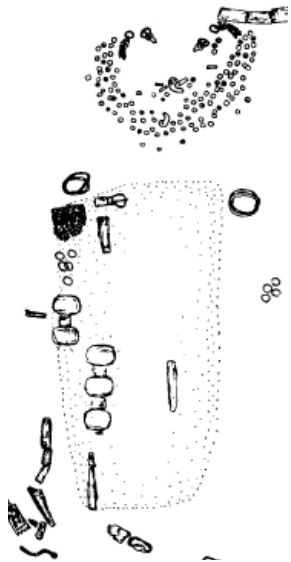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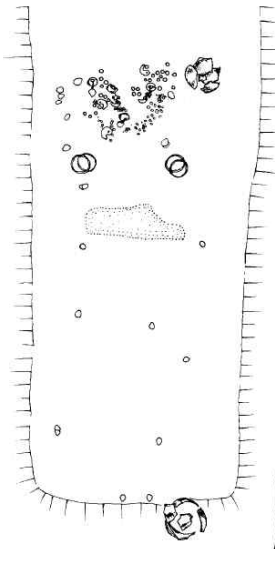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인골이 완전히 유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착장 위세품의 출토 위치가 정연하고 착장 부위와 유기적인 일관성을 보이는 점에서, 신라 고분 출토 천은 전반적으로 부장이 아니라 착장으로 판단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p>황남대총 북분</p>	<p>금령총</p>
	
<p>서봉총</p>	<p>천마총</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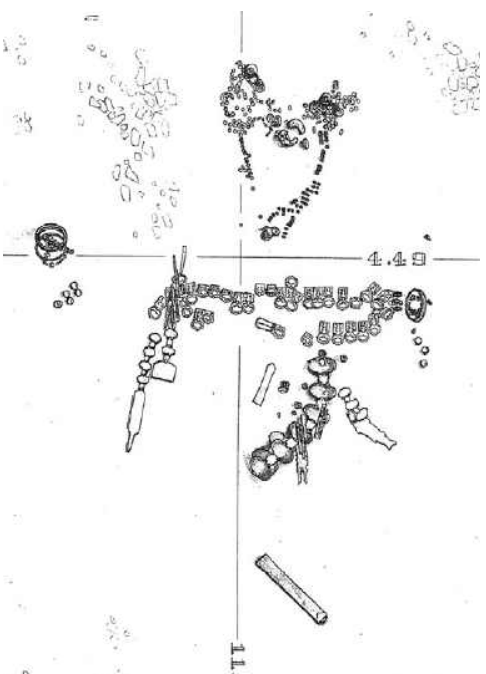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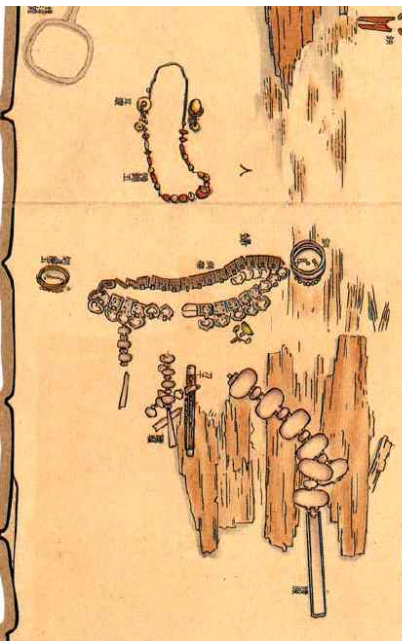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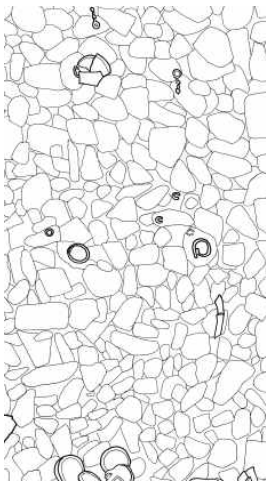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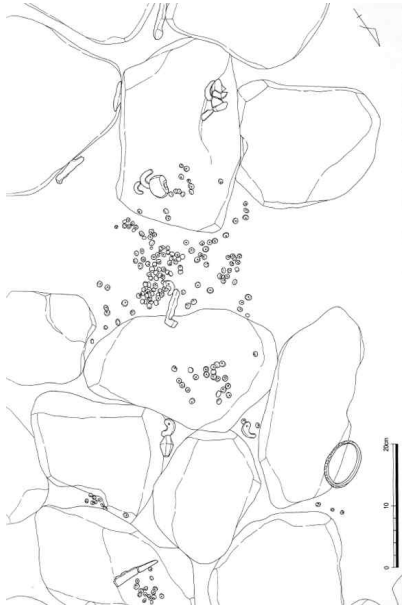
〈표 2〉 주요 천 출토 고분의 착장 위세품 출토 양상 (1)

	
<p>금관총(우메하라 약도)</p>	<p>노동리 4호</p>
	
<p>식리총</p>	<p>노서동 215번지 고분</p>

〈표 3〉 주요 천 출토 고분의 착장 위세품 출토 양상 (2)

	
<p>호우총</p>	<p>은령총</p>
	
<p>황오동 4호분</p>	<p>황오동 5호분</p>

<표 4> 주요 천 출토 고분의 착장 위세품 출토 양상 (3)

	
<p>창녕 교동 12호분</p>	<p>양산 부부총 부인</p>
	
<p>성주 성산동 38호분</p>	<p>달성 성하리 132호분</p>

〈표 5〉 주요 천 출토 고분의 착장 위세품 출토 양상 (4)

② 육탈 이후 착장 여부의 검토

천을 부장이 아닌 착장의 맥락에서 이해한다고 하여도, 시신이 어떠한 상태에서 착장시켰는지는 다른 문제로 남는다. 殯葬과 같은 의례행위 과정에서 착장 위세품이 현위치에 배열된 경우를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라의 殯葬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빈약하지만, 견훤에게 살해당한 경애왕에게 殯이 행해졌다는 정도의 기록이 남아있으며(권오영 2000), 최근에는 경산 조영 EII-2호의 주피장자 인골이 순장자 인골에 비해 부식이 심한 점을 빈장의 근거로 본 견해도 있다(김대욱 2017).³⁴⁾

만약 신라 고분에서 빈이 일반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에 따라 완전히 부식된 인골을 재배열하고 거기에 맞추어 착장위세품을 배열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일반적인 신라 고분의 인골 출토 맥락은 완전히 육탈하는 방식의 빈전과는 명백한 거리가 있다. 인골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잔존한 경산 임당 유적, 김해 예안리 유적, 의성 대리리 유적, 경주 황남동 106-3번지 유적, 경주 천원마을 유적 등 출토 인골의 자세를 확인 가능한 경우 대체로 완전히 관절된 상태(fully articulated)로 해부학적 정연함을 유지하고 있어서, 습골 후 재배치된 정황은 찾을 수 없다.

또한 빈전 당시 시신이 부패하면서 원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위인 귀와 손가락에 착장한 이식이나 지환³⁵⁾이 착장 부위의 위치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사례가 절대다수인 점 또한, 안치 당시의 시신이 최소한 근육과 인대의 연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러한 정황은 각각 27개월간의 빈을 거치고 안장된³⁶⁾ 무령왕과 왕비의 위세품 출토 정황(그

34) 동일 유구에 동시에 매장된 두 개체 간에서도 부패 정도가 크게 다르기도 하고 (Mant 1987), 한 개체 내에서도 상반신은 거의 완전히 토양화되었으나 하반신은 족지끝까지 양호한 보존상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하대룡·이준정 2012). 이처럼 인골의 보존상태는 개별 유구 내에서도, 심지어는 한 개체 내에서도 여러 조건에 의해 극히 다양하기 때문에, 인골의 상태만으로 빈장의 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

35) 최근 경산 대동 57-1번지 유적에서는 주피장자의 오른손에 은제 지환 2점이 착장된 채 출토된 바 있다(하대룡 2017). 이러한 정황 또한 완전히 육탈하는 방식의 빈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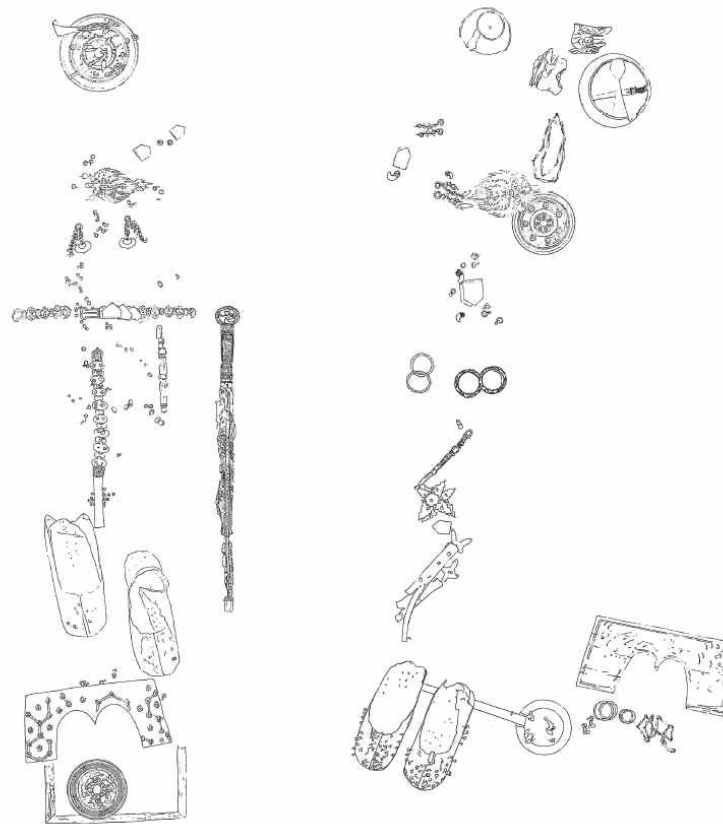
림 11)을 신라 고분의 위세품 출토 정황과(표 2~5) 비교해 보면 잘 드러난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대장식구의 출토 형태로,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과대는 각 과판의 연결 상태가 삼각형, D자형 등으로 배치되어 안치 당시 피장자의 복부에 둘러져 있던 형태 그대로 내려앉았지만, 무령왕의 대장식구는 일자로 호트러짐 없이 배치되어 부장 당시에 복부의 연조직이 남아있지 않았던 정황을 잘 보여준다. 왕비의 천 또한 두 쌍이 각각 8자형으로 출토되어, 여러 점이 겹쳐져 출토되어 착장 정황을 보여주는 신라 고분과 차이를 보이며, 출토 위치도 양손에 착장한 것으로 보기에 지나치게 가깝고 한 손에 착장한 것으로 보기에 너무 멀어 신라고분의 양 허리에서 정연하게 확인되는 양상과 다르다. 두 피장자의 식리 출토 위치도 착장 보다는 부장에 가깝다.

종합하자면 무령왕릉의 출토 정황은 27개월의 빈 끝에 완전히 육탈된 피장자의 최종적인 안치 정황을 잘 보여주며, 신라 고분의 일반적 출토 정황은 그 반대라고 할 수 있다. 전자에서는 관 내에 육탈된 인골을 어떻게 배치하였는지 알기 어려우나, 이미 연조직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의 시신과 함께 대장식구와 천, 식리 등의 부장이 착장 상태를 모사하여 그를 상징하여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반면 신라 고분에서는 대체로 두개골의 좌우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이식이 출토되고, 경식과 대장식구, 천, 지환이 해부학적으로 정확한 위치에서 일관적으로 출토되는 점에서, 연조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복식을 착장하고 안치된 정황이 뚜렷하다.³⁷⁾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천을 비롯한 착장 위세품은 대부분 부패하기 이전의 시신에 착장한 상태로 손너비를 비롯한 연조

36) 시신이 백골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기온과 습도, 강우, 토양의 산도, 곤충과 동물의 활동, 시신의 크기와 무게 등에 따라 극히 다양한데, 이상적인 조건에서 특히 파리목에 노출되는 경우 불과 10여 일 만에 백골화하지만, 일반적인 매장 조건에서는 성인의 경우 10~12년, 아동의 경우 그 절반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ann *et al.* 1990; Rodriguez *et al.* 1983; Simmons *et al.* 2010 등 참조)

37) 이러한 점에서 추론하면, 고총 축조기 신라의 빈은 사체의 말단부인 귀와 손가락의 연골이나 인대가 부식하기 이전에 짧게 끝나고 매장 단계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혹은 얼음이나 다른 방법을 이용해 사체의 부패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방식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



〈그림 11〉 무령왕과 왕비의 관 내 유물 출토 정황

직의 성별이형성을 간직한 상태였던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따라서 천의 내경은 생전의 성별이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라고 여겨지는 바, 다음에 서는 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계측적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2) 대상 자료 및 계측 방법

본고의 분석을 위해서는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모든 천 자료에 대한 종합과 계측이 필요하였다.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여야 통계적 분석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적석목곽묘로 한정하지 않았으며, 시간적인 폭에 있어서도 석실단계에 출토된 자료도 포함

하였다. 이처럼 일단 많은 자료를 확보한 이후에, 해석 단계에서 지역성과 시간성을 고려하였다.

현존하는 자료를 전수 확인한 결과 최종적으로 43개 유구에서 137점의 천이 출토된 것을 확인하였다.³⁸⁾ 하지만 천의 보고 방식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자료의 깊이에 여러 수준 차이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서 천 계측 자료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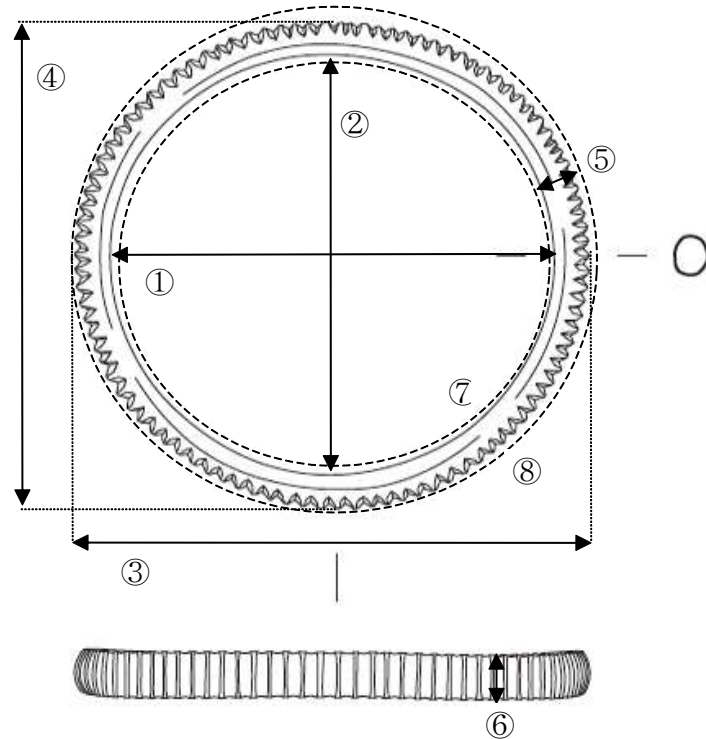
- (a) 정밀한 실측 도면 또는 도판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계측이 가능하며, 모든 계측치의 획득이 가능한 자료
- (b) 보고서와 전시 도록 등에서 바깥지름만 간략히 언급된 자료
- (c) 출토 여부만 알려졌을 뿐 수치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주지하다시피 본고의 분석은 정확한 정보가 입력되어야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므로, (a)의 자료가 가장 통계적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a)에 해당하는 자료만을 대상으로 계측치 분포를 파악하였고, (b)의 자료는 (a)를 바탕으로 한 안쪽지름-바깥지름의 회귀분석 이후에 대략적인 분포치를 추산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리고 (c)의 자료는 마지막 해석 단계에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고자 한다.

(a)의 요건을 갖춘 자료에 대해서는 실측 도면을 바탕으로 계측을 실시하였으며, 계측 지점과 기준은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천의 대다수는 완전한 원형에 가까웠지만, 장경과 단경이 존재하는 타원형인 경우도 많았는데,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2~3mm 내외의 미미한 차이였다. 이처럼 한 가지 계측치에 의존하지 않고 장경과 단경을 구분하여 측정하되, 관찰자 내부 신뢰성(intra-observer reliability)을 위해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2회에 걸쳐 반복 측정하고 각각의 결과를 비교하여 오류를 줄였다.

측정 이후 자료는 보고서 이외의 도록이나 논문에서 제시된 수치를 통

38) 창녕 유리건판 사진집 자료(國立金海博物館 2015), 국은 수집품(尹相憲 2009) 등 정식 발굴되지 않은 컬렉션은 정확히 몇 개 유구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일단 하나의 유구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았다.



〈그림 12〉 천의 계측 내용과 방법

※ 서봉총 출토품의 실측도면이며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변형하였음.

- ① : 최대 내경. 천의 안쪽 지름 중에서 가장 긴 것.
- ② : 최소 내경. 천의 안쪽 지름 중에서 가장 짧은 것.
- ③ : 최대 외경. 천의 바깥 지름 중에서 가장 긴 것.
- ④ : 최소 외경. 천의 바깥 지름 중에서 가장 짧은 것.
- ⑤ : 두께. 내외경 사이 중에서 가장 두꺼운 지점의 두께.
- ⑥ : 폭. 입면도에서 나타난 천의 너비.
- ⑦ : 내주 $\approx \pi \{5(①+②)/4 - ① \times ② / (①+②)\}$. 타원 원주 공식.
- ⑧ : 외주 $\approx \pi \{5(③+④)/4 - ③ \times ④ / (③+④)\}$. 타원 원주 공식.

해 다시 확인 작업을 거쳤다.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천마총 출토 천 4점에 대해서는 일부 자료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보고서의 실측도면과 기술에 따르면 내측 최대경이 65mm, 외

측 최대경은 80mm였으나, 일부 연구에 따르면 직경 11cm로 되어 있고(黃涇根 1976 : 217; 朴熙明 2001 : 87), 최근의 천마총 전시 도록(국립경주박물관 2014)에도 10.5cm로 기록되어 있어 차이가 컸다. 4점이 서로 크기가 달라 생긴 기록상의 차이로 볼 수도 있지만, 전시 도록 등을 통하여 보면 4점 모두 크기가 대동소이하여 개별적인 크기 차이로 이해할 수가 없는 현상이었다.

결국 경주박물관 소장 실물 자료를 확인하여 어느 기록이 정확한지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결과 보고서의 기술이 정확함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천 측정 자료에 오류가 있으면 이는 곧 피장자 성별에 대한 왜곡된 해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정확한 자료의 획득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와 같은 측정을 거친 천의 목록과 측정 결과, 그리고 출전의 세부 내용은 <부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리고 (b) 자료의 경우는 실측 도면이 존재하지 않고 도판과 함께 기술된 내용 등에서 간략히 외경만 언급한 경우로, 이것이 최대치인지 최소치인지 분명하지 않고 내경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추가 분석 단계에서 보조자료로만 사용할 것이다. 노서동 138호분, 황오동 4호분, 5호분, 32-1호분(1955년 발굴), 33호분 서곽, 인동총, 창녕 교동 12호분 출토품 등이 그러하다(부표 1 참조).

(c)의 자료는 심하게 부식·파손되어 계측이 불가능하였거나 약보고를 통해 존부만 알려진 경우이다. 계측치를 통한 성별 추정에서는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고, 통계적 분석 작업 이후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인왕동 20호, 황오동 54호 갑총, 황오동 고분 북곽, 은령총, 황오동 16호 1곽, 미추왕릉 C지구 3호, 인왕동 699-4번지 고분군(1977년 발굴) B군 2곽 등의 사례가 있다.

이상의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00년간 출토된 천 출토 자료를 모두 망라하고자 하였다. 계측 결과에 대한 분석과 해석은 다음 절에서 살펴본다.

(3) 계측 결과와 그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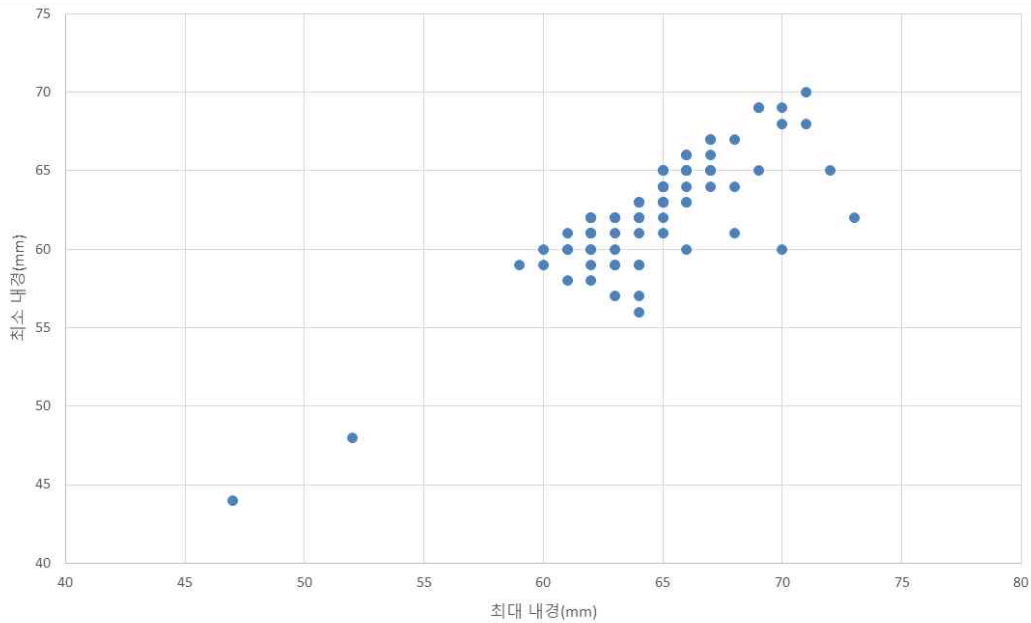
계측 결과 하나 이상의 계측치를 알 수 있었던 천은 108점이고, 그 중에서 최대내경에 대한 계측이 가능하였던 것은 86점, 최대외경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만 얻을 수 있었던 것은 22점이다. 다음에서는 이에 대한 통계적 분석과 해석을 실시하였다.

① 내경 계측치의 분포와 해석

성별 이형성을 파악 비교할 수 있는 손너비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치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천의 내경이다. 그런데 모든 천이 완전한 원형은 아니며, 작은 차이에 불과하지만 최대 내경과 최소 내경을 갖는 타원형도 있다. 두 계측치 모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지만, 천의 착장은 최대 내경을 이용해서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주요한 분석은 최대 내경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모든 계측치를 획득 가능하였던 (a)급의 자료는 27개 유구에서 86점이었다. 이들의 최대 내경 평균은 64.6mm, 표준편차는 3.7이고, 최소 내경은 평균 62.4mm, 표준편차는 3.9이다. 두 수치의 종합으로 전반적인 자료의 분포 상황을 확인하면 <그림 13>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천 거의 대부분은 최대·최소 내경이 60~70mm 사이에 분포하는데, 예외적으로 크기가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두 점이 확인된다. 이들은 금령총에서 출토된 두 점인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금령총의 피장자는 목관의 규모나 착장 유물의 크기를 통해 발굴 당시부터 어린이로 추정된 바 있고, 천 내경의 크기도 전반적인 분포치와 비교할 때 이를 증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금령총 출토 천과 다른 신라 고분 출토 천 사이의 크기 격차는 아동과 성인의 차이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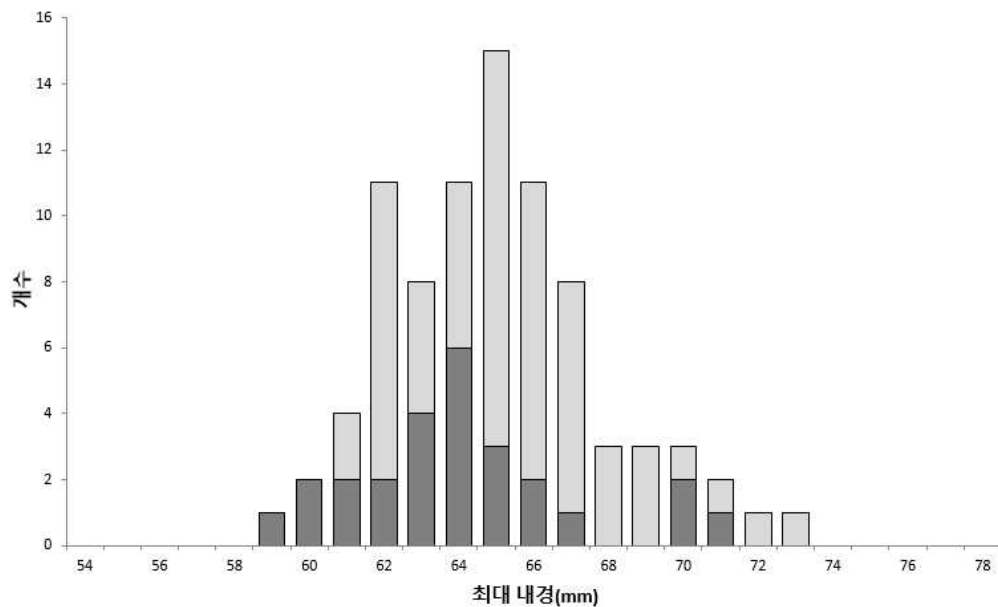
현재로서는 금령총과 비슷한 크기의 천이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신라 고분에서 금속제 천은 기본적으로 성인을 위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아동을 위해 천이 제작된 금령총의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금령총을 제외한 다른 경우는 전반적인 크기로 보아 성인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그림 13> 내경 계측이 가능한 천 86점의 최대 내경, 최소 내경 분포.
좌하측에 격리된 두 점이 금령총 출토품.

성인용 천 84점의 최대 내경 평균은 64.9mm이고 표준편차는 2.8이다. 이는 천 내경의 최대값이 상당히 좁은 범위 안에 밀집분포함을 의미하며, 실제로 60~70mm 사이의 불과 10mm 범위 내에 84점 중 79점(94.0%)이 집중되어 있다. 최소값은 국은수집품 유리제 천이 59mm이고 최대값은 보문동 합장분 적석목곽묘 출토품이 73mm이므로, 전체적인 편차 자체가 크지 않다. 이처럼 천 내경값은 전체적인 분포의 편차가 크지 않고, 특정 영역에 매우 밀집하여 분포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이러한 점에서 내경값의 분포 양상은 앞서 설정한 천 계측치 분포 모델(그림 9) 중에서 ②번 모델, 즉 하나의 성별에 의한 독점적 착장 모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분포치를 圖示하면 <그림 14>의 회색 막대그래프가 보여주는 것과 같으며, 그 분포 양상도 단봉곡선의 정규분포 양상에 근접한다. 그런데 서봉총이나 금관총의 예에서 보듯이 신라 고분에서는 한 팔에 여러 점의 천을 착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면 다수의 천



〈그림 14〉 신라 고분 출토 성인용 천의 최대 내경 빈도분포

※ 범례 - □ : 천 전체, ■ : 중복착장 제외

을 착장한 특정 피장자가 과장되는 결과가 생기므로, 한 팔에서 중복 착장한 것 중 가장 작은 것 한 점만을 선택하여 다시 도기한 것이 검은색 막대 그래프이다. 여기서는 한 명의 피장자가 하나의 계측치만 보유할 수 있다. 〈부표 1〉에서 보듯, 중복 착장한 천들은 크기가 대동소이하고 큰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없다. 중복착장을 제외한 최대 내경을 대상으로 Kolmogorov-Smirnov, Shapiro-Wilk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면 결과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두 검정 모두에서 유의확률이 0.05 이상으로써, 귀무가설을 기각하므로 정규분포에 속하며 단봉분포의 양상을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다.³⁹⁾

〈표 6〉 중복 착장을 제외한 천 내경 분포의 정규성 검정 결과

	Kolmogorov-Smirnov			Shapiro-Wilk		
	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	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
분석 결과	.164	26	.070	.937	26	.112

39) Kolmogorov-Smirnov 검정과 Shapiro-Wilk 검정 모두 $p < 0.05$ 일 때 귀무가설을 기각하는데 전자에서 $p=0.070$, 후자에서 $p=0.112$ 이므로 귀무가설을 채택하여

이처럼 신라 고분 출토 천의 내경 분포치는 단봉곡선이며, 따라서 하나의 성별이 독점적으로 착장하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하지만 정규성검정만으로는 이 성별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판단할 수 없으며, 다른 천 자료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야요이 시대 남녀 인골이 착장한 패천 자료(木下 2005)를 시작으로, 현대 제작되고 있는 팔찌,⁴⁰⁾ 그리고 삼국시대 자료 중에서 유일하게 착장자의 성별이 분명한 사례인 무령왕비 관내 출토 천 등과 비교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왕비는 27개월 간의 빈을 거치고 안장되었기 때문에 매장 당시의 착장 여부 자체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왕비의 관내에서 출토된 천 중에서 多利作名銀釧은 명문에서 알 수 있다시피 ‘大夫人’을 위해 제작된 것이 분명하고, 지석에서도 왕비의 성별을 확실히 알 수 있으므로 여성용 천으로 판단하여도 무리가 없다. 왕비의 관내에서 출토된 천은 네 점인데 두 점의 내경은 60mm, 다른 두 점은 59mm로 모두 정원형이다. 이상 비교 자료의 상세를 종합하면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리고 이를 도표상에서 표시하면 <그림 1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여기에서는 각 집단이 착장한 천 내경의 분포 범위를 비교하였는데, 일단 야요이 시대의 여성·남성 착장 패천의 최대 내경 분포 범위(E·F)는 현대 여성과 남성이 착장하는 것(B·C)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범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또한 무령왕비 착장품(A)은 현대 여성(B)과 야요이 여성(E)의 분포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규분포로 간주한다.

- 40) 오늘날 제작되고 있는 폐쇄형 뱅글의 크기를 조사하기 위해 국내의 여러 업체에 문의하였으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단 S사와 A사, B사는 이를 공개하고 있어 참조하였는데, S사는 60~64mm(60: small, 64: medium), A사는 58.4~66mm(58.4: Xsmall, 61: small, 63.5: medium, 66: large) 구간에서 제작하고 있었다. B사는 천의 내측 둘레를 기준으로 7인치~8.5인치까지 0.5인치 단위로 단위를 구별하여 내경 58~68mm 구간 내에서 4개 단위로 나누어 제작하였다. 남성용의 경우, 국내에서는 자료를 공개하는 곳이 없어 객관적인 수치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영국 업체의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73~81mm의 크기 분포를 가지고 있었다. 이 경우 인종 차이가 문제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와 영국의 남녀 손 치수 평균이 대동소이하고(기도형 2010: 151), 여성용 팔찌의 크기도 양자가 사실상 동일하여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7〉 성별, 연령별 천 크기와 신라 고분 출토품의 비교

비교군	구분	착장 천의 크기(mm)		
		아동	여성	남성
무령왕비 관내 출토품		-	59~60	-
현대 제작 천		-	58.4~68	73~81
야요이 패천(木下 2005)		36~57	58~69	74~104
신라 고분 출토 천		47~52	59~73	
신라 고분 출토 천 (중복 착장 제거)		47	59~71	

따라서 여성용 천의 최대 내경 분포범위(A·B·E)와 남성용 천의 최대 내경 분포범위(C·F)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일정하게 구분되며, 성별에 따른 최대 내경의 분포 범위는 시대에 따라서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신라시대 천과 비교해 보면, 일단 금령총 출토품(G)은 야요이 아동(D)에 포함되는 크기를 보여,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아동의 착장품인 것이 다시금 확인된다. 그리고 신라시대 성인이 착장한 천(H)은 무령왕비(A), 현대 여성(B), 야요이 여성(E)과 약간의 오차를 두고 동일한 범주 내에 분포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전체 신라고분 출토품 중에서 91.6%(84점 중 77점)가, 중복 착장을 제외하였을 때에는 88.4%(26점 중 23점)가 현대 여성 및 야요이 여성이 착장한 천의 최대 내경 분포 범위 내에 포함된다.

신라 천 중 소수는 중간 영역이나 남성용 천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후자의 것은 보문리 합장분(적석목곽묘) 출토품 중 하나로, 최대 내경은 73mm이지만 최소 내경은 62mm로, 강하게 찌그러진 타원형의 천이다. 타원의 찌그러진 정도를 나타내는 이심률(異心率)로 보면,⁴¹⁾ 신라 고분 출토 천의 평균 이심률은 0.2이지만 이 천의 경우 0.53으로 매우 커서, 아마도 매장주체부의 붕괴시 일어난 변형이거나 그 변형을 복원하면서 생겨난 변화로 추정된다.⁴²⁾ 정원형으로 복원한다면 이 천의 내경은 약

41) $\sqrt{1 - \frac{b^2}{a^2}}$ 로 계산하며 a는 장반지름, b는 단반지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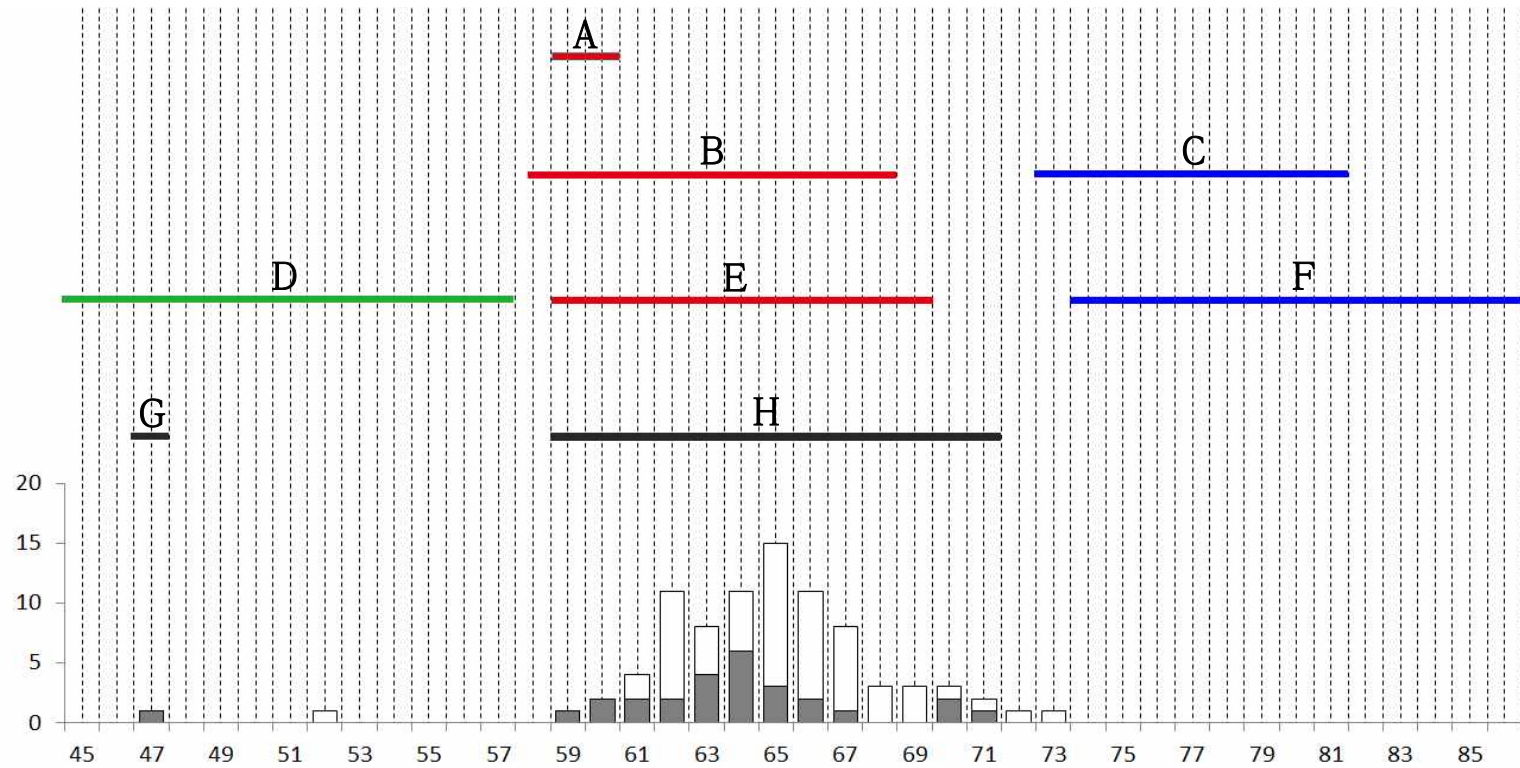
42) 실제로 최초 보고(朝蘇總督府 1916: 347)에서는 접합부가 크게 일그러져있는 등

68mm가 되어 여성 영역인 B·C에 포함된다.

따라서 남성 영역(C·F)에 해당하는 신라시대 천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남성이 착용한 천이 일정 숫자 이상 존재하였다면, C·F에 해당하는 영역에 마찬가지로 단봉분포를 그리면서 나타나야 할 것이지만, 현재 자료 내에서 그러한 경향은 전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며 예외가 없기 때문이다.

이상의 천 내경과 관련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천은 그 최대 내경이 60~70mm 내외의 매우 좁은 영역에 밀집하면서 단봉분포를 그리고 있어 하나의 성별 분포를 나타낸다. 확인된 수치를 야요이시대와 무령왕비, 그리고 현재의 자료와 비교해 보았을 때 아동용으로 추정되는 금령출 출토품을 제외하면 모두 여성 성인의 영역에 포함되며, 남성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없다. 성별이형성을 고려한다면, 남성영역에서도 천의 최대 내경이 일정한 단봉곡선을 그리며 분포해 전체적으로 이봉곡선을 그어야 하지만 그러한 양상은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자료에서 성인 남성이 착용한 천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① 통계적인 정규성, ② 최대 내경의 분포 양상, ③ 성별이형성 세 요소를 고려하였을 때, 신라 고분의 천은 여성에 한정된 착용양상을 보여주며 이로써 신라 고분 출토 천은 여성만 착용한 유물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판단된다.

심하게 변형된 것이 확인된다. 최근의 재보고에서는 복원이 이뤄진 것을 볼 수 있는데(國立中央博物館 2011: 47-48), 손상을 우려해서인지 완전히 정원형으로 복원하지는 않았다. 함께 출토된 천은 정원형에 가까우며 최대내경 70mm, 최소내경 68mm이다.



<그림 15> 신라 고분 출토 천의 최대 내경 분포(하단)와 각종 남녀 착장 천의 최대 내경 분포 범위 비교

A: 무령왕비 착장품

D: 야요이 아동 착장 패천

G: 금령총 출토품

B: 현대 여성용 천

E: 야요이 여성 착장 패천

H: 신라 고분 출토 천

C: 현대 남성용 천

F: 야요이 남성 착장 패천

(막대그래프 음영: 중복착장 제외)

② 외경 계측치를 통한 내경의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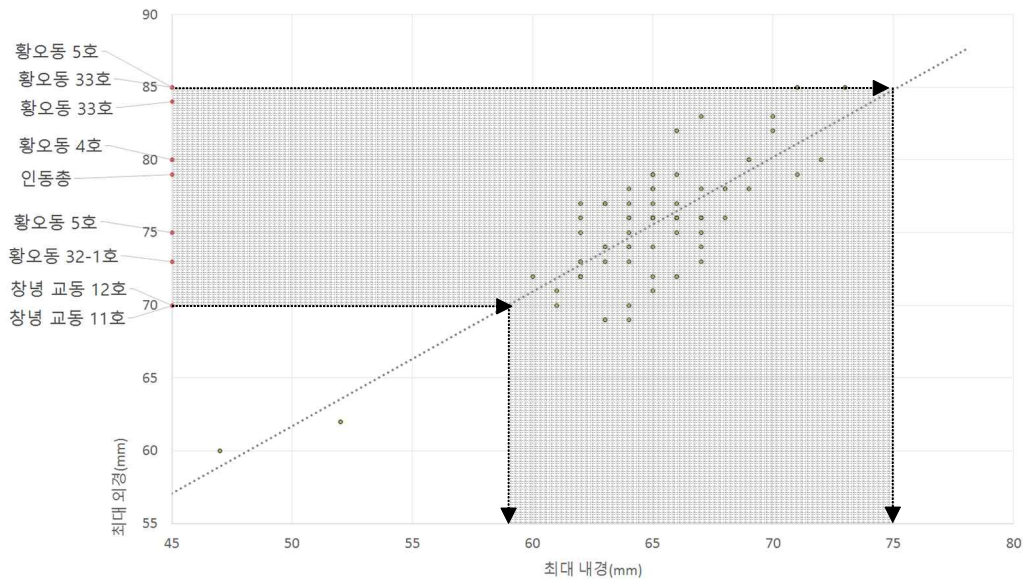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내경의 계측치가 존재하는 천은 분포치의 해석을 통해 여성임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러나 자세한 계측치나 도면이 전하지 않고, 외경만 간단히 보고된 경우가 있으며, 노서동 138호, 황오동 4, 5,⁴³⁾ 32-1, 33호 서곽, 인동총, 창녕 교동 11, 12호 등 8개 고분 22점이 그러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비록 내경은 존재하지 않지만 천의 내경과 외경이 갖는 상관관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내경의 분포 범위를 추정할 수 있다. 즉 내경과 외경이 알려진 금속제 천 수십 점을 통해 양자 간의 상관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추산한 뒤, 거기에 외경만 알려진 경우를 대입하면, 어느 정도 오차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분포 범위나마 추산이 가능할 것이다.

내경을 추론한 결과는 <그림 1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 중에서 노서동 138호출토 천의 수치는 금령총 출토품과 유사한 계측치를 보이는데 정황상 내경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⁴⁴⁾ 이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대략 59~74mm 이내의 분포 범위를 보여, 직접 측정을 통해 계측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고, 이상치가 존재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여성이 착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그림 1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내경과 외경의 관계는 선형적으로 완전히 일정한 것이 아니기에 회귀분석을 통한 추정치에는 어느 정도의

43) 황오동 5호에서는 착장위치에서 천이 두 쌍 발견되었는데, 외경이 각각 7.5, 8.5cm였다. 중복 착장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내외경의 차이가 거의 없는 데 비한다면 황오동 5호의 사례는 대단히 특이한 것이다. 그런데 피장자의 두위에서 주환 굽기가 다른 태환이식이 두 쌍 발견된 점을 고려한다면, 그 중의 한 쌍의 태환이식과 한 쌍의 천은 꼭 상부에 안치된 순장자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

44) 보고 원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4) 金銀釧 一雙 - (중략) 徑은 右手 것이 約 六糲, 左手 것이 六.五糲으로서 左手 것이 약간 굽다. 出土 狀況에서 말한 것처럼 손가락지와의 距離 또는 釧自體의 굽기로 보아 팔목이 아니라 若干 올려끼웠던 모양이다.” (金載元·金元龍 1955: 44) 즉 천의 지금이 좌우 각각 6.5cm와 6cm라고 보고되었는데, 이 수치가 내경인지 외경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런데 이 크기가 만약 외경이라면 금령총 출토품에 비견될 만큼 크기가 작으며 아동의 것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서 틀림없이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보고자가 복원한 피장자 신장도 150~160cm으로 신라시대 성인 여성 평균에 근접한 점에서 아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보고된 노서동 138호 출토 천의 크기는 내경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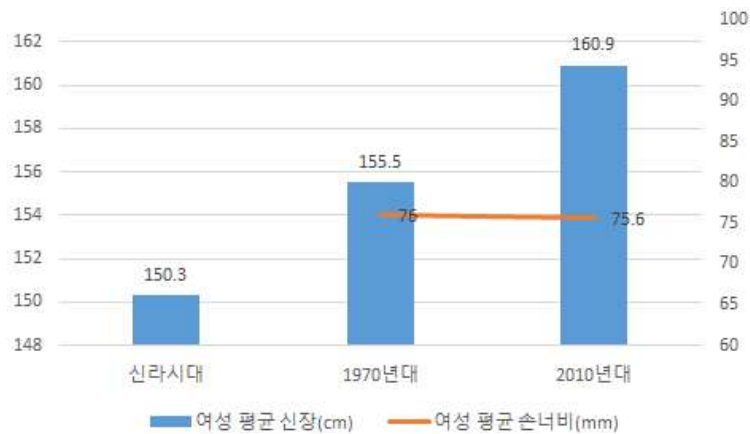


〈그림 16〉 회귀선을 이용한 천 내경의 추정

오차가 있다. 그리고 외경만 보고된 경우 대부분은 5mm 단위로만 대략 보고된 자료로, 정확한 계측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귀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현존하는 계측 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남성이 착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군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신라 고분 출토 자료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계측치가 존재하는 천 108점은 그 분포 양상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금령총 출토 천 2점을 제외하면, 전부가 성인 여성이 착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로서는 남성이 금속제 고정형의 천을 착용하였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물론 신라 시대의 평균 체격이 지금보다 작았고, 손의 계측치에서도 그러하였을 것이므로 현대와 과거의 천 자료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과거인과 현대인의 체격 차이는 하지골의 길이와 성장기의 영양학적 복지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는 신장에서 민감하게 나타나며, 다른 신체 부위에서 같은 정도와 비율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는 1970년대와 2000년대 이후의 한국인 계측치를 비교해 보아도



〈그림 17〉 신라시대에서 최근까지의 신장과 손너비 변화 추세

※ 신장은 최근 40년간 그 이전 1,500년 간의 변화만큼 급격히 커졌으나, 손너비에는 사실상 변화가 없음에 주의. 자료 출처는 각주 46) 참조.

잘 나타난다. 큰 폭의 복지수준 향상이 일어난 이 기간 동안, 20대 여성의 신장은 155.5cm에서 160.9cm로 급격히 커졌지만,⁴⁵⁾ 비슷한 기간 동안 같은 연령대 여성의 평균 손너비(hand breadth)는 76mm에서 75.6mm로 사실상 변화가 없다(그림 17).⁴⁶⁾ 즉 시대 별로 복지수준이 변화하여도 손과 같은 부위는 그러한 변수에 영향을 매우 적게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인간이라는 종 내의 성별이형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시대에 따른 체격 변화와는 상관없이, 천 계측치 분포가 단봉분포이자 정규분포이므로 하나의 성이 착장하였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일본 야요이 시대의 천 최대 내경 분포치의 남녀 차이와, 현대 천의 남녀 차이 양상이 상당히 동일한 점도 시대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고, 성별이형성에 의한 차이가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는 점을 잘 보여준다. 아울러 여성용으로 제작된 것이 분명한 무령왕비의 천 또한 같은 영역에 있으므로 동시대 자료로도

45) 한국과학기술연구소(1980)의 1979년도 측정 자료와 국가기술표준원(2015)의 2015년도 측정 자료를 비교하였다. 참고로 신라시대 여성의 신장 평균은 김해 예안리 자료로 볼 때 150.3cm이다(釜山大學校博物館 1985).

46) 한국과학기술연구소(1980)의 1979년도 측정 자료와 국가기술표준원(2008)에서 측정한 손 자료를 비교하였다.

교차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에서 신라 고분 피장자의 성별에 대해, 천 내경 크기 분포의 성별 이형성을 토대로, 과거와 현대의 자료를 종합한 결과 천 착장자는 모두 여성으로 추정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다만 천의 착장 여부를 통해 고분 피장자의 성별을 파악하는 방법은 명백한 한계가 있는데, 천의 착장이 황남대총 북분 이전에는 확인되지 않으며(국립경주박물관 2001), 기본적으로 상당히 높은 위계에서만 나타나(李熙濬 2002), 편년적, 위계적 위치가 뚜렷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비착장자 중에서도 여성이 존재할 수 있어 착장자는 모두 여성이고 비착장자는 모두 남성이라고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적석목곽묘 전반에 확대 적용을 위해서는 다른 고고학적 속성과 비교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다음 항에서 이에 대해 검토하였다.

3)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별

이번 항에서는 천의 내경을 통해 추론한 피장자의 성별 추정을 적석목곽묘 전반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찾도록 한다. 성별에 따른 적석목곽묘의 이분적 구조화를 전제로 한다면, 적석목곽묘의 여러 물질자료 중에서 적어도 일부는 성별에 따라 양측적 대립을 가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천이 출토된 무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지만, 반대로 천이 출토되지 않은 무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적석목곽묘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성별과 관련된 요소일 가능성이 크며, 그것이 천에 비해 편재성(遍在性)이 높은 속성이라면 천이 갖는 시간적, 계층적 한계를 넘어 보다 포괄적인 성별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만약 천이 출토된 무덤에서는 공통적으로 태환이식이 출토되고, 천이 출토되지 않은 무덤에서는 공통적으로 세환이식이 출토된다면, 여성용으로 밝혀진 천의 출토 여부와, 태환이식과 세환이식의 배타성이 연결되므로 이식 또한 성별과 관련되어 있다고 가설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것은 천의 출토 여부와 강한 관계를 갖는 적석목곽묘의

특징을 찾는 것이다.

적석목곽묘가 갖는 다양한 변수 중에서 어떠한 것이 천의 착장과 상응 관계를 보이는지 일일이 대조하여 찾아내는 작업은 다소 지난한 과정이다. 본고에서 그 과정을 전부 제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를 생략하고 결론부터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에 성별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온 이식이나 대도 등의 요소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천의 출토 여부와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적석목곽묘의 변수는 묘곽 형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부곽의 존재 여부와 깊은 관계를 보여, 지금까지 확인된 천은 모두 부곽이 없는 형태의 묘곽에서만 출토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반대로 부곽이 있는 형태의 묘곽에서는 천의 출토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다소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기존에는 묘곽 형식, 특히 부곽의 생략은 시간성과 깊이 관련된 변수로 보아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항은 천의 출토와 묘곽 형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관관계를 갖는지 검토하고, 현존하는 인골 자료와 대조하여 성별과 묘곽 형식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마지막으로 월성북고분군의 비적석목곽묘에서는 묘곽 형식과 성별이 어떠한 상관을 갖는지도 검토해 보도록 한다.

(1) 묘곽 형식과 천 출토 여부의 상관관계

적석목곽묘의 묘곽 형식 분류는 평면 형태 및 주부곽의 배치 방식, 그리고 유물 부장 위치를 기준으로 연구되어 왔고 여러 분류안이 존재한다(權龍大 2009; 金大煥 2001; 崔秉鉉 1980, 1992, 2016a). 여기에서는 경주지역의 적석목곽묘 형식 분류에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최병현(2016a)의 안을 준용하여 천의 출토와 묘곽 형식 간의 상관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최병현의 묘곽 형식 분류를 간단히 요약하면, 부곽 유무에 따라 크게 주부곽식(1)과 단독곽식(2)으로 대별하고, 전자는 주부곽 묘곽의 연결 상태에 따라 이혈(1A)과 동혈(1B)로 나눈 것이다. 또한 후자는 부장품 구역의 위치

에 따라 족부부장(2A), 양단부장(2B) 두상부부장(2C)으로 삼분하였다.

이상의 분류안에 따라 양자 간의 상관관계를 살핀다 할 때, 분석 대상으로 가능한 많은 수의 분묘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으나, 천의 착장이 일정 위계 이상으로 한정된 경향이 있으므로 분석 대상도 그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낮은 위계의 분묘를 모두 포함한다면 분석 대상의 숫자는 늘겠지만, 피장자 계서가 낮아 천을 착장하지 못한 피장자가 다수 포함되어 양상 파악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착장위세품의 계층적 착장양상을 분석한 선행 연구(李熙濬 2002)에서는 천의 착장이 최상위군인 I·J, K·L군에 부장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본고에서는 착장위세품이 적어도 3점 이상 부장된 무덤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묘곽 형식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착장위세품이 3점 이상 부장된 무덤 중에서도 묘곽이 파괴되지 않은 적석목곽묘를 전수 조사하여 선별하였다. 여기에는 꼭 정식 보고되지 않았더라도, 주요 착장 위세품의 출토 여부와 묘곽 형식을 알 수 있는 경우라 하면 모두 포함시켰다.

그 결과 경주 지역의 적석목곽묘 52기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분묘는 천을 비롯한 주요 착장 위세품과 묘곽 형식을 비교하여 함께 도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여기에서 피장자가 천을 착장하고 묘곽 형식이 2C인 고분은 음영으로 표시하였는데,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매우 독특한 양상이 드러난다. 즉 피장자가 천을 착장한 적석목곽묘 22기는 예외 없이 두부부장단독곽(2C)이라는 점이다. 다만 모든 두부부장단독곽에 전부 천이 부장된 것은 아니어서, 인왕동 149호, D지구 1호 1곽, 인왕동 95-6번지 2호, 황오동 100번지 1호 등 4개 무덤에는 부장되지 않았다.

반면 이혈묘광(1A)과 동혈묘광(1B)의 주부곽식묘에서는 천의 출토 사례가 전무하며, 양단부장단독곽(2B)에서도 출토 사례가 없다. 단, 족부부장단독곽(2A)인 미추왕릉 C지구 3호분에서 은제 천 두 점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주피장자의 착장이 아니라 그 옆에 부장된 정황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嶺南大學校博物館 1975: 79), 미착장 부장이거나 순장자 착장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두부부장단독곽(2C)이 아닌 묘곽 형식(1A, 1B, 2A, 2B)인 적석목곽묘 26기에서는, 착장위세품이 3점 이상인 고분만을 선택하여 검토하였음에도

〈표 8〉 월성북고분군 적석목곽묘의 착장 위세품 출토 양상(3점 이상)과 묘곽 형식

연 번	유구명	묘곽 형식	천	관식	관모	세환 이식	장식 대도	대장 식구	대관	경식	지환	중공 구	태환 이식	식리	비고
1	황오동16호4,5곽	1B			○	●	●	●					○		
2	황남동109호1곽 ⁴⁷⁾	1B			○	●	●	●							
3	황남동110호주부곽	1A		○	○	○	○	○		○					
4	황오동100번지3호	1A				●	●	●							
5	인왕동19호J곽 ⁴⁸⁾	1B				●	●	●							
6	죽새B1호주부곽	1B				●	●	●							
7	황오동파괴고분2곽	1A				●	●	●							
8	황오동16호2,3곽	1A				●	●	●	●				○		
9	황오동54호을총 ⁴⁹⁾	1A			○	●	●			●					약보고
10	황남동82호동총	1B				●	●	●		●					
11	황오동34호1곽	1A				●	●	●		●					
12	황오동34호2곽 ⁵⁰⁾	1A				●	●	●		●					
13	인왕동C군1호	1A			○	●	●	●		●					약보고
14	황오동41호	1A		○	○	●	●	●		●					약보고
15	황오동14호1곽	1A		○		●	●	●		●			○		
16	황남대총남분주부곽	1A				●	●	●	●	●				○	
17	인왕동A군1호	1A					○		○				○		
18	황남동82호서총	1B						●	●				●		
19	황오동16호6,7곽	1A						●		●	●	●	●		
20	황오동16호8,10곽	1A						●	●			●	●		
21	황오동1호남곽	1B						●		●	●	●	●		약보고
22	미추C구3호 ⁵¹⁾	2A	○							○			○		
23	황오동100번지7호	2A								○	○		○		
24	인왕동19호C곽	2B								●	●	○	●		
25	황오동14호2곽	1A								●		●	●		
26	미추6C구4호	1B								●		●	●		약보고
27	황오동100번지1호	2C		○	○	○	○								
28	식리총	2C	●			●	●	●		●				○	
29	황오동16호1곽	2C	●			●	●	●	●	●				○	
30	데이비드총 ⁵²⁾	2C	●			●	●	●		●	●				
31	노동리4호	2C	●		○	●	●	●		●	●				
32	황오동4호	2C	●			●	●	●		●	●			○	식리
33	노서동138호	2C	●			●	●	●		●	●				
34	천마총	2C	●			●	●	●	●	●	●			○	
35	인왕동149호	2C	●			●	●	●		●					
36	호우총 ⁵³⁾	2C	●			●	○	●	●	●	●			○	
37	금령총	2C	●			●		●	●	●	●				
38	은령총	2C	●			●		●	●	●	●			○	
39	미추6D구1호1곽 ⁵⁴⁾	2C	●			●		●		●					약보고
40	인왕동20호 ⁵⁵⁾	2C	●				●	●		●			●		
41	황남동95-6번지2호	2C				○	●	●		●					
42	인왕동156-2호 ⁵⁶⁾	2C?	○				○	○		○		○	○		약보고
43	인왕동B군2호 ⁵⁷⁾	2C	●								●		●		약보고
44	황오동32-1호 ⁵⁸⁾	2C	○				○	○	○	○	○	○	○		약보고
45	황오동54호갑총	2C	●					●		●		●	●		약보고
46	금관총	2C	●					●	●	●	●	●	●	○	
47	황남대총북분	2C	●					●	●	●	●	●	●		
48	황오리고분북곽(1937)	2C	●				○	●	●	●	●	●	●		
49	서봉총	2C	●					●	●	●	●	●	●	○	
50	황오동33호서곽 ⁵⁹⁾	2C	●							●		●	●		
51	황오동5호	2C	●					●		●	●	●	●		
52	노서동215번지 ⁶⁰⁾	2C	●							●	●	●	●		

※ 범례 : 천의 출토와 2C 묘곽 형식은 음영으로 강조함.

-묘곽 형식(분류 방식은 최병현 2016a를 따름)

1A : 이혈주부곽, 1B : 동혈주부곽, 2A : 족부부장단독곽, 2B : 양단부장단독곽, 2C : 두부부장단독곽
(최초 보고 이후 재검토와 재조사에 의해 묘곽 형식의 판단이 달라진 것과 그 근거는 모두 각주에 표시함)

-착장위세품

● : 착장 위치에서 출토됨. ○ : 매장주체부에서 출토되었으나 착장 여부는 불분명함. ○ : 미착장 위치에서 출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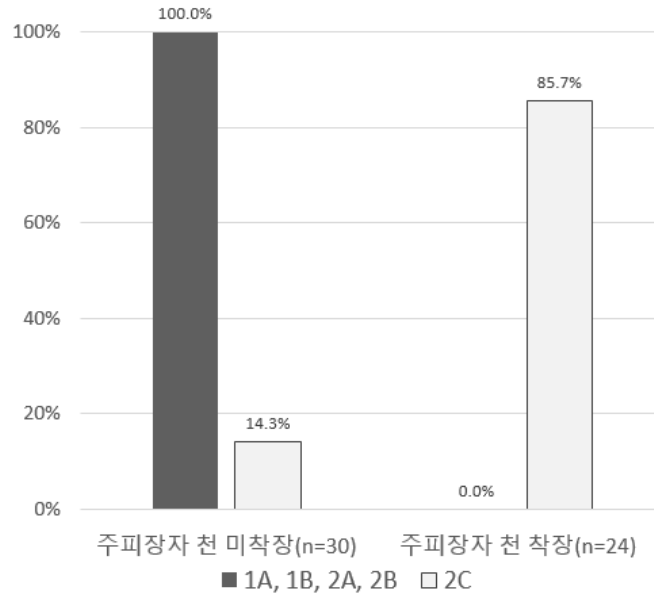
- 47) 황남동 109호 1곽은 보고서에 의하면 단독곽식이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후의 재검토에 의하면 이혈묘광의 주부곽식이다(李熙濬 1987).
- 48) 인왕동 19호 J곽은 단독곽식으로 보고되었으나 최근 공개된 미보고 도면(이현태 2013: 283)에 의하면 병렬주부곽식으로 최병현의 1B4식이다.
- 49) 황오동 54호 을충은 최초 보고(有光敎一 1934)에서는 단독곽식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의 쪽샘 B지구 조사에서 일렬주부곽식묘일 가능성이 제기되었고(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8: 7), 이후 발간된 보고서의 유구배치도(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3: 10)에도 일렬주부곽식으로 묘사된 점에서 주부곽식묘로 두었다.
- 50) 황오동 34호 3곽이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본문에서 후술하겠으나 현재 자료로 보아서는 적석목곽묘로 판단하기 다소 곤란한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혈묘광주부곽식이되 피장자가 착장한 정황은 분명하며, 부곽을 갖는 묘곽 형식의 피장자가 천을 착장한 유일한 예외일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룬다.
- 51) 미추왕릉 C지구 3호분에서는 은제천 두 점이 출토되었으나, “兩腕의 位置에서 出土되지 않고 被葬子の 右便에 位置하고 있었다”(嶺南大學校博物館 1975: 79)고 하여 착장이 아니라 미착장 부장이거나 순장자 착장으로 판단된다. C지구 3호분은 두부부장단독곽이 아닌 묘곽 형식의 적석목곽묘에서 천이 출토된 매우 희소한 사례인데, 피장자가 착장하지 않은 정황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두부부장단독곽의 묘곽 형식에 안치된 피장자만이 천을 착장 가능하였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정황적 증거로 판단된다.
- 52) 정식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당시 자료를 종합한 최근의 정리에 따르면(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11; 함순섭 2007), 매장주체부는 지하식의 적석목곽이며, 단곽식으로 주축이 북서-남동 방향이고 동쪽의 부장공간에서는 용기류와 마구류가 출토되었다고 한다. 서쪽의 매장공간에 목관을 안치하였으며, 출토된 장신구로 보아 주검의 머리를 동쪽에 두었다고 하며, 이러한 정황이 조사 당시의 사진과 최근의 재조사에서도 뚜렷이 드러나므로 두부부장단독곽의 적석목곽묘인 것으로 판단된다.
- 53) 호우충 피장자의 대도는 착장으로 본 예가 있고(李熙濬 2002), 필자의 전고(하대룡 2016)에서도 그렇게 보았으나 단룡환두대도의 출토 위치는 피장자 좌측의 어깨 부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기술과 도면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 미착장으로 간주한다. 소도 2점 또한 착장위치에서 출토된 것이 없다.
- 54) 미추왕릉 D지구 1호 1곽은 주부곽식으로 보고되었으나 부곽이 별도의 호석을 갖는 등 동일 무덤으로 보기 어려워 단독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崔秉鉉 1992: 137), 두상부에 부장군을 갖는다.
- 55) 인왕동 20호는 최병현(1992)의 지적대로 보고 도면과 기술 내용이 모순되어, 전자를 따를 경우 두부부장단독곽으로, 후자를 따를 경우 양단부장단독곽이 된다. 최병현은 후자를 신빙하여 양단부장으로 보았고, 최근의 인왕동 19, 20호 후보(이현태 2013)도 이를 따른 듯 하다. 그러나 기술 내용을 재차 검토해 보면, 두상부에는 작은 고배류를, 발치에는 비교적 큰 장경호와 단경호를 안치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나(慶熙大學校博物館, 1974: 17-18), 유구의 노출 사진과 도면(보고

불구하고, 피장자가 천을 착장한 사례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주피장자가 천을 착장한 22개 사례는 모두 두부부장단독곽(2C)으로, 천의 착장과 묘곽 형식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였음이 뚜렷하며, 이는 <표 8>을 토대로 묘곽 형식과 천의 출토 여부를 정리한 <표 9>에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천의 착장과 묘곽 형식이 깊은 상관관계를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표 8>을 검토해 보면, 다른 착장위세품과 묘곽 형식 간에는 이처럼 강한 연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데 반해, 천의 착장과 두부부장단독곽 사이에는 그 어떤 묘곽 형식 - 착장위세품 간 상관관계보다도 압도적으로 강한 연관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이유로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는데, 첫째는 시간성과 관련하여, 늦은 시기의 피장자만 천을 착장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기존에 천의 착장은 피장자의 계서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았으므로(예를 들면 이희준(2002)의 I·J, K·L군), 묘곽 형식과 피장자 계서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천을 토대로 판단한, 성별

서의 圖 4, 5, 10) 모두 두상부부장군에 중·대형 호류와 고배류가 함께 부장된 것이 확인되며, 이런 점에서 기술 내용은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사진과 도면을 더 신뢰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56) 인왕동156-2호는 약보고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의 유구 관련 기술은 없지만 부곽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에서 일단 단독곽식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자세한 묘곽 형식은 알 수 없다.
- 57) 개보에 따르면 단독식이되 피장자는 동침이고 두상부에 유물이 부장되어 있다고 하여(李殷昌 1977: 37), 두부부장단독곽이다.
- 58) 보고서의 유구 사진과 기술 내용으로 보아(진홍섭 1960), 두부부장단독곽이다.
- 59) 황오동 33호분 서곽은 주부곽식으로 보고되었으나(奏弘燮 1969), 평면 배치를 볼 때 주부곽식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그런데 최근의 쪽샘지구 발굴조사에서 다시 조사된 바에 따르면, 33호분 서곽은 선축된 33-2호분의 부곽을 파괴하고 조성되었으며(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4: 111-112), 이 선축유구를 옛 조사에서는 33호분 서곽의 부곽으로 파악한 정황이 명백하다. 이러한 사정이 밝혀졌으므로 33호분 서곽은 두부부장단독곽식으로 판단된다.
- 60) 유구의 구체적인 정황은 상세불명이지만 보고서의 기술 내용을 검토해 보면 매주부는 동서로 긴 적석목곽묘이고, 이식, 경식, 천, 지환의 출토 위치와 방향으로 보아 피장자 두향은 동향이다. 그리고 “토기군이 정연하게 늘어선 구획”이 있고 거기에 서쪽으로 연해 郭床面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피장자의 머리 위쪽에 주부장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곽을 발견 못한 것으로 보아 두부부장 단독곽으로 판단된다.



묘곽 형식	주피장자 천 미착장 분묘	주피장자 천 착장 및 출토 분묘	계
이혈묘광주부곽(1A) 동혈묘광주부곽(1B) 족부부장단독곽(2A) 양단부장단독곽(2B)	26/26(100%)	0/26(0%)	26
두부부장단독곽(2C)	4/26(15.4%)	22/26(84.6%)	26
계	30	22	52

※카이제곱 검정에서도 묘곽 형식과 천의 출토 여부 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p=0.0001)

<표 9> 적석목곽묘의 묘곽 형식과 피장자의 천 착장 여부

과 묘곽 형식이 연관되었을 가능성이다. 결국 천의 착장과 묘곽 형식의 연관 양상을 적절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석목곽묘의 편년과 묘곽 형식 간의 관계, 천의 편년적 위치, 피장자의 계서 등 여러 변수를 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처럼 여러 변수와 관련하여 각각의 가능성을 차례대로 검토해 보도록 한다.

① 천의 착장과 묘곽 형식의 시간성

천과 묘곽 형식의 연관성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시간적 차이로 인한 편중 현상일 가능성을 살펴본다. 이미 언급하였다시피, 적석목곽묘에서 주피장자가 천을 착장하기 시작한 것은 황남대총 북분부터이며, 그 이전에는 경주지역에서 금속제 천을 착장한 예는 없다.⁶¹⁾

그리고 묘곽 형식에 대해서는 그간 시간적인 측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주부곽식에서 단독곽식으로 변화한다는 큰 흐름이 제시된 이래 많은 연구에서 동일한 흐름을 지적하였고, 특히 황남대총 남북분을 비롯한 여러 연접묘에서 (이혈묘광)주부곽 → (두부부장)단독곽의 선후가 관찰되고 가장 이른 두부부장단독곽의 적석목곽묘는 북분이므로, 이러한 변화는 큰 틀에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적석목곽묘에서 천의 늦은 착장과, 묘곽 형식 변화 양자를 고려한다면, 두부부장단독곽에서만 천이 출토되는 현상이 설명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개별 월성북고분군 적석목곽묘의 편년과 묘곽 형식을 최병현(2017a)의 안을 토대로 정리한 <표 10>을 보면, 시간성으로는 현재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움이 드러난다. 여기에는 기존에 잘 알려진 대로, 적석목곽묘의 가장 이른 시기인 1기에는 1A(이혈묘광주부곽)식의 묘곽 형식만 존재하다가, 남북분 단계인 2기부터 2C(두부부장단독곽)식의 묘곽 형식이 추가되는 양상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적석목곽묘의 소멸기까지 양자는 공존하며, 초현기부터 소멸기까지 1A, 1B, 2A, 2B식 등 부곽을 갖는 묘곽 형식의 주피장자는 일관적으로 천을 착장하지 않는다(표 10의 우측). 반면 2C식의 주피장자는 2기부터 최말기까지 일관적으로 천을 착장한다(표 10의 좌측).

61) 하지만 남분 이전 단계로 편년되는 석곽묘인 월성로 가-14호분에서 청동제 천이 부장된 사례가 있으며, 천이 북분 단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요소로써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은 분명하다. 또한 남분 피장자가 천을 착장하지 않은 것을 단지 천이 등장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표 10〉 착장유물이 3점 이상 출토된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천 착장 여부와
묘곽 형식과 분기, 계서(최병현 2017a를 토대로 함)

피장자 천 착장 여부 편년	피장자 천 착장 고분			피장자 천 미착장 고분		
	유구명	묘곽 형식	계서 (최병현 2017a에 따름)	유구명	묘곽 형식	계서 (최병현 2017a에 따름)
1기	-			항남동109호3·4곽 항남동110호 항오동14호1곽 항오동14호2곽	1A 1A 1A 1A	b a a b
2기	항남대총북분	2C	특a	항남대총남분	1A	특a
3기	항오동5호분 항오동고분북곽 금관총	2C 2C 2C	a a 특a	항남동109호1곽 인왕동149호 항남동파괴고분2곽 쪽샘41호 항오동16호6곽 항오동16호8곽 쪽샘B2호 쪽샘B1호 항남동82호동총 항오동고분남곽 항오동16호4곽 항오동1호남곽 항오동16호2곽	1B 2C 1B 1A 1A 1A 1A 1B 1B 2C 1B 1B 1B	a a a a a a b a a a a a a
4기	항오동16호1곽 항오동33호서곽 천마총 노동리4호분 금령총 식리총 노서동138호 서봉총 은령총 노서동215번지 호우총 항오동4호분 보문부부(적석)	2C 2C 2C 2C 2C 2C 2C 2C 2C 2C 2C 2C 2C	a+ a 특a a 특a a+ a+ 특a a+ a a+ a a	미추7지구7호 항남동82호서총 항오동16호11곽 미추9구역A호1곽 미추C지구3호 미추A지구3호1곽	1B 1B 1B 2A 2A 2C	b a a b b a
편년 불명	인왕동20호 인왕동B군2호 항오리32-1호 인왕동156-2호 항오동54호갑 데이비드총	2C 2C 2C 2C? 2C 2C		인왕동A군1호 인왕동B군1호 인왕동C군1호(147호) 인왕동19호C곽 인왕동19호E곽 인왕동19호F곽 인왕동19호G곽	1B 2B 1B 2B 1B 1B 1B	

※묘곽 형식 - 1A: 이혈주부곽, 1B: 동혈주부곽, 2A: 족부부장단독곽,
2B: 양단부장단독곽, 2C: 두부부장단독곽

※볼드체 : 왕릉군 위치 고분

만약 천의 착장이 시간적으로만 결정되는 양상이었다면, 천이 등장하는 2기 이후에서 4기에 이르는 상위 위계 피장자군에서 묘곽 형식에 상관 없이 공통적으로 천이 착장되어 나타나야 한다. 하지만 2기~4기의 피장자 중에서 부곽이 존재하는 묘곽 형식의 피장자 중에서 천을 착장한 사례는 없으며, 오히려 시간성이 아닌 묘곽 형식과 천의 착장이 연동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이는 천과 묘곽 형식의 연동을 시간적 흐름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② 천의 착장과 피장자 계서

그러므로 다음 안인 피장자 계서와 연동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정 위계 이상의 피장자만이 천을 착장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다. 특히 편년과 연관지어 생각할 때, 늦은 시기 높은 계서의 피장자에 천이 집중되어 있다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표 10>에서 최병현(2017a)에 의해 판단된 계서를 통해 보아도, 동일 계서 내에 있는 피장자의 천 착장 여부가 묘곽 형식에 의해 나뉘는 양상이 뚜렷하다. <표 11>은 최병현의

<표 11> 최병현(2017a)의 3,4기 a군 피장자 천 착장 여부와 계서

편년 피장자 천 착장 여부	피장자 천 착장 고분		피장자 천 미착장 고분	
	유구명 묘곽 형식	계서 (최병현 2017a에 따름)	유구명 묘곽 형식	계서 (최병현 2017a에 따름)
3기	황오동5호분 황오동고분북곽	2C 2C a a	항남동109호1곽 인왕동149호 항남동파괴고분2곽 쭈샘41호 황오동16호6곽 황오동16호8곽 쭈샘B1호 항남동82호동총 황오동고분남곽 황오동16호4곽 황오동1호남곽 황오동16호2곽	1B 2C 1B 1A 1A 1A 1B 1B 2C 1B 1B 1B
4기	항오동33호서곽 노동리4호분 노서동215번지 황오동4호분 보문부부(적석)	2C 2C 2C 2C 2C a a a a	항남동82호서총 황오동16호11곽 미추A지구3호1곽	1B 1B 2C a a a

편년에 따라 3, 4기로 편년된 고분 중 특정 위계, 즉 a군으로 판단된 피장자만을 한정하여 천 착장 여부와 묘곽 형식을 다시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 보다시피, 3기와 4기의 늦은 시기, 동일 계서인 a급 고분 내에서도 천을 착장한 피장자와 천을 착장하지 않은 피장자를 뚜렷이 구분하는 것은 묘곽 형식이다. 따라서 이러한 양상을 계서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만약 천을 착장한 피장자가 그렇지 않은 피장자 보다 모두 계서가 높은 것이라면, 축적된 자료를 통해 볼 때 모든 두부부장단독곽의 피장자가 주부곽의 피장자보다 계서가 높은 것이 되는데,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로 보아 반드시 그렇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당장 황남대총 남분만 보아도 이혈 주부곽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장자가 천을 착장한 인왕동 B군 2호와 같은 경우 인접한 B1호 주변에 배치된 소형의 적석목곽묘이고(李殷昌 1977), 표형분으로 천 미착장인 남곽이 선축, 천 착장인 북곽이 후축인 황오동 고분의 경우는 두 무덤이 규모와 부장품에서 대등하고 양자 간 우열이 뚜렷하지 않은 등 묘곽 형식이나 천의 착장 여부 만으로 계서를 논하기는 곤란하다. 무엇보다도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병현에 의해 동일 계서(a군)로 판단된 3기와 4기의 고분들 내에서도, 천의 착장과 묘곽 형식이 연동하는 양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천의 착장이 늦은 시기 높은 위계 고분에 한정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이 검토가 기본적으로 착장위세품이 3점 이상인 고분만을 선택해서 이루어진 바, 기본적으로 일정한 위계 이상의 피장자만을 선택한 분석이되 이처럼 묘곽 형식에 따라 완전히 차별적인 천의 부장양상은 위계의 차이로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두부부장단독곽의 피장자는 일관적으로 천을 착장하고, 주부곽식의 피장자는 일관적으로 착장하지 않는 양상은 천의 착장이 피장자 계서와는 다른 변수를 따랐음을 시사하며, 따라서 계서가 아닌 다른 설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③ 천의 착장과 피장자 성별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 묘곽 형식의 피장자만 천을 착장하는 현상은 시간적 변화로도, 피장자의 위계로도 설명이 불가능하였으므로, 마지막 가설인 피장자의 성별에 의한 현상일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한다.

앞서 천 내경의 분포치를 성별이형성을 전제로 검토한 결과, 양봉분포가 아닌 10mm 내외의 매우 좁은 영역에 밀집한 단봉분포의 양상이 뚜렷하고, 통계적으로도 정규성이 인정되며, 무령왕비 착장 천, 일본 야요이 시대의 남녀 착장 패천과 현대 제작되는 천과 비교하였을 때, 일관적으로 여성이 착장한 것과 그 최대 내경의 분포 영역이 일치하였다. 따라서 신라 고분의 장례 맥락에서 천은 여성만이 착장한 유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천의 출토 여부와 경주지역 적석목곽묘의 묘곽 형식을 비교 검토하기 위해 착장위세품이 3점 이상 부장된 상위위계 고분 52기를 선별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양상이 드러났다.

첫째, 주피장자가 천을 착장한 적석목곽묘 22기는 예외 없이 두부부장단독곽이다.

둘째, 이혈·동혈주부곽, 족부부장단독곽, 양단부장단독곽으로 확인된 적석목곽묘 26기 중에서 피장자가 천을 착장한 예는 없다.

셋째, 그러나 모든 두부부장단독곽에서 주피장자가 천을 착장하지는 않으며, 인왕동 149호 등 4기에서는 출토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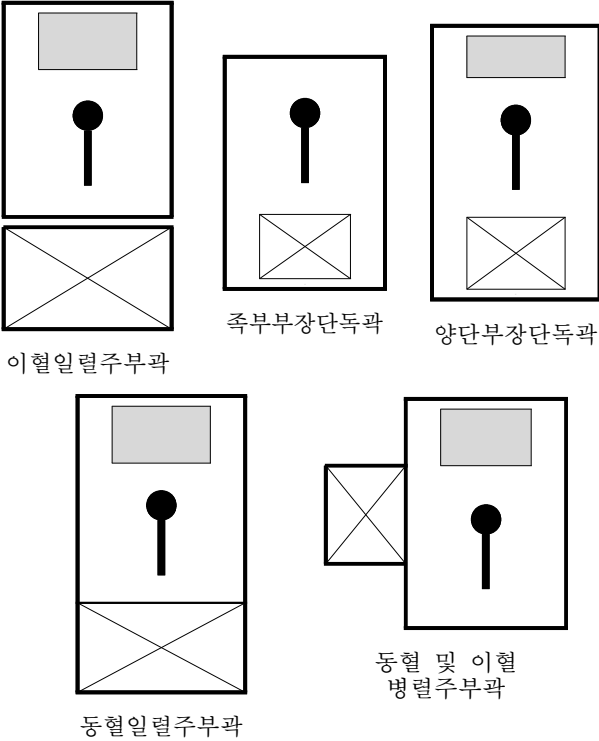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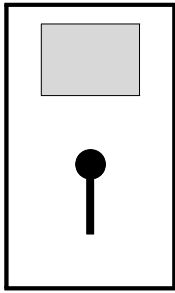



넷째, 황남대총 북분 이후, 천을 두부부장단독곽의 주피장자만 착장하는 현상은 시간적 변화나 피장자 위계만으로는 설명이 곤란하다.

이상에서 보듯, 계층적 성별 추정에 따르면 천은 여성만 착장하였는데, 경주지역 적석목곽묘의 출토 사례를 검토한 결과 피장자가 천을 착장한 사례는 오직 두부부장단독곽에서만 확인되며, 동시에 동혈·이혈주부곽이나 족부·양단부장단독곽 등 다른 묘곽 형식에서는 착장례가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시간적 변화나 피장자 위계로는 설명이 어려웠다. 현재 이러한 양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묘곽 형식과 피장자의 성별, 즉 천의 착장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두부부장단독곽과 동혈·이혈주부곽, 족부·양단부장단독곽을 분리하는 핵심요소는 부곽의 존재 여부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표 12), 따라서 부곽의 존재 여부와 천의 착장 여부가 연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⁶²⁾ 그리고 부곽의 설치 여부를 곧 피장자의 성별을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 가설이

실제 자료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현존하는 인골 자료를 통해 검증하도록 한다.

〈표 12〉 적석목곽묘에서 부곽의 존재 여부에 따른 묘곽 형식 분류와 주피장자 천 착장 여부(착장위세품 3점 이상 출토 무덤 대상)

구분	유부곽식 (부곽 혹은 부곽에 해당하는 부장부를 갖는 묘곽 형식)	무부곽식 (부곽을 배제한 묘곽 형식)
주피장자의 천 착장	26기 유부곽식 적석목곽묘에서 착장 사례 전무	26기 중 22기 착장
모식도	 <p>이혈일렬주부곽 족부부장단독곽 양단부장단독곽</p> <p>동혈일렬주부곽 동혈 및 이혈 병렬주부곽</p>	 <p>두부부장단독곽</p>
<p>※ 범례</p> <p> : 부곽 혹은 부곽 성격을 갖는 부장부(副槨部)</p> <p> : 두상부부장군  : 주피장자</p>		

62) 이하에서는 부곽이 설치된 동혈·이혈주부곽, 족부·양단부장단독곽의 적석목곽묘를 유부곽식(有副槨式), 부곽이 설치되지 않은 적석목곽묘는 무부곽식(無副槨式)으로 구분하여 칭한다.

(2) 묘곽 형식과 피장자 인골의 성별

앞서 부곽의 설치 여부가 성별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여기에서는 인골 자료를 이용하여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이다. 하지만 잘 알려져 있다시피 경주의 적석목곽묘에서는 인골 자료의 출토가 희소하여 검증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4개에 불과하다. 특히 지상적석식 적석목곽묘에서는 출토예가 전무하다시피하며 황남대총 주피장자가 60대 남성으로 동정된 것(張信堯 · 金達澤 1994) 정도가 분석 사례의 전부이다. 그 이외에는 모두 위계가 크게 떨어지는 것들로, 최근 확인된 황남동 95-6번지 유적의 소형 적석목곽묘 한 기와 남천 남쪽에 위치해 월성북고분군과는 거리가 있는 교동 천원마을 유적(94-3번지) 적석목곽묘 한 기가 있다. 여기서 출토된 주피장자의 인골 분석 결과와 묘곽 형식을 비교하면 <표 1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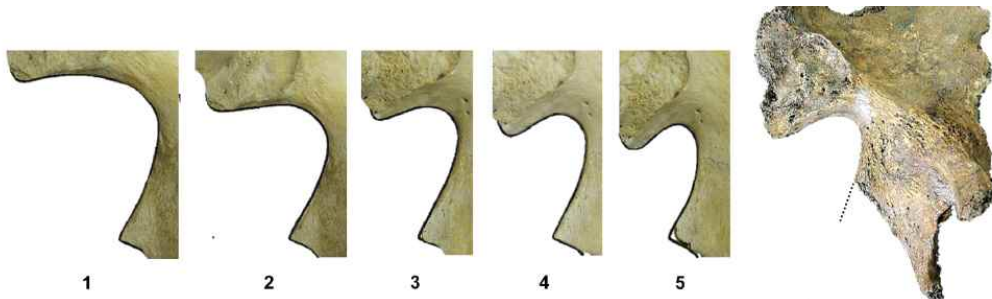
<표 13> 경주시내 적석목곽묘 출토 인골의 성별과 묘곽 형식

유구명	인골	묘곽 형식	출전
황남대총 남분	남	유부곽부식 (이혈주부곽)	張信堯 · 金達澤 1994
황남동 95-6번지 4호 적석목곽묘 ⁶³⁾	남	유부곽부식 (동혈주부곽)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7
교동 94-3번지 3호 적석목곽묘	여	유부곽부식 (동혈주부곽)	신동훈 외 2016
황남동 95-4번지 2호 적석목곽묘	여	무부곽부식 (두부부장단독곽)	한국문화재재단 2016

이에 대해 검토해 보면, 무부곽식의 피장자 2인은 여성이고, 유부곽식 피장자 2인 중에서 1인은 남성이고 1인은 여성이다. 즉 4개 사례 중에서 3개는 앞서 설정된 묘곽 형식과 성별 간의 연관과 일치하지만, 교동 94-3번지 3호 적석목곽묘는 유부곽식에 여성이 매장되어 이에 맞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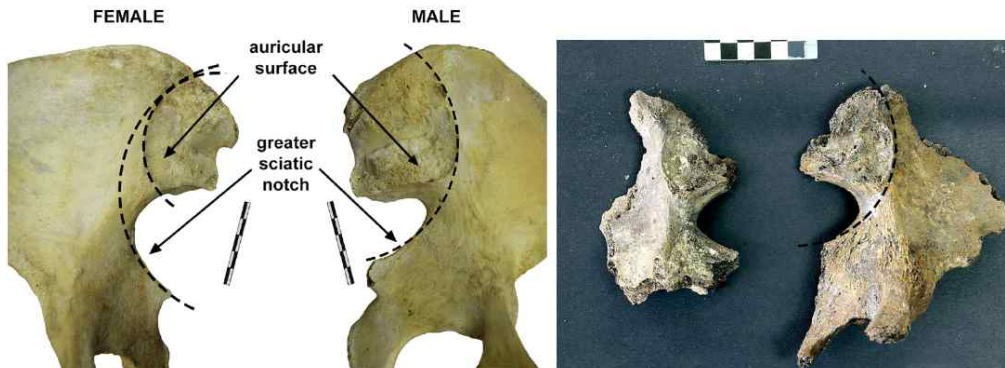
63) 같은 유적의 1호 적석목곽묘는 여성 주피장자가 세환이식을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와 상하로 겹쳐 출토된 남성 인골과 해당 개체 중 어느 것이 주피장자인지, 그리고 어느 개체가 이식과 교구를 착용하고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여 일단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교동 94-3번지 3호 적석목곽묘 인골의 분석 결과를 보면(신동훈 외 2016), 골반부의 동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인골은 골반의 분석 결과에서는 여성으로, 두개골의 분석 결과에서는 남성으로 판단되었으며 두 부위의 분석 결과는 모순되지만 골반을 우선 기준으로 삼았다. 인골의 성별 판단에서 가장 정확도가 높은 부위는 골반으로써, 주로 대좌골절흔(greater sciatic notch)과 치골하각(subpubic angle)의 각도 및 형태(Buikstra and Ubelaker 1994), 그리고 복합궁(composite arch)의 개수 등을 통해 판단한다(Nikita 2017). 해당 인골은 치골을 포함한 여러 부위가 파손되어 관찰 가능한 범주가 제한되어 있는데, 대좌골절흔의 관찰에서 파손된 좌골극(ischial spine)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손 부위를 고려한다면 대좌골절흔의 각도는 크게 줄어들고, 형태는 남성의 것에 해당하게 된다(그림 18 참조). 아울러 복합궁의 개수도 두개가 아닌 하나로써 남성형이고(그림 19 참조), 전이상면구(前耳狀面溝; pre-auricular sulcus) 또한 존재하지 않아 남성적인 특징을 보인다.



<그림 18> 대좌골절흔에 의한 성별 판단 예(좌측 5개, 사진은 Nikita 2017: 110에서 전재)와 교동 94-3번지 3호 적석목곽묘 인골의 골반(우측). 파손 부위를 고려한다면 대좌골절흔의 형태는 4 정도에 속함.

한편 두개골의 형태학적 분석에서는 16개 판정 부위에서 10개 부위가 남성적인 것으로, 2개 부위는 여성적인 것으로, 나머지는 판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는데(신동훈 외 2016: 271), 다시 검토한 골반의 분석 결과와 종합하여 볼 때 일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장 또한 163.77cm로써, 예안리(162.9cm)와 임당(163.67cm)의 신라시대 남성 평균을 상회하고 여성 평균



〈그림 19〉 이상면과 대좌골절흔이 이루는 복합궁에 의한 성별 판단 예(좌측, 사진은 Nikita 2017: 111에서 전재)과 교동 94-3번지 3호 적석목곽묘 인골의 골반. 이상면 외측과 대좌골절흔이 이루는 호가 하나로써 남성형 골반임.

(150.3cm) 보다는 무려 13cm이상 크다.

이상과 같이 파손부위를 고려해서 교동 94-3번지 3호 적석목곽묘 인골의 골반을 다시 검토하면, 남성적 특징을 보이며 이는 두개골의 분석 결과나 신장 추정과도 합치된다. 따라서 해당 인골은 남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존하는 사례는 모두 앞서 설정된 묘곽 형식과 성별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4개 사례밖에 되지 않지만, 무작위로 성별을 추정하였을 때(정확도 50%) 모두 맞출 확률은 $6\%(1/2^4 \times 100)$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적어도 현 자료를 설명하는 데는 모순이 없다.

종래의 이식이나 대도를 성별 표지로 보는 가설에 따르면 앞서 II장에서 본 바와 같이 신라 고분 전반에서 모순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대도를 성별 지표로 보는 입장에서도, 황남동 95-4번지 4호 적석목곽묘의 경우 대도 미착장으로 여성이 될 것이지만, 실제 인골의 판단 결과는 남성으로 마찬가지로 반례가 된다. 하지만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적석목곽묘의 묘곽 형식이 피장자의 성별을 반영한다는 가설은, 현존하는 자료로 검증할 때 모순이 없다. 물론 앞으로 추가적인 자료가 확보되고 보다 심화된 검증을 거

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적석목곽묘에서 묘곽 형식, 보다 구체적으로는 부곽의 설치 여부를 성별 표지로 볼 수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두부부장단독곽의 피장자만 천을 착장하는 현재의 양상을 설명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이처럼 적석목곽묘의 묘곽 형식과 천의 착장이 보여주는 뚜렷히 이분적인 양상은 시간성이나 계층성으로 설명되기는 어렵고, 천 착장자의 성별 판단을 전제로 할 때 쉽게 설명되며, 현존 인골 자료도 그에 대해 정합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한편 적석목곽묘에서 묘곽 형식과 성별의 관계가 이러하다면, 비교를 위해 적석목곽묘 이외의 묘제에서는 어떠한 양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다음에서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3) 경주지역 비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별

경주 중심고분군에는 적석목곽묘뿐만 아니라 동시기에 여러 묘제가 공존하였는데, 점토충전목곽을 비롯, 석재충전목곽과 수혈식석곽 등이 그들이다(최병현 2016a). 이들은 입지나 전반적인 규모, 고층화 여부로 볼 때 적석목곽에 비해 하위 위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묘곽 형식 자체는 적석목곽묘와 같은 방식을 공유한다.

그러나 이러한 묘제에서는 적석목곽묘에서 볼 수 있었던 묘곽 형식과 피장자 성별 간의 연관은 나타나지 않는다. 비적석목곽묘 피장자의 경우 계서가 낮아 다수의 착장위세품을 갖는 경우가 없고 천을 착장한 사례도 없지만 소수의 인골 출토 사례가 있어 비교가 가능한데, 묘곽 형식과 성별이 적석목곽묘에서와 달리 조응하지 않는 양상을 보여준다. 가령 수혈식석곽묘인 월성로 나-6호의 경우, 명자형 주부곽식이지만 여성인골이 확인된 바 있다(國立慶州博物館 1990).⁶⁴⁾ 또한 보고서 상에서 상부적석을 확인할 수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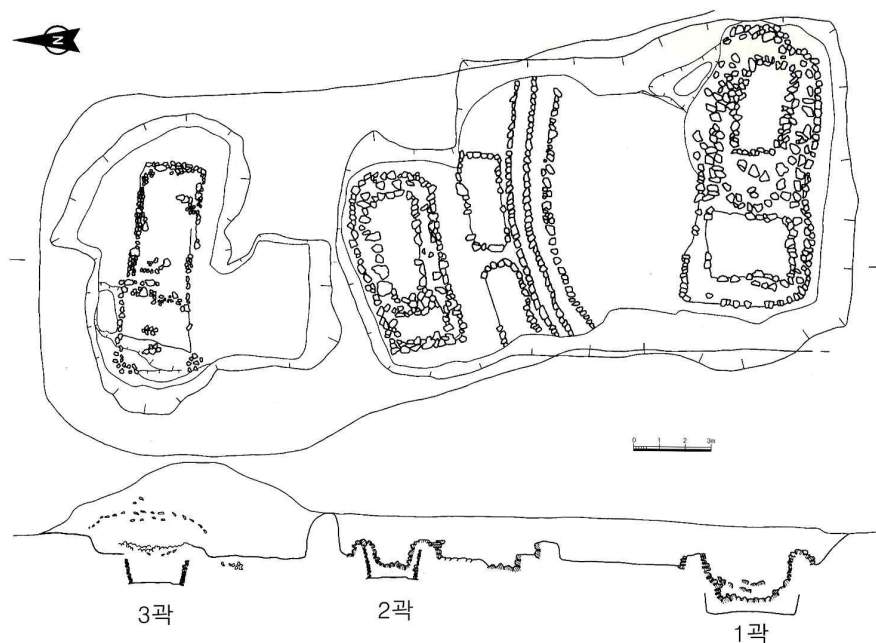
64) 월성로 나-6호의 보고서 본문에는 출토 인골이 여성으로 언급되고 있다. 보고서의 말미에는 정확한 유구명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인골의 감정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정황상 나-6호 출토 인골의 것으로 여겨진다(박매자·조희중 1990).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출토 인골의 여성적 특질이 언급되어 있으나, 결정적으로 여성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이것이 단순한 편집상의 오류인지 혹은 분석자의 소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보고서 본문에 언급된 사항을 따랐다.

적석목곽묘인지 석재충전목곽묘인지 불분명한 황남동 106-3번지의 소형 분묘들에서도 그러한데, 이곳에서는 족부부장단독곽인 6호에서 남성인골이 한 개체, 그리고 두부부장단독곽인 3호와 4호에서 남성과 여성 인골이 각각 한 개체씩 출토되어(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1995), 세 경우 중에서 한 경우가 적석목곽묘의 묘곽 형식이 성별표지적 성격을 보여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가장 문제가 되는 사례는 황오동 34호분의 3곽이다. 이 무덤은 적석목곽묘인 동 1, 2곽과 연결되어 있는데, 동혈묘곽의 주부곽식이되 주피장자는 천을 착장하였다. 정식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인 유구의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지금까지 공개된 도면 자료로 볼 때에는 적석목곽묘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림 20>은 연결분인 황오동 34호 1, 2, 3곽의 실측도면인데, 1, 2곽과는 달리 3곽에서는 평면도와 단면도 모두 상부적석의 함몰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평면도 상에서도 1, 2곽과 3곽의 적석부 형태와 구축 방식이 크게 달라, 3곽이 경주지역의 일반적인 적석목곽묘와 다른 양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략한 보고문에서도 3곽의 주곽부에는 상부적석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기술되어 있으며(秦弘燮 1965),⁶⁵⁾ 따라서 적석목곽묘가 아닌 석재충전목곽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일부 연구에서도 34호 3곽을 적석목곽묘에서 제외한 것(심현철 2013a)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 여겨진다.

3곽이 경주지역의 적석목곽묘와 다른 점은 착장위세품의 출토 양상에서도 나타나는데, 3곽의 위세품 약보고에 따르면 “당시의 기록을 토대로 한다면 치아의 상부에 관식부 모관이 위치하고 있었기에 관식부 모관을 착장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류진아 2010: 77-90). 이 부분에서 주목되는 것은, 해당 보고에서도 지적하고 있다시피 경주지역의 적석목곽묘에는 금속제 관식부 모관을 착장한 채로 매장된 피장자는 없다는 점이다. 관식부

65) 보고자는 이를 봉토와 함께 유실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된 도면 상에서는 곽 북편과 동편의 봉토가 노출면보다 높게 남아있어 그러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이고, 곽 내부의 함몰된 상부적석이 묘사되지 않은 점에서 본래 상부적석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림 20〉 황오동 34호 1, 2, 3곽의 유구배치도(류진아 2010)

※ 1, 2곽과 달리 3곽에만 상부적석과 관련된 묘사가 없음

모관을 착장한 피장자는 경주 외 지역의 지방 고분에서만 확인되며 이는 신라 고분 피장자의 착장 정형을 분석한 이희준(2002)이 이미 지적한 바 있고, 신라 고분의 모관을 개괄한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 있으며(이한상 2014), 이후 추가된 자료에서도 다시금 확인된 바 있는 독특한 경향이다(하대룡 2016). 따라서 월성북고분군의 적석목곽묘 중에서 현재까지 관식부 모관을 착장한 사례는 황오동 34호 3곽이 사실상 유일하다.

즉 관식부 모관의 착장 여부에서 경주와 지방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황오동 34호 3곽은 지방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3곽은 피장자가 천을 착장하고 있으나,⁶⁶⁾ 족하부에 부곽이 설치된 유부곽부식으로, 이 또한 앞서 살펴 본 경주지역 적석목곽묘의 묘곽 형식에 따른 천

66) 황오동 34호 3곽 피장자의 천 착장 여부는 부분적으로 공개된 원색도판(경북대학교박물관 2000: 16-18)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투조과대의 우측 끝에 붙어서 은제 천 1점이 확인되어 우측 前腕部에 착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의 착장 양상과는 뚜렷이 다르다. 이처럼 황오동 34호 3곽은 상부적석의 존재 여부에서 모호한 점이 있는 점에 더해, 관식부 모관을 착장하였고, 유부곽식이되 천을 착장한 점 등 여러 지점에서 경주지역 적석목곽묘와 다른 점을 보여준다.

물론 황오동 34호가 발굴된 것은 1960년대이며, 당시의 발굴 기술이나 유구에 대한 인식 수준을 염두에 두면 적석부의 묘사나 유물 출토 상황의 기술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미 일제 강점기부터 적석목곽묘에 대한 인식은 여타 묘제와는 명확히 달랐고, 1950년대부터 한국 고고학에서는 호우총과 은령총을 시작으로 적석목곽묘에 대한 조사 경험을 축적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특이양상 모두를 조사 기술과 인식 수준의 부족으로 인한 결과로 치부하기는 곤란하다.

이를 적석목곽묘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난 한 세기 동안 발굴된 모든 주부곽식 적석목곽묘 중에서 오직 34호 3곽의 주피장자만이 천을 착장한 셈이 되고, 게다가 관식부 모관 또한 착장하였기 때문에 매우 예외적이며 여타 적석목곽묘와는 다른 특이한 사례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상을 종합하여 결론내리면 적석목곽묘와 비적석목곽묘는 성별이나 착장위세품의 구성에 있어 표현 방식이 서로 달랐다고 볼 수 있다. 전자에서는 천 착장자, 즉 여성의 무덤에는 부곽을 설치하지 않았으나, 후자에서는 그러한 일관성이 관찰되지 않는다. 한편 관식부 모관에 있어서 경주에서는 반드시 부장하고, 지방에서는 착장하는 경우가 많아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일반 양상에 비추어 보면 34호 3곽은 일반적인 적석목곽묘와는 여러 측면에서 다른 양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적석목곽묘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매우 예외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경주지역의 비적석목곽묘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별에 접근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축적된 자료로 보아 경주지역의 비적석목곽묘에서는 적석목곽묘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피장자 성별과 묘곽 형식이 연관되는 정형성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양상은 VI장에서 후술할 지방의 고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여서 묘곽 형식과 성별이 조응하는 양상은 오직 상부적석이 존재하는 적

석목곽묘에서만 뚜렷히 나타난다.

경주지역 피장자 성별과 관련된 본고의 논의를 종합하자면, 적석목곽묘에서 묘곽 형식, 특히 부곽의 존부와 피장자의 천 착장 여부가 이처럼 강하게 조응하는 양상은 시간성이나 계서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기는 어려웠고, 천의 내경 계측치 분포를 통해 추정된 피장자 성별과 연관지어 볼 때 쉽게 설명이 가능하였다. 부곽이 설치되지 않은 두부부장단독곽에서만 천의 착장이 나타나고, 부곽이 설치된 다른 형식의 묘곽형식에서는 천의 착장 사례가 전무하다는 것은, 묘곽 형식과 피장자 성별 간에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적석목곽묘에서는 천의 출토 양상으로 보아 부곽이 존재하지 않는 묘곽의 피장자는 여성이고, 부곽이 존재하는 묘곽의 피장자는 남성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경주지역 내에서 적석목곽묘 외의 묘제에서는 성별과 묘곽 형식이 연동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신라 고분 전반에서, 부곽이 반드시 남성과 연결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후 지방 고분의 분석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겠지만, 천의 착장과 부곽의 설치가 배타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은 적석목곽묘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음 절에서는 지금까지 검토한 착장 이식과 성별에 따라 피장자의 착장위세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 뒤,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계서를 복원하도록 한다.

3. 계서

이번 절에서는 피장자의 계서에 대해 검토한다. 신라고고학에서는 피장자의 지위, 계서, 직능 등을 연구하는 데 있어 이식을 중심으로 한 착장 위세품이 중시되고 있다(金龍星 1998; 朴普鉉 1995; 李熙濬 2002). 특히 이희준(2002)의 연구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시피 관류, 이식, 경식, 대장식구, 장식대도, 팔찌, 지환 등의 장신구류는 착장위세품으로, 그 출토 맥락에서 복식품으로서 착장하였음이 드러나, 종류의 많고 적음, 조합관계 등을 토대로 복식제도와 사회적 위계 복원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보았을 때, 적석목곽묘의 착장 위세품은 피장자의 성격 중에서도 특히 계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표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번 절에서는 착장위세품을 중심으로 피장자의 계서를 설정할 것인데, 앞서 1절과 2절에서 검토된 착장 이식과 성별에 따라 착장위세품이 어떠한 구성을 갖는지 먼저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피장자 집단을 구분하여 계서를 설정할 것이다. 만약 착장 이식이나 성별에 따라 착장위세품의 많고 적음이 달라진다면, 그에 따라서 착장위세품의 구성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같은 분류 기준을 적용한다면 특정 성격에 따라서 위계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평가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1) 피장자 성별에 따른 착장위세품의 출토양상

이 부분에서는 피장자의 성별에 따라 위세품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분석 대상은 월성북고분군의 적석목곽묘 중에서도 착장 형태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2점 이상의 착장위세품⁶⁷⁾을 갖춘 무덤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성별 판단을 위해서도 묘곽 형식이 조사 과정에서 분명히 확인되는 무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료는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71개 적석목곽묘이다.

67) 여기에는 식리도 포함하였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적석목곽묘에서 착장한 사례는 없고 두상부부장군(황남대총 남북분, 금령총)이나 죽하부(천마총, 식리총 등)에 부장하지만(이한상 2010), 주요한 착장위세품인 만큼 함께 다루었으며 기본적으로 착장이 아니라 부장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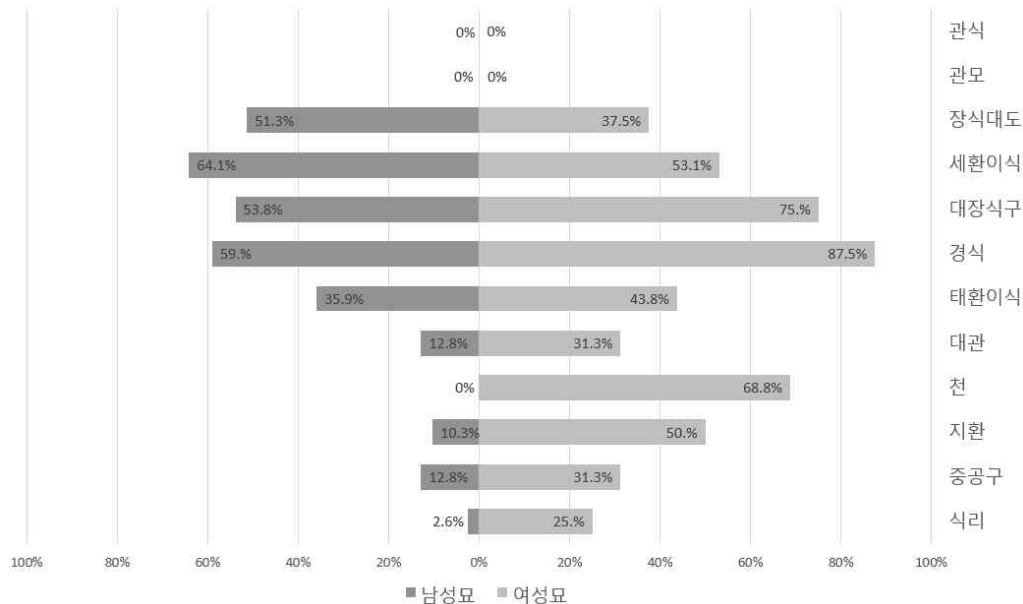
<표 14> 적석목곽묘의 착장 위세품 출토 현황

연번	유구명	묘곽 형식 (성별)	착장 위세품											비고
			관식	관모	세환 이식	장식 대도	대장 식구	대관	경식	지환	천	중공구 곡옥	태환 이식	
1	황오동100번지1호	무부곽식	u	u?	p	p								
2	미추7구7호	유부곽식			w	w								
3	황남동109호1곽	유부곽식		p	w	w	w							백화수피모
4	황오동16호4,5곽	유부곽식		w	w	w	w							백화수피모
5	쪽샘B3호	유부곽식			w	w								
6	쪽샘B2호	유부곽식			w	w								
7	인왕동19호K곽	유부곽식			w	w								
8	황남동110호	유부곽식	u	u	p	p	p		p					
9	인왕동19호J곽	유부곽식			w	w	w							
10	미추6C구11호	유부곽식			w		w							약보고
11	쪽샘B1호	유부곽식			w	w	w							
12	황오동100번지2호	무부곽식			w		w							
13	황오동16호11,12곽	유부곽식			w		w							
14	황오동100번지3호	유부곽식			w	w	w							
15	황오동과괴고분2곽	유부곽식			w	w	w							
16	황오동16호2,3곽	유부곽식			w		w	w						
17	황오동54호을총	유부곽식		u	w	w			w					약보고
18	인왕동149호	무부곽식			w	w	w		w					
19	인왕동C군1호	유부곽식		u	p	p	p		p					약보고
20	황오동34호1곽	유부곽식			w	w	w		w					
21	황오리고분남곽(1937)	무부곽식			w	w	w		w					
22	황남동82호동총	유부곽식			w	w	w		w					
23	황오동14호1곽	유부곽식	u		w	w	w		w					
24	쪽샘41호	유부곽식			w	w	w		w					약보고
25	황오동34호2곽	유부곽식			w	w	w		w					
26	미추6D구1호1곽	무부곽식			w		w		w					약보고
27	인왕동19호G곽	유부곽식			w				w					
28	인왕동C군2호	무부곽식			w				w					약보고
29	황남대총남분	유부곽식			w	w	w	w	w					
30	인왕동(경문연)10호	유부곽식			w				w					
31	미추4A구3호1곽	무부곽식			w	u			w					
32	황남동109호3,4곽	유부곽식			w				w					
33	황남동95-6번지2호	무부곽식			u	w	w		w					
34	식리총	무부곽식			w	w	w		w		w			식리
35	노동리4호	무부곽식		u	w	w	w		w	w	w			
36	황오동16호1곽	무부곽식		w	w		w	w	w		w			백화수피모, 식리
37	금령총	무부곽식			w		w	w	w	w	w			

연번	유구명	묘곽 형식 (성별)	착장 위세품											비고
			관식	관모	세환 이식	장식 대도	대장 식구	대관	경식	지환	천	중공구 곡옥	태환 이식	
38	노서동138호	무부곽식			w		w		w	w	w			
39	천마총	무부곽식			w	w	w	w	w	w	w			식리
40	데이비드총	무부곽식			w				w	w	w			
41	호우총	무부곽식			w	u	w	w	w	w	w			식리
42	황오동4호	무부곽식			w	w	w		w	w	w			식리
43	인왕동A군1호	유부곽식				w		w					w	
44	은령총	무부곽식			w		w	w	w	w	w			식리
45	인왕동20호	무부곽식				w	w		w		w		w	
46	황남동82호서총	유부곽식					w	w					w	
47	인왕동156-2호	무부곽식				p	p		p		p	p	p	약보고
48	황남대총북분	무부곽식					w	w	w	w	w	w	w	
49	황오동100번지6호	무부곽식					p						p	
50	황오리고분북곽(1937)	무부곽식				u	w	w	w	w	w	w	w	
51	황오동32-1호	무부곽식				w	w	w	w	w	w	w	w	식리
52	황오동16호8,10곽	유부곽식					w	w				w	w	
53	황오동1호남곽	유부곽식					w		w	w		w	w	약보고
54	황오동16호6,7곽	유부곽식					w		w	w		w	w	
55	황오동5호	무부곽식					w		w	w	w	w	w	
56	황오동54호갑총	무부곽식					w		w		w	w	w	약보고
57	서봉총	무부곽식					w	w	w	w	w	w	w	식리
58	금관총 ⁶⁸⁾	무부곽식				w?	w	w	w	w	w	w	w	식리
59	황오동100번지7호	유부곽식							w	w			w	
60	인왕동19호C곽	유부곽식							w	w		u	w	
61	쪽샘B6호주부곽	유부곽식							w				w	
62	미추6C구3호	유부곽식							w		u		w	약보고
63	미추6D구1호2곽	무부곽식							w				w	약보고
64	미추9구A호1곽	유부곽식							w				w	
65	인왕동19호E곽	유부곽식							w				w	
66	인왕동19호F곽	유부곽식							w				w	
67	노서동215번지	무부곽식							w	w	w	w	w	
68	황오동33호서곽	무부곽식							w		w	w	w	
69	미추6C구4호	유부곽식							w			w	w	약보고
70	인왕동B군2호	무부곽식								p	p		p	약보고
71	황오동14호2곽	유부곽식							w			w	w	

※ 범례
w : 착장 u : 비착장 p : 출토 여부만 확인됨
※ 착장위세품의 부장 경향에 대한 일목요연한 이해를 위해 PAST 3.16(Hammer et al. 2001) 프로그램을 이용한 순서배열 순으로 정렬하였음.
※ 성별의 판단은묘곽 형식을 기준으로 함
유부곽식: 남성, 무부곽식: 여성

그리고 <표 14>를 대상으로 묘곽 형식을 통해 성별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각 위세품의 출토 비율을 확인한 내역은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21> 적석묘곽묘의 피장자 성별과 착장 위세품 출토 양상
(남성묘 39기, 여성묘 32기 등 71기)
※ 식리는 착장율이 아닌 출토율임

이를 토대로 각 품목 별 출토율을 살펴보면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금속제 관모나 관식은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이 적석묘곽묘에서는 착장 사례가 없으며(李熙濬 2002; 이한상 2014), 이는 남녀 공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68) 금관총 피장자의 태환이식 착장 여부는 당시 조사자, 참관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착장으로 볼 수 있으나, 대도 착장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기록이 서로 달라 문제가 되고 있다. 부장으로 기록된 것이 더 많지만, 당시 가장 전문가인 오가와 게이키치가 현장에서 실측한 자료에는 착장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며, 따라서 최근의 재보고에서는 부장 가능성이 크지만 착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金大煥 2016a). 본고에서도 부장을 우선 가정하되 착장 가능성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이에 따르도록 한다.

다음으로 이식에 대해 살펴보면, 이식의 주환 종류와 성별 간에 뚜렷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이 다시금 확인된다. 양성 모두 태환이식보다 세환 이식의 착장 비율이 더 높았는데, 여성의 태환이식 착장 비율이 남성보다 약간 높고, 남성의 세환이식 착장 비율이 여성보다 약간 높은 것은 사실이나, 성별과 착장 이식이 일대일로 대응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식의 주환 종류는 성별 표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본고 내에서 다시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한편 또 다른 성별 표지로 중시되었던 (장식)대도 또한 남성의 착장율이 여성보다 두 배 가량 높지만 여성이 대도를 착장하는 경우도 30%를 상회하고 있어 이를 성별 표지로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다음으로 천은 여성의 착장품으로 유부곽식, 즉 남성묘에서는 출토 사례가 없다. 앞서 실시한 검토에서는 착장위세품이 3점 이상 출토된 무덤으로 한정하여 여성묘의 천 출토율이 80%를 상회하였으나, 이 분석에서는 2점 이상으로 더 위계를 낮추었기 때문에 70% 가량으로 출토율이 낮아졌다, 하지만 여성묘, 다시 말해 무부곽식에서만 배타적으로 확인되고 유부곽식에서는 출토 사례가 없는 양상에는 변화가 없다.

한편 완전히 양분되는 양상은 아니지만 천 다음으로 성별과 높은 상관 관계를 보이는 유물은 식리이다. 식리는 황남대총 남분을 제외하면 모두 여성묘에서 확인되어 성별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적석목곽묘에서 식리는 착장이 아니라 부장이며, 그렇기에 다른 착장위세품이 갖는 직접인 속인성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식리를 착장위세품 보다는 장송용품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金載烈 2011). 식리의 부장을 위계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최고위계 주부곽식인 쪽샘 41호를 비롯하여 상위위계의 모든 주부곽식에서 부장되지 않는 점은, 오히려 황남대총 남분의 부장 사례가 예외적인 사례임을 보여준다고 생각되며, 기본적으로 여성과 관련이 깊은 유물인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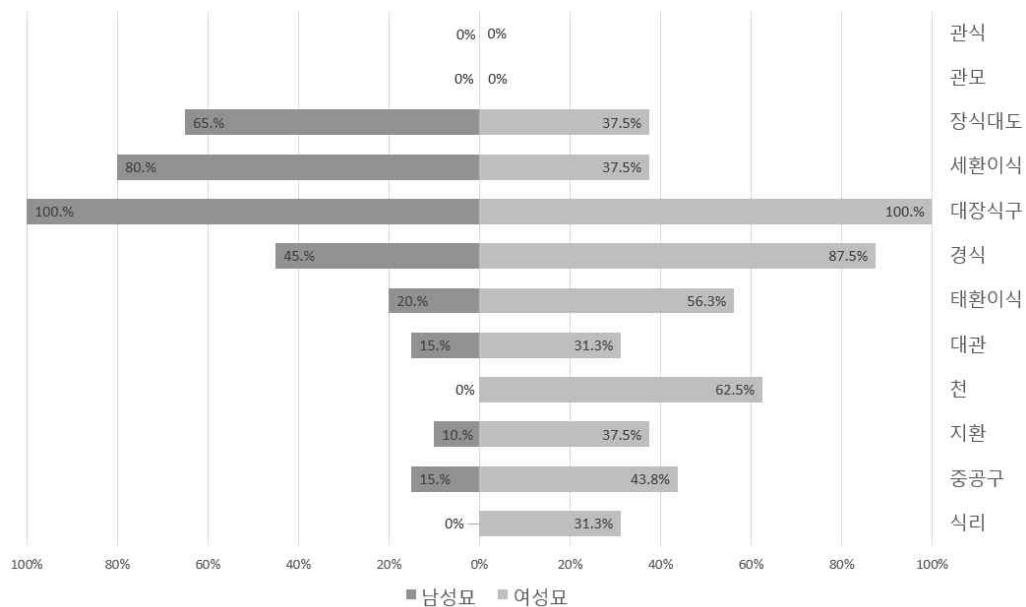
경식의 경우 여성에 있어 90% 가까운 착장율을 보여주는데, 현재 자료 중에서 미착장인 경우는 황오동 100유적의 1, 2, 6호, 그리고 인왕동 B군 2호 4 경우 뿐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들은 모두 아직 정식보고가 이루

어지지 않은 고분들로 간략한 내용만 알려져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경향을 볼 때 이들에서도 출토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만약 그렇다면 여성 피장자는 거의 대부분 경식을 착장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대장식구에 대해서 살펴본다. 주지하다시피 대장식구의 착장 여부는 피장자의 수직적 위계 분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여겨져 왔으며(朴普鉉 1995), 그에 따라 여러 연구에서 피장자의 등급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주된 기준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현재 남성에서 54%, 여성에서 75%의 착장율이 나타나는데, 이는 성별에 따른 부장비의 차이가 아니라 분석 대상이 된 자료 중에 하위 위계 남성묘의 비율이 더 높아서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현 분석대상 자료 중의 남성묘에는 인왕동 19호의 C,E,F,G곽이나 쪽샘 B지구 2,3,6호 등 상대적으로 낮은 위계의 중소형묘곽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여성묘 중에는 왕릉군의 최고위계 고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계층 차이에 의한 변수를 제거하고 검토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 황남대총 남북분을 비롯, 금관총, 천마총, 서봉총, 금령총 등 월성로 서쪽 대릉원 일대의 최고위계 고분과 대장식구를 착장하지 않은 모든 하위 위계 분묘를 제외하고 중위 위계 고분만 남겨서 남녀 별 착장 비율을 살펴보았다.⁶⁹⁾

그 결과는 <그림 22>과 같아 여성 피장자의 착장위세품이 우세한 점에는 변함이 없어서, 착장 종류에 있어 남성은 3.7점, 여성은 5.1이다. 남성의 경우 장식대도와 세환이식의 착장율은 약간 올라가지만, 경식의 착장율은 오히려 낮아지며, 여성의 경우 전반적인 출토율에 거의 변화가 없다. 이 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남녀 고분 위계 분포 차이로 인해 착장 위세품의 부장을 차이가 어느 정도 위계의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영향을 배제하여도 여성 피장자의 착장 위세품이 우세한 전반적인 경향에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착장양상의 차이를 논하는 데 문

69) 대장식구가 출토되지 않은 무덤을 제외한 이유는 대장식구가 피장자의 수직적 위계 분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朴普鉉 1995), 피장자의 등급을 설정하는 주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림 22〉 중위 위계 고분 피장자 성별과 착장 위세품 출토 양상
(남성묘 20기, 여성묘 16기 등 36기)

※ 하위 위계(대장식구 미착장군) 및 최상위 위계(대릉원 일대 고분) 제외

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공구는 보통 양쪽을 합쳐 20~40개 정도가 곡옥과 함께 태환이식에 공반하는 사례가 많은데, 출토 위치와 공반양상을 고려해 볼 때, 황오동 16호 6·7곽 출토품에 대한 복원안(有光教一・藤井和夫 2000: 25)과 같은 방식으로 태환이식의 수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⁷⁰⁾ 하지만 남성이 착장한 태환이식보다 여성이 착장한 태환이식과 공반 비율이 두 배 이상 높다.

그 외의 복식품인 대관, 지환, 중공구, 등에서도 여성의 착장율이 상당히 높아 여성의 착장 위세품이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우세를 보인다. 대관의 착장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높고, 지환에서는 다섯 배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

한편 착장된 위세품은 아니지만 식리 또한 출토 양상을 검토하였으며,

70) 최상위 위계의 고분에서는 경흉식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도 특이한 양상이 나타난다. 식리는 남성묘에서는 황남대총 남분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발굴된 주부곽식 무덤에서는 출토예가 없으나, 여성묘에서는 출토율이 40%(11/28)가까이 된다. 현재까지 적석목곽묘에서 12건의 식리 출토 사례가 있는데 그 중 11건이 여성묘에서 출토된 것이다.

이러한 양상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재로써는 크게 세 가지 가능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식리는 기본적으로 여성에게 부장되는 물품이되 최상위 위계의 무덤인 남분에서는 이러한 부장 방식을 무시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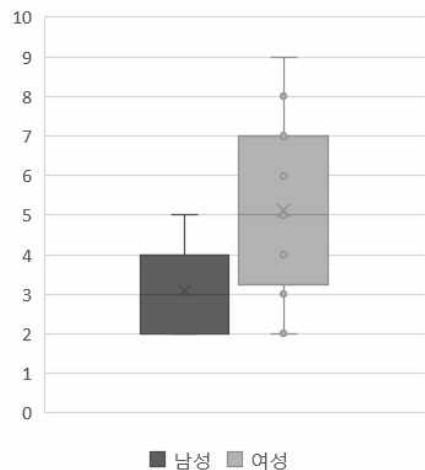
둘째로는 식리 부장의 초기에는 남녀 구분이 존재하지 않아 남분에도 부장하였으나 북분 이후 여성 한정 의 용품으로 고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가설은 남분 이전의 남성묘 숫자가 적고 그 중에서 식리 출토 사례가 존재하지 않아서 현재 자료로써는 검증이 어렵다.

셋째 가능성은 특정 위계 이상의 피장자에게만 식리를 부장하되, 현존 자료에서 최고 위계 고분 피장자에는 여성이 많아서, 다시 말해서 현 자료가 갖는 위계적 편차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림 22>과 같이 위계를 한정하여 살펴보아도 성별에 따른 식리 부장 차별화는 명백하며, 현존 최고 위계 남성묘인 황오동 41호나 황남동 110호에서 식리가 부장되지 않은 것은 식리 부장에 있어 성별이 주요한 기준이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⁷¹⁾ 따라서 현재로써는 적석목곽묘에서 식리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부장품이고, 피장자 위계에 따라 남성묘에도 부장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부장 규범이 최상위 계층에서는 무효화되는 예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성별에 따라 배타적인 착장을 보이는 것은 천이 유일하나 여성묘의 착장위세품이 남성묘의 그것보다 전반적으로 우세라는 점에서 남녀의 복식 구성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착장 위세품의 전반적인 부장량을 통해서도 확인해볼 수 있는데, <그림 23>

71) 주피장자가 남성으로 알려진 경산 입당 6A호에는 식리가 부장된 사례가 있으므로, 지방 고분에는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경주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방의 최고위계 고분에서도 성별에 따른 부장 방식의 예외적 적용일 수 있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39개 남성묘에서는 평균 3.1점이 부장되었고 표준편차는 1.2이다. 반면 32개 여성묘에서는 평균 5.1점이 부장되었으며 표준편차는 1.9점이다. 즉 여성 피장자는 남성보다 더 많은 종류의 위세품을 착장하고 있다.



〈그림 23〉 성별에 따른 위세품의 착장 숫자 상자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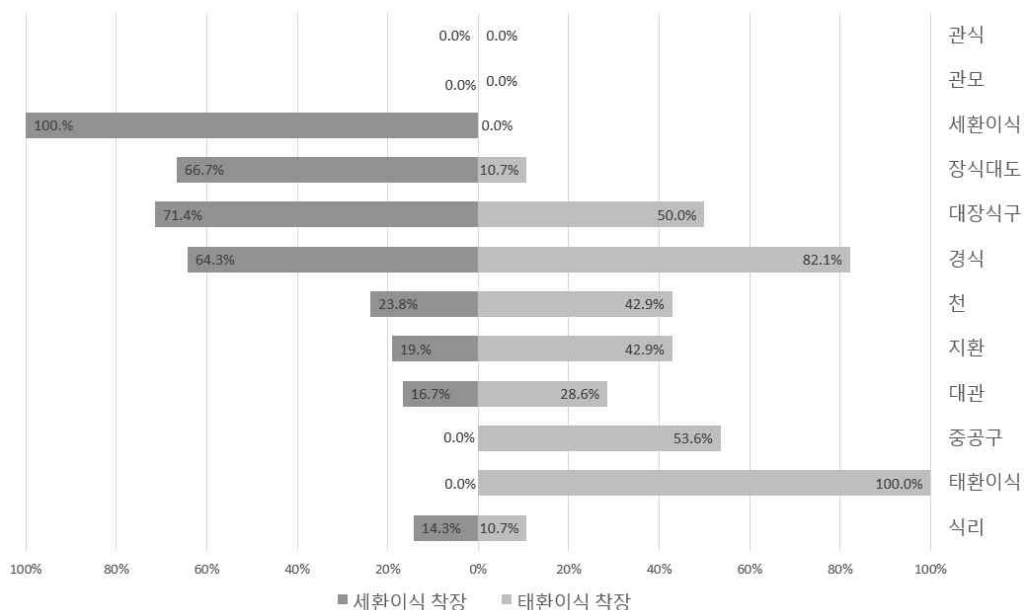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참조할 때, 착장위세품의 종류 수를 계서와 관련된 것으로 환원할 때 여성묘의 위계가 남성묘의 위계보다 과장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령 착장위세품의 누적적 구성을 토대로 계서를 설정한 연구(李熙濬 2002)의 최상위 계층은 모두 천과 지환을 착장하였으며, 본고에서 파악한 여성묘에 해당한다. 반대로 남성묘, 즉 유부곽식의 경우 천을 착장한 경우가 없고 지환의 착장율이 낮기 때문에 보다 하위 위계로 설정되었다. 이는 여성의 착장위세품이 남성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계서 분석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파악해야 함을 의미한다.

2) 착장 이식에 따른 착장위세품 출토양상

앞서 피장자의 성별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이식은 피장자의 성별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신라 고분의 복식이 이식을 중심으로 양분되는

양상은 일찍이 지적된 바 있고(金元龍 1974), 착장 이식에 따라 철기 등 일부 부장품의 수량이 차별적으로 구성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金龍星 1998; 김대욱 2014). 이는 착장 이식이 성별이 아닌 피장자 성격의 다른 측면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의미하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착장이식에 따라 부장품 전반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착장한 이식의 주환 종류에 따라서 공반하는 착장 위세품의 양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분석 대상은 앞서 성별에 따른 착장 위세품의 양상 파악을 위해 선정한 적석목곽묘 71기 중에서, 착장 이식이 없는 황남동 95-6번지 2호⁷²⁾를 제외한 70기로 <그림 24>와 같다.



<그림 24> 착장 이식 별 착장위세품의 공반 비율
(세환이식 42건, 태환이식 28건)

72) 이 무덤에서는 이식이 피장자의 두위가 아니라 대장식구 부근에서 수습되어 굳이 착장시키지 않고 부장한 것으로 판단된다(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7). 지방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양산 금조총에서도 확인되며, 의도적으로 착장시키지 않고 대장식구 주변에 두 점을 나란히 붙여 부장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

여기서 가장 가시적인 것은 기존에 알려진 대로 착장 이식의 주환 종류에 따라서 복식의 구성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다. 이식에 따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중공구와 장식대도인데, 중공구는 반드시 태환이식과 공반하고 세환이식 착장자에게서 확인된 사례는 없다. 장식대도는 몇몇 출토 상황을 판단할 수 없는 예를 제외하면 모두 세환이식 착장자에게만 확인되며 60%를 넘는 착장율을 보인다. 이는 적석목곽묘에서 기본적으로 태환이식 착장자가 대도를 착장한 사례가 없다는 지적(최병현 2017a)과 일맥상통하며, 있더라도 매우 희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태환이식 착장자의 대도 착장 가능성이 있는 사례는 출토 여부만 확인된 인왕동 A군 1호와 인왕동 156-2호 그리고, “屍身 左側에 太刀가 一個있었”(秦弘燮 1960)라고 기록된 황오동 32-1호 세 경우와, 정식 보고의 경우에는 금관총 뿐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일관적인 미착장 경향을 볼 때 이들의 착장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금관총은 조사 당시 여러 기록자의 기록이 서로 달라 착장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金大煥 2016a). 금관총의 대도를 착장으로 본다면 여성 태환이식 착장자 중에서는 유일한 대도 착장자가 되며, 또 태환이식 착장자 전체에서도 하나의 예외가 된다.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보면 황남대총 남분 또한 남성 세환이식 착장자 중에서 유일하게 대관을 착장한 예외이며, 따라서 최상위계층에서는 예외적인 부장 방식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장식구는 세환이식 착장자에게는 70%, 태환이식 착장자에게는 50% 정도로 공반되어 전자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전술하였다시피 대장식구의 착장 여부는 피장자의 계층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한데(朴普鉉 1992, 1995), 이 관점에서는 세환이식 착장자의 계층이 일반적으로 더 높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착장위세품의 평균 부장 수에서는 태환이식 착장자(평균 4.3개)가 세환이식 착장자(평균 3.9개)보다 약간 높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때문에 대장식구의 유무가 계층성 판단에 있어서 주요한 기준인 것은 인정되어야 하겠지만, 보다 넓은 맥락에서 볼 때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로써 고려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직 알기 어렵다.

경식의 경우 대장식구와는 반대로 태환이식 착장자에서 80%, 세환이식 착장자에서 60% 정도로 나타난다. 전체에서 70% 이상의 피장자가 착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식 다음으로 기본적인 착장위세품으로 볼 수 있다.

천, 지환, 대관은 모두 태환이식 착장자가 세환이식 착장자보다 두 배 정도 높은 부장 비율을 보인다. 천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여성 피장자에게 있어 태환이식 착장비가 약간 높은 것과 상통하는 결과라 여겨진다.

이상을 요약하면 대장식구와 경식, 식리를 제외하고 이식을 중심으로 착장위세품의 구성이 양분되는 양상이 비교적 뚜렷하다. 세환이식에는 대도가, 태환이식에는 중공구가 배타적으로 부장되며, 천, 지환, 대관은 것처럼 배타적이지는 않지만 태환이식과 공반하는 경우가 더 많다.

즉 복식의 구성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역시 이식의 주환 종류인 것이 다시금 확인되며, 양자는 상당한 정도로 배타적인 구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세환이식 착장자 집단을 세환군, 태환이식 착장자 집단을 태환군으로 약칭하도록 한다. 또한 이처럼 배타적인 양상에서, 성별이 아닌 다른 피장자 성격 또한 복식 구성에 반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다음 항에서는 지금까지의 착장위세품 구성 검토를 바탕으로 적석 목록표 피장자 집단의 계서를 파악하도록 한다.

3) 계서의 설정

앞서 실시된 성별에 따른 착장위세품의 구성에서 본 바와 같이, 남성의 착장위세품이 여성의 것 보다 숫자와 종류에서 열세이므로 양자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동시에 복식이 세환이식과 태환이식을 중심으로 각각 양분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착장위세품에 의한 계서의 복원에 앞서 주의할 점은 현 분석의 목적이 피장자 등급화를 통한 계층화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착장위세품의 구성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이후의 검토에서 유물의 부장량이나 봉토의 크기가 착장위세품에서 나타나는 계서

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 파악하기 위한 기준 설정이 두 번째 목적이다.

선행 연구에 있어 착장위세품을 통한 피장자 계서 복원은 이희준(2002)과 최병현(2017a)에 의해 시도된 바 있는데, 전자에서는 태환이식과 세환이식을 남녀 대응군으로 보고, 이식에서 시작해서 대도, 경식, 대장식구, 천, 지환이 누층적으로 더해지면서 피장자 계서가 점차 높아진다고 보았다. 하지만 황남대총 남분, 쪽샘 41호, 황남동 110호 등 최상위 위계 남성묘에는 천이 부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계서를 설명하기 곤란한 점이 있었으며,⁷³⁾ 본고의 분석 결과 천은 여성만 착장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

후자에서는 과대에 따라 기본적인 계서를 구분하고, 과대 착장군은 관모류 착장군과 대관 착장군으로 다시 세분하였다. 그리고 착장위세품 전반과 다른 부장품의 부장 여부를 종합하여 순위를 부여하였다. 다만 은제 대장식구 착장군에서는 대관의 착장보다는 식리의 부장이 더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는 본고의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이처럼 이식, 대장식구, 대관과 관모, 식리를 계서 부여에 중요한 요소로 판단한 점은 큰 틀에서 본고의 분석과 일치하고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와 달리, 성별에 따라 다른 구성이 확인되고, 이식은 성별과 무관한 것이되 별도의 복식 구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한 바, 성별과 이식에 따라 각각을 분리하여 계서를 복원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또한 부장품의 전반적인 양상을 종합하여 피장자의 계서를 판단하기 보다는, 먼저 착장위세품을 통해 계서를 판단하고 그것과 다른 부장품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주력하기로 한다. 이는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다룬 바와 같이, 착장위세품은 기본적으로 피장자의 소유물에 가깝고 그만큼 피장자의 성격에 가까운 성격을 갖는 반면, 다른 부장품은 상대적으로 조묘자에 의한 간섭과 조정이 개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성별을 분리하고, 또 성별 마다 착장 이식에 따라서 분리하

73)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황남대총 북분부터 천이 등장하였기 때문에 그 이전인 남분에는 천이 없었다는 견해가 있다.

여 착장위세품의 누층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 따르면 피장자군은 성별과 이식에 따라 남성 세환군, 남성 태환군, 여성 세환군, 여성 태환군 등 모두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집단의 착장위세품 누층 구조를 확인하면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여기에는 선행 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금속제 관식과 관모, 그리고 식리의 부장 여부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므로 이들을 포함시켰다.

본격적인 검토에 앞서, 일부 예외적인 양상을 보이는 고분에 대해서 언급해 두고자 한다. 4개 집단 모두 전체적으로 보아 이식을 시작으로 해서 대도 또는 중공구수식, 대장식구, 대관 및 식리, 관식과 관모의 순으로 누층적 구성을 보이지만, 몇몇 고분에서는 그러한 정형성이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러한 고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황오동 100유적과 인왕동 A,B,C군, 그리고 일부 일제 강점기 발굴 고분들인데, 100번지 유적과 인왕동 고분은 아직 정식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추후 자세한 보고가 이루어지면서 누락된 품목이 확인될 것으로 기대되고, 일부 일제 강점기 조사 고분은 당시의 조사환경이나 발굴 수준 상 확인이나 수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일부 비정형적인 양상은 이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각 집단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성 피장자군을 착장 이식 별로 구분할 때, 각 군은 비교적 안정적인 누층 구조가 확인된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경식인데, 하위위계에서도 착장하는가 하면 상위위계에서는 착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남성 피장자가 경식의 착장율이 낮은 것, 그리고 일부 하위 위계 고분에서 이식이 없이 경식만 착장하는 현상, 다시 말해 계서와 관련 없이 경식을 착장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경식을 제외하고 본다면 남성 세환군에서는 이식+대도+대장식구+관식·관모(부장) 순으로 추가되며, 마지막 황남대총 남분에서는 대관의 착장까지 이루어진다. 다른 군에서는 대관의 착장 이후 관식과 관모의 부장이 이어지나, 남성 세환군에서만은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남성 세환군에서 대관의 착장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황남대총 남분이 그만큼 예외적인 사례인

<표 15> 성별 및 이식에 따른 착장위세품의 위계적 구성

구분	유구명	성별	착장이식	계서	관식	관모	장식대도	세환	대장식구	경식	태환	중공구	천	지환	대관	식리
남성 세환군	인왕동(경문연)10호	남	세환	D				●		●						
	황남동109호3,4곽	남	세환	D				●		●						
	인왕동19호G곽	남	세환	D			○	●		●						
	인왕동19호K곽	남	세환	D			●	●								
	미추7구7호	남	세환	D			●	●								
	쪽샘B2호	남	세환	D			●	●								
	쪽샘B3호	남	세환	D			●	●								
	황오동16호11,12곽	남	세환	C				●	●							
	미추6C구11호	남	세환	C				●	●							
	황오동16호2,3곽	남	세환	C				●	●						○	
	인왕동19호J곽	남	세환	C			●	●	●							
	쪽샘B1호	남	세환	C			●	●	●							
	황오동100번지3호	남	세환	C			●	●	●							
	황오동16호4,5곽	남	세환	C			●	●	●							
	황남동109호1곽	남	세환	C			●	●	●							
	황오동과괴고분2곽	남	세환	C			●	●	●							
	황오동34호1곽	남	세환	C			●	●	●	●						
	황오동34호2곽	남	세환	C			●	●	●	●						
	황남동82호동층	남	세환	C			●	●	●	●						
	황오동54호을층	남	세환	B		○	●	●		●						
	인왕동C군1호	남	세환	B		○	●	●	●	●						
	황오동14호1곽	남	세환	B	○		●	●	●	●						
	쪽샘41호	남	세환	B	○		●	●	●	●						
	황남동110호	남	세환	B	○		●	●	●	●						
	황남대총남분	남	세환	A	○	○	●	●	●	●				○	●	○
남성 태환군	인왕동A군2호	남	태환	D						●	●					
	미추9구A호1곽	남	태환	D						●	●					
	쪽샘B6호	남	태환	D						●	●					
	인왕동19호E곽	남	태환	D						●	●					
	인왕동19호F곽	남	태환	D						●	●					
	미추6C구3호	남	태환	D						●	●					
	황오동14호2곽	남	태환	D						●	●	●				
	미추6C구4호	남	태환	D						●	●	●				
	황오동100번지7호	남	태환	D						●	●			●		
	인왕동19호C곽	남	태환	D						●	●	○		●		
	황오동1호남곽	남	태환	C					●	●	●	●		●		
	황오동16호6,7곽	남	태환	C					●	●	●	●		●		
	인왕동A군1호	남	태환	B			○			●					●	
	황남동82호서층	남	태환	B					●		●				●	
	황오동16호8,10곽	남	태환	B					●		●	●			●	

구분	유구명	성별	착장이식	계서판단	관식	관모	장식대도	세환	대장식구	경식	태환	중공구	천	지환	대관	식리
여성 세환군	인왕동C군2호	여	세환	D			●		●							
	미추4A구3호1곽	여	세환	D			○	●		●						
	황오동100번지1호	여	세환	D	○		●	●								
	황오동100번지2호	여	세환	C				●	●							
	미추6D구1호1곽	여	세환	C				●	●	●						
	황남동95-6번지2호	여	세환	C			●	○	●	●						
	인왕동149호	여	세환	C			●	●	●	●						
	황오리고분남곽	여	세환	C			●	●	●	●						
	데이비드층	여	세환	C				●		●			●	●		
	노서동138호	여	세환	C			●	●	●	●			●	●		
	노동리4호	여	세환	C			●	●	●	●			●	●		
	황오동4호	여	세환	B			●	●	●	●			●	●		○
	식리층	여	세환	B			●	●	●	●			●			○
	황오동16호1곽	여	세환	B				●	●	●			●		●	○
	은령층	여	세환	B				●	●	●			●	●	●	○
	호우층	여	세환	B			○	●	●	●			●	●	●	○
여성 태환군	금령층	여	세환	A	○		●	●	●	●			●	●	●	○
	천마층	여	세환	A	○	○	●	●	●	●			●	●	●	○
	미추6D구1호2곽	여	태환	D						●	●					
	황오동100번지6호	여	태환	C					●		●					
	인왕동20호	여	태환	C			○		●	●	●		●			
	황오동33호서곽	여	태환	C						●	●	●	●			
	황오동54호갑층	여	태환	C					●	●	●	●	●			
	인왕동156-2호	여	태환	C			○		●	●	●	●	●			
	인왕동B군2호	여	태환	C							●		●	●		
	노서동215번지	여	태환	C						●	●	●	●	●		
	황오동5호	여	태환	C					●	●	●	●	●	●		
	황오리고분북곽	여	태환	B			○		●	●	●	●	●	●	●	
	황오동32-1호	여	태환	B			○		●	●	●	●	●	●	●	○
	서봉층	여	태환	A					●	●	●	●	●	●	●	○
	황남대총북분	여	태환	A	○		○		●	●	●	●	●	●	●	○
	금관층 ⁷⁴⁾	여	태환	A	○	○	●?		●	●	●	●	●	●	●	○
※ 관모는 금속제만을 대상으로 하며 백화수피제는 다루지 않음 ※ 범례 ●: 착장 또는 출토 확인. 분석의 편의상 일부 출토 확인품은 착장으로 간주함 ○: 미착장 부장																

것으로 해석된다.⁷⁵⁾ 또한 이 집단은 다른 집단과 달리 지환의 착장이 전무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으로 남성 태환군에서는 이식→중공구수식→지환→대장식구→대관의 순으로 추가되는 양상이다.⁷⁶⁾ 다른 3개 집단과 달리 관식 또는 관모, 식리를 부장한 사례가 없으며 따라서 이 집단의 최상층은 다른 집단의 최상층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위계를 보인다. 이러한 양상이 어떤 규정에 의한 것인지, 혹은 아직 그러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것인지는 알기 어렵다. 그리고 대관 착장자는 경식을 착장하지 않는 경향이 확인되는데 다른 집단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독특한 현상이다.

다음으로 여성 피장자군을 살펴보면, 남성 피장자군에서 경식이 정형성을 따르지 않은 것처럼 대도가 계서에 따른 일관된 부장양상을 보이지 않아 이를 감안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현상은 이식이 없는 고분에서도 간혹 대도나 경식을 단독으로 착장한 경우, 즉 간혹 계서와 관련 없이 착장하는 경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남성의 경식이나 여성의 대도는 계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유물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서 남성 피장자군에서는 경식을, 여성 피장자군에서는 대도를 계서 판단에 있어서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였다.

한편 여성 피장자군에서는 약보고된 고분을 제외하면 모두 경식을 착장하고 있는 양상이 확인되며, 이를 감안한다면 경식은 여성 피장자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착장위세품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항을 전제하여 두고 검토하면, 여성 세환군에서는 이식+(대도)+대장식구+천,지환+대관+관식,관모의 부장 순으로 추가되는 양상이다.

여성 태환군은 기존에 상위 위계 고분으로 알려진 것들이 집중되어 있

7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도는 미착장 부장의 가능성이 크되 착장일 경우 또한 고려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본문 중에 언급하였다.

75) 식리의 부장 또한 남성묘에서는 황남대총 남분이 유일하다.

76) 현 자료에서는 대장식구의 추가보다 지환이 먼저이지만, 다른 군집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는 지환의 추가가 대장식구와 같거나 더 나중일 가능성도 있다. 이는 특히 은제 대장식구가 비교적 쉽게 손실되고, 발굴 조사 기법의 발달 이전에는 손실된 위세품에 대한 확인과 수습이 미흡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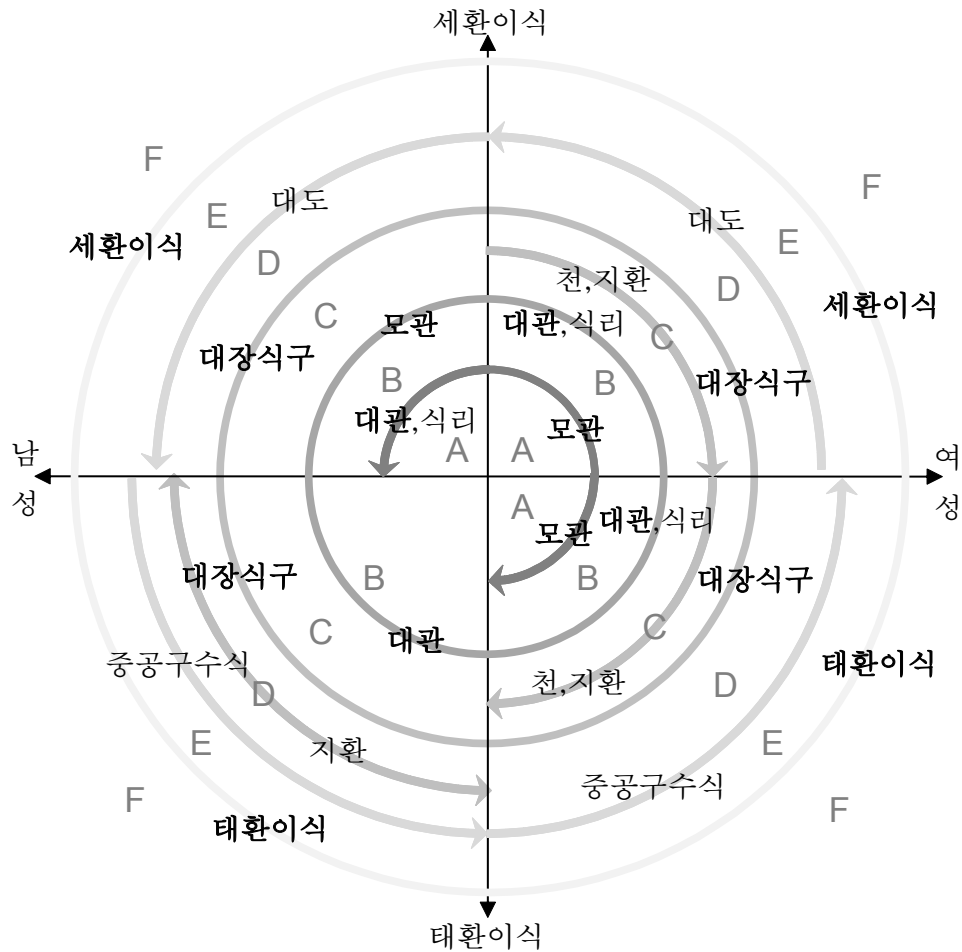
고, 약보고 고분(황오동 100번지 6호, 인왕동 B군 2호)과 일제 강점기 때 긴급조사된 파괴분(노서동 215번지)이 모여있어 순차적으로 추가되는 정형성을 찾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군집과 유사하게, 이식→중공구수식→대장식구→천,지환→대관→관모,관식의 부장 순으로 추가된다.

한편 계서를 판단하는 데 있어 지금까지 위세품의 재질은 다루지 않았는데, 많은 착장위세품을 가진 높은 계서의 피장자일수록 금제로 제작된 위세품을 착장한 경우가 많아, 출토 여부만으로 구별하였을 때와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것이 서봉총인데, 착장한 대장식구와 대관은 금제이지만 관식과 관모가 부장되지 않아 계서가 한 등급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한 등급 올려서 A군에 두고자 한다.

앞서 태환군은 기본적으로 대도를 착장하는 경우가 없다 하였으나, 금관총은 착장 가능성이 있음이 이미 지적된 바와 같으며, 최상위위계의 예외적 현상일 수 있다.

이처럼 4개 군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착장위세품의 누층적 구조가 잘 나타나며, 이를 도표화 하면 <그림 2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적석목곽묘에서 착장위세품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이식 → 대장식구 → 대관 → 금속제 관모, 관식의 부장 순서로 위계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성별과 착장 이식에 따라 세부적인 구성이 서로 달라진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천은 여성 피장자만 착장하며 남성은 착장 사례가 없다.
- ② 식리는 여성에게만 부장하지만 유일하게 황남대총 남분에서는 부장하였다.
- ③ 세환이식 착장자는 대도를, 태환이식 착장자는 중공구수식을 배타적으로 착장한다.
- ④ 지환은 남녀 공히 착장하지만 남성 세환군에서는 착장 사례가 없다.
- ⑤ 남성 피장자에게 있어 경식의 착장은 비정형적으로 나타난다.
- ⑥ 여성 피장자에게 있어 대도의 착장은 비정형적으로 나타난다.



〈그림 25〉 성별과 이식에 따른 착장위세품의 누층구조

※ 중심으로 갈수록 계서가 높음(A~F). 성별과 착장이식에 따라 4분되며,
그에 따라 위세품의 구성도 다름.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식→대장식구→대관의 누적적 양상은 동일함

⑦ 남성 태환군은 금속제 모관 부장 사례가 없다.

이처럼 이식, 대장식구, 대관의 누적적 착장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최상층에서는 거기에 더해 금속제 관식 혹은 관모가 부장된다. 이러한 양상을

중심으로 하여 잠정적으로 분류하면 착장위세품이 없는 피장자는 F등급으로, 모든 착장위세품을 갖춘 피장자는 A등급으로 6개 단위로 나눌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6> 착장위세품의 구성에 따른 계서 등급화

계서	착장 위세품						
	남성 세 환군	남성 태 환군		여성 세 환군		여성 태 환군	
A	대 관,식 리	-		금속제 관식 · 관모		금속제 관식 · 관모	
B	금속제 관식 · 관모	대 관		대 관,식 리	천 · 지 환	대 관,식 리	천, 지 환
C	대 장식 구	대 장식 구	지 환	대 장식 구		대 장식 구	
D	대 도	중 공 구수 식		대 도	중 공 구수 식		
E	세 환이 식	태 환이 식		세 환이 식		태 환이 식	
F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이에 따르면 A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남성 세환군의 황남대총 남분, 여성 세환군의 천마총과 금령총, 여성 태환군의 황남대총 북분과 금관총, 그리고 서봉총의 총 6개 사례이며 남성 태환군에는 사례가 없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계서의 높고 낮음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 성과와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장자의 성별과 착장 이식, 즉 피장자 성격의 주요 요소와 착장위세품의 구성이 밀접한 연관이 있음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이처럼 성별과 이식에 따라 4개의 복식군이 분리되고, 각 군 내에서 다시 일정한 누층적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은, 착장위세품의 구성이 피장자 혹은 조묘자의 임의적 선택이나 취향에 따라 구성된 것이 아니라 피장자의 성격에 따라 복식이 다르게 구성되었고, 복식과 깊은 상관을 갖는 착장위세품이 그에 따라서 결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종류의 부장품, 즉 무구나 마구, 그리고 토기와

철기의 구성에도 피장자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요소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한다.

4. 소결 :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격

지금까지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격을 착장 이식과 성별, 계서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착장 이식에 대해서는 현존 인골 자료와 대조한 결과 그것이 성별을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직능이나 역할 등 피장자 성격의 다른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현재로써는 확인이 어려워, 적석목곽묘의 부장품과 유구의 배치가 착장 이식에 따라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검토한 이후 어떠한 경향성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그에 대해 추론해 보고자 한다.

이후로는 피장자의 성별을 추정하기 위하여 대안 가설을 제시하였다. 분석의 주된 방법론은 유물에 나타난 성별이형성의 감별을 통한 것이었는데, 신라 고분에서 피장자의 성별이형성을 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자료는 천으로 판단하고, 그 출토 맥락을 검토하여 육탈 이전의 사체에 착장한 것으로 보고 착장시 손 너비를 반영하는 최대 내경을 중심으로 계측치를 종합하였다. 현존하는 출토 사례 108점의 계측치를 종합한 결과 뚜렷한 단봉분포를 보이고 정규성 검정 결과 그 모집단이 정규분포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성별이형성을 전제로 할 때 하나의 성별만이 착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일본의 야요이 시대 남녀 인골이 착장한 채 출토된 패천의 최대 내경, 무령왕비 소유품, 그리고 현대 성인 남녀가 착장하는 천의 크기와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신라 고분에서 착장한 천은 대부분의 남성이 착장 불가능한 크기로 제작되었으며, 모두 여성이 착장하는 크기로 제작된 것으로 최종 판단할 수 있었다.⁷⁷⁾

77) 경험적으로 볼 때 신라 고분 평균인 대략 64mm이하의 천은 대부분의 남성이 착장 불가능하다. 흥미로운 것은 일부 보고서에서 이러한 경험을 서술하고 피장자의 성별을 추정한 경우가 이미 있다는 점이다. 금조총 보고서(沈奉謹 1991)에 의하면, “주목되는 점은 前記한 바와 같이 金팔찌가 남자들의 작은 손에도 끼워지지 않으나 여자들의 경우 아무리 큰 손이라도 끼워지고 있어서 被葬者는 분명히 여자임에 틀림없는 듯하다.” 고 하였으며, 이 금제천의 내경이 65, 66mm이다. 충주 단월동 보고서(崔茂藏 1994)에도 유사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천 착장이 여성 피장자에 한정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천의 편년적·위계적 위치로 인해 적석목곽묘 전반의 피장자 성별 추정을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천의 출토와 상응하는 적석목곽묘의 다른 속성을 검토한 바, 그것은 부곽의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한 묘곽 형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착장위세품이 3점 이상인 고분 52기를 대상으로 검토하였을 때, 유부곽식 고분 26기에서는 천의 착장 사례가 전무하였고, 주피장자가 천을 착장한 고분 22기는 모두 무부곽식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묘곽 형식이 성별을 반영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현존하는 인골 자료와 비교하였을 때 모두 정합적이었다. 따라서 잠정적으로 적석목곽묘 중에서 무부곽식을 여성묘로, 유부곽식을 남성묘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피장자의 계서를 복원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라 착장위세품의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여성묘에서 착장위세품의 숫자가 많은 점 등을 확인하여 성별에 따른 착장위세품 구성이 서로 다를 것을 보였다. 다음으로 착장 이식에 대해서도 동일한 검토를 실시하였는데, 세환군과 태환군의 복식군은 서로 높은 공반율을 보이는 착장위세품이 뚜렷이 구분되어 양분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성별과 착장 이식에 따라 적석목곽묘의 피장자 집단이 4개 군으로 분할되는 양상이 확인되었고, 4개 군은 서로 다른 복식의 구성을 가지므로, 계서를 복원함에 있어 각각을 분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각각의 복식군은 경식·천·지환·대도 등의 착장에 있어 서로 다른 착장 규정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가령 여성만 천을 착장하였고, 세환군만 대도를 착장하였으며, 남성 세환군에서는 지환을 착장하는 경우가 없었다. 하지만 각 군에서는 대체로 이식-대장식구-대관-금속제 모관(부장)까지 이어지는 공통적인 누적적·위계적 구성을 보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계서를 설정하여 위세품이 전혀 없는 F군에서부터 금속제 모관의 부장이 이루어진 A군까지 여섯 단위로 계서를 설정하였다.

이상에서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격을 성별과 착장 이식, 계서의 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었고, 이러한 측면들이 적석목곽묘의 다른 부분과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 검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IV. 적석목곽묘의 부장품 구성

이번 장에서는 피장자의 성격에 따라 제반 부장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파악한 피장자 성격의 세 가지 요소는 착장 이식과 성별, 그리고 계서였다. 이상의 세 요소가 부장품의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부장품의 종류에 따라 어떠한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살펴본다. 부장품은 크게 무구·마구, 그리고 토기와 철기로 구분하고 각각의 세부적인 기물과 기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무구는 성시구와 갑주를, 마구는 재갈, 등자, 안교, 행엽, 운주를 분석단위로 하는데, 이들을 일반 철기에서 분리한 이유는 재질에 있어서 다른 유물과는 달리 금, 금동, 은으로 장식되기도 하고, 사용자의 신체나 기승하는 말에 착장하므로 착장위세품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마구에 있어서는 삼국사기 雜志에 車騎條가 服色條의 뒤에 이어서 나오고, 각 골품에 따라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는 점에서 볼 때 마구 역시 복식에 버금가는 위세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金斗喆 2011a).

토기와 철기는 수량적인 측면에서 신라 고분 부장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그간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자세한 분류 방식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참조하여 피장자의 성별과 착장 이식, 계서에 따라서 이들이 어떻게 부장되었는지 살펴보고 어떤 경향성이 존재하는지 파악하는 것을 통해 부장품의 구성 방식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다. 이러한 접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피장자 성격에 따라 부장품 구성에 어떤 정형성이 존재하는지 파악할 수 있고, 그 정형성의 비교를 통해 적석목곽묘의 함의에 대한 해석의 가능성을 확장시킬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차후 실시될 지방 고분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신라권 내 제의양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1. 피장자의 성격과 무구·마구의 구성

이 절에서는 피장자의 성격 중에서도 특히 성별과 착장 이식에 따라 무

구·마구의 부장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어떠한 변수가 무구·마구의 부장에 있어서 주요한 변수였는지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무구와 마구의 부장 현황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분석 대상은 앞서 계서 설정의 대상인 착장위세품이 2점 이상 출토된 적석목곽묘 71기로 한다. 해당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묘곽 형식과 착장 이식, 그리고 무구와 마구의 출토 현황을 정리하면 <표 17>과 같다. 여기에 정리된 유물은 모두 세세한 하부 양식을 가질 것이고, 재질에 따라서도 위계적 분류가 가능할 것이지만, 본고에서 그러한 구분은 실시하지 않고 출토 여부만을 검토하였는데, 그 이유는 재질이나 세부양식의 자세한 구분이 오히려 전체적인 양상 파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부장 양상을 확인한다.

1) 성별과 무구·마구의 부장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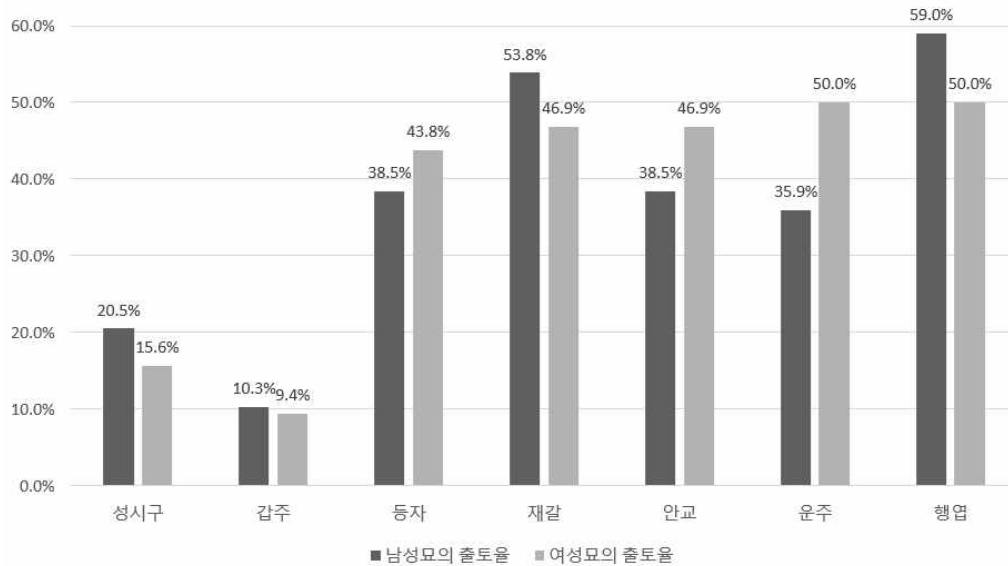
묘곽 형식을 토대로 피장자의 성별을 파악할 수 있는 적석목곽묘 71기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무구와 마구의 출토율을 정리하면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 결과에서 주목되는 점은 성별에 따른 무구·마구의 출토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사실상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안교와 운주가 여성묘 출토율이 약간씩 높지만, 성별에 따라 완전히 차별적으로 구성된 양상은 감지되지 않는다. 기존에 피장자의 군사적, 무사적 성격을 반영하여 남성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여겨지던 갑주 또한 여성묘로 판단되는 금관총과 천마총, 노동리 4호분에서도 출토되며, 성시구도 인왕동 149호와 노동리 4호분에서 출토 사례가 확인된다. 이는 피장자의 성별이 무구·마구의 부장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였음을 의미하고, 다른 원리에 의해 부장 여부가 결정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갑주와 성시구 등을 남성적, 무사적 정체성과 연결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적석목곽묘의 조묘자들은 현재의 시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부장품을 선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7> 적석목곽묘의 무구류·마구류의 출토 현황

연번	유구명	묘곽 형식 (성별)	착장 이식	무구류		마구류					비고
				성지구	갑주	등자	제갈	안장	운주	행엽	
1	황오동 100 번지 1 호	무부곽식	세환	?	?	?	?	?	?	?	약보고
2	미추 7 구 7 호	유부곽식	세환	-	-	-	○	-	-	-	
3	황남동 109 호 1 곽	유부곽식	세환	-	-	-	-	-	-	-	
4	황오동 16 호 4,5 곽	유부곽식	세환	-	-	○	○	○	-	○	
5	쪽샘 B3 호	유부곽식	세환	○	-	○	○	○	○	○	
6	쪽샘 B2 호	유부곽식	세환	○	-	○	○	○	○	○	
7	인왕동 19 호 K 곽	유부곽식	세환	-	-	-	○	-	-	○	
8	황남동 110 호	유부곽식	세환	○	-	○	○	○	○	○	
9	인왕동 19 호 J 곽	유부곽식	세환	-	-	○	-	-	○	○	
10	미추 6C 구 11 호	유부곽식	세환	-	-	-	-	-	-	-	약보고
11	쪽샘 B1 호	유부곽식	세환	○	-	○	○	○	○	○	
12	황오동 100 번지 2 호	무부곽식	세환	?	?	?	?	?	?	?	약보고
13	황오동 16 호 11,12 곽	유부곽식	세환	○	-	○	○	○	-	○	
14	황오동 100 번지 3 호	유부곽식	세환	?	?	?	?	?	?	?	약보고
15	황오동파괴고분 2 곽	유부곽식	세환	-	-	○	-	-	○	○	
16	황오동 16 호 2,3 곽	유부곽식	세환	-	-	○	○	○	-	○	
17	황오동 54 호을총	유부곽식	세환	-	○	-	-	-	-	-	약보고
18	인왕동 149 호	무부곽식	세환	○	-	-	-	-	-	-	
19	인왕동 C 군 1 호	유부곽식	세환	?	○	?	?	?	?	?	약보고
20	황오동 34 호 1 곽	유부곽식	세환	?	?	?	?	?	?	?	약보고
21	황오리고분남곽(1937)	무부곽식	세환	-	-	-	-	-	-	-	
22	황남동 82 호동총	유부곽식	세환	-	-	○	○	○	-	-	
23	황오동 14 호 1 곽	유부곽식	세환	○	-	○	○	○	○	○	
24	쪽샘 41 호	유부곽식	세환	○	○	○	○	○	-	○	약보고
25	황오동 34 호 2 곽	유부곽식	세환	?	?	?	?	?	?	?	약보고
26	미추 6D 구 1 호 1 곽	무부곽식	세환	-	-	-	-	-	-	-	약보고
27	인왕동 19 호 G 곽	유부곽식	세환	-	-	○	-	-	-	○	
28	인왕동 C 군 2 호	무부곽식	세환	?	?	?	?	?	?	?	약보고
29	황남대총남분	유부곽식	세환	○	○	○	○	○	○	○	
30	인왕동(경문연)10 호	유부곽식	세환	-	-	-	-	-	-	-	
31	미추 4A 구 3 호 1 곽	무부곽식	세환	-	-	○	○	○	○	○	
32	황남동 109 호 3,4 곽	유부곽식	세환	-	-	○	○	○	○	○	
33	황남동 95-6 번지 2 호	무부곽식	없음	-	-	○	○	-	○	-	
34	식리총	무부곽식	세환	-	-	○	○	○	○	○	
35	노동리 4 호	무부곽식	세환	○	○	○	○	○	○	○	
36	황오동 16 호 1 곽	무부곽식	세환	-	-	○	○	○	-	○	
37	금령총	무부곽식	세환	-	-	○	○	○	○	○	

연번	유구명	묘곽 형식 (성별)	착장 이식	무구류		마구류					비고
				성지구	갑주	등자	재갈	안장	운주	행엽	
38	노서동 138 호	무부곽식	세환	-	-	○	○	○	○	-	
39	천마총	무부곽식	세환	-	○	○	○	○	○	○	
40	데이비드총	무부곽식	세환	-	-	?	?	?	?	?	약보고
41	호우총	무부곽식	세환	○	-	○	○	○	○	○	
42	황오동 4 호	무부곽식	세환	-	-	○	○	-	○	○	
43	인왕동 A 군 1 호	유부곽식	태환	?	?	?	?	?	?	?	
44	은령총	무부곽식	세환	-	-	○	-	○	○	○	
45	인왕동 20 호	무부곽식	태환	-	-	○	○	-	○	○	
46	황남동 82 호서총	유부곽식	태환	-	-	-	-	-	-	○	
47	인왕동 156-2 호	무부곽식	태환	?	?	?	?	?	?	?	약보고
48	황남대총북분	무부곽식	태환	○	-	○	○	○	○	○	
49	황오동 100 번지 6 호	무부곽식	태환	?	?	?	?	?	?	?	약보고
50	황오리고분북곽(1937)	무부곽식	태환	-	-	-	-	○	○	○	
51	황오동 32-1 호	무부곽식	태환	-	-	-	-	-	○	-	
52	황오동 16 호 8,10 곽	유부곽식	태환	-	-	-	○	-	-	○	
53	황오동 1 호남곽	유부곽식	태환	-	-	-	○	○	-	-	약보고
54	황오동 16 호 6,7 곽	유부곽식	태환	?	?	?	○	?	?	○	
55	황오동 5 호	무부곽식	태환	-	-	-	-	-	-	-	
56	황오동 54 호갑총	무부곽식	태환	-	-	-	○	○	-	○	약보고
57	서봉총	무부곽식	태환	-	-	-	○	○	○	○	
58	금관총 ⁷⁸⁾	무부곽식	태환	○	○	○	○	○	○	○	
59	황오동 100 번지 7 호	유부곽식	태환	?	?	?	?	?	?	?	약보고
60	인왕동 19 호 C 곽	유부곽식	태환	-	-	-	-	-	-	-	
61	쪽샘 B6 호주부곽	유부곽식	태환	-	-	-	○	○	○	○	
62	미추 6C 구 3 호	유부곽식	태환	-	-	-	-	-	-	-	약보고
63	미추 6D 구 1 호 2 곽	무부곽식	태환	-	-	-	-	-	-	-	약보고
64	미추 9 구 A 호 1 곽	유부곽식	태환	-	-	-	○	○	○	○	
65	인왕동 19 호 E 곽	유부곽식	태환	-	-	-	-	-	○	-	
66	인왕동 19 호 F 곽	유부곽식	태환	-	-	-	○	-	○	○	
67	노서동 215 번지	무부곽식	태환	?	?	?	?	?	?	?	
68	황오동 33 호서곽	무부곽식	태환	-	-	-	-	○	-	○	
69	미추 6C 구 4 호	유부곽식	태환	-	-	-	-	-	-	○	약보고
70	인왕동 B 군 2 호	무부곽식	태환	?	?	?	?	?	?	?	약보고
71	황오동 14 호 2 곽	유부곽식	태환	-	-	-	○	-	○	○	
※ 범례 ○ : 출토되어 존재가 확인됨 - : 출토되지 않음 ? : 도굴 등으로 알 수 없음 ※ 성별의 판단은 묘곽 형식을 기준으로 함 유부곽식: 남성, 무부곽식: 여성											

〈표 18〉 남성묘와 여성묘의 무구류·마구류 출토 비율 비교



구분		무구류		마구류				
		성시구	갑주	등자	재갈	안교	윤주	행엽
남성	출토사례/ 고분 수	8/ 39	4/ 39	15/ 39	21/ 39	15/ 39	14/ 39	23/ 39
	백분율(%)	20.5	10.3	38.5	53.8	38.5	35.9	59.0
여성	출토사례/ 고분 수	5/ 32	3/ 32	14/ 32	15/ 32	15/ 32	16/ 32	16/ 32
	백분율(%)	15.6	9.4	43.8	46.9	46.9	50.0	21.9

물론 다른 성격의 부장품은 성별에 따라 크게 다른 구성을 보일 수 있지만, 현재 자료로 보아 적석목곽묘의 무구와 마구는 피장자의 성별을 중심으로 양분되어 구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음에서는 종래에 복식의 구분에서 주요한 요소로 다루어진 이식의 주

78) 금관총 피장자의 태환 착장 여부는 당시 조사자, 참관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착장으로 볼 수 있으나, 대도 착장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기록이 서로 달라 문제가 되고 있다. 부장으로 기록된 것이 더 많지만, 당시 가장 전문가인 오가와 게이키치가 현장에서 실측한 자료에는 착장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며, 따라서 최근의 재보고에서는 부장 가능성이 크지만 착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金大煥 2016a). 본고에서도 부장을 우선 가정하되 착장 가능성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이에 따르도록 한다.

환 종류에 따라 무구와 마구의 구성이 어떠한지 살펴본다.

2) 착장 이식과 무구·마구의 부장 양상

<표 17>의 적석목곽묘 71기 중에서, 착장 이식이 없는 황남동 95-6번지 2호⁷⁹⁾를 제외한 70기를 대상으로 피장자의 착장 이식에 따라 무구와 마구의 출토율을 비교한 결과는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를 검토해 보면 매우 특징적인 양상이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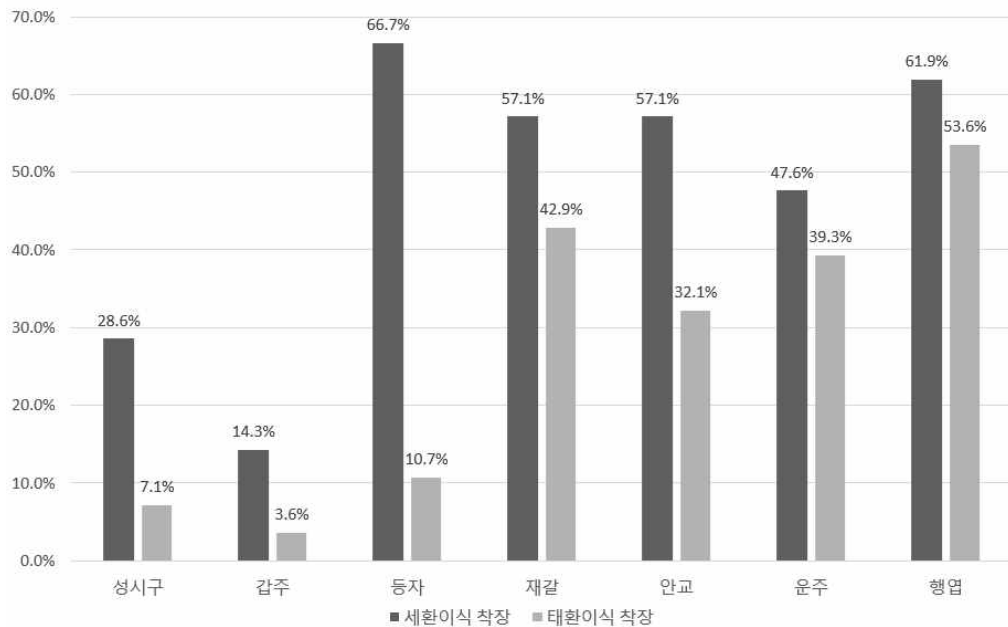
먼저 성시구와 갑주에 대해 살펴보면 피장자의 착장이식 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태환군에서 성시구와 갑주가 부장된 사례는 극소수라는 점이다. 성시구는 금관총과 황남대총 북분에서, 갑주는 금관총에서만 확인된다. 반면 세환군의 경우 성시구가 12개, 갑주가 6개 사례를 보인다. 다음으로 마구에 대해 살펴보면, 등자, 재갈, 운주, 행엽 모두 전반적으로 세환군에서 부장비율이 높다. 특히 등자는 세환군의 출토율이 70%에 달하는 데 반해 태환군은 10%에 불과하여, 황남대총 북분과 금관총, 인왕동 20호의 3례에 불과하다.

세환군과 태환군 두 집단 모두 다양한 위계의 무덤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피장자의 위계에 따른 차별적인 부장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또한 서봉총이나 미추왕릉 9지구 A호분 1곽, 쪽샘 B6호와 같이, 태환군에서는 재갈·행엽·운주 등 다른 종류의 마구는 모두 부장하더라도 등자만 부장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 이는 계서와는 별개로 착장 이식에 따른 의도적인 선택의 결과로밖에 해석할 수 없으며, 등자 부장에 있어 이식의 주환 종류와 관련하여 특정한 부장 방식이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등자는 승마자의 기승을 돕고, 기승 이후에는 양발을 버티어서 승마자의 안정을 돕는 도구로서, 안장과 함께 안정구로 분류

79) 이 무덤에서는 이식이 피장자의 두위가 아니라 대장식구 부근에서 수습되어 굳이 착장시키지 않고 부장한 것으로 판단된다(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7).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지방에서는 양산 금조총에서 확인되며, 굳이 착장시키지 않고 대장식구 주변에 두 점을 나란히 붙여 부장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기 어렵다.

〈표 19〉 피장자의 착장 이식 별 무구류 및 마구류 부장 비율
(세환이식 착장 분묘 42, 태환이식 착장 분묘 28)



구분		무구류		마구류				
		성시구	갑주	등자	재갈	안교	운주	행엽
세환이식 착장 분묘	출토사례/ 고분 수	12/ 42	6/ 42	28/ 42	24/ 42	24/ 42	20/ 42	26/ 42
	백분율(%)	28.6	14.3	66.7	57.1	57.1	47.6	61.9
태환이식 착장 분묘	출토사례/ 고분 수	2/ 28	1/ 28	3/ 28	12/ 28	9/ 28	11/ 28	15/ 28
	백분율(%)	7.1	3.6	10.7	42.9	32.1	39.3	53.6

되어 말을 다루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李蘭暎·金斗喆 1999). 등자를 비롯한 마구는 신라 고분에서 중요한 부장품 중 하나인 바, 종종 출토되는 등자는 상대편년 및 지역 간 교차편년 자료로 자주 활용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등자의 계통과 등장 시기 및 절대연대를 중심으로 학사적으로 중요한 논의가 있어 왔다. 등자가 이처럼 편년의 대상으로 주요하게 다뤄질 수 있었던 기본 조건 중의 하나는 희소하지 않고 일정 정도 이상의 출토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등자는 위계가 높은 고분에만 독

점적으로 부장하는 것이 아니어서, 착장형 위세품이 없는 분묘나 위계가 그리 높지 않는 중소 고분군에서도 간혹 출토된다. 이러한 등자의 위계적 편재성(遍在性)을 고려할 때, 앞서 드러난 바와 같이 세환이식 분묘에는 70%에 가까운 부장율을 보이는 반면 태환이식 분묘에서는 10% 정도에만 부장되는 양상은 매우 독특하다. 심지어 일부 태환이식 분묘에서는 다른 종류의 마구는 모두 부장한다 하더라도 등자만 부장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등자가 실제 기승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면, 이러한 태환군 분묘의 고의적 등자 결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마구의 실용적 의미에 더 중점을 두어서, 마구의 부장이 생전의 소유물을 부장한 것이든 사후세계를 위해 부장한 것이든, 등자의 결락은 피장자의 무등자 기승을 의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⁸⁰⁾ 둘째는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는 없으나, 실용적 의미보다는 특정한 상징성이나 의례적 이유로 인해 태환군 피장자의 무덤에는 등자를 부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 더 타당성이 있는지는 다른 부장품의 부장양상을 검토한 뒤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와는 별개로 등자의 부장양상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적석목곽묘의 조묘자가 부장품을 구성할 때, 조묘자 자신의 선택보다 주피장자가 갖는 피장자 성격의 일면, 등자의 경우 착장 이식을 기준으로 하여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적석목곽묘 전반에서 그러한 경향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은 신라 고분 조묘자들이 그러한 규범을 사전에 인지하고 공유하였음을 뜻하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현재 자료에서 태환이식 분묘에서 등자를 부장한 예는 황남대총 북분, 금관총, 인왕동 20호 등 3개 사례뿐이다. 이들은 현존하는 태환이식

80) 등자 기승과 무등자 기승이 혼재하는 경우로써 비견되는 것은 고구려 고분벽화의 사례가 있다. 가령 무용총 벽화의 수렵도에서 묘사된 수렵 騎士는 등자 기승이지만, 무용총 묘주는 무등자 기승인데, 나이 든 묘주는 등자 수용 이전에 훈련을 받았고 이후 세대는 등자 수용 이후에 훈련을 받은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보아, 등자 수용기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한다(徐榮教 2004). 하지만 적석목곽묘에서 등자 부장의 여부가 이러한 시간적 차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분묘 중에서 가장 계서가 높은 것들로 볼 수 있어, 상위 위계에서는 하위 위계에서는 준수하는 일반 부장 방식을 넘어서는 부장품 구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앞서 식리의 부장 방식에서 본 것과 같은 양상으로, 식리는 황남대총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묘에 부장된 바 있었다.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황남대총의 예외는 상위위계 분묘에서 일어나는, 일반적 부장 방식의 초월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즉 피장자의 성격에 따라서 일반적인 부장 방식이 존재하지만, 특정 위계 이상에서는 일반적인 부장 방식을 초월하는 부장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황남대총 북분과 금관총에서 성시구와 갑주가 각각 부장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상의 자료에서 보듯이, 신라 고분에서는 피장자가 어떠한 이식을 착장하였는지에 따라, 다시 말해 피장자가 갖는 모종의 사회적 정체성에 따라 무구와 마구의 차별적 부장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에서도 성시구와 갑주, 그리고 특히 등자에서 그러한 양상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차별적 부장 행위는, 특정한 부장품의 경우 피장자 성격의 특정한 측면에 따라 부장 여부가 결정되는 일정한 선택 방식이 존재하였음을 의미하며, 그 사유가 상징적인 것이든 실용적인 것이든 적석목곽묘의 일부 부장품은 이에 따라 구성된 것임을 뜻한다. 성시구와 갑주, 등자의 부장 비율과 여부에서 이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으며, 분석 대상 분묘가 시간적으로 고총기의 전 기간에 걸친다는 점에서 조묘자들이 적석목곽묘 축조의 전 기간 동안, 피장자의 성격에 따라 무구와 마구의 구성이 결정되는 정형적인 부장 방식을 인지하고 공유하였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종류의 부장품 구성에도 피장자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요소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가장 일반적인 부장품이라 할 수 있는 토기와 철기의 구성에도 성별이나 착장 이식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 존재하는지, 그것이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는지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계서에 따라 부장 수량이나 구성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확인해 보도록 한다.

2. 피장자 성격과 토기 및 철기의 구성

앞서 실시된 분석에서는, 피장자의 성격, 즉 성별과 착장 이식에 따라 무구·마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았다. 이번 절에서는 마찬가지로 피장자가 갖는 성격의 제 요소에 따라 토기와 철기의 부장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한다.

지금까지의 분석에서는 적어도 일부 부장품은 피장자의 성격에 따라 부장 여부와 비율에 명확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비록 다른 방식의 소유 양식과 소비 방식을 가지지만, 토기와 철기에 있어서도 그러할 가능성은 상당하며, 이번 절에서는 피장자의 성별과 착장이식, 계서를 명목변수로 하였을 때 그에 따라 토기와 철기의 부장양상이 종속변수로써 어떠한 경향성을 나타내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그런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신라 고분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 기에 수 천 점에 이르는 많은 양의 토기와 철기가 부장되기도 하였고, 그 종류와 수량도 복잡다단하기 이를 데 없다. 이러한 자료를 대상으로는 마구, 무구의 경우에서와 같이 단순 출토율 뿐만 아니라 부장 비율이나 다른 통계적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통계 분석을 위해서는 전량 보고된 고분만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착장위세품이나 무구·마구는 약보고된 보고서에서도 비교적 충실히 보고되어 분석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으나, 토기와 철기의 분석에서는 약보고된 고분은 활용이 크게 제한된다. 보다 자세한 분석 방법과 내용은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다.

1) 분석 방법과 대상

피장자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따라서, 조묘자들이 토기와 철기 부장에 있어 종류와 수량을 어떻게 결정하였는지 밝히려 한다면 적절한 대상의 선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대상은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도굴되지 않은 무덤에서 출토된, 공반 관계가 온전히 유지된 부장품의 세트 관계를 유지한 무덤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금은제 착장위세품이나 무구, 마구는 약보고된 고분이라 하여도 그 가시성으로 인해 충실히

보고된 경우가 많지만, 토기와 철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분석이 제한된다. 도굴되었거나 파괴된 고분 또한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출토 유물이 전량 보고된 미도굴분만 분석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 기준을 따르자면 전량보고가 일반적인 보고방식으로 자리잡기 이전의 보고는 거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대부분의 일제 강점기 보고서와 70년대 이전의 보고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70년대 이후의 보고 중에서도 과연 전량보고인지 간혹 의심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된다. 또한 철기의 경우 수습이나 복원기술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기물의 판정이나 개체 수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던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가령 철촉이나 도자 같은 경우 양자를 혼동하기도 하고, 하나의 기물이 파손되어 출토된 경우 개체 수 파악을 정확히 하지 못하거나 아예 수습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가장 가시적인 유물만 보고한 경우도 있다. 때문에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약간의 부정확성을 갖는 보고는 모두 제외해야 하겠으나, 그렇다면 분석 대상 고분의 숫자가 격감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전반적인 보고의 정확성과 엄밀성을 나름대로 평가하여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오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는 고고학적 자료의 특성 상 감수해야 할 수준의 문제로 판단하였다.

두 번째 조건은 피장자의 성격과 관련하여 최소한 하나의 명목변수가 설정 가능한 고분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 피장자의 성격은 성별과 착장이식, 계서로 구분하였으며, 성별은 적석목곽묘의 경우 묘곽 형식으로, 착장이식과 계서는 착장위세품의 구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피장자의 성격을 명목변수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묘곽 형식이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착장 이식을 비롯한 복식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착장위세품의 출토가 필요하며, 최소한 이식의 출토는 확인되어야 한다.

세 번째 조건은 통계적 분석의 가능성 및 용이성과 관련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적석목곽묘에서는 대체로 피장자의 계서가 높을수록 부장품의 종류와 수량이 늘어나고, 낮을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소위 왕릉급 고분에서는 수십 종의 기물이 수천 점 부장되지

만, 아주 낮은 계서에 속한 무덤에서는 불과 토기 한두 점만 부장되거나 아예 부장품이 없는 것에서 이를 잘 볼 수 있다. 당연하게도 후자의 경우는 많은 종류와 많은 수의 부장품이 묻힌 무덤과의 적절한 비교가 어렵다. 따라서 일정 숫자 이상의 부장품을 부장한 무덤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이 기준을 본고에서는 개를 제외하였을 때 기종이 분명한 토기 20점으로 설정하였다. 20점으로 설정한 이유는 대략 이 정도를 기준으로 할 때 분석 대상이 적절하게 한정되고, 부장 토기의 기종 구성이 어떤 정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최소 수량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제한을 낮춘다면 더 많은 숫자의 무덤이 분석 대상이 될 것이지만, 것처럼 기종 구성이 매우 단순하고 수량도 소량인 자료를 대량으로 포함시킨다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전반적인 부장 양상의 이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토기와 철기의 부장양상 분석 대상이 되는 적석목곽묘는, 1) 출토품이 전량 보고된 미도굴분이며, 2) 착장유물에 있어 최소한 착장 이식이 분명하여야 하며, 3) 기종이 명확한 토기가 개를 제외하고 적어도 20점 이상 부장된 무덤이어야 한다.

이상의 기준을 거친 분석 대상 적석목곽묘는 총 25기이며, 경우에 따라서 단순 출토량이나 출토 여부 등의 비교가 필요한 경우 착장 이식이 없는 고분(E, F군) 또는 20점 미만 출토 고분까지 포함하여 45기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도 있다. 여기서 출토된 유물은 토기 4,549점과 철기 4,500점이며, 그 내역은 <부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한편 부장품의 구성을 비교한다고 할 때,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은 토기의 기종과 철기의 종류를 설정해야 한다. 문제는 피장자 성격과 관련된 적절한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 세분화된 분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가이다. 본고에서 실시될 분석은 편년을 위해 실시되는 형식분류와는 달리 부장 양상의 파악이 목적인 이상, 매우 세분화되고 자세한 분류를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정밀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실제 양상을 잘못 이해하거나 접근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가령 배신에 붙는 이(耳) 혹은 파수의 개수에 따라 대부완을 분류하고 피장자 정체성에 따라 여러 고분의 대부완 부장 양상을 비교한다면 아마도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하

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부장 양상을 파악한다는 목적 하에서 토기를 분류한다고 할 때, 형식학적으로 세부적인 부분에 천착해서는 신라 고분 전반에 걸친 부장 양상 파악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⁸¹⁾ 따라서 각 기종이나 기물의 용도나 전반적인 부장 방법을 고려하여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서술하였으며, 완전히 새로운 분류를 실시하기 보다는 기존의 보고 및 연구 사례를 충실히 참고하여 따르고 큰 틀에서 묶도록 하였다.

(1) 토기의 기종 설정

여기에서는 부장양상의 파악을 위한 기본 단위가 되는 토기 기종을 설정하도록 한다. 본고의 연구 대상은 3단각 고배가 출현한 이후의 고분들로, 최병현(2016a)의 1Ba기, 김용성(1998)의 III2b기, 이희준(2007)의 Ia기부터이다. 대체로 신라 고분에 부장되는 토기의 기종들이 대부분 완성된 시기로 여겨지며, 이 시기 이후 석실단계에 이르기까지 기종 구성 자체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토기의 분류는 일제 강점기의 보고에서부터 그 시원을 찾을 수 있는데, 1950~60년대의 주요 보고에서도 일제 강점기의 분류안이 거의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의 보고에서는 유물의 분류가 보다 다양해지고 세분화 되었으나, 기본적인 틀은 신라 고분 연구의 시작 시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이하에서 이뤄진 기종의 구분은 종래의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최근의 신라 토기 연구와 보고 또한 참조하였다(최병현 2014a, 김대환 2013). 단 본 분석의 목적이 어디까지나 부장양상의 통계적인 파악과 비교에 있으므로 지나친 세분은 피하고 부장 양상의 파악과 비교에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한에서 분류하였고 그 이유와 근거를 언급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81) 앞서 실시된 착장 위세품과 무구, 마구의 분석을 되돌아보면, 이 분석에 앞서 각종 위세품이나 무구·마구를 형식학적으로 세분하였다면 오히려 명확한 결과를 얻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는 편년을 위한 분류와 부장 양상 파악을 위한 분류가, 목적을 달리하는 만큼 서로 다른 방식을 취해야 함을 보여준다.

① 배류 : 일단고배, 이단고배, 개배

일단·이단고배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신라 고분 출토 토기 중에서 가장 수가 되는 기종으로, 다음 절에서 보듯 부장 숫자와 비율에서 다른 기종을 압도한다. 시기에 따라 다소간의 변화는 있지만 고식도질토기 단계 이래 기본적으로 깊은 접시형의 배신에 완만히 벌어지는 대각이 붙는 형태를 기본으로 한다. 주지하다시피 투창의 배열에 따라 일단고배와 이단고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두 亞器種은 고총기의 가장 이른 시기 무덤 중 하나인 황남동 109호분 3,4곽 단계에서 이미 분화되어 있다. 처음에는 일단고배의 대각이 소위 四柱式 대각인 등 형태적인 차이가 컸는데, 이런 점에서 일찍이 지적된 바와 같이 두 종류의 고배는 형식상의 차이가 아니라 기능상의 차이를 갖는 것으로 여겨진다(金元龍 1981). 그리고 부장 양상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김대환 2013). 따라서 본고의 분석에서는 일단고배와 이단고배를 분리하여 분석한다. 뒤에서 보다시피 두 기종의 관계와 비율은 토기 부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일단고배와 이단고배를 분리하지 않은 과거의 일부 보고는 분석에 사용할 수 없었다.

개배는 고배에서 대각이 생략된 형태의 기종이며 고배보다 등장 자체는 늦지만 남분 이전 단계에 이미 부장되고 있다. 굳이 개배라고 하는 이유는 본래 개가 조합된 형태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나, 출토 사례에 있어서는 고배와 마찬가지로 세트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굳이 세트관계에 있는 개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배로 칭하였다.

② 파배

파배는 보고나 연구자에 따라 명칭도 다양하고 분류도 여러 가지이지만,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음료 등의 개인 잔으로 여겨지는 제 기종을 모두 종합하여, 광구소호, 파배, 경배, 꺾형토기, 호형파배 등으로 불리는 기종을 모두 포함하여 파배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명칭에 구애됨 없이 파수가

없는 경우라 하여도, 도질소성이면서 크기와 기형에서 대략 음료를 담은 개 인용 잔으로 볼 수 있다면 포함시켰다.

③ 대부완

대체로 고배보다 배신이 크고 깊으며 개가 없는 기종이다. 이(耳)가 1~3개 붙는 경우도 있고, 대각은 일단 대각을 뚫은 것도 있고 이단고배처럼 교호투창을 뚫은 것도 있다. 또 크기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는 등 스펙트럼이 다소 다양한 기종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부장양상의 파악이 목적인 바이의 개수나 크기, 대각의 형태, 크기 등으로 세분하지는 않았다. 대량 부장되거나 필수적으로 부장되는 기종은 아니지만 이후에서 보다시피 고분마다 일정한 숫자를 부장하는 경향이 있어 중요한 부장 요소였던 것 같다. 다만 고분마다 부장 수량이나 비중에 있어 큰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는 기종이다.

④ 장경호 및 대부장경호

고배와 함께 신라 고분의 대표적인 부장품이다. 구형 혹은 편구형의 동체에 경부가 길게 직립하는 기종으로, 대각이 붙은 것은 대부장경호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굳이 대각을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두 아기종은 아마도 기능상의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실제 부장 용례에 있어서는 구분 없이 사용된 경우가 많고(김대환 2012a), 대부장경호의 대각을 굳이 떼어내서 부장한 사례도 많다. 이러한 점에서 사실상 두 기종 간에는 호환관계가 존재하였던 것 같다. 따라서 전반적인 부장 경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두 기종을 합쳐 보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장경호와 대부장경호는 구분하지 않았다.

⑤ 단경호 및 직구호

일제 강점기부터 ㅼ이라 칭하던 기종으로, 양자는 구형의 동체에 붙은 경부와 구연의 형태로 구분하며, 전자는 짧게 외반하는 구연을 갖고 후자는 경부에서부터 구연이 직립한다. 경부와 구연의 형태가 다른 것은 내용물의

저장과 이동에 맞게 기능적으로 특화된 결과인 것으로 여겨지는데(김대환 2013), 넓게 보아서는 부장 경향의 비교에 있어 장경호류와 대비하여 단경호류로 단순화하여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단경호와 직구호를 합쳐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합쳐 단경호류로 칭하였다.

⑥ 대호

모든 기종 중에서 가장 구분이 어려운 기종이다. 대체로 계란형의 동체에 길게 외반하는 나팔형 경부와 구연을 가진 대형의 호를 말하지만, 대형의 단경호, 직구호와 구분하기에 애매한 점이 많고, 크기의 분포에 있어서 단경호류와 단절적이다기 보다는 연속적인 측면이 크다. 그런 이유로 기형을 구분 기준으로 두지 않고, 계측적 속성을 우선으로 하여 기고 45~50cm를 대형 단경호와 대호의 구별 기준으로 두기도 한다(張容碩·金大郁 2009).

실제 출토 사례를 보면 더욱 복잡해지는데, 가령 성산동 57호분 부곽 출토 대형 단경호의 경우, 기고는 41.4cm에 불과하지만 유적 내 다른 고분과 안치 양상을 비교해 볼 때 대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여겨진다(啓明大學校行素博物館 2006: 278). 이러한 경우 기형도 계측치도 대호로 볼 수 없지만 맥락상으로는 대호로 판단하여야 옳을 것이다. 최근 대호 기종 정의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서도 부장양상과 기고, 기벽의 두께, 태토, 조성 상태 등을 함께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釜山大學校博物館 2017). 타당한 지적으로 생각되나 현실적으로 기보고된 자료 중에서 태토나 내벽의 색깔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넓은 틀에서 분명한 구분 기준인 계측치를 우선하여, 50cm를 초과하는 대형 직구호, 단경호도 대호로 구분하였다. 즉 대호의 기종 구분은 특정 수치를 통해 결정하였음에 유의하여야 하겠다.

⑦ 기대

크게 발형기대와 통형기대로 구분되는 한편으로 잔받침이라 불릴 정도

로 작은 것도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세부 형식을 나누지 않고 모두 기대로 분류하였다.

적석목곽묘에서 기대의 부장은 매우 희소한 편인데, 최병현(1992)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부장부에서 출토되는 사례는 적고 대부분 호석 바깥이나 주구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본고의 검토 대상이 된 적석목곽묘에서는 황남대총 남분과 인왕동 149호 2개 사례밖에 없다. 하지만 지방 고분에서는 부장 사례가 상당히 많다.

발형기대의 배신을 철부 등의 뚜껑으로 사용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기대로 판단하지 않고 개로 두었다.

⑧ 연질발

발형의 기종으로 대부분 적갈색의 연질소성이다. 뚜껑받이턱과 함께 연질의 뚜껑이 추가되는 경우가 자주 있고 파수, 드물게 창녕지역에서는 대각이 추가되기도 하는데, 유개화한 경우 소옹 등으로 칭하면서 별개의 기종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기고 10cm 정도로 작은 것에서부터 20cm가 넘는 대형도 존재한다. 소수만 부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형 고분에서는 수십 점 씩 대량 부장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크기나 재질로 볼 때 개인 취사용기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음 항목에서 소개할 다른 연질의 기종들과는 부장양상이 뚜렷이 구별되어 별도 항목으로 설정하였고, 다른 기종과 마찬가지로 뚜껑, 파수나 대각의 유무로 세분하지는 않았다.

⑨ 시루, 파수부호, 연질옹, 연질완

연질 소성되는 경우가 많은 기종들로, 취사용기로 여겨지며 2~4개 기종들이 세트를 이루며 종종 출토된다. 특히 임당 지역의 고총에서 시루, 파수부호, 연질옹⁸²⁾의 세트 관계는 잘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연질완⁸³⁾을 추가해

82) 본고에서 연질발로 설정한 기종 중에서 유개기종을 보고서에 따라서는 연질옹으로 칭하기도 하나, 본고의 연질옹은 백제토기의 장란형토기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갖는, 상하로 긴 동체에 약간 외반하는 짧은 구연에 원저의 저부를 갖는 기종을 말한다.

서 본다면 연질 기종의 세트관계가 더 뚜렷이 나타나는 것 같다. 고충기의 이른 시기에는 이러한 취사용기의 공반이 불분명하지만, 시루, 옹, 완의 공반이 황남대총 남분에서 보이고 그 이후 파수부호가 추가되어서 적석목곽묘와 지방의 대형 고분 부곽을 중심으로 부장된다.

이 기종들은 많은 양이 출토되는 것은 아니지만, 강한 상호 공반 관계를 보여주어 분석 대상 기종으로 설정하였다. 단, 매우 소수만 부장되는 기종이므로 4개 기종을 모두 합산하여 연질조리용기로 통칭하고 하나의 분류단위로 설정하였다.

⑩ 개

개는 말 그대로 뚜껑을 뜻한다. 고배, 개배, 장경호, 연질발 등 여러 기종이 유개식으로 제작되고 세트 관계를 이루며 부장된다. 물론 개가 추가되는 것에는 시기적인 차이가 있는데 가령 고배는 와질토기 단계에서는 무개식이다가 고식도질토기 단계에서부터 유개식으로 제작되기 시작해서 고충기에 들어서부터는 반드시 개와 세트관계를 이루지 않더라도 전부 유개식으로 제작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장경호의 경우도 고충기 후반에 뚜껑받이가 발달하면서 유개기종으로 바뀌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유개기종일수록 고급기종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므로, 각 기종 내에서 유개기종의 비중을 비교한다면 고분의 계서 파악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매장주체부의 붕괴로 인해 토기가 산산히 깨어지면서 인해 세트 관계를 알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고, 수십~수백 점에 이르는 부장품 중에서 개의 조합관계를 일일이 따질 수도 없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섞여서 출토되어 사실상 어느 개체의 개인지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보통이라 보고서에 개만 따로 묶어서 보고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각 기종을 유개식/ 무개식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개만 따로 분류하여 숫자만 파악하였다. 연질소성으로 제작되는 기종 중에서도 연질발과 같이 개를 갖는 기종이 있는데, 연질과 경질의 개를 분류하지 않고

83) 이 기종은 장식적인 요소가 붙는 경우가 드물지만 간혹 봉상파수나 대각이 붙기도 하나, 다른 기종과 마찬가지로 추가 요소를 근거로 세분하지는 않았다.

합산하여 각 유구 당 몇 개의 개가 부장되었는지의 수준 정도에서만 파악하였다. 이러한 상황이므로 개를 별도의 기종으로 설정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부장 비율을 하나의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였다.

⑪ 기타

본고의 분석 대상 토기 중에서 이상의 기종으로 구분되지 않는 것들로, 전체 분석 대상의 약 1.9%인 90점 정도가 분류되지 않았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장군, 주구(대부)호, 병류가 대부분이고, 금령총 출토 기마인물형토기나 등잔형토기와 같은 이형토기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주구대부호는 상당수가 남분 출토품이고, 장군의 경우 금령총, 천마총, 금관총에서 각 9~10점씩 출토된 것이 전부이다. 이처럼 분류되지 않은 토기들은 대체로 최고위계 고층에 산발적으로 부장된 것들로, 나름의 의미는 있겠으나 전반적인 신라 고분의 부장 양상을 이해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모두 이형토기로 통칭하고 하나의 분류 단위로 설정하였다.

이상의 기종 분류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일단고배, ② 이단고배, ③ 개배, ④ 대부완, ⑤ 장경호류(장경호+대부장경호), ⑥ 단경호류(단경호+직구호), ⑦ 대호, ⑧ 파배, ⑨ 기대, ⑩ 연질발, ⑪ 연질조리용기, ⑫ 이형토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종별 구분 없이 ⑬ 개의 출토 개수를 파악하였으며 이와 같이 설정된 13 단위로 분석 대상 토기를 분류하였다.

(2) 철기의 종류 설정

철기의 분류 또한 토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종래의 보고와 연구를 참조하고 거기에 최근의 연구를 중심으로 출토 유물을 분류하였다. 그에 따라서 대체로 보고자의 견해를 좇은 경우가 많지만 오래된 보고인 경우 새로이 분류한 경우도 있으며, 도면이나 사진상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고자의 견해를 중심으로 하였다. 토기와 같이 각 기물 별로 서술하면 다소 장황해지는 면이 있으므로 종류 별로 묶어서 설정하되 분석 단계에서는 유형

별 비교를 하지 않고 종류별로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종류 설정은 한국고고학회(2010)의 설정에 따르되 최근 신라 농공구와 무기의 분류(김재홍 2011; 신동조 2014; 우병철 2014) 또한 참조하였고, 앞서 착장 이식에 따른 출토양상 비교에 활용된 무구류(성시구, 갑주)와 마구류(등자, 안교, 행엽, 재갈, 운주)는 여기의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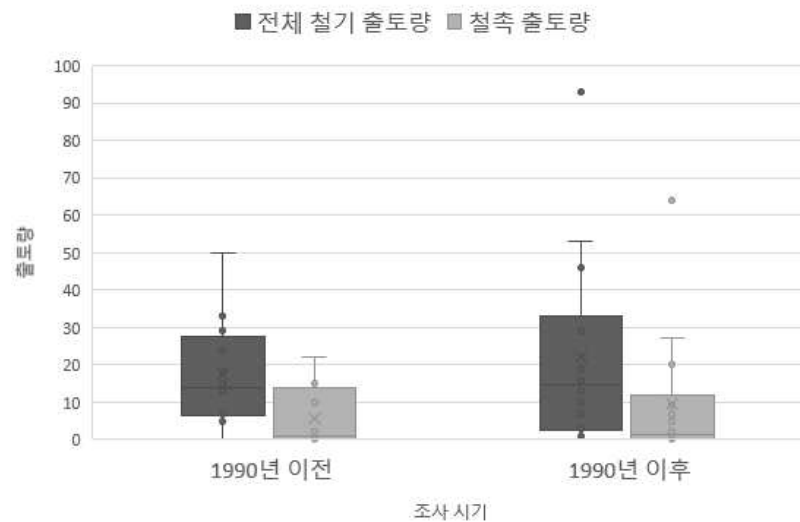
① 무기류

무기류에는 대도, 철촉, 철모, 철준이 있다. 대도는 피장자가 착장한 것과 시신 안치부에 미착장 부장한 것을 제외하고 수장부에 부장한 것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철촉은 부장 패턴이 크게 보아 두 가지로 나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시신 안치부에 1~5점 소수 부장되는 경우와 부장부에 15점 이상 대량 부장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철촉의 부장양상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조사 및 복원기술이 미흡했던 과거의 보고 중에는 소형 철제품의 발굴과 개체 수 산정이 엄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조사된 쪽샘 B1, B2호의 경우 철촉을 비롯한 철기의 부장량이 과거 조사된 동급의 적석목곽묘보다 월등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제기할 만한 문제점이다. 만약 일제 강점기를 비롯한 과거의 철기 조사양상이 최근의 것과 크게 다르다면, 부장양상의 판단이 잘못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검토를 실시해 보았는데, 최상층(A군)과 최하층(F군)을 제외한 B, C, D, E군의 무덤에서 출토된 철기의 출토량을 1990년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1990년을 기준으로 설정한 이유는 출토유물의 전량보고가 일반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며, 비교 결과는 <그림 26>에서 보는 바와 같다.

비교 결과 1990년 이전과 이후의 철기 출토량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 최근 조사된 쪽샘 B2호에서는 많은 양의 철기가 출토되었지만(그림 25 우측 상단의 이상치), 그것은 개별 무덤의 특별한 변이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량보고된 무덤만을 분석 대상으로 선별하고, 그렇지 않은 무덤의 경우는 제외하였기 때문인 것에 더해, 보존처리 기술의 발전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만큼 선학들의 발굴조사와 보고가

치밀하고 면밀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990년 이전의 보고라 하여도 조사 시기에 따른 차이가 부장양상의 검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26> 철기 출토량에 대한 조사 시기 별 비교 (n=26)

② 농구류와 공구류

농구류와 공구류의 정의와 분류는 김재홍(2011)과 신동조(2014)의 연구를 대폭 참조하였다. 농구류에는 주조괭이, 쇠삽날, 쇠스랑, 살포, 철서, 철검, 따비 등이, 공구류에는 단조철부, 철착, 철사, 집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철착과 철사는 인부의 형태로 분류되는데, 여러 출토 사례를 검토해 본 결과 인부의 수화가 심해 양자를 사실상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 따라서 양자를 무리해서 구분하기 보다는 합쳐서 분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여 합산하였다.

③ 의기류

의기류에는 유자이기와 검형철기가 있다. 과거의 보고 중에는 파편화된 유자이기의 개체 산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으나 본래 대량 부장되는 기

물이 아니므로 분석 결과에 편향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추정 부장량을 기재한 경우도 있다.

④ 기타

그 외에 鐵鼎, 鐵鋌, 도자, 꺾쇠 및 쇠못 등이 있다. 鐵鼎은 특히 경주와 지방의 상위 고분에 집중 부장되어 계층적인 의미가 강한 유물로 여겨진다. 이처럼 상위위계 고분에 한정되는 부장품이므로 출토 유무만 표시하되 부장양상 분석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鐵鋌의 경우는 용도와 성격에 대해서 화폐로 보는 설(김정학 1973)에서부터 철 소재로 보는 설(류위남 2009), 혹은 화폐와 소재를 포함한 다기능적 성격으로 보는 설(박선미 2011) 등 여러 가지가 있는 만큼 다른 대분류에 포함시키지 않고 기타에 두었다. 다른 유물과 마찬가지로 형태와 크기가 다양하지만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도자는 경우에 따라서 금장 혹은 은장을 하기도 하지만 단순한 철제품과 구분하지 않았고, 대도에 부속된 子刀와는 구분하였다. 중복 산정을 피하기 위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파손품은 병부만 세도록 하였다.

꺾쇠나 쇠못은 주로 관곽을 결구하는 데 쓰였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부장양상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것으로 여겨지므로 분석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

이상의 분류에 따라 철기는 무기류에 ①대도, ②철촉, ③철모, ④철준, 농구류에 ⑤주조괭이, ⑥쇠삽날, ⑦쇠스랑, ⑧살포, ⑨철서, ⑩철검, ⑪따비, 공구류에 ⑫단조철부, ⑬철착, ⑭철사, ⑮집게, 의기류에 ⑯유자이기, ⑰검형철기, 그리고 기타 분류에 ⑱도자, ⑲鐵鋌 등 19개 종류로 분류하였다.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신라 고분 출토 토기는 12개 기종(개 제외)으로, 철기는 19종류로 분류하고 다시 4개 대분류로 묶었다. 분석 대상에서 설정하였듯 1) 출토품이 전량 보고된 미도굴분, 2) 피장자의 착장 이식이 분명한 고분 3) 기종이 명확한 토기가 개를 제외하고 적어도 20점 이상 부장된 무덤 등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신라 고분을 선택하여 데이터베이스(부표

2)를 작성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2) 토기의 부장양상

여기에서는 피장자 성격의 제 측면에 따라서 토기의 부장양상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출토 여부와 수량을 살펴보고, 기종 구성의 비율 또한 검토할 것이다. 먼저 앞서 분류한 피장자의 계서에 따라 부장 수량과 기종 구성에 있어 어떠한 양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성별과 착장 이식에 따라서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부장 여부와 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계서와 성별, 복식이 서로 연관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계서 부분에서 성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각 절의 내용이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지만, 각각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계서

그간 피장자의 위계를 다룬 선행 연구와(李熙濬 2002; 최병현 2017a), 앞서 본고에서 실시된 착장위세품의 분석결과 피장자의 계서가 높아질수록 착장위세품의 구성이 다양해진다. 마찬가지로 피장자의 계서가 높아질수록 부장된 토기의 기종 또한 다양하고 풍부해질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피장자의 계서와 부장 수량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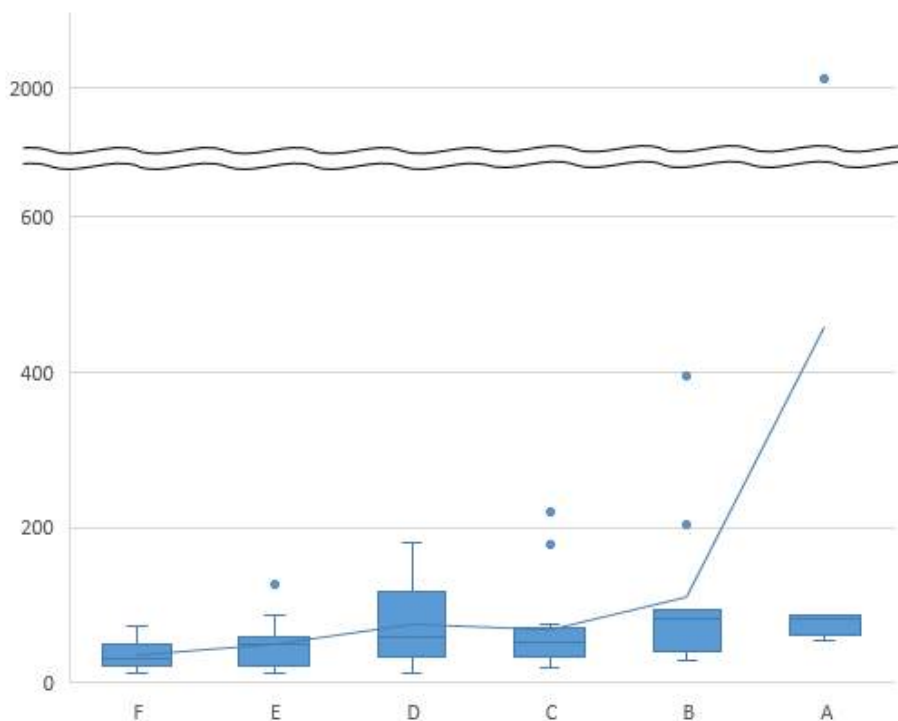
만약 계서와 부장량 간에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면 계서에 따라 토기 부장량이 결정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반대로 매우 낮은 상관관계가 나타나거나 계서와 상관없이 부장량이 나타난다면, 피장자의 계서와 상관없이 조묘자간 경쟁 또는 피장자 개인의 사회적 성취를 통해 부장량이 결정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이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서와 부장량, 그리고 계서와 기종 다양성의 상관관계를 검토해 보도록 한다.

① 피장자의 계서와 토기의 부장량

피장자의 계서와 토기의 부장량을 비교하기 위해, 앞서 설정한 A~F군의 각 분묘에서 출토된 토기의 수량과 피장자의 계서를 비교하였다. 비교 대상 분묘는 본고의 분석대상 45기에 토기의 출토 수량만 알려져 있는 분묘 17기를 더해 총 62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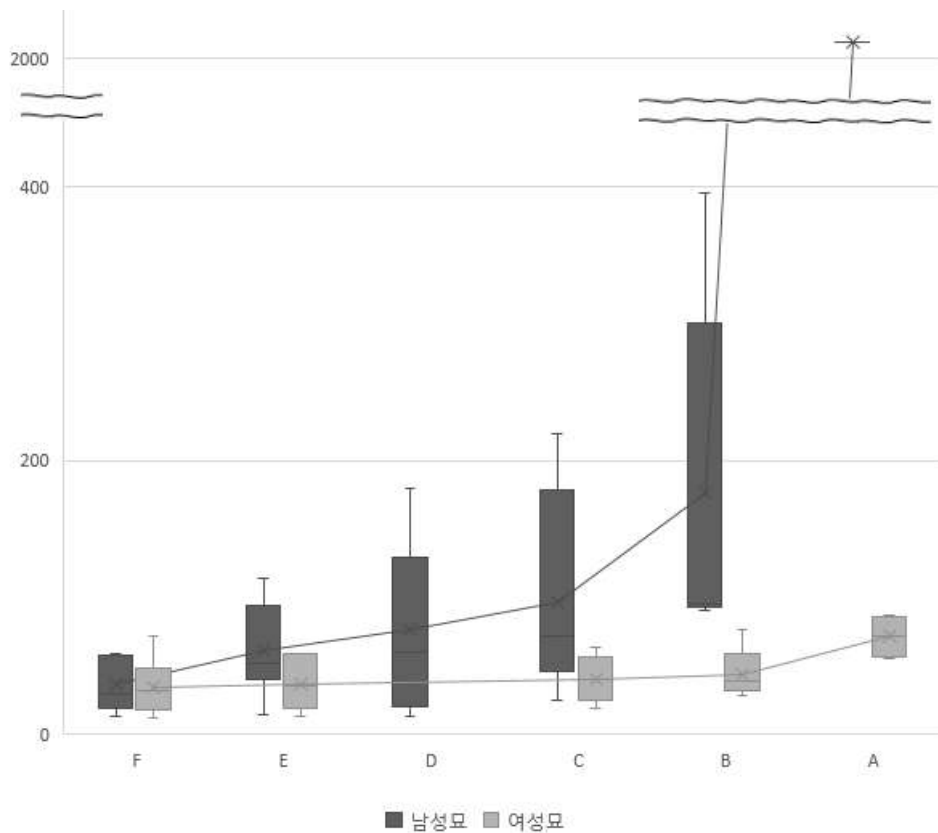
비교 결과는 <그림 27>에서 보는 바와 같다. 앞서 일반적으로 토기를 비롯한 유물의 부장량은 피장자의 계서에 비례하여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그러나 평균 부장량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분포는 계서와 큰 상관을 보이지 않으며, 상관계수에서는 사실상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난다($r=0.296$, $p=0.019$).



<그림 27> 피장자 계서와 토기의 출토량 (n=63)

※ 실선은 평균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은 피장자의 성격 중에서 계서 이외에 다른 요소가 개재된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서 실시된 분석에서 남성의 무덤에만 부곽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부곽이 설치된 무덤에는 그렇지 않은 무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부장품이 부장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남성묘의 토기 부장량 평균은 87.9점⁸⁴⁾이고, 여성묘에서는 42.3점이다. 따라서 남성묘와 여성묘를 분리해서 분석해야 보다 적절한 분석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양자를 분리하여 살펴본 결과는 <그림 28>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28> 남성묘와 여성묘의 계서와 토기 부장량
(남성묘 32기, 여성묘 31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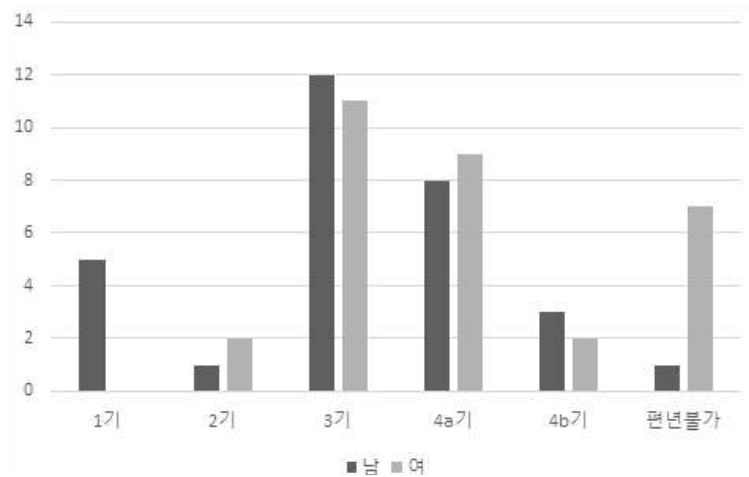
※ 토기 부장량이 알려진 여성묘 D군은 없음

이를 살펴보면 첫째로 남성묘와 여성묘 간에는 상당한 부장량의 차이가 있어 모든 계서에서 남성묘의 부장량이 더 많은 점이 주목된다.

둘째로 피장자 성별에 따라, 계서에 따른 부장량의 증가 경향에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점 또한 주목된다. 남성묘의 경우 계서가 올라감에 따라 토기의 부장량이 증가하는 폭이 상당히 커서, 양자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매우 뚜렷하다. 다만 동일 계서 내에서 부장량의 편차가 매우 커서, 계단식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여성묘의 경우 계서와 부장량 간에 상관관계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높은 계서이든 낮은 계서이든 거의 일정한 양을 부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성 최상위 위계 무덤인 황남대총 남분의 토기 부장량이 모든 고분을 완전히 압도하며, 다른 남성 피장자와는 질적으로 다른 신분인 것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한 가지 문제가 되는 지점은 본고에서 확인된 여성묘의 묘곽 형식은 최병현의 2C형으로, 기존 연구에 따르면 2기부터 등장하였기 때문에 시간적 차이가 개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즉 늦게 등장한 여성묘에서 부장량이 적은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부장량의 축소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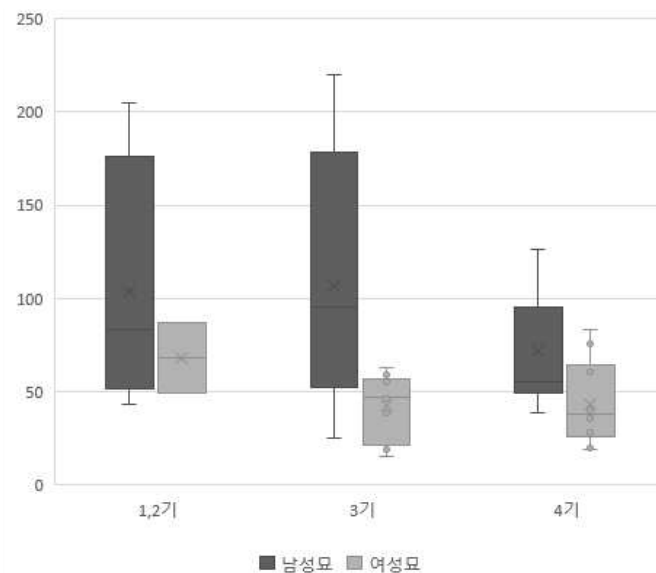


〈그림 29〉 계서와 부장량 분석 대상 분묘의 편년 분포
(편년은 최병현(2017a)을 따름)

84) 황남대총 남분을 제외한 수치이며 포함할 시에는 148.0점이다.

본 분석에 사용된 무덤의 편년 분포는 <그림 29>에서 보는 바와 같아, 1기에는 남성묘(1A, 2A, 1B, 2B형 등 유부곽식)만 존재하지만 2기 이후에는 남성묘와 여성묘가 공존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동수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묘곽 형식의 변천에 의한 부장 경향 축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시간에 따른 성별 부장 경향을 살펴보면 <그림 30>에서 보는 바와 같다.⁸⁵⁾ 고총기 전 기간 동안 남성묘의 부장량이 여성묘를 압도하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가장 늦은 시기인 4기에는 그 격차가 크게 줄어드는 점이 확인된다. 이는 늦은 시기 남성묘의 부장량 축소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4기의 유부곽식 고분 다수가 미추왕릉지구 5구역과 9구역의 소형묘들이다. 반면 4기의 무부곽식은 천마총, 서봉총, 금령총 등 왕릉군의 최고위계 고분들로, 양자 간의 위계 편차를 고려하면 4기에는 부장량의 축소와 함께 남녀 간 부장량 격차 또한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30> 분기 별 남성묘와 여성묘의 부장 토기

85) 부장량이 압도적인 황남대총 남분과 황오동 44호는 전반적인 양상의 효과적인 비교를 방해하므로 생략하여 비교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장자의 계서와 토기 부장량 간에는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만약 이 분석이 성별이나 계서 중 하나만을 고려하였다면 부장량이 나타내는 경향을 적절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는 부장양상의 분석에 있어 피장자 성격의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② 피장자의 계서와 기종의 다양성

여기에서는 피장자의 계서와 출토 기종의 다양성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살펴본다. 이러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서의 판단이 가능하고 출토 토기의 전량 보고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만족하는 월성북고분군의 적석목곽묘는 모두 45기로, 그 상세는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일단 가장 가시적인 것은 일단고배, 이단고배, 개배, 대부완, 장경호류, 단경호류, 연질발, 파배 등 8개 기종은 거의 모든 계서의 무덤에서 확인되며 계서에 따른 차별적인 부장 양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장경호류는 모든 무덤에 반드시 부장되었으며, 이는 한쌍 이상의 (대부)장경호를 부장하는 이른바 ‘장경호 부장 정형’ (김대환 2012a)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적석목곽묘에서 토기(혹은 그 내용물)의 부장에 있어 최소 공약수가 장경호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8개 기종에 포함된 토기들은 계서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부장되는 것도, 낮다고 해서 부장 종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가령 A군의 황남대총 북분에는 이단고배가, 금관총에서는 대부완이 생략되었다. 반면 최하위 위계인 F군에서는 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한 인왕동 2호와 7호에서는 8개 기종 전부가 부장되었다. 따라서 8개 기종은 계서와 상관 없이 기종 구성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이형토기의 경우에도 계서의 고저에 따라 출토 여부가 크게 다르지 않다. A군의 5개 무덤에서 모두 출토되었고, C군에서 3개 무덤, B, E, D, F군에서 각각 1개 무덤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표 20), A군을 제외하고는 계서와 출토율 간에 어떤 관계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여성묘에서 이형토기의

〈표 20〉 피장자 계서와 기종 구성

유구명	계서	성별	착장이식	토기수량	기종수	일단고배	이단고배	개배	대부완	장경호류	단경호류	연질발	파배	기대	연질조리기	대호	이형토기
황남대총남분	A	남성	세환	2012	12												
황남대총북분	A	여성	태환	87	8												
금령총	A	여성	세환	83	9												
천마총	A	여성	세환	61	9												
금관총	A	여성	태환	55	8												
서봉총	A	여성	태환	76	6												
황남동110호	B	남성	세환	205	8												
식리총	B	여성	세환	28	6												
쪽샘B1호	C	남성	세환	178	10												
인왕동149호	C	여성	세환	63	7												
황남동95-6번지2호	C	여성	부장	49	5												
노서동138호	C	여성	세환	40	7												
인왕동20호	C	여성	태환	25	4												
황오동5호	C	여성	태환	19	7												
쪽샘B6호	D	남성	태환	180	9												
쪽샘B3호	D	남성	세환	134	8												
쪽샘B2호	D	남성	세환	113	8												
미추9구A호1곽	D	남성	태환	39	8												
인왕동(경문연)10호	D	남성	세환	13	3												
인왕동(경문연)1호	E	남성	없음	126	11												
쪽샘B4호	E	남성	세환	87	8												
인왕동(경박)1호	E	여성	없음	59	6												
계림로44호	E	여성	세환	58	7												
황남동95-6번지4호	E	남성	세환	52	8												
미추5구8호	E	남성	태환	51	6												
미추9구A호3곽	E	남성	세환	49	7												
인왕동(경박)2호	E	여성	없음	48	6												
인왕동(경문연)6-A호	E	여성	없음	22	8												
미추4A구3호2곽	E	여성	세환	20	4												
미추9구A호2곽	E	남성	세환	14	3												
인왕동(경문연)6-B호	E	여성	없음	13	4												
계림로17호	F	여성	없음	72	7												
계림로45호	F	남성	없음	59	7												
미추5구15호	F	남성	없음	55	6												
계림로46호	F	여성	없음	50	6												
인왕동(경문연)2호	F	여성	없음	46	8												
계림로43호	F	여성	없음	33	8												
인왕동(경문연)7호	F	여성	없음	31	7												
계림로54호	F	여성	없음	29	7												
인왕동(경박)15호	F	남성	없음	29	7												
인왕동(경박)14호	F	남성	없음	25	8												
인왕동(경박)10호	F	여성	없음	19	5												
인왕동(경문연)8호	F	여성	없음	15	5												
인왕동(경박)21호	F	남성	없음	13	4												
인왕동(경박)4호	F	여성	없음	12	4												

출토량이 많고, 늦은 시기의 최상위 위계 여성묘에서 장군이 출토된다는 특징이 있으나, 이외에 다른 패턴은 찾아볼 수 없다.

그 외 기종인 기대, 그리고 연질조리기와 대호는 약간 상황이 다르다. 기대는 앞서 기종 분류 과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장주체부 내에서 확인되는 사례가 황남대총 남분과 인왕동 149호 2개 사례 밖에 없는 기종이므로 계서와 상관관계를 논하기는 곤란하다.

연질조리기와 대호의 경우에는 공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기종 모두 현재까지 부곽 또는 족하의 부곽부에서만 출토되고 두상부장부에서는 출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대호는 계측적 속성인 50cm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기준을 더 낮춘다면 두상부부장부에서도 부장 사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질조리용기인 시루, 파수부호, 연질옹, 연질완은 모두 부곽에서만 확인되었으며, 두상부부장부에서는 출토된 사례가 전무하다. 그런데 적석목곽묘의 부곽 혹은 족하 부곽부는 모두 남성묘에서만 존재하고, 여성묘는 두상부부장부만 갖는다. 따라서 연질조리기와 대호의 부장은 일차적으로 부곽의 존재 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동시에 부곽은 피장자 성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장자의 성별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모든 남성묘에서 대호와 연질조리용기가 출토된 것은 아니어서, A, B, C, D군의 남성묘에서는 모두 연질조리용기 혹은 대호 중 하나를 부장하였지만, E군에서는 5기 중 4기(80%), F군에서는 4기 중 1기(25%)에만 부장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앞서 본 8개 기종과는 달리, 연질조리용기와 대호는 남성묘에만 부장되었으므로 출토율에서 계서와 관련성이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형토기는 A군에 5개 무덤에서 모두 출토되었고, C군에서 3개 무덤, B, E, D, F군에서 각각 1개 무덤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계서와 큰 상관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출토 여부로 계서의 고저를 판단할 수 없을뿐더러, A군을 제외하고는 계서와 출토율 간에 어떤 관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전체 기종 수와 계서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상관계수를 산출하면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r=0.349$,

$p=0.01$). 그리고 이는 8개 기종이 계서에 상관 없이 고루 부장된 것에서 이미 예견된 바이기도 하다. 반면 성별과 기종 수 간에는 큰 차이가 나타난다. 19개의 남성묘에서는 평균 8.3개 기종이 출토되었지만 26개 여성묘에서는 평균 6.1개 기종이 출토되는데, 이는 남성묘의 상대적인 부장량이 더 많고, 대호와 연질조리용기가 배타적으로 부장된 효과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착장 이식별로 살펴보면 세환군에서는 평균 8.2종, 태환군에서는 8.0종이 출토되어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이식이 없는 하위층에서는 7.4종이 부장되어 약간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계서와 성별에 따른 부장 기종 수와 종합해서 비교해 볼 때 결국은 많은 수의 토기가 부장될수록 더 많은 종류의 기종이 부장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계서와 성별, 이식을 배제하고 단순히 부장량과 부장 기종 수 간의 관계에 대해, 지수화하여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양자 간에는 매우 강한 양의 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r=0.740$, $p=0.000$). 이는 다른 것보다 부장량이 기종의 다양함을 결정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요인이었음을 시사한다. 이를 해석하는 데 있어 주의할 점은, 성별이나 이식, 계서와 같은 피장자 성격이 기종의 다양도와 무관하다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별과 계서가 복합적으로 전반적인 부장량을 결정하고, 기종의 다양성은 그 전반적인 부장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계서와 관련하여 토기의 부장 양상을 검토한 결과, 그 과정에서 계서도 부장 수량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지만, 오히려 피장자의 성별 또한 부장 수량과 기종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이 드러났고, 착장 이식의 종류는 큰 변수가 되지 못하는 것이 드러났다. 이와 같이 남녀 무덤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부곽의 유무에 따라 부장 수량과 대호, 연질조리용기의 부장 여부가 결정되었다고 한다면, 그 외의 기종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종이 어떠한 비율로 부장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착장 이식도 토기의 구성과 어떠한 상관을 갖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살펴본다.

(2) 성별 및 착장 이식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석목곽묘에 부장된 토기의 양은 피장자의 성별과 계서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컸다. 하지만 기종의 종류 수는 계서와 관련하여 보았을 때 큰 차이가 없었고, 연질조리용기와 대호의 경우에만 성별에 따라서 결정됨이 드러났다. 이처럼 토기의 부장 양상에는 계서 뿐만 아니라 성별을 비롯한 다른 피장자 성격의 측면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드러났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는 성별에 따라, 그리고 착장 이식에 따라 토기 부장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석목곽묘는 피장자 성별과 부곽의 설치 여부가 깊은 관련을 가지므로, 성별에 따른 부장 양상은 부곽의 설치 여부에 따라서 구분하여 검토할 것이다. 착장 이식은 세환이식과 태환이식에 따라서 크게 양분되었으므로 이식을 중심으로 구분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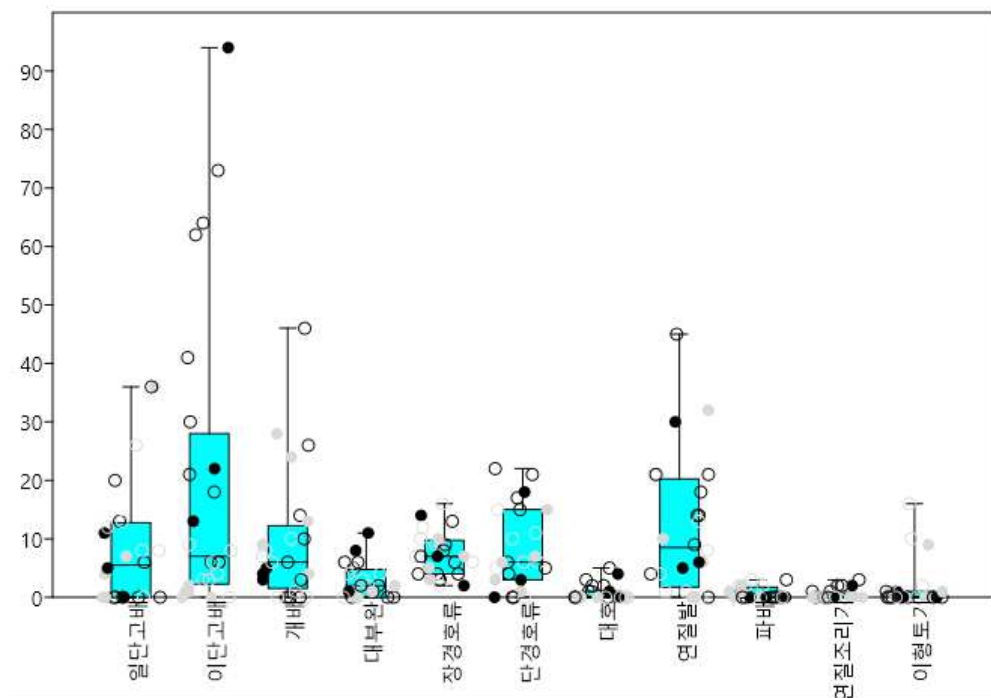
분석법은 단순한 출토 여부에서부터 시작하여, 주요 기종 간 구성 비율까지 검토할 것이므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별의 판단이 가능하고, 착장 이식이 확인되며, 출토 토기가 20점 이상이면서 전량 보고된 미도굴분을 대상으로 분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적석목곽묘는 24기이며 그 명세는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1> 토기 부장양상 분석 대상 적석목곽묘

착장이식 성별	세환군	태환군	고분 수
남성묘	황남동 110호, 황남대총 남분 쪽샘 B1호, 쪽샘 B2호 쪽샘 B3호, 쪽샘 B4호 인왕동(경문연)10호, 황남동95-6번지4호 미추9구역A호2곽, 미추9구역A호3곽	미추9구역 A호 1곽 쪽샘 B6호 미추5구역8호	13기
여성묘	노서동 138호, 인왕동 149호 금령총, 식리총, 천마총 계림로44호	황오동 5호 인왕동 20호 금관총, 서봉총 황남대총 북분	11기
고분 수	16기	8기	24기

분석 대상 고분 24기의 위계는 다양한 편이며 부장 토기도 20여 점에서 2,000점까지 편차가 매우 크다. 하지만 적절한 방법론을 사용한다면 피장자의 성격에 따라 어떠한 부장 양상을 보여주는지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기본적인 기종 구성과 출토량이 성별이나 이식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출토 수량에서 매우 압도적인 황남대총 남분을 제외하고 비교하면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를 살펴보면 기종별 특징적인 부장양상이 확인되는데, 가령 고배와 개배, 연질발은 전혀 부장되지 않는 무덤에서부터 대량 부장되는 무덤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한 데 반해, 대부완과 장경호류, 단경호류, 파배는 변이의 폭이 크지 않아서 거의



<그림 31> 적석목곽묘의 기종 별 출토 수량 box and jitter plot
(남분 제외, n=23)

※ 흑색: 남성묘, 회색: 여성묘, ○: 세환군, ●: 태환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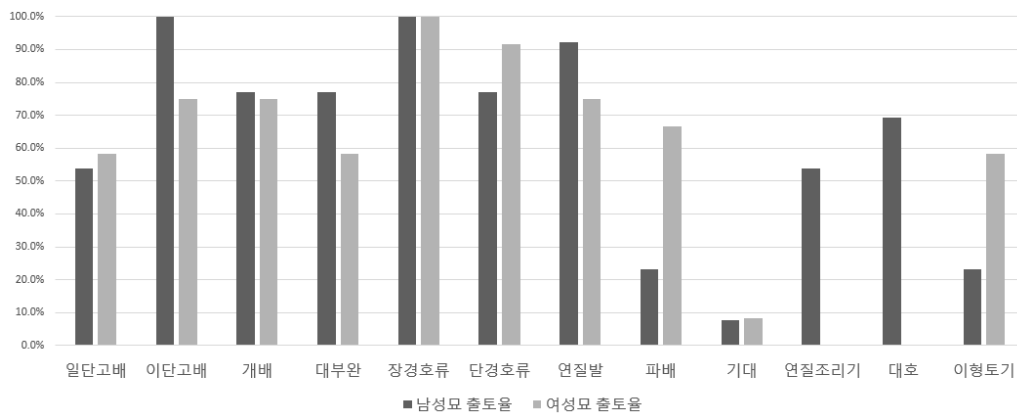
모든 고분에 일정한 숫자가 소수 부장된다. 특히 장경호류는 앞서 계서에 따른 기종 구성 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모든 무덤에 부장되었으며, 배류나 발류와 같이 30점 이상 대량 부장되는 경우는 없다. 이처럼 부장 숫자만 살펴보다라도, 기종 별로 부장 방식이 달랐음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이제부터 성별에 따른 부장 양상을 살펴보면, 토기의 기종별 출토율만을 분리해 살펴볼 때 <그림 32>와 같다. 분석 대상 중 여성묘로 판단된 고분들의 위계가 보다 높은 편이지만, 남성묘의 기종 구성이 더 다양하고, 특히 이단고배의 출토율이 더 높다. 반면 파배와 이형토기의 경우 여성묘의 출토율이 남성묘보다 두 배 이상 높다. 하지만 연질조리기(시루, 웅, 파수부호, 연질완 등)와 대호는 완전히 배타적으로 남성묘에서만 출토되는 양상이다. 이 기종들은 부곽에서만 출토되는 기종이기 때문에 여성묘에서는 출토 사례가 없는 것으로, 묘곽 형식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부장할 기종 구성을 다르게 결정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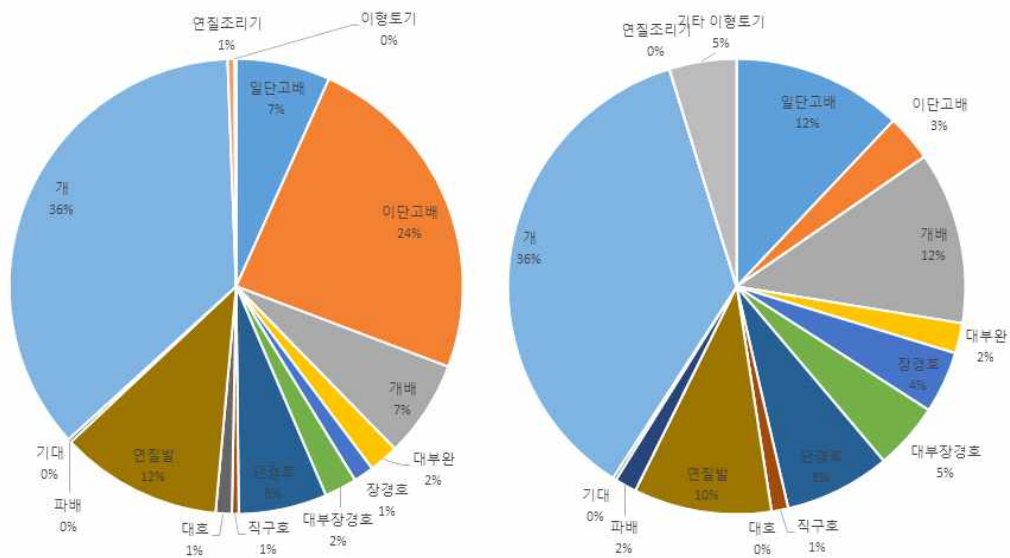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성별에 따라 기종의 구성비는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자. 모든 남성묘와 여성묘에서 출토된 토기를 각각 합산하고, 백분율로 환산하여 비교하면 <그림 33>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남성묘와 여성묘의 가장 큰 차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단고배의 부장비율인 점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일단고배와 개배의 부장 비율인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기종의 경우는 앞서 <그림 31>에서 본 바와 같이, 고분마다 변이가 큰 기종이 아니기 때문에 부장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배류의 부장 비율에 집중하여 살펴보고, 착장 이식과의 관계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단고배와 일단고배, 개배 세 기종의 상대적 비율만을 함께 삼각도표를 통해 도시하면 <그림 3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여기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남성묘는 대체로 이단고배의 부장비가 높고, 여성묘는 반대로 일단고배와 개배의 부장비가 높은 경향이 나타난다. 즉 삼각도표의 좌하단에는 남성묘가, 상단에는 여성묘가 집중된다.⁸⁶⁾

86) 삼각도표(ternary plot)는 두 가지 변수만 표현 가능한 xy좌표계에 비해 세 가지 변수의 비율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읽는 방법은 각 점에서 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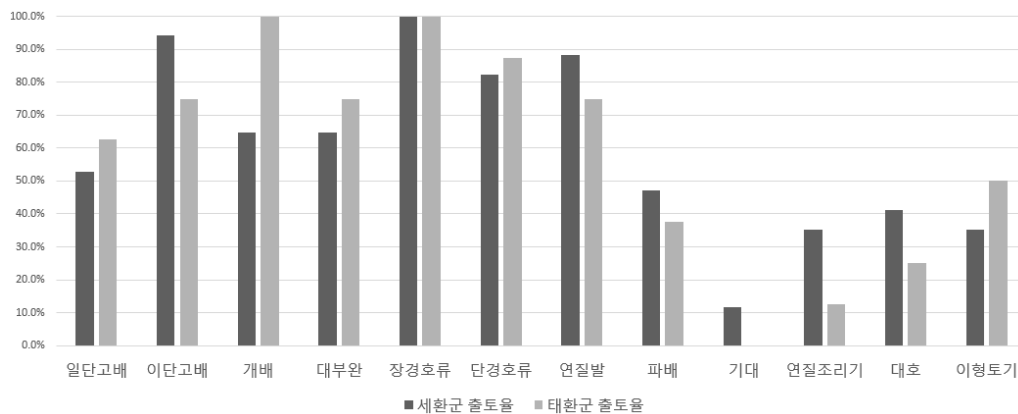


〈그림 32〉 적석목곽묘의 피장자 성별 별 토기 출토율
(남성묘 13기, 여성묘 11기)



〈그림 33〉 남성묘와 여성묘의 토기 조성 비교
(남성묘 13기, 여성묘 11기)

각형의 빗변을 따라가서, 각 변에 해당하는 값을 읽으면 된다. 현 도표에서 하변은 이단고배, 우변은 개배, 좌변은 일단고배이며, 황남동 110호의 경우 이단고배의 비율이 약 47%, 개배의 비율은 약 30%, 일단고배의 비율은 약 23%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5〉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착장 이식 별 토기 출토율
(세한군 16, 태한군 8)

라지는 점을 알 수 있다. 현재 분석 대상인 무덤의 위계는 쪽샘지구의 소형 분묘인 B4, 6호에서부터 황남대총 남북분까지 격차가 크고, 시기적 차이 또한 황남동 110호에서부터 식리총까지 걸쳐져 있지만, 피장자의 성별에 따라서 상당히 일관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배류의 부장 양상은 위계와 시간과는 무관한 다른 기준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의미하며, 그것은 현재 자료로 판단하면 피장자의 성별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현 자료는 착장 이식이 분명하고 일정 수 이상의 토기를 부장한 무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위위계의 고분이나 소수의 토기를 부장한 무덤에서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매우 적은 수의 토기만 부장한 고분에서는 그만큼 기종의 다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착장 이식은 기종 별 부장비와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앞서 이식은 무구류와 마구류의 부장양상에서는 결정적인 변수인 점이 확인되었으나, 토기의 부장 양상을 결정하는 가장 주요한 변수는 피장자의 성별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성별 및 이식에 따라 토기의 부장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해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

보면, 대호와 연질조리용기는 배타적으로 남성묘에 부장되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토기 부장량에서 대부분의 변이는 배류, 즉 일단고배와 이단고배, 개배에서 나타났으며, 남성묘는 세 기종 중에서 이단고배의 부장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고 여성묘는 반대로 일단고배 또는 개배의 부장량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착장 이식과 토기 부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성별에서와 같은 결정적인 경향성을 찾을 수는 없었고, 부장 비율의 분석에 있어서도 어떤 패턴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이처럼 피장자의 성격 중에서 성별과 이식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토기의 부장 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반드시 부곽에만 부장되는 기종군이 확인되었으며, 피장자의 성별과 묘곽의 형태, 토기의 부장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의 방법론으로는 매우 접근이 어려운 양상이 확인된 것으로, 피장자의 성격이 무덤의 설계에서부터 부장품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변수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음에서는 같은 방법론으로 철기의 부장 양상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한다.

3) 철기의 부장양상

철기의 부장양상은 토기와 비교할 때 또 다른 특성을 보인다. 토기의 경우 황남대총 남분에 2,000점이 넘는 토기가 집중되어 한 고분이 전체 부장량의 44%를 독점하였다. 철기의 경우에는 그러한 독점 경향이 더욱 심해져서, 분석 대상 고분의 전체 출토량 중에서 무려 73%(3,291점)를 황남대총 남분이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몇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데, 황남대총 남분을 포함하게 되면 계서의 분석은 물론이고 남분이 속해 있는 남성묘나 세환군의 철기 부장 양상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전체적인 해석을 크게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철기 부장양상의 적절한 이해를 위해서는 황남대총 남분의 절대적 지위와 그 특수성을 이해하되 분석 대상에서는 경우에 따라 제외하는 것

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하에서는 계서와 성별 및 착장 이식 등 피장자의 성격에 따라 철기의 부장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

(1) 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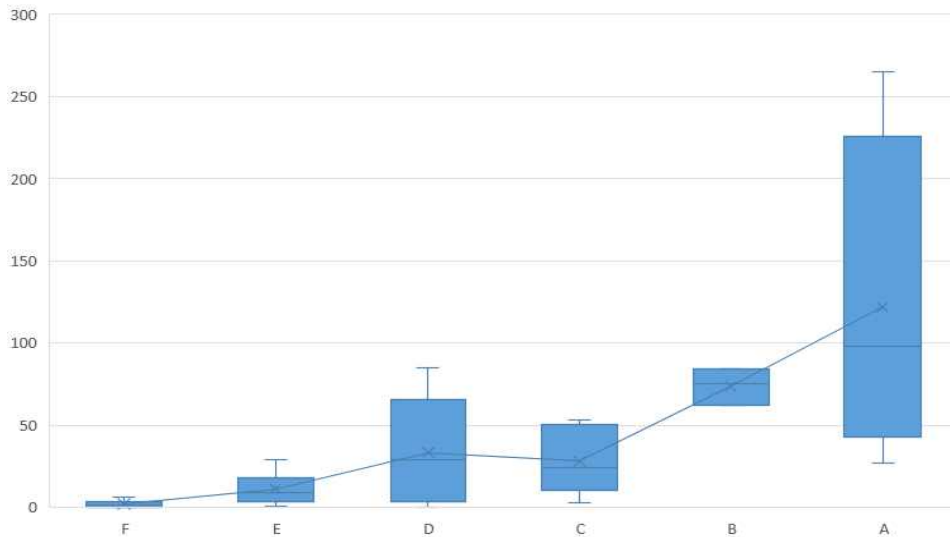
① 피장자 계서와 철기의 부장량

앞서 토기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량 보고되어 철기의 출토 양상을 알 수 있는 월성북고분군의 적석목곽묘는 45기로, 여기에서 출토된 철기의 수량과 앞서 설정한 피장자의 계서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는 <그림 36>에서 보는 바와 같다.

토기의 경우, 성별에 따라 분리하지 않고 바로 출토 수량을 계서와 비교하였을 때 양자가 큰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r=0.296$). 하지만 철기의 경우 계서와 출토량 간에는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r=0.701$, $p=0.000$), 토기보다는 철기의 출토량이 피장자의 계서를 보다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토기와 마찬가지로 피장자 피장자 성격의 다른 측면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살펴보고자 성별과 착장이식에 따른 평균 출토량을 살펴왔다. 그 결과 성별에 따라 나누어 보면 남성묘에서는 23.2점이, 여성묘에서는 31.7점이 출토되어 8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착장이식에 따라 나누어 보면 세환군의 분묘에서는 평균 59.3점, 태환군의 분묘에서는 27.5점으로 평균 20점 이상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세환군과 태환군을 분리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그림 37>과 같다. 두 복식군 모두 계서에 따라서 부장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은 동일하지만 동일 계서 내에서 비교하면 모든 급간에서 세환군의 철기 부장량이 태환군을 압도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한편 두 복식군간에는 부장 증가량도 차이를 보인다. <그림 37>에서는 황남대총 남분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환군의 계서에 따른 철기 부장 증가량은 더 급격하다. 특히 대장식구 착장자인 C군 이후 부장량이 급격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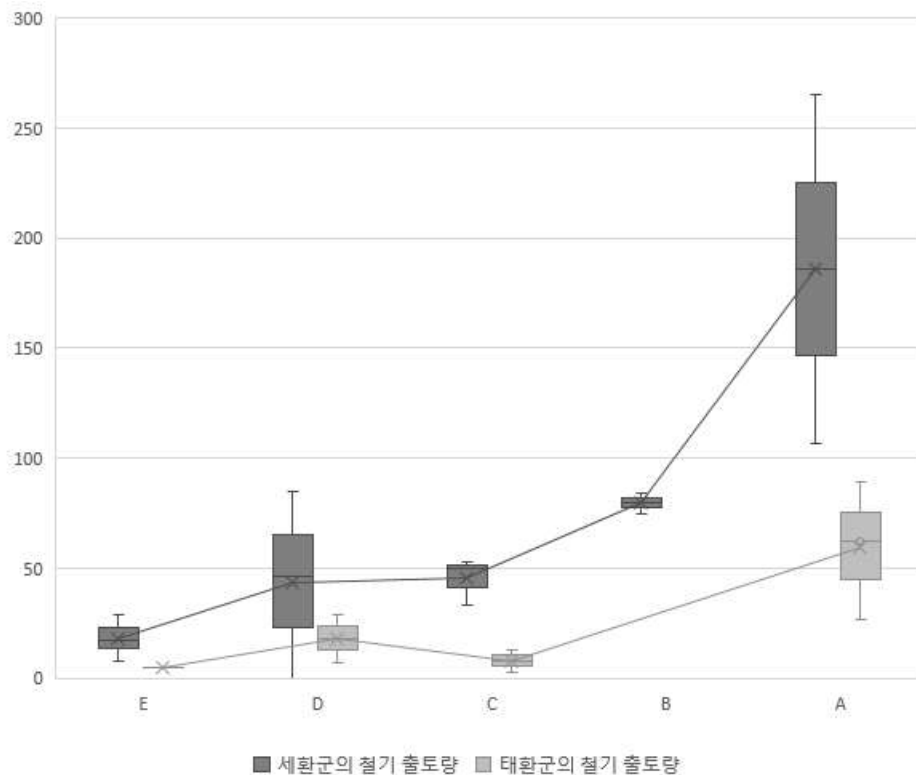


〈그림 36〉 피장자 계서와 철기의 출토량 (n=44)
 황남대총 남분은 제외하였으며 3,291점 출토
 ※ 실선은 평균선

증가하는 반면에, 태환군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완만히 증가하고 최고위계인 A군에서도 100점을 넘지 않는 수량이 부장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남녀 간 토기 부장량 증가 양상 차이와도 유사하다.

주지하다시피 세환이식과 태환이식은 고총기 전반에 걸쳐 공존하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이 시간적 차이 때문에 나타났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으며 결국 이식에 따라 철기의 부장량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철기의 부장에 있어 그 전반적인 수량을 결정하는 요소는 첫째로 피장자의 계서이고, 둘째로는 피장자의 착장 이식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철기의 부장량 분석 결과는 토기의 부장량 분석과 거의 대칭되는 양상으로써, 다만 토기에서는 성별이 부장량을 결정하는 2차 변수였던 반면 철기에서는 이식이 2차 변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후의 분석에서도 철기의 부장 양상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착장 이식을 주요 변수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 37〉 세환군과 태환군의 계서와 철기 부장량

※ 실선은 평균선, (n=23, 세환군 15기, 태환군 8기)

② 피장자 계서와 철기의 종류

토기는 계서가 높을수록 기종 구성이 복잡해지는 경향이 그리 크지 않았으나 철기의 경우 토기와 상당히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표 22>는 성별과 계서의 확인이 가능하고 출토 유물이 전량보고된 적석목곽묘 45기에 대한 철기 출토 여부를 정리한 것인데, 높은 계서로 갈수록 부장 수량과 철기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계서에 상관없이 가장 널리 부장되는 철기는 도자이고,⁸⁷⁾ 그 다음으로는 철촉과 철검이라고 할 수 있다. 단조

87) 도자가 당시에는 무기나 공구와 같이 한정된 목적을 가진다기 보다는 여러 기능을 가진 가장 보편적인 도구였을 것이라는 추론에 따를 때(趙榮濟 2017: 173), 제일 높은 출토율을 보이는 것은 개연성이 있다.

철부와 유자이기 및 겸형철기도 비교적 넓은 분포를 보이는 편이며, 철모와 대도 또한 많은 무덤에서 출토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계서에 부장되는 양상이다.

무기류, 농구류, 공구류 등 대분류에 따라 살펴보면, 부장양상의 차이가 더 두드러지는데, 농구류 중에서 주조쟁이, 삽날과 쇠스랑, 살포와 철서는 대장식구 착장군인 C군 이상에만 한정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는 철기의 용도와 관련하여 볼 때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수확구인 겸의 경우에는 모든 계서에 부장되지만 기경구적 성격을 갖는 철기는 상위위계에만 한정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부장 유물이 전량 보고되지 않아 <표 22>에 포함되지 않은 유구 중에서도, 쇠스랑이나 삽날, 살포가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황오동 16호 2곽, 6곽, 8곽 등도 모두 C군 이상에 속한다. 이러한 점에서 철검을 제외한 농기구는 계서를 강하게 반영한다고 여겨진다.

반면 무기류인 철촉과 대도, 철모 및 철준은 상위 위계에서 출토율이 매우 높고 하위위계에서는 출토율이 상당히 낮지만, 농구류 만큼 특정 계서에 한정되는 양상은 아니며, 공구류도 무기류와 비슷한 양상이다.

철정의 경우는 E군까지 부장되지만 그 내용은 다른 종류의 철기와는 상당히 다르다. 분석 대상 고분 45기에서 출토된 철정은 1,390점인데 그 중에서 93%(1,296점)가 황남대총 남분에서 출토되었다. 사실상 특정 피장자의 무덤이 거의 대부분을 독점하는 것인데, 철기 전반에 걸친 황남대총 남분의 독점적인 지위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A~E 군에서 계서 별 철기 종류 수와 계서 간의 상관계수는 토기 보다 훨씬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r=0.704$, $p=0.000$). 토기에서는 대호와 연결조리용기, 기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종이 거의 모든 무덤에 고루 부장되는 양상이었던 데 반해, 철기는 상위 위계에서 보다 다양한 종류가 부장되고 하위에서는 그렇지 않은 양상이 뚜렷하다.

마지막으로 계서가 아닌 성별 및 이식과 철기 종류의 출토율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면, 먼저 성별에 대해서는 남성묘 평균 4.7종, 여성묘 평균 4.1종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이식에 따라서는 세환군 평균 6.8종, 태환군 평균 5.0종으로 그보다 큰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앞서

〈표 22〉 피장자의 계서와 철기의 구성

유구명	성별	계서	작장	철기 수량	철기 종류	무기류				농구류			공구류		의기 유검	기타	
						철촉	대도	철모 철준	주 팽이	삼 쇠스 랑	살포 철서	철검	단 철부	철작 철사 집게		철정	도자
황남대총남분	남성	A	세환	3291	11												
천마총	여성	A	세환	265	9												
금령총	여성	A	세환	107	9												
황남대총북분	여성	A	태환	89	7												
금관총	여성	A	태환	27	9												
황남동110호	남성	B	세환	84	9												
서봉총	여성	B	태환	75	8												
식리총	여성	B	세환	75	8												
쪽샘B1호	남성	C	세환	53	10												
인왕동149호	여성	C	세환	50	7												
노서동138호	여성	C	세환	33	8												
황남동95-6 2호	여성	C	없음	16	6												
인왕동20호	여성	C	태환	13	4												
황오동5호	여성	C	태환	3	1												
쪽샘B2호	남성	D	세환	93	7												
쪽샘B3호	남성	D	세환	46	5												
쪽샘B6호	남성	D	태환	29	4												
미추9구A호1곽	남성	D	태환	7	5												
인왕동(경문연)10호	남성	D	세환	0	0												
계림로44호	여성	E	세환	29	5												
미추4구3호2곽	여성	E	세환	24	6												
쪽샘B4호	남성	E	세환	19	5												
미추9구A호3곽	남성	E	세환	15	7												
황남동95-6 4호	남성	E	세환	13	6												
인왕동(경박)1호	여성	E	없음	10	4												
미추9구A호2곽	남성	E	세환	8	4												
인왕동(경문연)1호	남성	E	없음	7	4												
미추5구8호	남성	E	태환	5	2												
인왕동(경박)2호	여성	E	없음	3	3												
인왕동(경문연)6-A호	여성	E	없음	1	1												
인왕동(경문연)6-B호	여성	E	없음	1	1												
인왕동(경박)14호	남성	F	없음	6	3												
인왕동(경문연)2호	여성	F	없음	6	3												
인왕동(경박)15호	남성	F	없음	5	2												
계림로45호	남성	F	없음	3	3												
인왕동(경문연)8호	여성	F	없음	3	3												
인왕동(경문연)7호	여성	F	없음	3	2												
인왕동(경박)4호	여성	F	없음	2	2												
인왕동(경박)21호	남성	F	없음	1	1												
미추5구15호	남성	F	없음	1	1												
인왕동(경박)10호	여성	F	없음	0	0												
계림로46호	여성	F	없음	0	0												
계림로43호	여성	F	없음	0	0												
계림로17호	여성	F	없음	0	0												
계림로54호	여성	F	없음	0	0												

보았다시피 세환군이 태환군보다 더 많은 철기 부장량을 갖는 것과 연관된 현상이다. 따라서 철기의 부장량과 다양성은 기본적으로 계서에 따라서 결정되어 계서가 높을수록 많은 부장량과 다양한 종류를 갖지만, 착장 이식도 2차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세환군과 태환군 간에 현격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성별과 착장 이식이 철기의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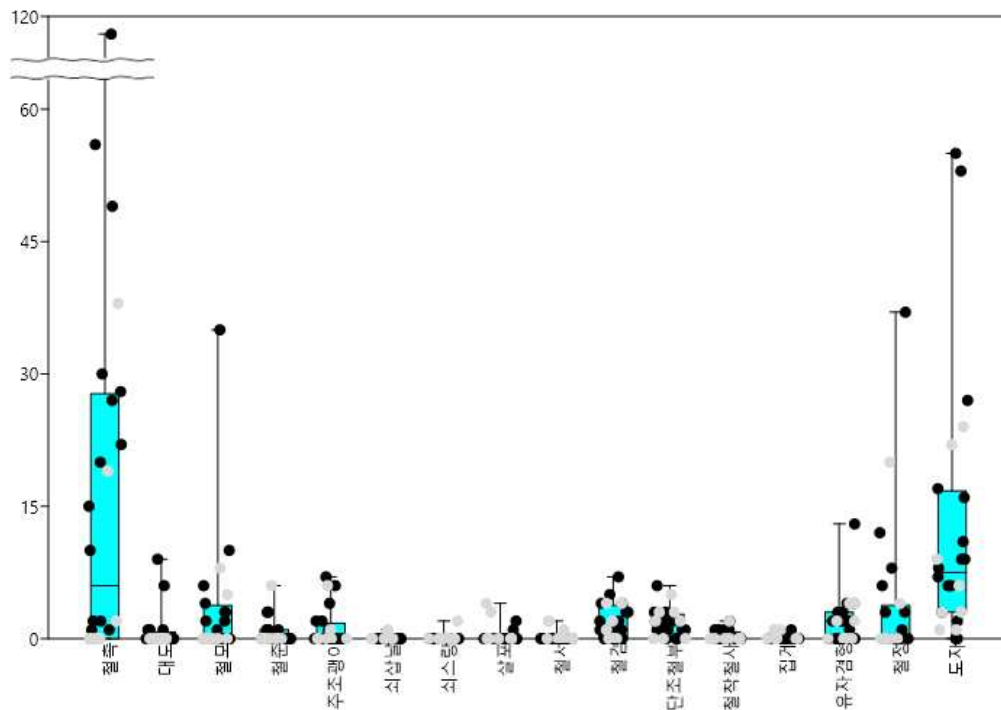
(2) 성별 및 착장 이식

기존 연구와 보고 중에는 무기류의 부장량을 성별 판단의 한 그거로 이용한 사례가 있으며, 특히 태환이식 착장자의 무덤에서 무기류를 비롯한 철기류의 출토량이 적은 점을 여성과 연관시키기도 하였다. 비록 철기의 출토량은 성별과 직결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태환군의 분묘에서 철기가 상대적으로 적게 출토되는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즉 계서 뿐만 아니라 이식 또한 철기 부장량의 중요한 요소인 것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에서는 착장 이식에 따라 철기의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동시에 성별에 따라서도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토할 것인데, 앞서 토기 부장양상 분석에서 보다시피 토기의 부장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성별이었으나, 복식군 또한 개배의 부장율과 관련성을 보여 복합적인 관련성을 드러내므로, 철기의 부장에서도 성별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세환군의 철기 부장량은 태환군의 철기 부장량보다 뚜렷이 앞서는 것이 분명하므로(그림 37), 구체적으로 착장 이식에 따라 각 종류의 철기 부장 양상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면 <그림 38>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크게 세 종류로 부장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철촉과 철모, 철정과 도자와 같이 다수 부장되는 경우가 많으면서 고분 간 수량 격차가 큰 유형이고, 둘째는 대도, 주조괭이, 철검, 단조철부, 유자이기와 겸형철기처럼 대량 부장되는 경우가 없이 적은 숫자가 다수 고분에 부장되는 유형이다.

셋째는 쇠삼날, 쇠스랑, 살포, 철서, 철착과 철사, 집게처럼 적은 숫자가 소수 고분에만 부장되는 유형이다. 즉 대부분 부장량의 격차는 첫째 유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셋째 유형의 경우 앞서 보았듯 상위 위계 고분에서 출토되는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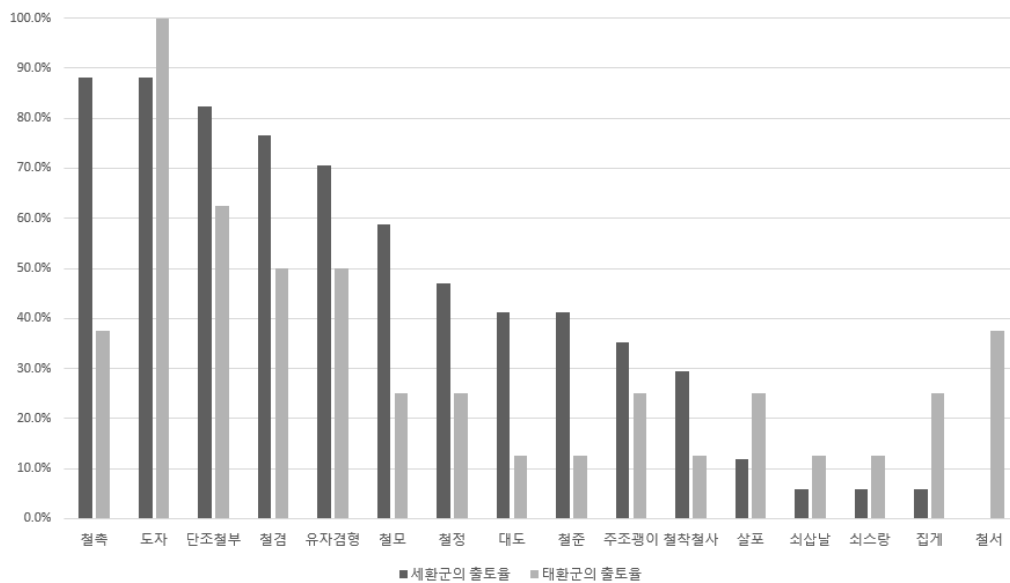


〈그림 38〉 적석목곽묘의 철기 종류 별 box and jitter plot
(남분 제외, n=23)

※ 흑색: 세환군, 회색: 태환군

세환군의 철기 출토량이 태환군을 압도하는 것도 대부분 첫째 부장 유형의 철기에서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종류의 철기에서 부장량이 많은 것들은 〈그림 38〉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 흑색점(세환군)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세환군에서 반드시 첫째 유형의 철기들이 출토된 것도 아니고, 모든 세환군의 철축 출토량이 태환군보다 반드시 출토량이 많은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계서에 따라서 부장량과 출토 여부에 변동이 있

기 때문에, 가령 높은 계서의 태환군에서는 낮은 계서의 세환군보다 철축의 수량이나 출토율이 높을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착장 이식에 따른 철기의 종류별 출토율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며 결과는 <그림 39>에서 보는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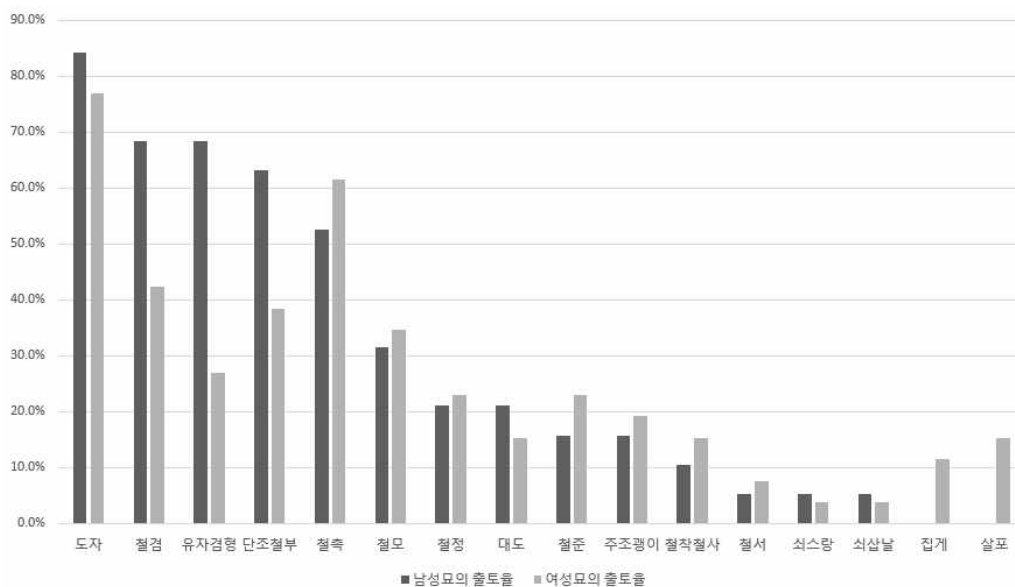
<그림 39>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착장 이식 별 철기 출토율
※ 세환군의 출토율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함
(세환군 16, 태환군 8)

출토율에서 가장 가시적인 것은 대부분의 철기 출토율에서 세환군이 태환군보다 높다는 점이다. 특히 철축은 적석목곽묘 전반에서 가장 출토량이 많은 철기이지만 출토율에 있어서 태환군이 세환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철축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무기류 출토율은 태환군이 세환군이 절반 정도이다.

하지만 살포, 쇠삽날, 쇠스랑, 철서 등 기경구적 성격을 갖는 철기에서는 반대로 태환군에서 더 높은 부장률을 보인다. 특히 철서는 현재 태환군에서만 확인되고 있어 배타적 부장의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들은 앞서 보았다시피 상위 위계에 제한된 부장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이 이식과 관

련된 것으로만 한정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그리고 도자는 거의 유일하게 세환군과 태환군 모두에서 부장률이 높다. 이는 도자가 가장 기본적인 철기 부장품임을 시사한다. 상당히 높은 계서이지만 모든 철기 부장이 생략된 황오동 5호(C군)에서도 도자만 부장된 사례가 확인된다.

이처럼 기존에 알려진 대로, 무기류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출토율이 세환군에서 더 높았다. 그렇다면 성별에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토해 볼 차례이며, 비교 결과는 <그림 40>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를 살펴보면, 세환군과 태환군 사이의 철기 부장양상이 비교적 큰 차이를 보여주었던 반면, 남녀 간에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출토율을 보여주어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 단 철검과 유자이기 및 검형철기, 단조철부의 출토율에서는 남성묘가 여성묘를 크게 앞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알기 어렵다. 그 차이가 절대적이지 않은 만큼 아직은 성별에 따른 역할과 연결시키기는 곤란하다.



<그림 40>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별과 철기 출토율
※ 세환군의 출토율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함
(남성묘 19, 여성묘 26)

한편 집게와 살포는 여성묘에서만 확인되었는데, 전자는 황남대총 북분과 금관총, 금령총에서 출토되었고 후자는 황남대총 북분과 서봉총, 금령총과 식리총에서 확인되었다. 모두 상위 계서이되 동급의 남성묘에서는 출토 사례가 없다. 이 역시 출토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역할이나 직능과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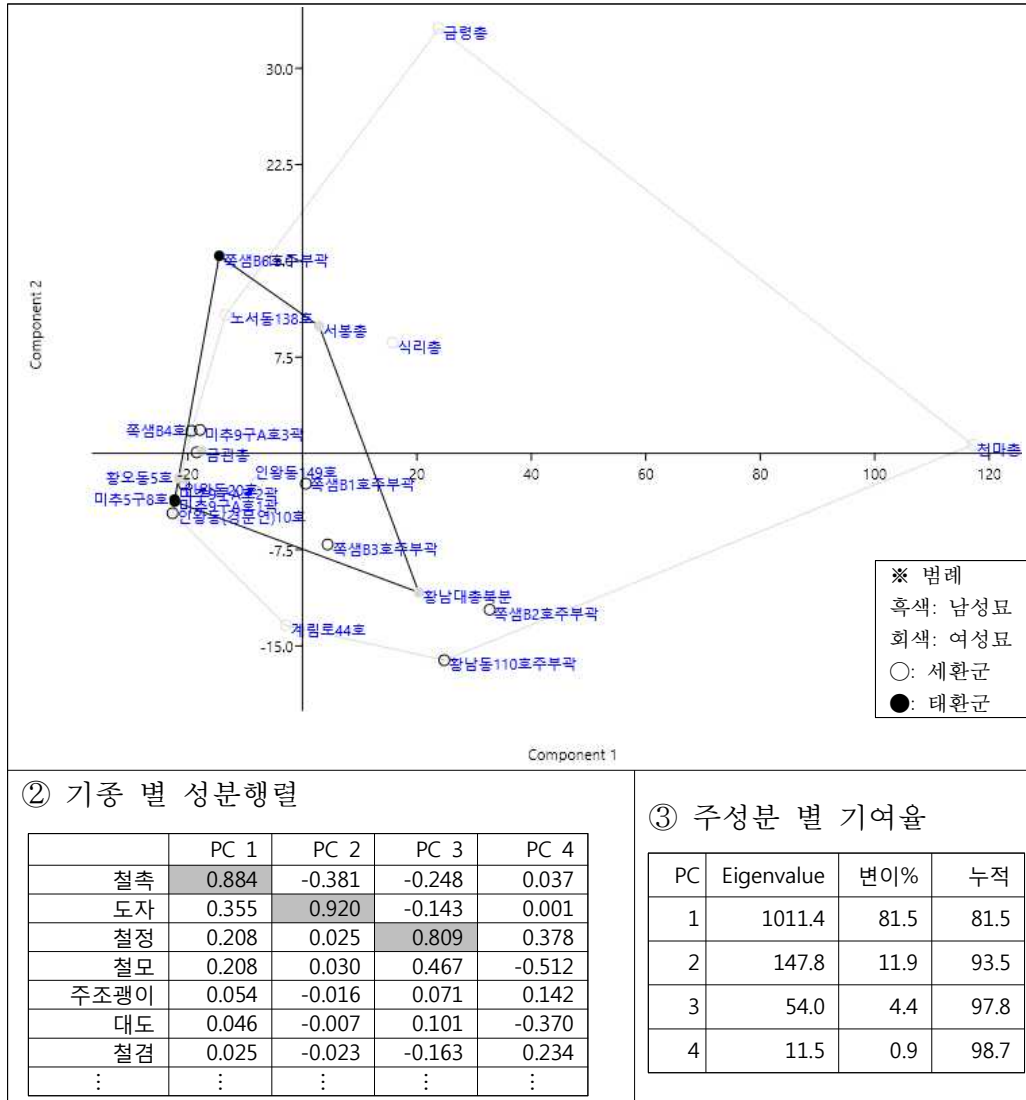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출토율의 측면에서 보면, 토기와 다르게 철기에서는 정도의 차이만 확인되는 정도이지 성별이나 이식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유물은 없다. 다만 철서나 살포와 같은 일부 농구류는 상위위계 분묘에서 태환군이나 여성에 한정된 유물일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철기의 전반적인 부장 구성을 비교해 보도록 한다. 앞서 토기의 부장 비율에서는 피장자의 성별에 따라 일단고배와 이단고배, 개배의 부장비율이 크게 다른 점이 특징적이었다. 철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식이 부장양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분석해 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철기의 출토량을 대상으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다. 분석 결과에서 두 개의 다각형은 복식군 별 군집의 외곽선을 연결한 것이다. 토기의 분석 결과에서는 삼각도표에서 본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군집이 명백히 분리되었던 것에 반해, 철기의 분석에서는 복식별 군집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 양상을 보여준다. 흑색과 회색으로 표현된 성별을 살펴보아도 영역 별 군집화 양상은 찾아보기 어렵다.

토기의 분석에서는 남성묘와 여성묘가 일단고배와 이단고배, 개배의 부장에 있어서 서로 판이하게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었고, 해당 세 기종은 전체 부장량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철기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세환군과 태환군 사이에 출토율과 전반적인 부장량을 비롯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것처럼 분리되는 양상이 아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 말해서 철기와 토기의 부장품 구성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토기에서는 계서와 착장 이식에 상관 없이, 배류에 있어서 남성묘에서는 일관적으로 이단고배의 비율이 높았고, 반대로 여성묘에서는 상대적으로 개배와 일단고배의 비율이 높았다.

〈표 23〉 적석목곽묘 부장 철기 수량의 주성분 분석 결과



하지만 철기에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계서와 성별 또는 착장 이식을 초월하여 비율을 규정하는 부장 방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장 비율을 대상으로 한 주성분분석에서 강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적으로 가장 부장량이 많은 유물인 철촉의 예를 들면, 〈그림 39〉에서

보았다시피 태환군의 철축 출토율은 세환군보다 크게 낮다. 하지만 상위위계 태환군에서는 다수의 철축이 부장되며, 개별 고분 내 부장 비율도 낮지 않다. 태환군과 세환군이 철기 부장 비율에서 차이를 보이려면 태환군의 철축 출토율도 낮고 부장 비율도 적어야 하지만, 철기 중에서는 토기와 달리 그러한 경향성을 강하게 보이는 유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계서와 관련하여 철기의 부장 양상을 검토한 바, 토기 분석 결과와 흥미로운 차이점 및 공통점이 드러났다. 차이점은 철기가 토기보다 부장 수량과 종류에서 계서에 따른 차별화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며, 공통점은 계서 이외에 성별 또는 착장 이식이 부장 수량과 종류를 결정하는 2차적 요인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토기는 성별에 부장 수량과 배류의 기종 구성이 크게 달라졌고, 철기는 성별보다 착장 이식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은 또 다른 차이점이다.

3. 소결 : 부장품의 구성 방식

이번 장에서는 피장자의 성별과 착장 이식, 계서에 따라서 적석목곽묘의 부장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무구와 마구의 부장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착장 이식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커서, 성시구와 갑주, 등자의 부장은 세환군 분묘에서는 높은 부장비를 보였지만 태환군 분묘에서는 매우 한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등자의 부장은 세환군 피장자에게는 70%에 가까운 부장률을 보였으나 태환군에서는 10%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착장 이식에 따라서 성시구와 갑주, 등자가 차별적으로 부장된 것이 명백하여 모종의 정형성을 감지할 수 있어, 착장 이식을 중심으로 한 피장자의 성격이 부장품의 구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었다. 반면 성별에 따라서는 무구와 마구의 부장양상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피장자 성격에 따른 토기의 부장 양상을 살펴본 결과, 부장수량은 계서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커서, 높은 위계에 있는 피장자의 부장량은 일관적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남성묘와 여성묘의 기본적인 부장량에는 큰 차이가 있었어서, 평균적인 남성묘의 부장량은 여성묘의 두 배에 달했다. 계서에 따라 부장량이 증가하는 방식도 달랐는데, 남성묘의 부장량은 대관을 착장하거나 또는 금속제 관모를 부장한 피장자(B군)부터 기하급수적으로 급등하였으나 여성묘에서는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지 않고 계서에 따른 증가량이 미약하였다. 따라서 남성은 계서 간 부장량 차이가 매우 커지는 반면, 여성은 상대적으로 균등한 부장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종의 다양성은 통계적인 분석에 따르면 부장량에 따라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남성묘의 기종 다양성이 여성묘보다 높고, 하위위계보다 상위위계에서 높았다. 또한 대호와 시루, 파수부호, 연질옹과 같은 특정 기종은 부곽에만 부장되는 경향이 뚜렷하여 남성묘에만 배타적으로 부장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단고배와 이단고배, 개배의 부장 비율이 남성묘와 여성묘에서 크게 달라 서로 다른 기종 구성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묘에서는 이단고배가 뚜렷하게 우세하였고, 여성묘에서는 반대로 개배와 일단고배의 비율이 더 높았다. 즉 남성묘와 여성묘는 기종의 부장 여부와 부장

기종의 비율, 수량이 완전히 다르게 구성되었으며, 이는 시간적 흐름과는 무관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토기의 부장 구성은 성별과 계서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착장 이식은 토기의 부장 양상과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현재로써는 태환군의 분묘에 개배가 반드시 부장된다는 것 정도만 확인되고 있다.

철기의 부장에서는 반대로 성별보다 착장 이식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는데, 토기의 부장양상에서 성별에 따라 나타난 바와 동일한 양태로 세환군의 철기 출토량과 출토율이 태환군에 비해 우세하였다. 특히 무기류로 볼 수 있는 철촉, 철모, 대도 등에서 그러하였다. 반면 살포, 쇠삽날, 쇠스랑, 철서와 같이 기정구적 성격을 갖는 철기는 높은 계서의 태환군에서 부장률이 더 높았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피장자의 성격이 갖는 여러 요소 중 계서가 1차적으로 토기와 철기의 부장 수량을 결정하지만, 2차적으로는 성별과 이식을 통해 구성과 비율, 부장 여부가 세부적으로 복잡하게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매우 중대한 점을 시사하는데, 결론적으로 적석목곽묘에 부장된 토기와 철기는 피장자의 사망 당시 상황에 따라 결정되거나, 조묘자 임의에 의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보다는 피장자의 계서와 성별, 착장 이식에 따라서 수량과 종류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양상이 확인되는 점에서, 부장품의 종류와 양을 통제하는 모종의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며, 조묘자들은 그를 준수하면서 적석목곽묘를 조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적석목곽묘는 유구의 재료와 형태 뿐만 아니라, 그 내부를 관통하는 일단의 부장 정형으로 정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적석목곽묘 부장품에 대한 규범적 관점에서 볼 때, 고분 간의 부장품 격차를 비로소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가령 황남대총 남북분의 경우, 양자가 신라 고분을 대표하는 최고위계 고분이지만 토기 부장량에서는 수천 점의 차이가 나는 현상은 동급 피장자 간 성별에 의한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천마총이 금관총보다 철기 부장량이 압도적인 이유는 착장 이식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서봉총에 등자 부장이 결락된 이유 또한 착장 이식이 태환이식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는 남북분 간 부장품 격차를 시간적 차이로 설명하는 경향이 강하고, 신라 고분 연구의 초창기에는 등자의 결락 또한 등자 도입 전후에 의한 시간적 선후관계로 보았다. 하지만 피장자의 성격에 따라 부장양상이 결정되는 정형성이 드러난 바, 이를 시간적 차이로만 설명할 수 없고 적석목곽묘 전반을 관통하는 부장 규범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적석목곽묘의 부장품 대부분은 사후 세계를 위한 용품, 혹은 피장자가 생전에 축적한 재부 그 자체로 구성되었다기 보다는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일련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 조묘자에 의해 구성되었을 개연성이 더 크다. 뒤에서 다시 한 번 다루겠지만 시간적 요소에 의한 개입도 크지 않았으며, 최상위 고분에서 예외적인 부장 양태가 나타나는 점을 제외하면 적석목곽묘가 축조되는 기간 동안은 피장자의 성격에 따라 전반적인 부장양상이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적석목곽묘 내부의 부장품이 이처럼 피장자의 성격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컸다면, 유구 간의 연결 관계나 군집화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 장에서 이에 대해 살펴본다.

V. 적석목곽묘의 군집화 방식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적석목곽묘를 비롯한 영남지역의 신라 고분은 여러 기가 연접하는 경우가 있고, 일정한 지점에 몇 기가 모여서 특정한 공간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군집화는 보통 피장자 간의 친연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이번 장에서는 앞서 다룬 피장자 성격에 따라 적석목곽묘의 군집화에서 어떠한 양상이 나타나는지 검토하도록 한다.

적석목곽묘를 비롯한 신라 고분이 집단을 이루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봉토와 호석을 공유·연결하면서 연접분을 형성하는 방식이 있고, 둘째는 봉토와 호석을 공유·연결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간격을 두되 일정 지점 안에 여러 기의 무덤이 밀집하여 소군집을 만드는 방식이다. 여기에서는 이처럼 봉토의 연결 여부에 따라 연접축조와 소군집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접근하도록 한다. 고분군을 이룬다고 하면 위의 두 가지 방식이 혼재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고, 종래에는 신라 고분의 군집화를 부부와 그 자손의 가족묘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본고에서 새로이 드러난 성별 추정안을 적용해 보면 고분의 군집화 방식을 설명하는 다른 가설이 필요함이 드러난다. 이하의 검토에서는 먼저 연접축조에서 나타나는 정형성을 찾고, 그 다음 단계로 고분의 군집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찾도록 한다.

1. 피장자 성격과 연접 축조 양상

1) 연접축조와 피장자의 성별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석목곽묘의 연접축조는 수평적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연접축조의 결과물이 두 기에 그친 경우는 표형분으로 특칭하고, 세 기 이상인 경우는 연접분으로 통칭한다. 하지만 전반적인 연접양상을 본다고 할 때 양자를 굳이 구분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분석 과정에서는 양자를 합쳐서 살펴보고, 검토 이후에 표형분은 신

라 고분 연구의 초창기부터 부부묘로 여겨져 왔으므로(齋藤忠 1937b), 차후에 분리하여 살펴보도록 한다.⁸⁸⁾

현재 월성북고분군에서 연접분으로 알려진 사례 중에서, 발굴조사를 통해 그 내용이 알려진 것은 19기에 이른다. 그 중에서 연접이 한차례 이루어진 무덤은 황남대총을 필두로 해서 10개 사례가 있고, 2회 이상의 연접이 이루어져 3기 이상의 묘곽이 하나의 봉토를 공유하고 있는 것도 9개 사례이다. 가장 많은 연접이 이루어진 것은 최근 조사된 쪽샘 B1,2,3,4,6호분으로 5개 무덤이 모여서 총 4회 연접하였다.

이러한 연접분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차례 고찰이 있었고, 주로 연접양상의 변화를 시간적 흐름에 따른 묘곽 형식의 변화와 연동하여 해석하는 것이 보통이었다(沈炫暉 2014; 崔秉鉉 1992). 본고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연접 사례에 있어 피장자 성격이 어떤 연관을 갖는지로써, 선축분과 후축분의 피장자 성별 구성, 혹은 착장 이식은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 그리고 계서의 변동은 어떠한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연접사례 별로, 앞서 분석 결과 확인된 성별, 착장이식, 계서 등을 종합하여 정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다. 본고의 정리에 따르면 19기의 연접분에 총 51기의 묘곽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들 간에서 32건의 연접이 발생하였다.

연접 사례 별로 피장자의 성별과 착장 이식, 계서가 어떻게 같고 다른지 각각 검토하였으며, 먼저 성별에 대해서 정리하면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선후축분 모두 피장자의 성별을 알 수 있는 경우는 32건의 연접 중에서 30건이었는데, 선축 남성 → 후축 남성의 경우가 가장 많아 19건(63%)이었고, 선축 여성 → 후축 여성의 경우도 6건(20%)이었다. 즉 동성 간의 연접이 전체 사례 중에서 80%를 넘어서 주목된다. 한편 이성간의 연접에서는 매우 독특한 양상이 나타났는데, 선축 남성 → 후축 여성의 경우는 5

88) 반면 표형분을 부부묘로 보지 않은 시각도 있다. 조유전(1991)은 표형분의 숫자가 너무 적어 부부묘로 보기 어렵다 하였고, 김선주(2002)는 출토 유물만으로 피장자 성별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표형분 피장자를 부부관계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89) 호우총과 은령총은 연접분으로 보고되었으나 최병현(1992)의 검토에 따르면 연

〈표 24〉 월성북고분군 적석목곽묘 연결사례 종합

묘곽 수	연접 관계	연접 방향	선후축 성별	선후축 착장 이식	선후축 계서
2	황남대총 남분→북분	북	남→여	세환→태환	A→A
2	미추4A지구 3호 2곽→1곽	서	여→여	세환→세환	E→D
2	서봉총→데이비드총	서	여→여	태환→세환	B→C
2	노서동215번지→호우총 ⁸⁹⁾	동	여→여	태환→세환	C→B
2	황오동고분 남곽→북곽	북	여→여	세환→태환	C→B
2	황오동 14호 1곽→2곽	북	남→남	세환→태환	B→D
2	황남동 82호 동총→서총	서	남→남	세환→태환	C→B
2	황남동 109호 2곽→1곽	서	남→남	없음→세환	E→C
2	황오동1호 남곽→북곽	북	남→남	태환→불명	C→?
2	미추6구D지구 1호 1곽→2곽	북	여→여	세환→태환	C→D
3 이상	미추 9구역 A호 1곽→3곽	서	남→남	태환→세환	D→E
	미추 9구역 A호 2곽→3곽	북	남→남	세환→세환	E→E
3	황오동34호 1곽→2곽	북	남→남	세환→세환	C→C
	황오동34호 2곽→3곽 ⁹⁰⁾	북	남→여	세환→세환	C→C
3	미추C지구 1곽→2호	서	남→남	세환→태환	D→E
	미추C지구 1곽→3호	남	남→남	세환→태환	D→D
3	황오동 16호 8곽→2곽	북	남→남	태환→세환	B→C
	황오동 16호 2곽→4곽	북	남→남	세환→세환	C→C
3	황오동100유적 3호→4호	동	남→남	세환→없음	C→F
	황오동100유적 10호→4호	서	남→남	불명→없음	?→F
3	황오동54호 을총→쪽샘B79호	북	남→남	세환→불명	B→?
	황오동54호 을총→쪽샘B81호	동	남→?	세환→불명	B→?
4	황오동100유적 11호→1호	북	남→여	불명→세환	?→D
	황오동100유적 1호→2호	북	여→여	세환→세환	D→D
	황오동100유적 11호→7호	서	남→남	불명→태환	?→D
4	황오동 16호 11곽→1곽	남	남→여	세환→세환	D→B
	황오동 16호 11곽→쪽샘L134호	북	남→여	세환→불명	D→?
	쪽샘 L135호→황오동 16호 1곽	북	?→여	불명→세환	?→B
5	쪽샘B2호→B1호	북	남→남	세환→세환	D→C
	쪽샘B1호→B4호	북	남→남	세환→세환	C→E
	쪽샘B2호→B3호 ⁹¹⁾	남	남→남	세환→세환	D→D
	쪽샘B2호→B6호	남	남→남	세환→태환	D→D

건(17%)으로 사례 수는 많지 않지만 분명히 확인되는 데 반해, 선축 여성
→ 후축 남성의 사례는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표 25〉 연접분의 연접 사례 별 성별 구성

선축분 성별 → 후축분 성별	확인 가능 사례 수	백분율
남성→남성	19	63.3%
남성→여성	5	16.7%
여성→남성	0	0.0%
여성→여성	6	20.0%
계	30	100.0%
남성묘 34기, 여성묘 15기, 불명 2기		

이는 묘곽 형식의 관점에서 보자면 무부곽식(2C)이 선축이고 유부곽식(1A, 1B, 2A, 2B식)이 후축인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편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묘곽 형식 간 시간적인 차이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최병현(1992; 2016a)에 의해 편년된 바와 같이, 현재의 자료 상 등장 시점에 차이는 있지만 모든 2C식이 모든 1A, 1B, 2A, 2B식보다 늦은 것은 아니며, 신라 전기 1~2a기를 제외한 모든 기간 동안 공존하고 있다.⁹²⁾

접분으로 보기 어렵다.

90)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황오동 34호 3곽은 적석목곽묘가 아닐 가능성이 크지만 적석목곽묘와 연접을 이룬 사례인 바 포함시켰다. 성별의 추정 은 천의 착장 여부를 따랐고 계서는 적석목곽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91) 보고에 따르면 B2-B3-B6의 순서이나 최병현(2017b)은 B2-B6-B3의 순서로 보았다. 일견 어색해 보일 수 있는 순서이나 이 축조순서를 따를 때 비로소 B3호의 부곽이 매우 특이하게도 두상부 위에 설치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에 따른다면 연접 형태는 B2-B6-B3 보다는 B2-6, B2-3의 연접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위치로 보아 B3호는 B6호의 동서연접이기 보다는 B2호의 북남연접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92) 본고의 방법론으로 확인 가능한 여성묘가 등장하는 것은 황남대총 북분이 등장하는 2b기 부터이다. 그러므로 그 이전 단계의 여성묘가 어떠한 양상이었는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 아마도 고총 축조의 이른 시기는 사회복합화가 크게 진전되면서 사회적으로 계층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남녀간 성역할, 노동의 분

<표 26>은 연접분의 묘곽 형식과 편년을 정리한 것으로, 여기에 그러한 양상이 잘 나타나 있다. 요컨대 <표 24>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여성묘(2C) 이후에 남성묘(1A~2B)가 연접하지 않은 것은 시간차 뿐만 아니라 피장자의 성별에 따른 규제가 작용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하나의 연접분 내에서 남성묘와 여성묘가 혼재할 경우, 반드시 남성묘로 시작해서 여성묘로 끝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예는 황남대총(남→여), 미추왕릉 6구역 C지구 1,2,3호분(남→여←남), 황오동 16호 1곽과 주변 유구들(남→여), 그리고 황오동 100유적 11곽과 1곽(남→여)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또한 시간성에 따른 묘곽 형식의 변천과 연계하여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모든 2C형식이 모든 1A~2B식보다 늦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장자의 성별과 관련된 유구 배치상의 정형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연접분에서 피장자의 성별에 대한 규정이 대체로 이러한 바, 이제 표형분의 성격에 대해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표형분의 고고학적인 정의는 선후를 달리하는 2기의 봉토분을 의도적으로 근접 배치하여 봉분 일부가 서로 겹치게 배치한 무덤으로(崔秉鉉 1992: 155), 이러한 표형분들은 지금까지 부부묘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간 표형분으로 알려진 것 중에서 발굴된 것은 황남대총 남북분(남→여), 서봉총·데이비드총(여→여), 황오동 14호분 1·2곽(남→남), 황오동 1호분 남북분(남→남), 황오동 고분 남북곽(여→여) 정도인데, 본고의 성별 판단 기준에 따르면 남녀 연접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황남대총 한 건 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동성간의 연접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알려진 표형분 중 부부묘일 가능성이 있는 것은 황남대총 남북분 정도이고, 나머지는 동성 2인의 합장이라 부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표형분이 부부묘라는 기존의 가설은 재고가 필요하다.

주목되는 것은 연접이 2회 이상 일어나는 연접분에서도 이처럼 같은 성

화가 심화되는 시기로 추정되는 바, 남녀간 무덤의 격차도 그만큼 커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고찰할 것이다. 북분 이전의 석재총전목곽묘나 점토총전목곽묘에도 2C식의 묘곽 형식이 존재하지만, 비적석목곽묘에는 성별 추정이 가능한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성별과 묘곽 형식을 연결지을 근거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93) 최병현(2014a)의 편년을 따랐다.

〈표 26〉 연접분의 표곽 형식과 편년

연접분 분기 ⁹³⁾	2a	2b	3a	3b	4a	4b
황남대총 남북분	남 1A →	여 2C				
미추4A 3호 2곽,1곽						여 2C → 여 2C
서봉총, 데이비드총					여 2C →	여 2C
노서동215번지, 호우총						여 2C → 여 2C
황오동고분 남북곽				여 2C → 여 2C		
황오동14호 1곽,2곽	남 1A → 남 1A					
황남동82호 동서총				남 1B →	남 1B	
황남동109호 2곽,1곽			남 1B → 남 1B			
황오동1호 남북곽				남 1B → 남 1B		
미추9구A호 1,2,3곽					남 1B →	남 1B → 남 1B
미추C지구 1,2,3호					남 1B → 남 1B	여 2C
황오동16호 8,2,4곽				남 1A → 남 1A → 남 1B		
황오동16호 8,6,9곽				남 1A → 남 1A → 여 2C		
황오동16호 11,1곽					남 1B → 여 2C	
쪽샘 B2,1,4호				남 1A → 남 1B	→	남 1B
쪽샘 B2,3호				남 1A → 남 1A		
쪽샘 B2,6호				남 1A → 남 1B		

별끼리 군집하는 양상은 마찬가지여서, 특정 성별이 뚜렷한 우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표 25〉~〈표 26〉에서 보듯이, 미추 9구역 A호 1,2,3곽, 황오동 16호 8,2,4곽, 쪽샘 B2,1,4곽과 같이 남성 피장자 3인의 연접 사

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다만 여성 간의 연접은 1회에 그쳐, 현재 확인된 사례 중에 여성 피장자 3인이 연접된 경우는 없다.⁹⁴⁾ 또 양성이 혼재하는 경우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초축분의 피장자는 남성으로 시작되어서 종말분의 피장자는 여성으로 끝나는, 남→남→여(황오동 34호 1,2,3곽, 황오동 16호 8,6,9곽), 혹은 남→여→여(황오동 100유적 11,1,2호)와 같은 형태가 많다.

이처럼 표형분은 동성 2인 간의 연접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개별 연접 사례를 종합하였을 때에도 동성 2인간의 연접이 80%를 넘는다(표 20).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일단 부부관계는 제외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피장자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일단 <표 26>에서 보듯이, 연접 사례 간의 시간적 격차는 크지 않은 편으로, 대부분의 연접분은 최병현의 편년안 내에서 한 분기에서 두 분기 정도에 걸쳐있는 정도이다. 유일한 예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쪽샘 B2,1,4호인데 세 분기에 걸쳐 있다. 이 편년안에 있어서 한 분기는 대략 25년 가량이므로 대부분의 연접 사례 간 시간적 격차는 아무리 커도 반 세기를 넘지 않을 것이고, 실제 사례 내에서 그 간격은 더 작을 것이다. 이러한 작은 간격 차이로 인해 황남대총 남북분의 경우 부부묘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고, 최근 쪽샘 B1~3호의 경우에는 피장자 간 관계를 직계 가족 보다는 (동세대 내의) 친족 단위로 본 경우가 있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6).

하지만 이는 현 시대의 평균수명의 관점에서 세대를 판단한 것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신라 시대의 평균수명에 대해서는 크게 문헌 자료를 통한 추정과 인골 자료를 통한 추정 사례가 있다. 전자는 통일신라시대⁹⁵⁾ 신라촌락문서를 통해 추정한 것으로 이를 검토한 兼若逸之(1980)은 당시 평균수명을 20~25세로 추정하였다.⁹⁶⁾ 한편 정상수(2014)는 임당 고분군 출토 인골을

94) 다만 다수의 연접분이 확인된 쪽샘 B지구나 G지구 등에서 새로운 사례가 추가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95) 신라촌락문서의 작성시기는 문서의 乙未年을 근거로 695년, 755년, 815년, 875년 중 하나라고 한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정상수·최봉인 2015에서 재인용).

96) 이는 영유아의 사망을 포함한 수치로, 고분에서는 주로 성인 인골이 출토되고

통해 4세기~6세기 중반까지의 사망 평균 연령을 대체로 약년 이상~성년 초기(19세 이상~30세)로 판단하였고, 최근의 재검토에서는 옹관묘(아동)를 제외하였을 때 남성은 37.7세, 여성은 34.6세로 추산하였다(정상수·최봉인 2015). 그리고 김두철(2000)은 예안리 고분군 인골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25세(1~6세 포함), 혹은 34세(1~6세 제외)의 사망 평균 연령을 구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신라시대에 영유아기를 생존하였을 때의 기대여명은 대략 30년 가량으로 볼 수 있고,⁹⁷⁾ 영유아기의 사망을 포함한 평균수명은 크게 낮아져서 신라촌락문서의 추정치에 근접할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이상의 자료는 적석목곽묘 피장자군과는 계층, 지역, 시대가 다른 점이 있어 직접적인 적용은 어렵다. 하지만 동시대와 그를 전후한 사망 평균 연령에 대한 추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영유아기를 생존하였을 때 기대 여명이 30년 남짓이라 한다면 결혼과 출산은 늦어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에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세대 별 재생산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같은 분기 내에서 연접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장자들을 반드시 동세대 내로 볼 수는 없다. 평균적으로 보아 세대 간의 연령 차는 20년 미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세대 간 간격이 그만큼 짧았다면, 크게 보아 황남대총 남북분의 피장자 간 관계가 부부관계가 아니라 부녀관계일 가능성도 있다.⁹⁸⁾ 물론 현재로써는 이를 구체적으로 검증할 만

영유아의 인골은 희소하므로, 인골을 대상으로 한 사망 평균 연령보다는 낮게 산출된다.

97) 이러한 점에서 황남대총 남분 피장자의 연령이 60세 전후로 추정된 것은 피장자가 예외적으로 장수한 경우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분 피장자는 치아의 교모 정도를 통해 연령을 60세 전후로 추정하였는데(張信堯·金達澤 1994), 고대 인골의 경우 현대 인골보다 치아 교모 정도가 큰 점이 고려되지는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Brothwell 1981; Ubelaker 1989; White and Folkens 2000 등의 연구 참조). 현재 황남대총 보고서 등에 남아있는 사진에도 대구치의 교모가 높은 점은 인정되나 소구치는 아직 상아질의 교모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오늘날의 골학자가 재검토한다면 더 낮은 연령이 추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98) 물론 연접분의 피장자가 반드시 직계의 혈연관계인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논증이 필요하다. 차세대의 피장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친연관계가 아니라, 혈연적 연계가 없는 피장자의 무덤을 조묘자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연

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지만, 평균 수명이 오늘날의 절반에 불과한 시대인 만큼 연접분의 피장자 간 관계를 반드시 동세대로 한정하기는 어렵다. 연접이 수 세대에 걸쳐 일어난 사례는 현재로써는 찾기 어렵고, 대체로 두 분기 이내에서 연접이 끝나므로 1~3세대 내에서만 연접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 세대는 새로운 지점에서 단독분 혹은 연접분을 조영해 나간 것으로 여겨진다.

2) 연접축조와 피장자의 착장 이식

다음으로 착장 이식과 연접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표 27>은 <표 24>를 토대로 개별 연접 사례 내에서 선축분과 후축분 피장자의 착장 이식 구성을 정리한 것으로, 32개 사례 중에서 선후축분 모두 확인 가능한 22개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표 27> 연접분의 연접 사례 별 착장 이식 구성

선축분 착장 이식 → 후축분 착장 이식	확인 가능 사례 수	백분율
세환군→세환군	10	45.5%
세환군→태환군	8	36.4%
태환군→세환군	4	18.2%
태환군→태환군	0	0.0%
계	22	100.0%
세환군 분묘 30기, 태환군 분묘 14기, 불명 또는 이식 없음 7기		

이를 살펴보면 선축분이 세환군인 경우가 전체의 80%를 넘는 점이 주목된다. 선후축분 모두 세환군인 경우가 확인 가능한 연접 사례의 절반 가까이 되고, 선축 세환군, 후축 태환군인 경우도 전체의 1/3을 넘는다. 반면 선축이 태환군인 사례는 4건 밖에 되지 않고, 그나마 모두 세환군이 후축되며, 선후축 모두 태환군인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

주지하다시피 적석목곽묘의 피장자는 착장 이식에 따라 세환군과 태환군으로 양분되고, 그에 따라서 착장위세품과 유물의 구성에 있어서 일정한

접시켰을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도록 한다.

차이가 있되, 착장 이식 자체로 계서가 나뉘거나 시간적 선후가 있지는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환군 간의 선후축 연접이 없는 양상은 매우 독특하다.

왜 태환군 간의 연접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 또한 모종의 장례 규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제기될 뿐,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해명은 어렵다. 앞서 성별과 관련해서도 선축분의 피장자가 여성인 경우 후축분에 남성이 묻히는 경우가 없었는데, 이와 같은 사항들을 통해 일련의 추론이 가능하다. 즉 성별이나 착장 이식에서 어떤 조건이 일치할 경우(여성→남성 또는 태환군→태환군), 조묘자가 특정한 선축분에 이어서 후축분을 만들어서는 안되는 규범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리고 이러한 규범이 실행 가능하려면, 후축분의 조묘자가 선축분의 피장자의 성격에 대해서, 특히 성별과 착장 이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선축분의 피장자와 후축분의 피장자, 그리고 후축분의 조묘자까지 3자는 서로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었던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대부분의 연접이 1~3세대 내에서 이루어진 것을 염두에 두면, 역시 이들 간의 관계는 생전에서부터 관계를 유지해 온 인척이나 가족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전반적인 성비에 있어 남성이 여성의 두 배 가까운 점, 동성간의 연접이 대부분인 점, 그리고 이성 간 연접이 반드시 여성 피장자가 묻힌 고분에서 끝나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이들의 관계는 현대적인 형태의 가족 구성, 즉 부모-자식의 형태로 이루어진 핵가족적 가족구성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3) 연접분 내의 계서 구성

무덤을 연접하는 행위는 어떤 사회적 관계의 표현일 수도 있고, 혹은 후축분의 조묘자가 선축분 피장자의 권위에 기대어 자신 혹은 후축분 피장자의 권위를 강화, 조작하려는 전략적 행위일 수 있다. 후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높은 위계의 피장자가 묻힌 선축분을 선택하여 후축분을 조영하는 것

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며,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활발하게 일어났다면 선측분과 후측분 간의 계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것으로, 또 그렇지 않다면 차이가 적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존재하였다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났는지 검토하기 위해 <표 24>를 토대로 선후측 관계에 있는 고분 간의 계서 변동을 정리한 결과가 <표 28>이다. 가령 황남대총 남북분은 선후측분이 모두 A군이므로 선후측분의 계서는 동급이고, 서봉총과 데이비드총은 전자가 A군, 후자가 C군이므로 후측분의 계서가 하강한 것이다.

<표 28> 연접 사례 별 계서 변동

계서변동	확인 가능 사례 수	백분율
선후측분 계서 동급	9	37.5%
후측분 계서 상승	7	29.2%
후측분 계서 하강	8	33.3%
계	24	100.0%

정리 결과를 보면, 선측분과 후측분의 계서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32건의 연접 중에서 24건이었으며, 이 중에서 양자의 계서가 동일한 경우가 9건, 후측분의 계서가 더 높은 경우가 7건, 더 낮은 경우가 8건으로 세 경우가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 후측분의 계서 변동은 대체로 1~2 등급 내에서 일어났고, 3등급 이상 차이가 났던 사례는 황오동 100유적 3, 4호의 사례가 유일한데, 대장식구 착장군인 C군에 이어 착장위세품이 없는 F군의 연접이 이루어졌다.

만약 연접이 전략적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였다면, 보다 사회적 계서가 높은 선측분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낙차가 크면 클수록 유리하였을 것이므로, 조묘자 간 경쟁을 통해 황오동 100유적 3, 4호와 같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후측분이 선측분보다 계서가 높다면 권위 강화 전략에 있어서는 오히려 손해이므로 그러한 연접은 기피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후측분의 계서가 선측분보다 오히려 높았던 경

우가 전체의 30%에 이르고, 동급에서 연접이 이루어진 경우가 제일 많았다. 후측분의 계서가 더 낮은 경우는 1/3인 8건이고 그 중 5건이 1등급 차이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바 선후측분 간의 계서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⁹⁹⁾ 따라서 조묘자 간 경쟁이나 선측분에 기댄 권위 강화 전략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오히려 대체로 같거나 한 등급 차이 정도의, 동급이라 할 수 있는 피장자 간에서 연접이 일어났고 계서의 낙폭이 큰 사례는 매우 적었다. 그러한 바 앞서 성별과 착장 이식의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인척집단 내에서 경쟁이 배제된 상태로 일정한 규범에 따라 연접이 이루어진 것으로 상정된다.

이상으로 피장자의 성격이 연접분의 축조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 보았다. 하지만 연접분을 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오히려 더 많은 적석목곽 묘가 연접을 이루지 않고 단독분, 혹은 단일원분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단독분으로 존재한다고 해도 대부분은 일정한 공간 안에 모여서 또 다른 형태의 군집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음 절에서는 피장자의 성격과 이러한 형태의 군집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검토하여 보도록 한다.

99) 최병현(2017b) 또한 본고와 동일한 성격의 분석에서 연접분 간 랭크 차이가 대체로 1단계를 넘지 않음을 보였고, 이 정도의 차이는 개인의 활동과 역할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적석목곽묘의 소군집화

이번 절에서는 봉토와 호석을 공유하지 않되 일정 구역 내에 모여서 소군집을 이루는 방식의 집단화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이다.

앞서 연접분의 분석에 있어서는 연접분 전체가 발굴된 사례가 다수 축적되어 있었기에 그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였으나, 군집화의 경우에는 한 구역 전체가 발굴된 사례가 월성북고분군에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검토에 어려움이 있다. 최근 조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쪽샘지구에서도 한 군집 전체의 내용이 밝혀진 경우는 아직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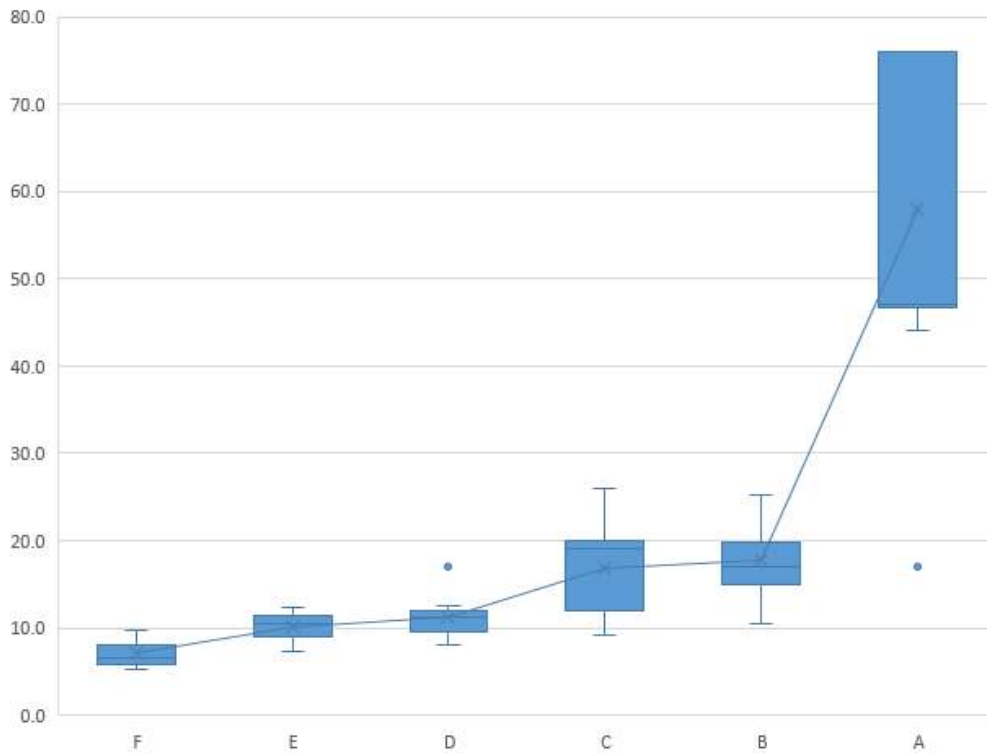
따라서 특정한 군집화 사례의 전반적인 설명을 통해 가설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현재 고분군의 구역 전체로 놓고 보았을 때 가장 밀도 있게 보고된 지점은 지난 세기 동안 집중적으로 발굴된 왕릉군 일대의 고분군으로 볼 수 있어서, 이 지역 일대를 소군집 분석의 시발점으로 놓도록 하겠다. 잘 알려졌듯 이 일대는 현존 적석목곽묘 중에서 최고위계 고분들이 밀집한 지역이다. 이곳을 비롯한 최고위계 묘역의 변화 양상은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황남대총과 봉황대, 서봉황대, 134호분 등 초대형묘를 중심으로 하여, 주분(主墳)과 그에 딸린 종속분 혹은 배장분(陪葬墳)이 각각 그룹을 이루면서 군집을 이루는 방식(그림 41참조)이었을 것으로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김용성 2009, 2014; 朴光烈 2016; 박천수 2016; 최병현 2016a: 172). 또한 최병현(2014b)의 안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주분은 축조 시점과 위치를 달리하면서 이동하며 별도의 구역을 형성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종속분은 주분의 남쪽 방향에 방사상으로 배치되는 양상인데, 일단의 고분들이 이처럼 군집을 이루는 이유는, 연접축조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모종의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관계가 어떤 것이었는지 앞서 복원한 피장자 성격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다만 그 이전에 계서와 봉토 규모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조사되지 않은 고분이라도 겉으로 파악할 수 있는 요소인 봉토의 규모를 통해서 계서를 추정하기 위해서이다.

<그림 41> 대릉원 일대의 군집화에 대한 여러 시안



봉토의 규모에 대한 검토는 윤상덕(2014), 심현철(2013a)과 함순섭(2010)에 의해서 이루어진 바 있었는데, 이 자료를 토대로 봉토의 규모를 비정하고, 최근 재조사된 황오동 14호, 금관총, 서봉총, 데이비드총 등의 장축 크기를 종합하면 본고에서 계서를 판단한 고분 중에서 39기의 크기를 알 수 있다. 물론 이 중에는 추정치도 섞여 있어 전체적인 추세를 보는 데는 유용



〈그림 42〉 계서와 봉토 크기(장축)의 관계(n=39)

※ A군의 이상치는 금령총, D군의 이상치는 황오동 14호 2곽

하지만 세부적인 의미의 부여는 곤란하다(최병현 2016b: 100). 이를 종합한 결과는 〈그림 42〉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대체로 토기 및 철기의 부장량과 계서의 분석 결과에서 본 바와 유사한 양상으로 봉토의 크기가 커진다. 즉 낮은 계서에서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높은 계서에서는 급격하게 증가한다. 가장 낮은 F군은 10m 미만의 소형 봉토를 갖고, D, E군은 동일한 분포를 보여 8~13m, B, C군도 동일한 분포를 보여 10~26m 미만이고 A군은 최소 44m를 넘어서 76m까지 이른다. 이 패턴에서 벗어나는 이상치가 두 경우에서 확인되는데, 하나는 금령총(A군)이고 다른 하나는 최근 재조사된 황오동 14호 2곽(D군)이다. 금령총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아동묘인 점이 고려되어

야 하겠고, 황오동 14호 2곽은 D군의 크기에서 크게 벗어나 B,C군의 평균에 근접한 점, 그리고 선축분인 1곽에서는 대장식구가 출토된 점 등에서, 부식된 대장식구가 조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주의할 점은, 계서와 봉토 크기 간의 관계가 전체적으로는 비례하는 편이지만, 계단상으로 단절적인 것은 A-B군 사이 뿐이고, 나머지에서는 겹치는 구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가령 가장 큰 F군 봉토는 가장 작은 E군 봉토보다 크며, 가장 큰 D군 봉토는 가장 작은 C군 봉토보다 크다. 이는 봉토의 크기를 결정하는 주 요인이 계서 뿐만 아니라 다른 변수가 개재되었음을 시사한다.

아동묘인 금령총의 예를 보면, 조묘자는 아마도 그 부모였을 개연성이 크고, 피장자와 같거나 더 높은 계서에 속하는 인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착장위세품에서 보듯 금령총의 피장자는 A군에 속하였고 부장품의 구성도 다른 A군 분묘에 뒤처지는 편이 아니다. 이처럼 조묘자가 높은 계서에 속하였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봉토의 크기는 다른 A군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피장자 본인의 사회적 활동이나 사회적 성취가 봉토의 크기를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였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봉토의 크기는 온전히 조묘자에 의한 간섭을 통해 결정되거나, 조묘자간 경쟁을 통해 과장된 결과물이기 보다는, 피장자의 계서를 기본으로 하되 거기에 더해 생전의 사회적 활동에 따른 성취를 통해 결정되는 측면이 크다고 판단된다.

다시 대릉원의 군집화로 돌아와서 보면, 아직 조사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조사된 자료와 비교를 통해 서봉황대(74.6m)와 봉황대(82.3m)가 A군에 속하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¹⁰⁰⁾ 앞서 본 바와 같이 조묘자에 의한 봉토의 과장 가능성은 매우 한정되어 있고, A군과 B군의 봉토 크기 차이는 매우 크므로, 서봉황대와 봉황대에 B군 이하 계서의 피장자가 묻혔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들은 봉토의 규모, 묘역의 배치와 형성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왕릉으로 비정되어 왔으므로

100)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봉토 직경이 54m(북분)인 134호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정이 어렵다. 왕릉급으로 보기에선 작고, 여성묘인 금관총, 천마총, 서봉총보다는 크기 때문이다.

(김용성 2000, 2010; 박천수 2016; 윤상덕 2014; 최병현 2014b), 남성일 것이며 따라서 내부 구조는 황남대총 남분과 같은 T자형 이혈묘광 주부곽식(최병현의 1A3식)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남성 피장자 중에서 태환군에 속하는 A군은 확인된 바 없으므로, 지금까지의 패턴과 같다면 세환이식을 착장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조사된 배장분의 피장자 성격 제 측면을 종합해 왕릉군 일대의 현황을 도시하면 <그림 4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현재 발굴된 유일한 주분은 황남대총 남분밖에 없고, 남분의 피장자는 인골 분석과 묘곽 형식과 성별 간의 조응 관계를 통해 볼 때 남성, 연접한 북분 피장자는 여성이다. 그리고 봉황대와 서봉황대는 앞서 남성으로 추정한 바 있고, 그 주변에 분포한 서봉총, 데이비드총, 금관총, 금령총, 식리총, 호우총, 은령총, 노동동 4호, 노서동 215번지고분, 천마총¹⁰¹⁾ 등은 모두 여성이다.

이러한 바 황남대총, 서봉황대, 봉황대 등 주분의 피장자는 남성, 그리고 각 주분의 주변에 배치된 피장자는 여성인 양상으로 파악된다. 즉 각 군집에서 중심을 이루는 주분은 남성이되, 배장묘는 현재 확인되는 바로는 전부 여성인 배치 방식이 된다. 즉 초대형 남성묘인 주분에 여성묘인 배장분이 공간적으로 종속되는 양상이되, 주분들은 세대를 달리하면서 배치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연접분의 예에서처럼 봉토를 공유하면서 연접하는 일이 없고 별도의 공간에 위치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착장 이식에서 보면, 봉황대의 가장 종속분인 금관총과 서봉화

101) 천마총의 피장자가 60대 남성으로 잘못 알려진 바 있어 이에 대해 정정한다. 천마총 피장자에 대해서 “관 내부에서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의 인골이 검출되었다(이한상 2004: 68).”는 언급이 있지만, 천마총 출토유물 총괄표에도 인골이 없고, 본문 중에서도 “... 따라서 遺骨의 一部만이라도 檢出되었다면 體軀의 크기를 알아보는 데 決定的 役割을 해주었겠지만 遺骨의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狀況에서는 오직 裝身具類의 出土狀態만으로 體軀의 대략 크기와 安葬狀態를 推定하여 보는 길 밖에 없었다.”(文化財管理局 1977: 77)라고 언급되어 있어 피장자 인골은 확인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이는 아마도 황남대총 남분 피장자의 분석 결과(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94)와 혼동한 것이었겠지만, 최근의 피장자 성별 관련 언급에서 착오가 반복 인용되고 있어, 정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져 상술해 둔다.

대의 가장 큰 종속분인 서봉총 모두 태환군으로, 황남대총에서와 같이 세환군과 태환군이 짝을 이루는 양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연접분인 황남대총과 다르게 봉황대와 서봉황대에서는 연접이 이루어지지 않아 짝을 이루는 고분간의 관계가 서로 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최근 재조사된 황오동 16호 A봉토와 D,C,E 봉토의 관계에서 보듯이, 근접한 봉토라 하더라도 일부러 연접시키지 않고, 후축분의 봉토를 후퇴시켜서라도 호석을 맞게 해서 연접을 피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장자 간 특정한 관계가 성립해야만 연접을 시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그러한 바 남북분의 관계는 다른 주분-종속분의 관계와는 성격이 달랐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주분의 피장자와 배장분의 피장자 간의 관계는 어떤 성격의 것이었을까? 이러한 군집은 직계 가족이나 친족 등 혈연집단으로 해석되어 왔고, 이러한 가족묘 가설은 여전히 유력한 안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표형분 모두를 부부묘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고, 주분-배장분의 전반적인 성비 불균형으로 판단하건대, 연접축조에서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현대적인 의미의 핵가족적 가족구성을 고분군에 그대로 표현하였다는 생각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수의 여성묘가 단독의 남성묘에 종속된 양상으로 볼 때 주분 피장자의 처첩 등 생전의 배우자 집단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령총에서 보다시피 대략 10세 미만의 아동 피장자도 확인되므로 전부를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배우자를 포함하여 주분의 피장자와 관련이 있는 동세대 혹은 차세대의 여성 친족·인척 집단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양상은 앞서 본 연접축조 양상과 비교해 볼 때, 성별에 따라 군집화를 이루는 양상이 대조되는 면이 있어 특징적이다. 남성묘는 주로 세대 내에서는 연접축조를 통해 군집화를 이루고 세대를 달리 해서는 다른 지점에서 축조가 되는 양상이고, 반대로 여성묘의 경우 연접축조에서는 다수의 군집을 이루는 경우가 뚜렷히 제한되어 있고, 대신에 주분에 종속되어 주변에 배치하는 군집화를 이루는 양상이다. 물론 이는 현재 자료 내에서의 비교이기에 한계가 있다. 연접축조는 주로 왕릉군 동쪽의 적석목곽묘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소군집화는 왕릉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서로 위계가 달라 일반화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왕릉군을 중심으로 하여 소군집화 양상에 대해 살펴 보았다. 검토 결과 남성묘인 주분을 중심으로 하여 다수의 여성묘가 종속분으로 배치되는 양상이었다. 다만 남성묘 주분 - 여성묘 종속분의 종속관계가 적석목곽묘 전반을 지배하는 방식이라 볼 수는 없다. 최근 조사중인 쪽샘지구에서도 여성묘가 주분인 황오동 44호¹⁰²⁾ 주변에 다수의 종속분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피장자의 성격을 토대로 하여 신라 고분의 군집화 원리를 밝히고자 수행한 일련의 추론 끝에, 한정적이거나 왕릉군의 소군집화 방식에 대해 접근하고자 하였다. 무리한 추정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까지 축적된 적석목곽묘의 조사 성과는 그 양과 질에서 무시할 수 없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추정이라면 최소한의 신빙성은 확보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102) 아직 전모가 발굴된 것은 아니나, 지상적석식이고 단곽식이기 때문에 두상부 부장단독곽(2C식)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여성으로 볼 수 있으며, 봉토 크기(26m)로 보아 본고의 B, C군에 해당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동일 계서의 출토 경향을 볼 때 천을 착장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3. 소결 : 연접축조 및 소군집화의 양상과 피장자

지금까지 피장자의 성격을 통해 연접분의 제 양상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표형분을 비롯한 연접분 대부분이 하나의 성별로 구성되어 부부묘나 핵가족적 가족 구성으로 한정시킬 수 없음이 확인되었고, 오히려 남성묘와 여성묘가 각각 별도의 연접을 이루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그리고 남성묘와 여성묘가 함께 연접되는 경우는 마지막에 여성묘가 축조되면서 연접이 중단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종래에는 이러한 현상을 묘곽 형식의 시간적 변화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주부곽식에서 두부부장의 단독곽식, 다시 말해 유부곽식에서 무부곽식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모든 무부곽식이 모든 유부곽식보다 이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은 시간적인 변동에 의해서가 아닌 연접분의 축조에 있어 모종의 선택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울러 연접분 피장자들의 착장 이식을 살펴보면, 주로 세환군이 우세한 가운데 자유롭게 구성된 듯 보이지만, 태환군과 태환군이 연달아 축조된 연접분은 존재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는 연접에 있어 특정한 피장자를 기피하도록 하는 규범이 존재하였음을 강하게 암시함과 동시에, 후축분의 조묘자가 선축분 피장자의 착장 이식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그들이 그만큼 가까운 사회적 관계망 내에 있었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자료의 성격 상 이처럼 특정한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표형분이 부부묘가 아니라면 양자 간의 관계는 무엇이며, 연접분의 피장자들이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지는 추정이 어렵다. 하지만 연접분 피장자의 압도적 다수는 남성이고, 이들이(혹은 이들을 묻은 조묘자가) 분묘의 연접관계를 통해 피장자 간의 어떤 관계를 강조하고자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관계인지 정확한 성격을 알기는 어려우나, 연접분의 대다수가 한 두 단계 이내의 시간적 차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수 세대에 걸친 혈연관계

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고, 그러한 만큼 동세대나 두 세대 정도에 준하는 인척 관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적석목곽묘의 연접축조는 누대에 걸친 혈연을 표현한 것이 아닌 점에서, 세대가 다른 피장자는 지점을 달리하여 축조를 이어나갔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세대마다 지점을 달리하는 방식은 왕릉군의 고분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신라 고분의 조묘자들이 연접축조를 통해 표현하고자 한 것은, 부부관계나 전통적인 이해처럼 현대적인 의미의 부모-자식으로 이루어진 핵가족적 가족구성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친족·인척관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왕릉군의 군집화에 대하여 검토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군집 전체가 조사된 사례가 아직 없어 많은 부분 추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먼저 봉토의 규모를 토대로 계서를 추정하여 초대형묘인 봉황대와 서봉황대에 A군에 속하는 피장자가 묻혔다고 추정하였다. 또한 이들은 여러 연구자에 의해 왕묘일 것으로 추정되어, 남성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었고, 남성 중에서 A군의 피장자는 태환이식을 착장한 예가 없었으므로 세환이식을 착장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지금까지 조사된 왕릉군의 종속분은 예외 없이 모두 여성이므로, 왕릉군의 군집화는 황남대총 남분, 봉황대, 서봉황대 등 남성 세환군 피장자를 중심으로 여성 피장자가 그 주변의 종속분에 입지하는 양상으로 추정되었다. 성비의 불균형으로 보았을 때 이는 핵가족적 가족 구성이라 보기 어려우며, 아마도 배우자를 포함하여 주부의 피장자와 관련이 있는 동세대 혹은 차세대의 여성 친족·인척 집단일 것으로 추정된다.

현 자료로 볼 때 황남대총 남북분 이래 적석목곽묘 조영 기간 내내 연접축조와 군집화 양상에서는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그 반복성에서 볼 때 고분의 연접 및 군집화와 관련하여 일관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판단된다. 피장자의 성별이나 착장 이식, 계서 등에 따라 묘곽 형식과 제반 부장양상이 결정되는 바와 마찬가지로, 유구의 배치에 있어서도 일정한 조묘자에 의한 일관된 선택의 경향이 존재하며 여러 세대에 걸쳐 그것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피장자의 성격이 경주지역의 적석목곽묘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였는데, 그렇다면 경주 외 지방의 신라 고분에서는 피장자의 성격이 어떻게 표현되고 고분의 구성과 관련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피장자의 성격이 표현됨에 있어 특정한 방식이 공유되는지 혹은 차별화되는지에 따라 신라 엘리트의 구조와 성격에 대해 함의하는 바가 클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VI. 지방 고분 피장자의 성격과 고분 구성

신라의 중심인 경주의 엘리트들이 사용한 묘제는 적석목곽묘였다. 하지만 경산, 양산, 대구, 창녕, 성주, 의성, 강릉 등 고충기 신라의 다른 지방 중심지의 엘리트들은 적석목곽묘가 아닌 암광목곽묘, 횡구석석실묘, 수혈식 석곽묘, 위석식목곽묘 등 다른 묘제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지방 고분 피장자들의 성격은 어떻게 표현되고 고분 구성과 연관되었는가? 이에 대한 답은 신라 엘리트의 구조와 분화, 그리고 고충기 신라의 중앙-지방 관계에 대해 새로운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실마리를 줄 수 있다. 만약 피장자의 성별, 착장 이식, 계서와 같은 측면이 적석목곽묘와 완전히 동일하고, 그에 따른 유물과 유구의 구성 방식도 거의 유사하거나 같다면, 다시 말해서 무덤에서 피장자 성격의 표현 방식이 동일하다면, 경주와 지방의 엘리트들이 동일한 복식제도부터 시작해서 장례의례의 구체적 규범까지 공유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엘리트의 조직 방식, 더 나아가 내세관과 종교까지 공유하였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한편 적석목곽묘의 피장자는 성별과 착장 이식에 따라서 크게 4개의 집단으로 분리되었고, 착장위세품을 시작으로 각 집단마다 서로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또 묘곽 형식과 토기는 성별에 따라, 철기는 착장 이식에 따라 부장양상이 달라졌고, 계서에 따라서도 양과 종류에 차등화가 있었으며 무덤의 배치에 있어서도 그러하였다. 적석목곽묘가 이처럼 피장자를 중심으로 하여 일련의 구성 방식을 공유하고 있었다면, 고충기의 지방 고분에서도 그러한 정형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고충기 낙동강 이동 영남 각지의 고분에는 유물과 유구의 양식적 측면에서 다양한 수준의 지역성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놓고 논란이 있다. 따라서 피장자의 성격과 그를 중심으로 한 고분의 구성 방식에 대한 검토는 경주의 엘리트와 지방 엘리트의 관계, 혹은 지방 엘리트의 정치적 성격에 대해, 유물과 유구의 양식적 측면과는 다른 성격의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장에서는 적석목곽묘와 비교하여 지방 고분의 피장자 성격 표현을 검토한다. 먼저 1절에서는 경주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방 고분 피장자의 성별에 대해 묘곽 형식을 중심으로 다룰 것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주와 달리 지방에서는 묘곽 형식과 성별 간의 정형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피장자 성격의 표현에 있어서 적어도 성별은 경주와 지방 간에 차이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측면, 즉 착장 이식에 있어서는 어떠한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2절과 3절에서 위세품과 토기 및 철기의 부장양상을 검토하고, 4절에서 유구의 연접양상을 다루었다. 지방 고분에서는 피장자 집단의 성별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경주의 적석목곽묘에서 실시한 분석과 같은 수준의 세부적인 검토는 어렵다. 당장 계서에 대한 세분된 검토를 위해서 성별과 착장 이식에 따라 피장자 집단을 상세히 구분하는 것도 불가하다.

하지만 착장 이식을 중심으로 해서 경주와 지방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루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번 장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1. 지방 고분 피장자의 성별

본격적인 지방 고분의 사례를 검토하기 전에 앞서, 먼저 지방에서 확인된 적석목곽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적석목곽묘는 경주 일원에만 한정된 분포를 보인다. 이처럼 지역적 특정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경주 외의 지방에서는 상부적석이 이루어진 적석목곽묘의 사례는 극소수이며, 현재 대부분의 연구자가 동의하는 지방 적석목곽묘의 사례는 창녕 교동 12호가 사실상 유일한 듯하다.¹⁰³⁾ 교동 12호의 피장자는 경주의 왕경귀족이되 지방으로 파견되었거나(崔秉鉉 1992), 혹은 혼인 등의 사유로

103) 교동 12호를 적석목곽묘가 아니라 석곽묘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洪潛植 2011), 보고 당시 자료를 검토하여 상부적석이 이뤄진 적석목곽묘로 본 종래의 견해(崔秉鉉 1992: 112-113)에 더해, 심현철(2013b)의 재검토와 최근의 재발굴 결과를 참조할 때(우리文化財研究院 2014), 적석목곽묘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그림 44〉 창녕 교동 12호 매장주체부 실측도(國立中央博物館 1998)

창녕에 이주하였을 것이되, 경주지역 적석목곽묘의 축조공정을 그대로 재현하였다는 점에서 묘제의 수용·모방이 아니라 적석목곽묘의 축조원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경주 출신 축조 공인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심현철 2013b). 여기에 더해 주목되는 것은, 교동 12호의 피장자는 천을 착장하였으되,¹⁰⁴⁾ 묘곽 형식은 두부부장단독곽이라는 것으로(그림 44 참조), 앞서 본 적석목곽묘의 묘곽 형식에 따른 천 착장 양상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비록 한 사례뿐이기는 하지만, 적석목곽묘는 지방에서 축조되었다 하더라도 경주지역에서와 같이 피장자 성별과 묘곽 형식 간의 연관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처럼 피장자의 출신 지역 정체성이 사망하여 매장된 곳에서 무덤의 형식과 구체적인 매장 방식을 통해 유지·표현된다는 점은 대단히 독특한 양상이며 당시 신라 장례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묘제를 비롯한 장례의 세부적인 내용이 당시 엘리트들에게 있어서 문화적·지역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한 수단이거나 그렇게 하도록 강제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제 지방 고분의 피장자 성별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고고학적 특징이

104) 따라서 피장자 성별은 여성이며, 이 천의 계측치는 외경만 알려졌기 때문에, 앞 절에서 실시한 계측치 분석에서 외경-내경 사이의 회귀분석에서 활용되었다.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지방 고분의 천 출토 사례를 일별하면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9> 지방 고분의 천 착장 사례

연 번	출토 고분	착장자	묘제	유물배치	부곽 존재여부
1	달성 문산리 II지구 M2-2호: 1점	주피장자	수혈식석곽	두상부, 족하부에 부장군(目자형 배치)	
2	의성 대리리 47-1호: 1점	순장자	위석목곽	-	-
3	경산 임당 7A호: 2점	순장자?	암광목곽	-	-
4	강릉 초당동 6호: 1점	주피장자	석곽	부장유물 없음	없음
5	양산 금조총: 2점	주피장자	횡구식석실	측두부 부장	없음
6	양산 부부총: 4점	주피장자	횡구식석실	두상부부장, 족하부순장	없음
7	창녕 교동7호분: 4점	주피장자	횡구식석곽	불명(도굴)	불명
8	창녕 계성 A지구 1호분 제1관: 2점	주피장자	횡구식석곽	두상부에 토기 소량	없음
9	창녕 계성III지구1호분: 2점	주피장자	횡구식석곽	추가장으로 불명	불명
10	창녕 계성II지구1호분: 4점	주피장자	횡구식석실	추가장으로 불명	불명
11	창녕 교동11호분: 1점	주피장자	횡구식석곽?	불명(미보고)	불명
12	창녕 교동12호분: 1점	주피장자	적석목곽	두상부 주부장군	없음
13	창녕 교동고분군출토 (유구미상):8점 ¹⁰⁵⁾	주피장자?	불명	불명(미보고)	불명
14	충주 단월동 5호: 2점	주피장자	횡혈식석실	유물없음 (고구려 고분 가능성)	없음

지방의 천 출토 사례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창녕과 양산 지역에 다소 집중된다는 점, 그리고 횡구식석곽이나 석실 등에서 출토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묘제는 처음부터 그러한 것은 아니었지만 점차 추가장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경산 임당 5A호와 같은 경우 석실이지만 추가장이 실시되지는 않았으며, 계성 III-1호분의 경우, 창녕지역 종래의 目자형 공간구조를 갖는 점에서 처음부터 추가장을 의도하고 축조된 것으로

105) 유구미상 창녕교동고분군 출토 천은 창녕 고분군의 유리건판 사진집 소판 180298에 제시된 은제 천 8점을 말한다(國立金海博物館 2015: 71). 돌기나 장식이 없는 소문의 아주 단순한 것으로 창녕 지역의 다른 천 보다 시기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어느 고분에서 출토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 위에 다시 관대가 시설되고 추가장이 이뤄진 사례가 있고, 다음 단계에서는 묘제가 추가장을 의도한 횡구식석실로 전환된다(김용성 2011a). 여러 사례로 보아 석실과 횡구식석실이 처음부터 추가장을 기획한 상태에서 도입·축조된 것은 아니었으며, 점차 추가장을 목적으로 변화한 정황은 뚜렷하다.

주지하다시피 추가장의 도입은 여러 변화를 수반하게 되는데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부장 유물이 크게 줄면서 별도의 부장품 배치 공간을 마련한다는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본격적인 석실 축조 단계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부곽 개념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표 29>에서 보다시피, 양산과 창녕 등 지방 고분 중에서도 늦은 시기 횡구식 계열의 묘제나 석실 등 추가장이 행해진 곳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지역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성별과 묘곽 형식, 즉 부곽 존재 여부의 연관성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그와는 다른 별도의 매장 방식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가 매우 곤란하여 문제가 된다.

따라서 매우 한정적인 정보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데, 단서가 되는 것은 최근 재조사된 교동 7호분이다(우리文化財研究院 2014). 이 경우 매장주체부의 밀봉 양상이나 봉토의 상황으로 보아 추가장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교동 일대의 고분군과 부분적인 조사 당시 사진으로 7호분의 부장양상을 복원한 안에 따르면(최순정 2015), 7호분의 부장 양상은 두상부 부장군 - 시신 안치부 - 족하부 부장군 및 순장부 식으로 소위 목자형 구조를 갖는 것으로, 피장자의 족하부에 부곽에 해당하는 부장부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정확한 출토 정황이 알려지지 않은 7호분 출토 천이 주피장자의 착장품이 과연 맞는지의 문제가 남지만, 창녕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에는 부곽의 존재 여부와 성별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인골자료가 비교적 양호하게 축적된 경산 임당 고분군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들이 관찰되는데, 황남대총 북분과 비슷한 시기로 볼 수 있는 조영 CI-2호의 피장자는 여성으로 동정되었지만 주부곽식이고, 임당 5B2호의 경우에도 동혈주부곽식이지만 피장자는 여성으로 동정되었다. 반면 부곽이 존

재하지 않은 임당 6A호의 경우 남성으로 동정되어, 임당 지역에는 성별과 부곽의 설치 여부 간에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적석목곽묘를 묘제로 채택하지 않은, 혹은 채택할 수 없었던 지방에서는 적석목곽묘에서 나타난 성별과 부곽 간의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경주와 지방의 엘리트들이 서로 다른 묘제를 사용함에 따라 일정 부분에서는 서로 다른 장례 방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와 관련하여 참고가 되는 것이 월성북고분군에서 비적석목곽묘일 가능성이 있는 황오동 34호 3곽의 예로, 상부적석의 부재, 관식부 모관의 착장, 부곽이 설치되었지만 피장자는 천을 착장한 것 등 여러 면에서 경주지역의 적석목곽묘와는 다른 양상이며, 오히려 지방 고분과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3곽의 피장자는 경주에 묻힌 지방 출신의 여성일 가능성이 있으며, 창녕 교동 12호와 대칭을 이루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요컨대 경주의 적석목곽묘와 지방의 여타 묘제 고분은 묘제뿐만 아니라 착장 위세품의 착장 규정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교동 12호와 황오동 34호 3곽은 이러한 규정을 각각 다른 지역에서 따른 예로 여겨진다. 이러한 사례가 얼마나 일반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장례를 치른 지역보다 출신 지역의 정체성에 따라 장례 규범이 결정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출신 지역 또한 신라권 전반에서 볼 때 피장자의 성격 중에서 중요한 요소였음을 잘 보여준다.

이상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적석목곽묘가 아닌 지방 고분의 피장자들은 천의 착장 여부와 부곽의 설치 여부 간에 뚜렷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경주지역과 명백한 차이를 보인다. 그렇기에 인골이 잔존하지 않거나 천을 착장하지 않은 지방 고분 피장자의 성별 추정은 현재 방법론으로는 사실상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차후 분석에 제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수의 예외적 사례를 통해 추론할 때 피장자의 출신 지역에 따라서 묘제 및 착장위세품의 착장 규정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의 표현이 경주와 지방에서 이렇게 다르다면, 다음 절에서는 지방 고분 피장자의 착장위세품 구성에 대해 살펴본다.

2. 위세품의 구성

착장위세품은 적석목곽묘에서와 마찬가지로 구분 기준을 가지고 분류하고, 무구와 마구의 출토 여부도 함께 검토하일 것이다. 경주와 지방의 착장위세품 부장 양상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그 차이점이 일부 드러난 바 있는데, 특히 관류의 착장 또는 부장에 있어 상당히 다른 양상이라는 점이다(李熙濬 2002: 86). 특히 금속제 관모와 관식의 착장은 지방의 고분에서만 확인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고, 지방의 위계가 중앙보다 낮다는 점, 전반적인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점 또한 지적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착장위세품 뿐만 아니라 무구와 마구까지 포함하여 지방 고분의 위세품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1) 착장위세품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발굴된 모든 지방 고분을 종합할 필요가 있다. 다만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일정 위계 이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석목곽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착장위세품이 2점 이상 출토된 고분으로 한정하였다. 1점만 출토된 고분은 대부분이 이식만 착장한 경우이므로 전반적인 양상의 검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신라 고분은 대구, 경산, 창녕, 양산, 의성, 성주, 강릉 등에서 69기로, 이를 종합한 결과는 <표 30>에서 보는 바와 같다. 지방의 고분은 도굴분이 많지만 대부분 80년대 이후 발굴되면서 물체질 등 철저한 검토를 통해 착장위세품의 출토 여부가 자세히 확인된 경우 또한 많아, 전반적인 출토 양상을 파악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잘 알려진 대로 지방의 피장자 또한 세환이식과 태환이식 둘 중 하나만을 착장하며, 그에 따라 경주와 마찬가지로 세환군과 태환군으로 나뉘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굴 등으로 착장 이식이 불분명한 12기를 제외하고 57기에 대한 착장위세품 공반 상황을 월성북고분군의 적석목곽묘와 비교하면 <그림 4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여기서 적석목곽묘의 경우 앞서 V장의

〈표 30〉 지방 고분 출토 착장위세품과 공반 무구류, 마구류

연번	유구명	지역	착장유물										비고	무구류		마구류					
			관식	관모	세환 이식	장식 대도	대장 식구	대관	경식	지환	천	중공구 곡옥		태환 이식	성식 구	갑주	등자	재갈	안교	운주	행엽
1	대리리 3 호	의성			w	w									○	-	-	○	-	-	-
2	대리리 46-4 호	의성			w	w									-	-	○	○	-	-	-
3	교동주차장부지 ¹⁰⁶⁾	창녕				w	w							도굴	○	?	○	○	○	○	?
4	초당동 A-1 호	강릉	u		w	w	u								○	-	○	○	○	○	○
5	대리리 7 호	의성	w		w										-	-	-	-	-	○	-
6	대리리 46-1 호	의성	w		w	w									○	-	○	○	○	-	○
7	달성 37 호 2 락	대구	p	p	p	p	p*							식리	○	-	○	○	○	-	○
8	달성 34 호 1 락	대구	p	p	w	w	w								?	○	○	○	○	○	○
9	황상동 1 호	대구	p		w		w							식리	○	-	○	-	○	-	○
10	화원성산 1 호	대구	w	w	w	p	w							도굴	○	?	○	○	?	○	○
11	성산동 1 호	성주	w		w	w	w								○	-	-	-	-	-	-
12	대리리 46-2 호	의성	w		w	w	w								○	-	○	○	-	○	○
13	대리리 49-1 호	의성	w		w	w	w								○	-	○	○	○	○	○
14	달성 51 호 2 락	대구	p		p	p	p							식리	-	-	-	○	○	○	○
15	탐리Ⅱ 락	의성	w		w	w	w							식리	○	-	-	-	-	-	-
16	달성 59 호	대구	p		p	p	p							도굴	○	?	?	?	○	○	○
17	교동 1 호(동아대)	창녕	p			p	p							도굴	○	?	○	○	-	○	○
18	교동 89 호	창녕	p	p	p		p		p					식리	○	○	○	○	○	○	○
19	계남 1 호	창녕	p		w	w	w	p							○	-	○	○	-	○	○
20	북정리 8 호	양산			p	p	p*								-	-	○	○	-	-	-
21	성산동 57 호	성주			w	w	w*								-	-	○	○	○	-	○
22	대리리 3 호 2 락	의성			w	w	w	u							○	-	○	○	○	○	○
23	조영 EI-2 호	경산			w	w	w							도굴	○	?	○	○	?	○	○
24	태화동 7 호	안동			w	w	w								○	-	○	○	○	○	○
25	대리리 2 호 B-1 호	의성			p	p	p							식리	-	-	○	-	-	-	-
26	문산 3-2 호	대구			p	p	p							도굴	○	○	○	?	?	○	○
27	대리리 49-2 호	의성			w		w								-	-	○	○	○	-	○
28	탐리Ⅲ 락	의성	w		w	u	w		w						○	-	-	-	-	-	-
29	조영 EII-1	경산	p		p	p	p			p				도굴	?	?	○	○	○	○	○
30	임당 7B 호	경산	p		p	p	p	p	p					도굴	○	○	○	○	?	○	○
31	문산 4-1 호	대구	u	u		p	p							도굴	○	?	○	○	?	?	?
32	대리리 2 호 A-1 ¹⁰⁷⁾	의성			w			w							-	-	○	○	○	○	○
33	임당 6A 호	경산		p	p	p	p	p	p					도굴	○	○	○	○	○	○	○
34	양산부부(주인)	양산	w	w	w	u	w	w	w	w				식리	○	-	○	○	○	○	○
35	문산 3-4 호	대구			w	u		u	p					도굴	?	?	?	○	?	?	○
36	조영 CII-2 호	경산			w	w			w						○	○	○	○	○	-	○
37	조영 CI-1 호	경산	u		w	w	w		w						○	-	○	○	○	○	○
38	임당 2 복호	경산		p		p	p	p	p					도굴	○	?	○	○	○	○	○
39	문산 2 호	대구				p		p						도굴	?	?	?	○	?	?	○
40	볼로 91 호 3 락	대구			w				w					도굴	?	?	?	○	?	?	?
41	조영 EI-1 호	경산	p		w	w	w*		w	w					○	○	○	○	○	○	○
42	임당 2 남호	경산			p		p	p	p	p				도굴	?	?	?	?	?	?	?
43	조영 EIII-2 호	경산				p	p	p	p	p				도굴	-	○	○	○	○	-	○
44	교동 7 호 ¹⁰⁸⁾	창녕			p	p	p	p	p	p	p			식리	-	-	○	○	○	○	○
45	탐리Ⅰ 락 ¹⁰⁹⁾	의성			w		w	w	w			w			-	-	-	-	-	-	-
46	북정리 21(금조총) ¹¹⁰⁾	양산					w	w	w		w	u	u		-	-	-	-	-	-	-

연번	유구명	지역	착장유물											비고	무구류		마구류				
			관식	관모	세환 이식	장식 대도	대장 식구	대관	경식	지환	천	중공구 곡옥	태환 이식		성시 구	갑주	등자	재갈	안교	운주	행엽
47	계남북 5 호동구역	창녕					p	p					p	약보고	-	-	-	-	o	-	-
48	달성 50 호 2 광 ¹¹¹⁾	대구				w							w		-	-	-	o	-	o	o
49	임당 5B1 주	경산					p	p	p	p			p	도굴	?	?	?	o	o	o	o
50	달성 37 호 1 광 ¹¹²⁾	대구				u	w	u	w				w		-	-	-	o	-	o	o
51	조영 EII-2 호 ¹¹³⁾	경산					w	w	w	w			w	w	-	-	-	o	o	o	o
52	양산부부총부인	양산	u	u			w		w		w		w		-	-	-	-	-	-	-
53	달성 55 호	대구	u	u		u	w	u	w				w	w	식리	-	-	o	o	o	o
54	임당 7C 호 ¹¹⁴⁾	경산						p	p	p			p	p		o	-	-	o	-	o
55	임당 7A 호	경산	u					w	w	p	w	w	w	곡옥수식	-	-	-	o	o	o	o
56	조영 EIII-3 호	경산						p	w				w	도굴	?	?	?	o	o	o	o
57	문산 1 호	대구						p					p	도굴	?	?	?	o	?	o	o
58	문산 3-1 호	대구						p					p	도굴	?	?	?	o	?	?	?
59	조영 CI-2 호	경산							w				p	도굴	?	?	?	o	o	o	o
60	조영 CII-1 호	경산						u	w				w	곡옥수식	-	-	-	o	-	-	o
61	볼로 91 호 2 광	대구							w				w	도굴	?	?	?	o	?	?	?
62	계성 II 구 1 호 1 차	창녕							w		w		w		-	-	-	-	-	-	-
63	조영 EIII-8 주	경산						u	w	p			w	w	-	-	-	o	-	-	o
64	초당동 A-2 호 ¹¹⁵⁾	강릉							w	w			p	w	-	-	-	-	-	-	-
65	초당동 B16 호	강릉				u		u	w				w		-	-	-	-	-	-	-
66	성산동 58 호	성주								w	w		w		-	-	-	o	-	-	o
67	화원성산 1 호 4 광	대구							w				w		-	-	-	o	-	-	-
68	대리리 46-5 호	의성							w				w		-	-	-	-	-	-	-
69	대리리 2 호 주변 2 호 ¹¹⁶⁾	의성						u					w		-	-	-	-	-	-	-

범례

① 착장유물

w : 착장 u : 비착장 p : 출토 여부만 확인됨 * : 역심형과대

② 무구·마구류

o : 출토되어 존재가 확인됨 - : 출토되지 않음 ? : 도굴 등으로 알 수 없음

- 106) 목 부분에서 관옥이 출토되었으나 일반적인 경식의 형태로 보기에는 어렵다.
- 107) 보고자는 대리리 2호 A-1 주광의 세환이식을 금동관의 수식으로 보았으나 여기에서는 착장한 이식으로 본다.
- 108) 달성 50호 2광의 대도는 부장인지 착장인지 불분명하며, 최근의 재보고(國立金海博物館 2015)에서는 관내 부장으로 보았다.
- 109) 착장 이식이 세환이식으로 보고되었으나, 만약 세환이식에 공반된 중공구라면 신라고분 전체에서 거의 유일한 예외가 되기 때문에, 초당동 A-2호와 마찬가지로 주환이 부식된 태환이식일 가능성이 크다.
- 110) 금조충에서는 태환이식이 2쌍 출토되었다. 이를 근거로 보고자는 추가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 두 번째 태환이식의 출토 위치로 볼 때 이는 두향을 주 피장자와 반대 방향으로 둔 순장자의 것이거나 미착장 부장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 111) 달성 50호 2광의 경우 이에 대한 선행연구(李熙濬 2000b)와 최근의 재보고에서

<그림 24>과 같은 자료이고, 미착장 부장은 제외한 것이다.

이를 간략히 검토해 보면, 기존에 알려진 대로 지방의 세환군에서 판식과 판모의 착장이 상당히 많이 관찰되는 것을 제외하면, 중앙과 지방에서 모두 출토 이식에 따라서 착장위세품의 공반 양상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이 가장 주목된다.

<그림 46>은 착장위세품의 공반 관계를 놓고 다차원척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로, 분석 결과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고 세환군과 태환군으로 양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그림 45>와 <그림 46>를 종합해서 볼 때, 전반적인 착장 경향에서는 공통적인 경향이 더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으며, 묘제와 지역의 차이 보다는 착장 이식에 의한 차이로 인한 복식 구성의 차이가 더 두드러지고,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세환이식과 대도가, 태환이식과 중공구 및 경식과 공반율이 높은 것은 물론이고, 착장위세품 별로 전반적인 출토율의 경향

대도를 착장한 것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지방 고분 중에서 유일한 태환군의 대도 착장예가 될 것인데, 출토 도면을 보면 착장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애매한 위치에서 출토되었다. 하지만 신라 고분 전반의 출토 경향을 볼 때에는 역시 미착장 부장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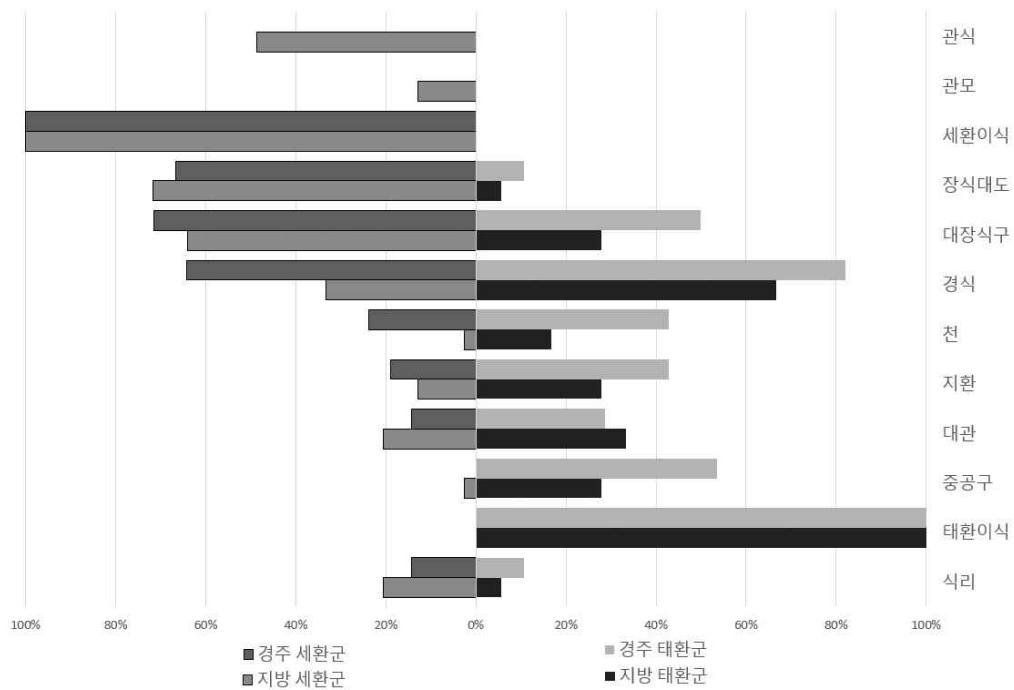
112) 달성 37호 1곽의 과대는 도면도, 사진도 없으나 기술이 매우 명확히 되어 있어 착장으로 본다.

113) 조영 EII-2호의 과대는 그간 미착장 부장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착장하였다(영남대학교박물관 2016).

114) 임당 7C호 부곽에서는 주연부 소편으로 보고된 성시구 파편이 있다. 그러나 이는 안교편일 가능성이 크다. 파편상태의 안교 내·외연금구와 성시구 주연부는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창녕 교동 3호분 발굴에서 지적된 바 있는데, 보고자는 주변의 공반 유물을 구분 기준으로 제시하여 다수의 철축이 주변에 공반한 경우를 성시구로 판단하고 있다(東亞大學校博物館 1992: 236). 이에 따라 임당 7C호 부곽의 경우 등자·행엽·운주·재갈 등 다른 마구류는 부장하였지만 안교는 출토되지 않았다는 점, 철축이 불과 3점 출토된 점 등에서 안교편으로 판단한다.

115) 초당동 A-2호에서는 태환이식의 주환이 부식되고 유환만 출토되었다. “2호 묘 출토품은 유환2개와 연결금구, 소환연접입방체의 중간식, 심엽형 수하식이 달려 있다. 원형은 태환이 부착된 것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태환은 출토되지 않았다.”(江原文化財研究院 2007: 169) 마찬가지로 세환이식에 중공구와 곡옥이 공반된 탑리 I곽도 실제로는 세환이식이 아니라 태환이식의 유환일 가능성이 있다.

116) 대관은 금동편 영락으로부터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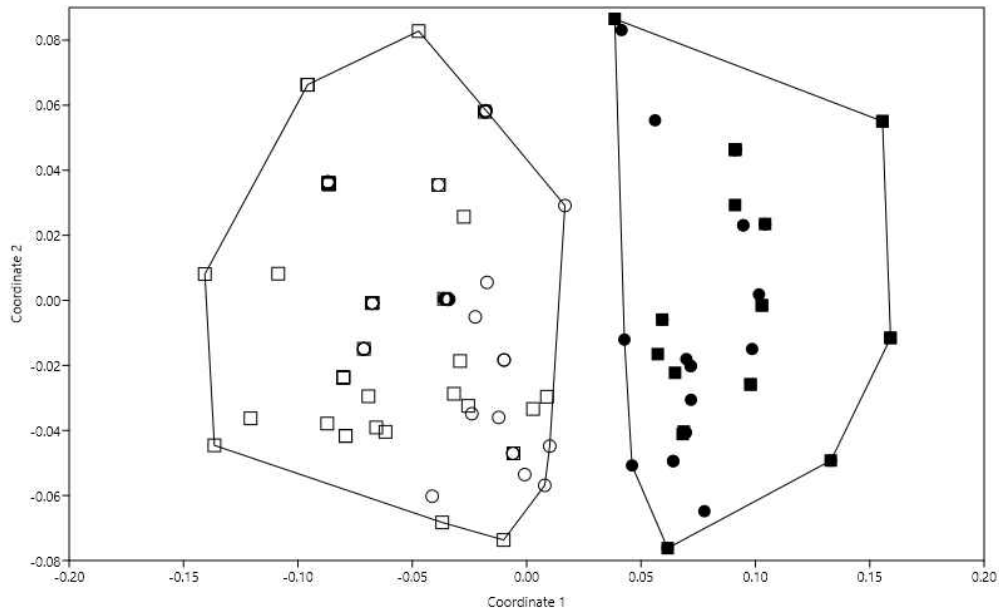


착장위세품 묘제, 복식군	관 식	관 모	세 환 이 식	장 식 대 도	대 장 식 구	경 식	천	지 환	대 관	중 공 구	태 환 이 식	식 리
경주 세환군 (n= 42)	0.0	0.0	100.0	66.7	71.4	64.3	23.8	19.0	16.7	0.0	0.0	14.3
지방 세환군 (n= 39)	48.7	12.8	100.0	74.4	64.1 117)	33.3	2.6	12.8	20.5	2.6	0.0	20.5
경주 태환군 (n= 28)	0.0	0.0	0.0	10.7	50.0	82.1	42.9	42.9	28.6	53.6	100.0	10.7
지방 태환군 (n= 18)	0.0	0.0	0.0	5.3	26.3	63.2	15.8	26.3	31.6	26.3	100.0	5.3

구분	유구 당 평균 착장위세품 수	세환군 평균 착장위세품 수	태환군 평균 착장위세품 수	유구 당 평균 미착장위세품 수
적석목곽 71기	3.9점	3.6점	4.1점	0.24점
비적석목곽 58기	3.6점	3.9점	3.0점	0.33점

<그림 45> 착장 이식이 분명한 월성 북고분군 적석목곽묘(70기)와 지방 고분(57기)의 복식군 별 착장위세품 출토율(%) 및 요약

117) 역심형과대를 착장한 5개 사례를 제외하고 투조과대만 대상으로 한 수치이며,



<그림 46> 착장 이식이 분명한 고분 128기의 착장위세품 구성의 Jaccard 상수에 의한 MDS 결과(적석목곽묘 70기, 지방 고분 58기. stress: 0.207)
(○: 경주 세환군, ●: 경주 태환군, □: 지방 세환군, ■: 지방 태환군)

성 또한 상당히 유사하다. 특히 세환군에서는 장식대도와 대장식구를 시작으로 해서 지환, 대관, 식리의 출토율까지 비슷한 수준이다. 태환군에서는 지방이 경주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출토율을 보이지만, 전반적인 높낮이에서는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

다만 경식과 천의 출토율은 모든 복식군에서 중앙이 지방보다 크게 높다. 반면 대관의 출토율은 지방이 약간 높은 편인데, 이는 대관의 경우 사여 보다는 지역 별로 모방제작이 많았다는 형식학적 검토(朴普鉉 1987)와, 고총기의 늦은 시기에는 (이식의 착장이 없는) 중소형 분묘에까지 대관의 부장이 확산된다는 지적(황중현 2011)을 고려할 때, 지방 단위에서 특히 늦은 시기에 자체 제작이 활발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렇기에 대리리 2호 A-1주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식과 대관만 착장한, 월성북고분군에서는 볼 수 없는

이들을 포함할 경우 83.9%로 적석목곽묘보다 높다.

조합이 존재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식이나 대장식구가 결여된 상태에서 대관을 착장하거나 부장한 사례가 확인된다.

착장위세품에 있어 지방 고분만의 특징을 더 살펴보면, 적석목곽묘에 비해 미착장 부장이 더 많다는 점이 주목되는데(그림 45의 하단 표), 역시 가장 많은 미착장 부장 사례를 보이는 것도 대관이다. 적석목곽묘에서 현재 대관의 미착장 부장 사례는 황오동 16호 2곽의 단 1례만 확인되고 있는 것에 반해,¹¹⁸⁾ 지방에서는 여기에 확인된 사례만 8례에 달한다. 이 또한 대관에 한해서는 지방제작이 많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경주와 비교하여 완전히 압도적인 공반 비율을 보이지 않는 점에서, 모든 피장자와 조묘자가 경쟁적으로 대관을 제작, 소유하였다기 보다는 착용자의 범위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이한상 2014: 198), 적석목곽묘 피장자 집단의 것과는 다르지만 그에 준하는 착장 규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구 당 평균 착장위세품의 출토 수량을 본다면, 경주에서는 70기에서 3.9점, 지방에서는 58기에서 3.6점으로¹¹⁹⁾ 결정적이라 할 만한 차이는 감지되지 않는다. 이는 천이나 경식의 부족이 그만큼 금속제 관모와 관식에서 보충이 이뤄진 결과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지방 고분의 위계가 보다 낮다고 보았으며(李熙濬 2002: 86-87), 경식과 천, 지환의 출토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될 여지는 충분하다. 다만 대관의 착장에서 정형성은 경주에 비해 떨어지지만, 이식-대장식구-관류로 이어지는 전반적인 계서는 지방에서도 대체로 유효하다고 여겨진다.

정리하자면 지방 고분의 세환군에서는 관식과 관모의 착장이, 태환군에서는 대관의 착장 규정, 그리고 경식과 천의 출토율이 낮은 점에서 경주지역과 다른 점이 확인된다. 하지만 그 외 다른 착장위세품에서는 출토 경향

118) 황오동 34호 3곽의 경우에도 대관의 부장 사례가 확인되는데,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고분은 적석목곽묘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119) 도굴분 26기를 제외할 경우에도 평균 3.6점으로 변화가 없다. 지면 관계상 생략하지만 전반적인 출토율에도 거의 변화가 없으며, 지방 고분의 착장위세품 분석에서 도굴분을 포함한 이유는 이처럼 포함하더라도 출토양상에는 큰 변화가 없으면서 더 많은 사례를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당히 유사하고, 특히 이식을 중심으로 해서 양분되는 양상은 공통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이식-대장식구-관류로 이어지는 누적적 구성은 동일하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착장위세품의 부장 양상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지역성은 없는지 살펴보면, 경식과 대도의 동시 착장에서 그러한 경향성이 드러난다. 지방 고분 중에서 양자를 동시 착장한 것이 확실한 사례는 5개 사례밖에 없는데, 모두 경산지역에서만 확인된다(임당 6A호, 임당 7B호, 조영 CI-1호, 조영 CII-2호, 조영 EI-1호). 양자가 함께 출토되었으나 대도를 미착장 부장한 사례는 대구, 의성, 양산, 강릉 등지에서 확인된다.¹²⁰⁾ 이는 69개 고분에 달하는 현재의 사례 수를 볼 때 우연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현상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월성북고분군 적석목곽묘에서는 대도와 경식의 동시 착장 사례가 많았으므로, 경식과 대도의 동시착장이 가능한 지역은 경주와 경산에 한정되는 셈이다. 또한 월성북고분군의 비적석목곽묘에서도 경식과 대도를 동시에 착장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¹²¹⁾ 이는 현재로써는 경주 지역의 엘리트들이 경산지역에 한해 모종의 예외로 인정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주지하다시피 경산지역에는 고총기 이전부터 경주식 목곽묘로 볼 수 있는 사례가 확인되기도 하고(조영 1B-60호), 고총기의 이른 시기에 적석목곽묘 계열로 여겨지기도 하는 묘제가 도입되기도 한다(임당 G-5, 6호, 조영 CII-2호). 특히 조영 CII-2호에서 신라 양식 토기가 부장된 사실은, 두 지역 간에 긴밀한 관계가 존재하였으며 그 연원은 고총기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정황을 보여준다(김용성 2009; 李熙濬 2004).

그러므로 대도와 경식의 공반 그 자체에 대한 의미의 해석은 어렵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경산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그러한 정치적 관계가 전

120) 경식과 대도의 공반에서 대도의 미착장 부장은 문산리 3-4호, 탑리 III곽, 양산 부부총(주인), 달성 37호 1곽, 달성 55호, 초당동 B16호 등에서 확인된다. 또한 임당 2북호, 조영 EIII-2호 등은 대도와 경식이 공반되었으나 도굴로 대도의 확실한 착장 여부는 알 수 없는데, 이 두 경우 또한 경산 지역이다.

121) 월성북고분군의 비적석목곽묘에서 경식과 대도가 동시에 출토된 것은 쪽샘 C9호 정도가 있다. 그러나 대도의 병부가 경식의 옆에 위치해 있어, 호우총이나 양산 부부총과 같이 피장자의 왼쪽 어깨 옆에 미착장 부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되어야 가능한 예외적인 현상으로 여겨지며, 모종의 동질성에 대한 인정이자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대우로 해석될 수 있다.

이상 지방 고분에서 나타나는 착장위세품의 출토 정형을 살펴본 결과, 기본적으로 세환군과 태환군으로 나뉘고 각 군에서 높은 공반율을 보이는 착장위세품이 서로 다른 양상은 동일하였다. 아울러 세환군의 관식·관모 착장 등 서로 다른 요소도 존재하였으며, 경산 지역의 예에서 보듯 착장 정형에서 지역 간 차별화가 있었던 정황 또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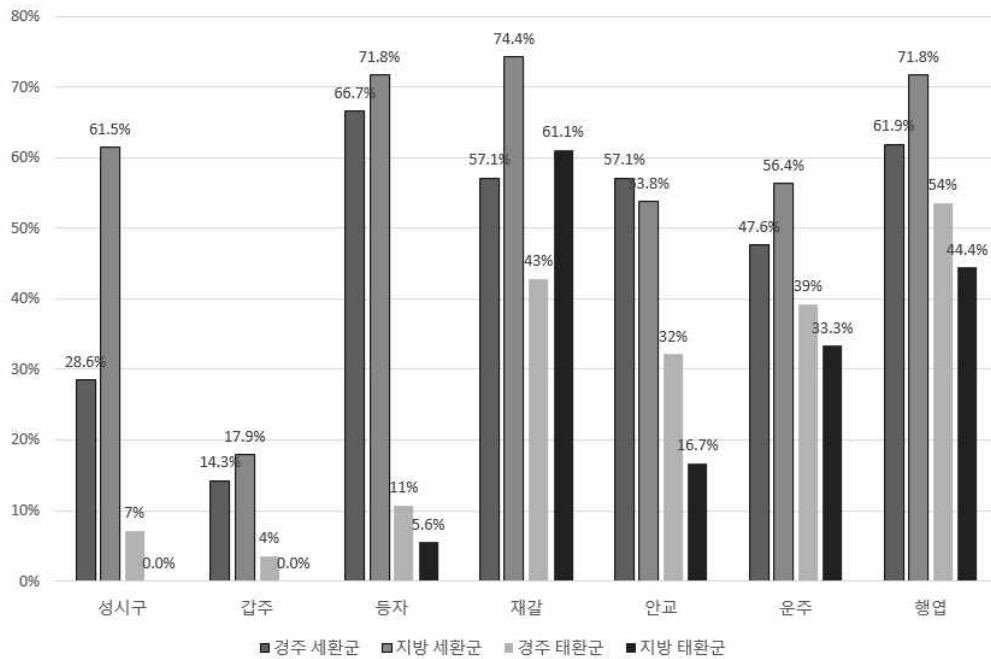
그렇다면 다른 종류의 위세품인 무구와 마구에서는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다음에서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 무구와 마구

경주지역의 적석목곽묘에서 무구와 마구의 부장은 성별보다는 착장 이식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성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특히 성시구와 갑주, 등자의 출토율이 극명하게 나뉘었다. 지방에서는 그러한 양상이 유지되는지, 혹은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지 검토하였으며, 도굴 등으로 무구와 마구의 출토 양상이 불분명한 지방 고분 11기를 제외하고 양자를 대조한 결과는 <그림 47>에서 보는 바와 같다.

비교 결과 가장 주목되는 것은 태환군에서 성시구와 갑주, 등자의 부장이 현격하게 제한된다는 점이다. 특히 지방의 태환군에서 성시구와 갑주가 부장된 사례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적석목곽묘에서는 금관총이나 황남대총 북분과 같은 극소수의 A군 고분에서 성시구 혹은 갑주가 부장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지방 고분의 태환군에서는 성시구와 갑주의 부장 사례가 전무한 것이다.

등자의 경우는 적석목곽묘 태환군에서 황남대총 북분과 금관총, 인왕동 20호 등 단 3기에서만 부장 사례가 존재하였다. 지방 고분의 태환군에서는 달성 55호 단 하나의 사례에서 등자 부장이 확인된다. 주지하다시피 달성 55호는 지방에서는 극히 드물게 금은제 용기가 부장되고, 미착장 상태이지만 관모와 관식, 대관이 동시 부장된 고분이다. 즉 착장위세품과 부장 내용



〈그림 47〉 경주지역 적석목곽묘(70기)와 지방 고분(47기)의 복식군 별
무구·마구 출토율 비교

으로 보아 지방의 고분 중 최상위 위계라 보아도 손색이 없으며, 경주에서 태환군의 성시구, 갑주, 등자의 부장이 최상위 위계 고분을 중심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동일한 맥락의 예외적 부장, 즉 최상위 위계 고분의 예외적 부장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세환군의 성시구, 갑주 부장은 지방에서 일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성시구의 출토율은 경주보다 오히려 두 배가 높다. 양자 모두 착장 이식이 분명하고 착장위제품이 2점 이상 출토된 고분만을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계서의 편중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며, 특정 부장품에 대해 지방 엘리트의 선호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마구의 경우, 재갈에 있어서는 지방의 세환군, 태환군이 경주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데, 반대로 안교의 경우에는 절반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크게 낮고, 운주와 행엽도 낮게 나타난다. 마구의 경우 지역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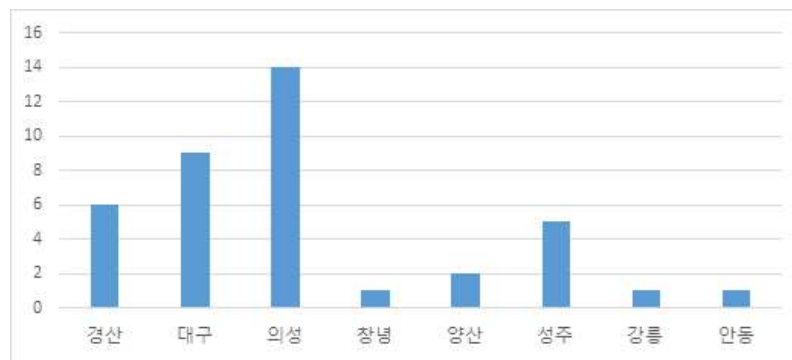
이 종종 관찰되어(김두철 2011b), 일부 금공위세품과 마찬가지로 지역제작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一襲을 이루는 방식으로 부장되기 보다는 태환군의 등자 결락에서 보다시피 경주와 마찬가지의 부장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무구와 마구의 부장에서는 종류에 따라서 경주와 지방 간에 출토율에 높낮이가 다른 점이 있지만, 태환군에서 성시구와 갑주, 등자를 부장하지 않는 점은 공통적이며, 이는 착장 이식을 중심으로 한 부장 방식의 공유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다(하대룡 2016). 예외라 할 수 있는 달성 55호 등자 부장의 경우, 황남대총 남분의 대관 착장(남성 세환군에서 예외), 금관총의 갑주 부장(태환군에서 예외), 황남대총 북분의 등자 부장(태환군에서 예외)과 동일한 맥락에서 일어난 상위위계 고분에서 나타나는 고의적인 부장 방식의 일탈이라는 점 또한 공통적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므로 부장 방식의 준수와 일탈에 있어 경주와 지방이 공통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같은 부장원리를 공유하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양상인 것이다.

이상으로 지방 고분의 위세품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보다 일반적인 부장품인 토기와 철기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능한 선에서 적석목곽묘와 비교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한다.

3. 토기와 철기의 구성

지방 고분의 토기와 철기의 구성에 있어서도 적석목곽묘와 마찬가지로의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① 착장 이식이 분명하되, ② 도굴되지 않은, ③ 전량 보고된 고분만을 선별하였다. 그 지역 별 숫자는 <그림 48>에서 보는 바와 같고 상세 내역은 <부표 3>에 정리하였으며, 총 39개 고분과 거기서 출토된 토기 2,913점과 토기 1,439점이 분석 대상이다.



<그림 48> 토기 및 철기의 부장양상 검토에 사용된 지방 고분의 지역별 분포(n=39)

선별 기준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고분의 숫자는 지역 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 수탈당하다시피 조사되고 적절한 재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도굴된 창녕지역에서는 고분군의 규모에 비해 검토 가능한 숫자가 매우 적다. 반면 최근 집중적인 조사 대상이 된 의성 지역에서는 분석 대상이 많다. 양산 지역에는 세 기가 검토 대상인데 늦은 시기의 횡구식석실 계열 묘제가 많은 만큼 유물의 부장량은 적은 편이다.

이처럼 분석 대상 고분 39기의 지역과 내용에서 편차가 크지만, 엄격한 선별 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부장 양상의 검토에 있어서는 그만큼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그 해석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지역 별로 보아서는 전체 고분군에서 소수의 무덤만이 분석 대상으로 선별되었기 때문에, 본 자료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곧바로 지역적 특수성이나 변

이로 보아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며, 또 그러한 변이를 확인하는 것이 본 분석의 목적은 아니라는 점이다.

1) 토기의 부장양상

적석목곽묘의 토기 분석에서는 성별에 따라서 기종의 구성과 부장비율이 크게 다른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연질조리용기로 통합하여 구분한 시루, 연질옹, 파수부호, 연질완은 반드시 부곽에만 부장되고 두상부부장군에서는 출토 사례가 없어서 남성묘에서만 출토되었다. 또한 고분 별로 가장 큰 변이를 보이는 이단고배, 일단고배, 개배의 부장 비율은 남성묘에서 이단고배가 다른 기종을 압도하고 여성묘에서는 일단고배와 개배의 부장비가 이단고배보다 높았다.

지방에서는 묘곽 형식을 통한 피장자의 성별 추정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구분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는지는 판단이 어렵다. 하지만 기종 구성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나마 접근해 볼 여지가 있다. 이 부분에서는 피장자의 성별과 연관지어 지방 고분의 토기 부장 양상이 적석목곽묘와 어떻게 같고 다른지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연질조리용기의 출토 여부

연질조리용기의 출토 여부를 검토하기에 앞서, 해당 기종의 지역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잘 알려져있다시피 신라 토기에는 양식적인 측면에서 지역성이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기종 구성에 있어서는 결락되는 기종이 없이 비교적 고루 부장되며, 지역적인 선호나 선별적인 기종 구성은 그리 강하게 감지되지 않는 편이다. 하지만 연질조리용기에 한해서는 출토 빈도에 있어서 지역적 편차가 강한 편인데, 가령 고분 출토 취사용기를 정리한 松永(2009)은 시루의 경우 신라권 내에서도 경주, 경산, 대구에 집중된다고 보았다. 다만 본고에서 확인한 바로는 해당 지역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의성과 강릉에서도 확인된다.

다만 부장 경향이나 빈도에서는 지역차가 인정되는데, 경산지역의 경우

연질조리용기의 부장 사례가 많아 중소형분묘에서도 시루와 연질옹이 세트를 이루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고, 문산리 고분군 등 대구 서부지역에서는 연질완이 10점 이상 다수 부장되는 사례가 있다. 반대로 창녕지역의 연질조리용기 출토는 상당히 드문 편이다.¹²²⁾ 즉 신라 토기의 적어도 일부 기종에 있어서는 지역적 선호나 선택에 있어 빈도의 차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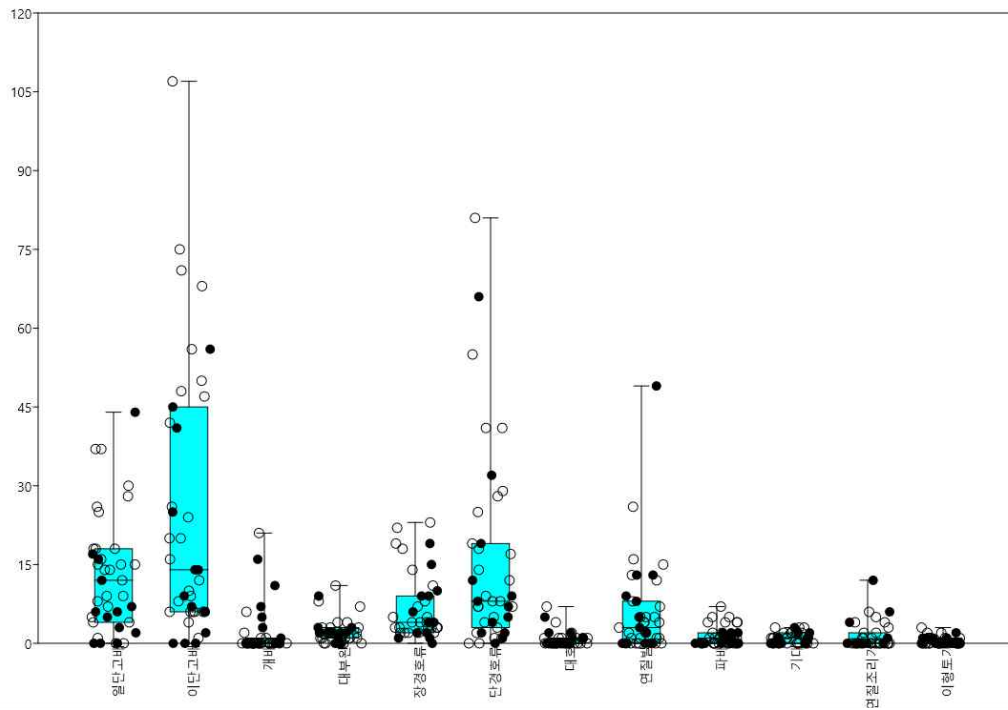
그렇다면 지방 고분에서 연질조리용기의 부장이 성별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자. 적석목곽묘에서는 남성묘의 부곽에서만 연질조리기가 출토되었기 때문에 이를 적석목곽묘 혹은 신라권 내의 성별표지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관련 자료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에도 그러한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주곽이 도굴되었기 때문에 본고의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된 조영 CI-2호의 주피장자 인골은 여성으로 동정된 바 있지만(영남대학교박물관 2013), 이 고분의 부곽에서는 시루와 연질옹이 출토되었다. 또한 월성북고분군의 수혈식석곽묘인 월성로 나-6호는 明자형 주부곽식이지만 여성인골이 출토되었고(國立慶州博物館 1990), 이 고분의 부곽에서도 시루가 출토되었다.

이는 신라 고분 전반으로 시야를 확대하여 보았을 때 연질조리기가 성별보다는 부곽 자체와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지방 고분에서는 성별에 상관 없이 부곽에 연질조리기를 부장한 사례가 확인되므로, 지방 고분을 포함하여 본다면 피장자가 남성이어서 이러한 기종을 부장한 것이 아니라, 부곽에 이 기종들을 부장하도록 하는 관습 내지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는 쪽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신라권 전체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피장자가 여성인 적석목곽묘에 부장되지 않은 이유는 부곽의 생략으로 인한 것이며, 성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122) 창녕 교동이나 송현동에서도 연질조리용기의 출토는 드문 편이다. 다만 약보고된 관계로 본고의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지만 교동 8호분에서 연질적색으로 소성된 파수부호가 출토된 경우가 있다(穴沢・馬目 1975: 43-44). 따라서 창녕 지역에서 연질조리용기의 제작과 부장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또한 부장은 아니지만 교동 4호 호석주변 옹관묘에 연질옹이 사용된 사례도 확인된다.

(2) 기종 구성과 배류의 부장 비율

경주지역 적석목곽묘에서는 피장자 성별에 따라서 배류의 부장비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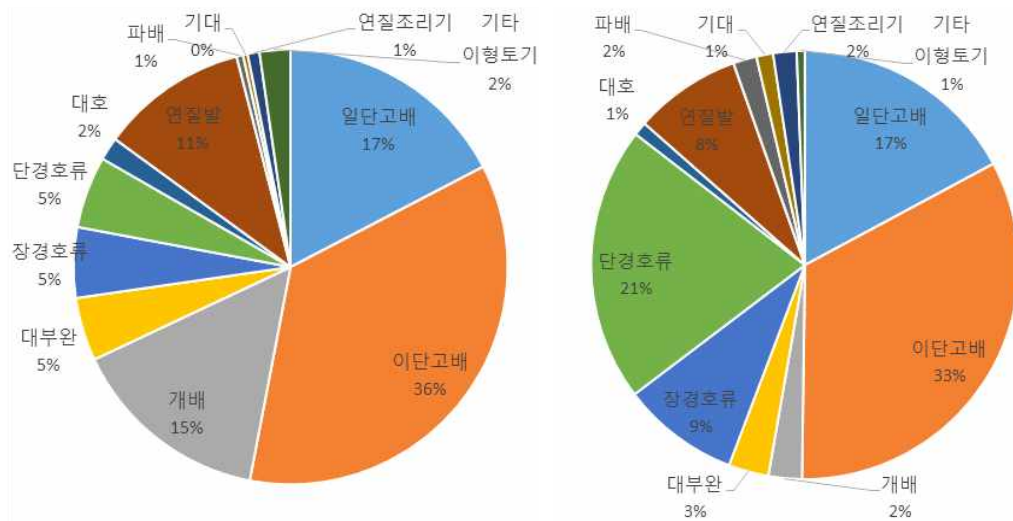


<그림 49> 지방 고분의 기종 별 출토 수량 box and jitter plot(n=39)

(○: 세환군, ●: 태환군)

큰 차이가 있었다. 지방 고분에서는 피장자 성별에 대한 접근이 어렵지만, 만약 공통적인 양상이 반복된다면, 혹여 이를 성별 추정의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방 고분의 배류 부장은 적석목곽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이러한 방식의 접근은 불가능하였다.

<그림 49>는 분석 대상 지방 고분의 기종 별 출토량을 종합한 것인데, 앞서 적석목곽묘에서 동일한 검토를 실시한 <그림 38>과 큰 차이가 감지된다. 지방의 개배 출토 사례와 수량이 적석목곽묘에 비해 크게 적고, 단정호



〈그림 50〉 적석목곽묘(좌, n=24, 토기 3,742점)와 지방 고분(우, n=39, 토기 2,931점)의 기종 구성

류의 부장량이 크게 우세여서 주요 기종의 하나라 할 만큼 많은 부장량을 보이는 점에서 그러하다. 양자의 부장 비율을 비교한 〈그림 50〉에서 보더라도, 다른 기종에서의 부장률은 대체로 $\pm 3\%$ 이내의 차이를 보이지만, 단경호류와 개배의 부장비만은 서로 크게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개배의 부장이 줄어든 만큼 단경호류의 부장이 늘어난 것이라 볼 수 있다. 개배와 단경호류는 그 형태에서 미루어 알 수 있듯이 용도상으로는 서로 호환이 어려운 기종이다. 토기의 부장이 결국은 음식의 부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는(이성주 2014), 이러한 기종 구성상의 차이는 결국 서로가 부장하고자 하였던 음식이나 음료의 차이로 해석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의례 방식이나 내용의 차이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단경호류를 다수 부장하는 방식은 특정 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대구, 경산, 의성, 성주 등 다수의 토기를 부장하는 지역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단경호류의 부장이 적은 것을 적석목곽묘의 묘제가 갖는 특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경주지역의 지역색으로 볼 것이냐 하면 후자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토기가 다수 부장된 월성북고분군의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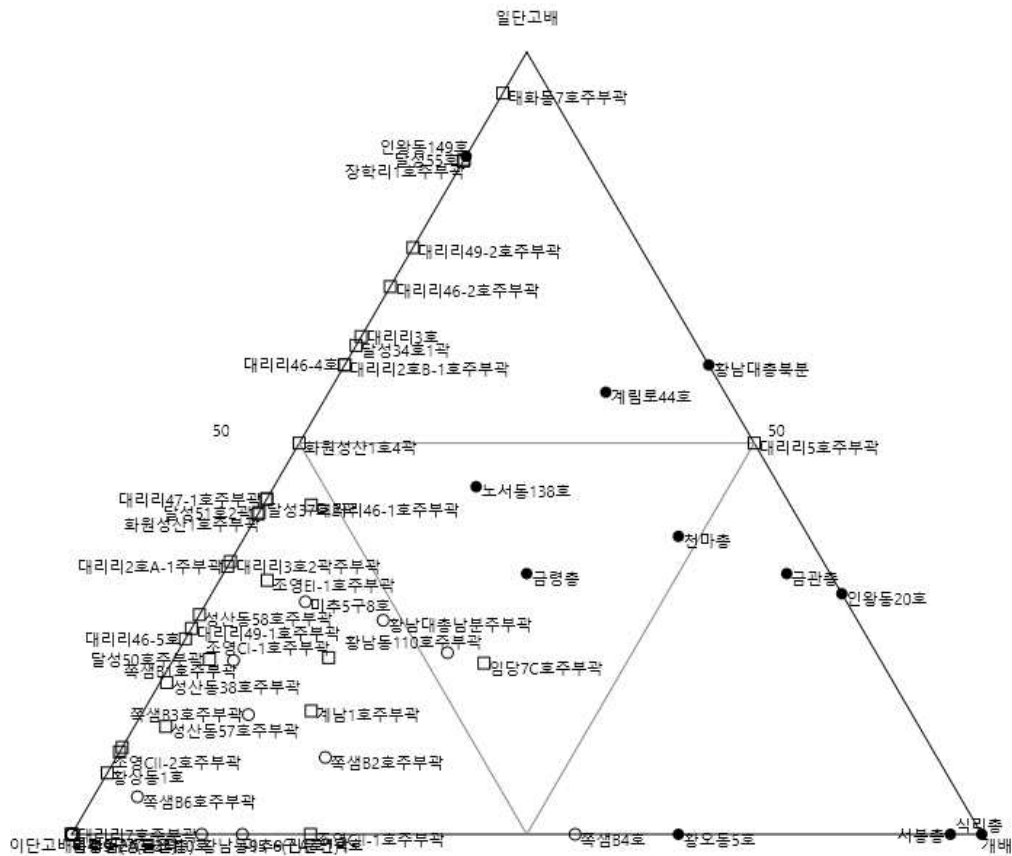
적석목곽묘인 황오동 100유적의 석재충전목곽묘나 점토충전목곽묘에서도 단경호류의 부장 비율은 10%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東國大學校慶州캠퍼스博物館 2008: 140). 경주 외 지역에서 광역적으로 단경호류의 부장비율이 높은 점은 중앙 대 지방의 관점에서 장례 의례의 차이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여전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신라 양식 토기라는 공통성, 그리고 지방 별로 분화된 기종¹²³⁾이 뚜렷히 존재하지 않는 점과 지역 별로 딱히 결락된 기종이 없이 공통적인 기종 구성을 유지한다는 배경 하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착장위세품의 분석에서도 보다시피, 양식적인 공통성에 더해 전반적인 착장 경향까지 경주와 지방에서 유사하였으나 금속제 모관과 대관의 세부적인 운용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토기 기종 구성의 차이 또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적석목곽묘 축조집단 내지는 경주 엘리트들의 차별화된 성원권과 관련지어 볼 것이되 정치적 경계선이나 의례적 독립성으로 확대 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앞서 <그림 34>에서 본 바와 같이, 경주에서는 3개 배류의 부장비가 성별에 따라서 크게 달라졌었다. 지방에서 이들의 부장비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비교해 보면 <그림 5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여기서 보면 지방 고분에서는 개배의 부장이 아예 생략된 경우가 많아서 이단고배와 일단고배만 부장된 경우가 많다. 또한 배류의 부장 양상이 남성 적석목곽묘와 유사한 비율을 보이는 고분들은 경산 지역의 사례가 가장 많고, 창녕이나 의성 등 다른 지역 고분의 경우에도 대체로 해당 지역의 상위위계 고분이다. 이러한 고분에서는 개배의 부장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피장자가 남성인 적석목곽묘와 비슷한 수준으로만 부장되었지 피장자가 여성인 적석목곽묘와 유사한 경향을 띠는 것은 극소수에 그쳐서, 개배 중심의 부장양상을 갖는 것은 의성 지역의 대리리 5호 하나 뿐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여성 피장자가 묻힌 적석목곽묘는 이단고배의 부장비가 적은 점에서 신라 고분 전체로 보아 다소 예외적인 배류의 부장양상을 갖는 셈이다. 이단고배는 신라토기를 대표하는 기종인 점을 고려할 때

123) 복천동의 대형묘를 중심으로 출토되는 외절구연 고배가 그러하겠으며, 차별화된 기종의 존재는 의례 방식과 내용의 차별화 또한 시사한다.



<그림 51> 경주(n=24)와 지방 고분(n=39)의

일단고배, 이단고배, 개배 부장비 비교

(○: 경주지역 남성 적석목곽묘, ●: 경주지역 여성 적석목곽묘,

□: 지방 고분)

이러한 부장양상은 상당히 독특하다. 이를 부곽의 생략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적석목곽묘의 주곽에만 반드시 일단고배와 개배를 부장하고, 이단고배는 반드시 부곽에만 부장하는 식의 규범은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여성 피장자의 성별과 관련하여 성립되는 부장양상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신라권 전반으로 시야를 확장해서 보면, 모든 신라 고분 중에서 적석목곽묘 피장자 여성만이 특별히 구분되는 배류의 부장양상을 갖고, 동시에

부곽의 설치가 반드시 성별과 연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주지역의 상위위계 여성만이 맡을 수 있었던 특정한 직능과 연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할 수 있다.

적석목곽묘의 배류 부장 양상은 그렇다고 할 때, 지방의 고분에도 분명 적지 않은 여성 피장자가 존재하였을 것이지만 <그림 51>에서 적석목곽묘 여성 피장자와 유사한 부장비를 보이는 고분은 지나치게 극소수이다. 또한 피장자가 천을 착장한, 따라서 여성 피장자가 묻힌 고분인 성주 성산동 38호와 양산 북정리 21호 또한 높은 이단고배 부장비를 보인다. 따라서 지방에서는 여성 피장자에 특정하여 배류의 부장비가 결정되는 부장 방식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경주의 적석목곽묘에서 성별에 따라 묘곽 형식이 차별화된 것, 배류의 부장비가 달라진 것 등의 부장 방식은 지방 고분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물론 지방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성별이 표현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지만 현재로써는 그것을 추적하기 어렵다.

2) 철기의 부장양상

적석목곽묘에서는 착장 이식에 따라 철기의 부장 수량과 출토율이 달라지는 양상이 뚜렷하였다. 비록 구체적인 계서의 복원이 어려워 지방 고분에서는 어떠한 양상이었는지 입체적인 비교에 한계가 있지만, 착장 이식 별 출토 수량과 출토율, 그리고 전반적인 구성비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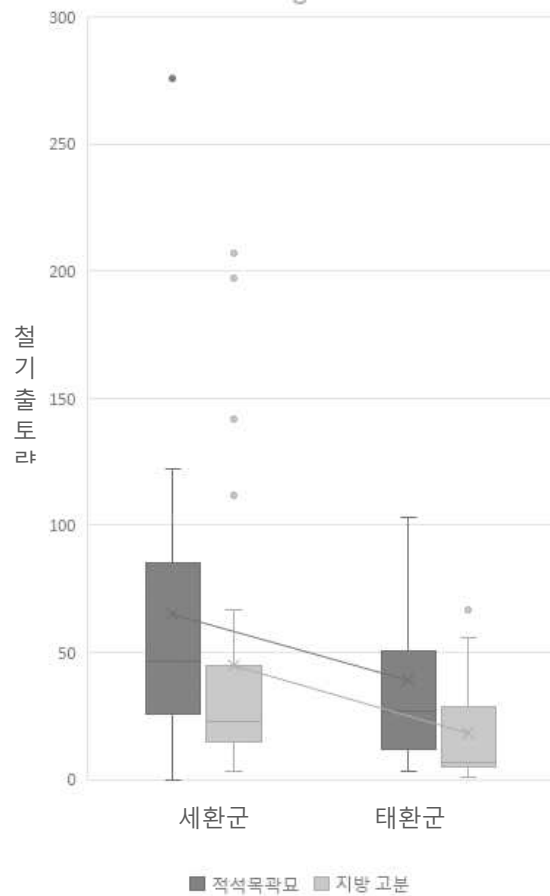
먼저 경주와 지방의 착장 이식에 따른 철기 출토 수량을 비교하면 <그림 5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평균적으로 지방 고분의 철기 부장량이 적석목곽묘에서 열세이지만, 양쪽 모두 세환군이 수량에서 우세하고 태환군이 열세인 점은 동일하다.

다음으로 지방 고분의 철기 종류 별 출토 수량을 일별하면 <그림 5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종류 별 출토 수량을 적석목곽묘의 것(그림 37)과 비교해 보면, 철촉과 철모의 수량이 많은 점은 동일하나, 도자와 철정의 출토량

이 적은 점은 크게 대비된다. 하지만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 고분에서도 도자가 가장 기본적인 철기 부장품인 점은 마찬가지로, 세환군과 태환군 모두 90%를 넘어서는 출토율을 보인다. 다만 적석목곽묘에서는 15점 이상 다수 부장되는 사례가 많았던 반면 보다 적은 숫자가 부장된다. 나머지 농구류와 공구류의 출토 수량이 적고 사례가 적은 점은 적석목곽묘와 마찬가지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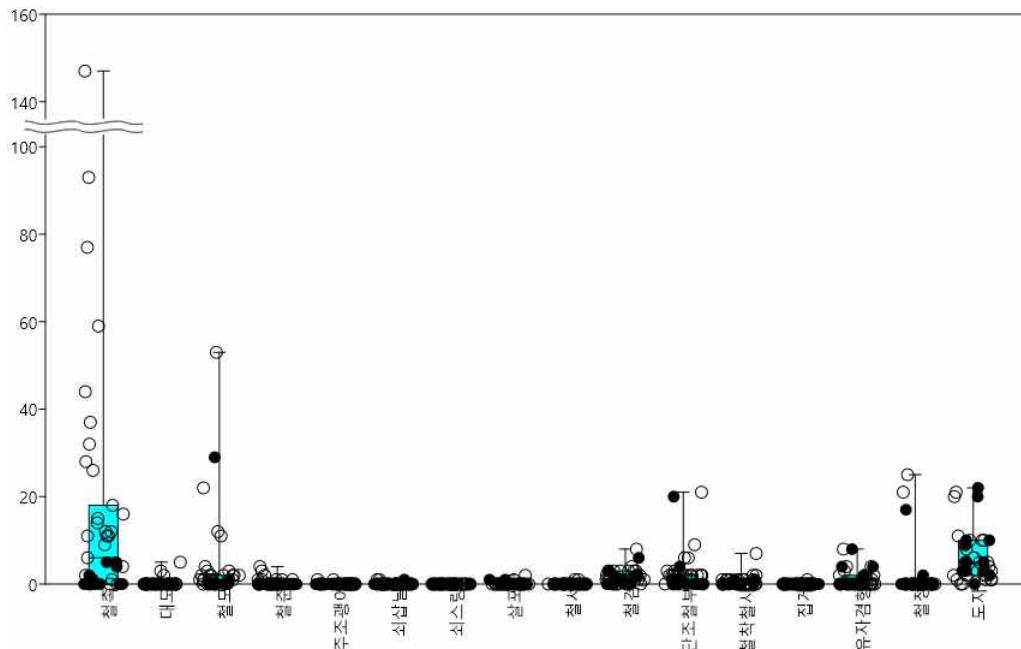
출토율과 비율구성을 비교하면 각각 <그림 54> 및 <그림 55>¹²⁴⁾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전반적인 출토율과 구성이 적석목곽묘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출토율의 측면에서, 세환군의 철기 출토율이 높고 태환군이 낮은 점도 공통적이다. 철축, 도자, 단조철부, 철검의 경우, 특히 세환군에서 사실상 동일한 출토율을 보인다. 하지만 유자이기와 겸형철기, 대도와 철모의 경우 지방 고분의 부장율이 크게 낮고, 철모에서는 오히려 높다.

유자이기와 겸형철기는 보통 儀器로 해석되며, 주곽에서 주피장자의 근처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겸형철기의 경우 강한 지역성을 보이는



<그림 52> 경주지역 적석목곽묘와 지방 고분의 착장 이식 별 철기 출토량

124) 여기에는 황남대총 남분을 제외하였는데, 이 무덤이 적석목곽묘의 전체 철기 73%, 철검의 93%를 점유하고 있어 이를 포함하게 되면 전반적인 양상을 오히려 왜곡하게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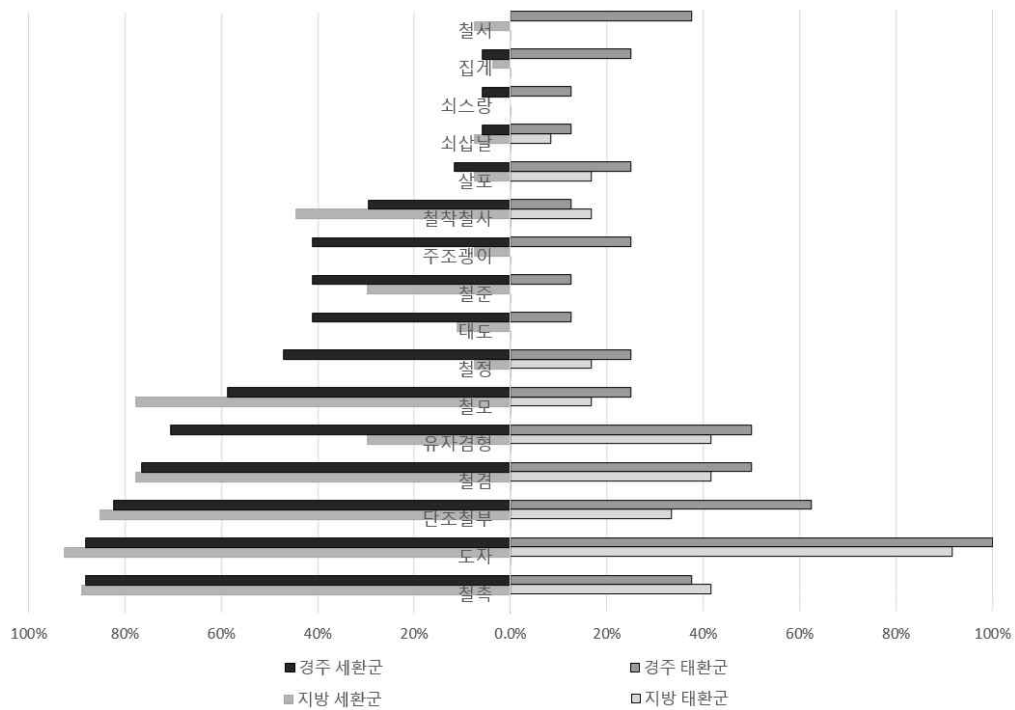
〈그림 53〉 지방 고분의 착장 이식 별 철기 출토량의

box and jitter plot (n=39)

※ ○: 세환군, ●: 태환군

데, 현 자료 내에서는 경주와 경산지역에서만 확인된다.¹²⁵⁾ 경산지역에서 검형철기는 경주식목곽묘의 등장과 함께 부장되며, 고총기에는 거의 반드시라 해도 좋을 정도로 두 철기가 공반하여 주곽에서 출토된다(김용성 2008; 黃宗鉉 2003). 앞서 본 대도와 이식의 공반 또한 경주 외 지역에서는 경산지역에서만 한정되는 점과 연계하여 볼 때, 그리고 개배의 부장비가 적석목곽묘와 가장 유사하게 나타난 사례가 많은 지역이 경산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착장위세품과 토기·철기의 부장양상에서 경산지역이 적석목곽묘의 부장양상과 가장 유사한 양태를 보인다고 종합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

125) 물론 두 지역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포항, 울산 등지에서도 세장방형 목곽묘를 중심으로 목곽묘단계에서부터 확인된다. 다만 이 지역에서는 분묘의 고총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산지역과 차이가 있다(金在弘 1996, 200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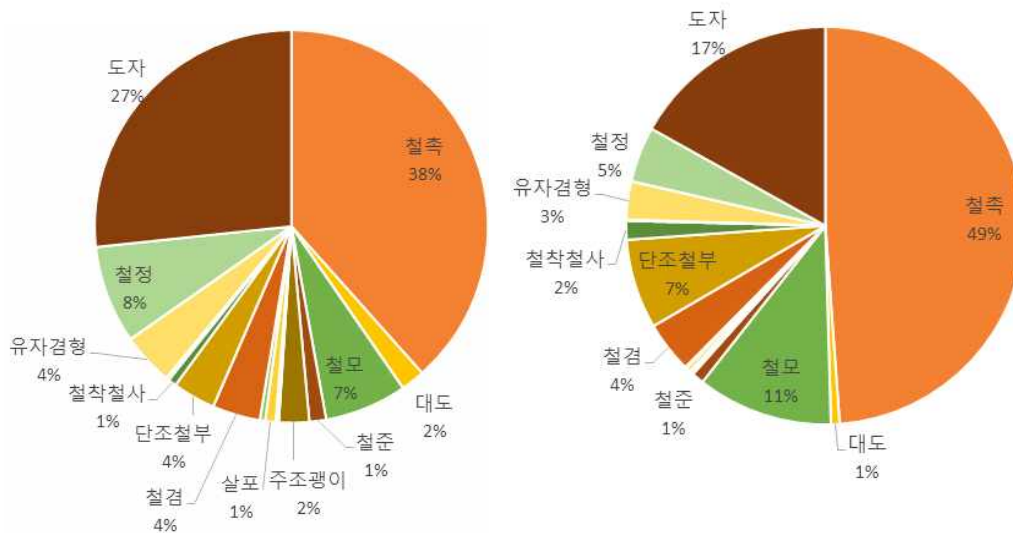


지역/군	철기	철촉	도자	단조철부	철검	유자겸형	철모	철정	대도	철준	주조괭이	철착철사	살포	쇠삽날	쇠스랑	집게	철서
경주세한군 (n= 17)		88.2	88.2	82.4	76.5	70.6	58.8	47.1	41.2	41.2	41.2	29.4	11.8	5.9	5.9	5.9	0.0
지방세한군 (n= 27)		88.9	92.6	85.2	77.8	29.6	77.8	7.4	11.1	29.6	7.4	44.4	7.4	7.4	0.0	3.7	7.4
경주태한군 (n= 8)		37.5	100.0	62.5	50.0	50.0	25.0	25.0	12.5	12.5	25.0	12.5	25.0	12.5	12.5	25.0	37.5
지방태한군 (n= 12)		41.7	91.7	33.3	41.7	41.7	16.7	16.7	0.0	0.0	0.0	16.7	16.7	8.3	0.0	0.0	0.0

〈그림 54〉 적석목곽묘(n=25)와 지방 고분(n=39)의
복식군 별 철기 출토율(%) 비교

의 용인과 부장 양상의 유사성을 볼 때, 역시 두 지역 엘리트 간의 긴밀한 관계가 목곽묘 단계부터 있었고, 그것이 고총 축조기 까지 이어지면서 장례 의례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철모의 경우 세한군에서 지방 고분의 출토율이 더 높은데, 마치 유자이기의 결여를 보충하려는 듯한 양상이다. 철정은 적석목곽묘에 비해 출토율이 크게 낮고 개별 사례 내에서 수량이 많지 않은데, 황남대총 남분의 독점



〈그림 55〉 적석목곽묘(좌, n=24(남분 제외), 철기 1,166점)와
지방 고분(우, n=39, 철기 1,506점)의 철기 구성
(※ 1%미만은 표기 없음)

적인 출토량과는 여전히 크게 대비된다. 공구류로 볼 수 있는 철착과 철사의 경우 적석목곽묘와 유사한 양상으로 세화군 분묘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이들은 경주지역보다 더 높은 출토율을 보이지만, 그 외 농구류의 출토 비율은 지방 고분에서 낮은 편으로 나타난다. 특히 태화군에서 주조괘이, 철서, 쇠스랑은 출토사례가 없고, 쇠삼날과 살포만 확인된다.

한편 지방 고분 철기의 부장에서 지역적 특이성과 관련되어 주목되는 것은 문산리 고분군 등 대구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축소모형철기의 부장인데, 문산리 2-1호, 동 4-1호, 불로동 91호 2-1곽 등에서 살포형으로 분류되는 것들의 출토 사례가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축소모형철기는 대가야 고분을 중심으로 부장되므로, 이는 해당 지역 엘리트의 자의적인 대가야 교류의 증거로 해석되기도 한다(김용성 2011b: 183).

그러나 문산리 고분 등에서 확인되는 것은 축소모형철기가 아니라 철서이다. 출토사례의 정리와 형식분류에서 보듯, 고총기 신라의 철서는 본래 인부폭이 4.5~6cm에 불과한 소형의 철기이다(金在弘 1997: 25). 동형은 아니지

만 인부폭 5cm 이하의 철서 출토 사례는 미추왕릉 7지구 3호, 9지구 1곽·3곽, 인왕동 19호 F곽 등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고, 최근 재보고된 서봉총과 금관총의 철서도 인부폭이 7cm를 넘지 않는다. 반면 대가야의 살포형 축소모형철기는 대체로 철검형, 철부형 축소모형철기와 공반되는 경우가 많고(강석범 2011), 낙동강 이동에서 이들이 세트로 공반한 사례는 없다. 무엇보다도 다른 대가야 계통의 유물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낙동강에 인접한 대구 서부지역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엘리트가 대가야와 직접적으로 교류한 흔적은 적어도 고분 자료 내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구 서부지역 고분의 철기 구성은 외부와의 교류 등 특정인의 특정한 상황을 반영한다기 보다는, 신라 고분 전반의 의례적 규범성이 더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상을 요약하면 적석목곽묘에서 철기의 부장 양상은 피장자의 착장 이식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컸는데, 사실상 동일한 양상이 지방 고분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전반적인 부장량은 세환군이 태환군보다 많은 점, 세환군에서 무기류(철촉, 철모, 대도)의 부장량과 출토율이 압도적인 점 등이 특히 그러하다. 하지만 그것은 수량적인 측면에서만 그러하고, 부장 비율의 측면에서는 경우에 따라 철촉의 비율이 다양하기 때문에 세환군과 태환군이 양분되지는 않으며, 이 또한 경주와 지방에서 공통적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주와 지방의 철기 부장 양상은 대동소이하며, 특히 적석목곽묘의 최상위위계 고분(A군)을 제외하고 비교한다면 태환군 농구류의 출토율이 내려가 더욱 유사한 양상이 될 것이다.

4. 지방 고분의 연접축조

앞서 적석목곽묘의 분석에서는 연접축조와 관련하여 피장자의 성별과 착장 이식에서 독특한 양상이 확인되었다. 성별과 관련하여서는 표형분이 대부분 동성간의 연접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3기 이상의 연접축조에서 피장자가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없다는 점 등이었고, 착장 이식과 관련하여서는 태환군과 태환군이 연접된 경우는 없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지방 고분에서도 이러한 정형성이 존재하였는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부곽의 설치 여부와 피장자 성별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확인 가능한 피장자 인골이 극히 드물어 성별과 관련한 사항의 검토는 어렵다. 따라서 착장 이식을 중심으로 간단히 검토해 보도록 한다.

지방 고분에서도 경산, 대구, 창녕 지역을 중심으로 연접분의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데(沈炫澈 2014), 그 중에서 피장자들의 착장이식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비교적 소수이며, 이들을 모두 종합하면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다.¹²⁶⁾ 검토 가능한 사례는 모두 경산, 달성, 대구 등지에서만 확인된다. 창녕의 경우 도굴분이 많고, 계성 B지구 등에서 다수의 연접 사례가 확인되지만 피장자의 계서가 낮아 이식을 착장한 경우는 극소수여서 검토가 불가하다. 피장자의 성별은 임당 유적을 중심으로 몇몇 사례만 확인 가능한데, 워낙 출토 사례가 적어 어떤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검토 대상 분묘는 11기의 연접분에서 총 31기가 확인되며, 세환군은 14기, 태환군은 9기, 착장 이식 확인 불가는 8기이다. 이들 사이에서 모두 20회의 연접이 발생하였는데, 선후축 분 간의 착장 이식을 살펴보면, 세환군 간의 연접은 2회, 세환군 선축, 태환군 후축인 경우가 5회, 태환군 선축, 세환군 후축인 경우가 5회이며, 태환군 간의 연접은 확인되지 않는다.

126) 지방 고분의 경우 도굴된 경우가 많아 이식이 직접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공반 위세품에 의거해 착장 이식을 추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중공구는 반드시 태환이식과 공반하고, 대도의 착장은 반드시 세환이식과 공반하므로 이를 근거로 착장 이식을 추정한 경우가 있으며, 이는 모두 각주에 표시하였다.

127) 임당 유적을 중심으로 인골 분석 결과를 옮긴 것으로(영남대학교박물관 2013), 골반에 의한 성별 판단은 남·여, 그 외 두개골이나 사지골에 의한 성별 판단은

〈표 31〉 지방 고분의 연접사례와 피장자 성격 종합

지역	묘곽 수	연접 관계	연접 방향	선후축 성별 ¹²⁷⁾	선후축 착장 이식
경산	2	임당2호 남→임당 2호 북	북	? → ?	세 환→ ?
	2	조영 CI-1호→조영 CI-2호	북	남 → 여	세 환→태 환? ¹²⁸⁾
	2	조영 CII-2호→조영 CII-1호	서	남?→남?	세 환→태 환? ¹²⁹⁾
	2	조영 EI-1호→조영 EI-2호	북	? → ?	세 환→세 환
	3	임당 5A호→임당 5B1호	북	? → ?	? →태 환? ¹³⁰⁾
		임당 5B1호→임당 6A호	북	? → 남	태 환?→세 환
	3	조영 EIII-2호→조영 EIII-3호	북	? → ?	? →태 환? ¹³¹⁾
		조영 EIII-3호→조영 EIII-4호	북	? → ?	태 환?→ ?
	4	임당 7A호→임당 7B호	북	? → ?	태 환? ¹³²⁾ →세 환
		임당 7B호→임당 7C호	북	? → ?	세 환→태 환
		임당 7C호→임당 6A호	동	? → 남	태 환→세 환
	4 이상	조영 EII-1호→조영 EII-2호	북	? → ?	세 환→태 환
		조영 EII-2호→조영 EII-4호	서	? → ?	태 환→ ?
		조영 EII-3호→조영 EII-4호	동	? → ?	? → ?
달성	2	문산 4-1호→문산 4-3호	서	? → ?	세 환? ¹³³⁾ → ?
	3	문산 3-1호→문산 3-2호	서	? → ?	태 환→세 환
		문산 3-2호→문산 3-4호	서	? → ?	세 환→세 환
대구	4	불로91호1곽→불로91호2곽	북	? → ?	세 환→태 환
		불로91호2곽→불로91호3곽	북	? → ?	태 환→세 환
		불로91호3곽→불로91호4곽	서	? → ?	세 환→ ?

남?·여?로 표기하였다.

128) 조영 CI-2호는 중공구수식 출토로 태환이식 착장 가능성을 높게 보았다.

129) 조영 CII-1호는 이식부에서 곡옥부수식 출토로 태환이식 착장 가능성을 높게 보았다.

130) 임당 5B호는 도굴되었으나 중공구수식이 출토되어 태환이식 착장 가능성이 크다.

131) EIII-3호는 도굴되었으나 중공구수식이 출토되어 태환이식 착장 가능성이 크다.

132) 임당 7A호는 중공구수식이 출토되어 태환이식 착장 가능성이 크다.

133) 문산리 4-3호는 대도 착장으로 세환이식 착장 가능성이 크다.

이상을 정리하면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2> 지방 연접분의 연접 사례 별 이식 구성

선축분 이식 → 후축분 이식	확인 가능 사례 수	백분율
세 환군→세 환군	2	16.6%
세 환군→태 환군	5	41.7%
태 환군→세 환군	5	41.7%
태 환군→태 환군	0	0%
계	12	100%
세 환군 분묘 14기, 태 환군 분묘 9기, 불명 8기, 총 20회 연접		

피장자가 태환군인 분묘 간의 연접이 나타나지 않는 양상은 앞서 적석목곽묘에서 본 것과 동일한 것이다.¹³⁴⁾ 다만 적석목곽묘에서는 세 환군과 세 환군 간의 연접이 가장 많았던 점이 다르다 하겠다.¹³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격을 갖는 피장자 간의 연접을 회피한다는 공통적 패턴이 존재한다는 점은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식이 지방 엘리트에게 단지 유행이나 단순한 장신구의 의미를 가지고 제작, 유통된 것이 아니라, 적석목곽묘와 동일한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경주의 적석목곽묘와 지방의 수혈계 묘제는 묘곽의 배치 방식이나 재료, 입지 등 여러 지점에서 서로 다르고, 지방 간에도 서로 다른 지역성을 가지지만, 장례에 있어서 피장자의 배치 규범은 동일한 원리를 공유하고 있

134) 경주와 지방의 연접 사례를 합산하여 보았을 때, 세 환군 분묘 44기와 태 환군 분묘 23기가 존재하며 이들 사이에서는 총 42건의 연접이 발생하였다. 이 중에서 태 환군 간의 연접이 우연히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각 사건이 독립시행이라 가정하였을 때 $(1-(23/67 \times 22/67))^{42} = 0.0065$, 즉 0.7%미만이다. 따라서 이러한 양상이 나타난 것에는 의도성이 개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135) 하지만 지방 고분에서도 세 환군의 숫자가 태 환군보다 많기 때문에, 사례가 축적된다면 결국 적석목곽묘에서와 유사한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는 점이다. 특히 피장자의 착장 이식에 따라 연접의 여부가 결정되는 매우 구체적인 실행 방식이 공통적이라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풍습이나 관습을 넘어서서, 모종의 장례 규범을 공유하였고 준수하였음을 시사한다. 주지하다시피 착장 이식은 피장자의 사회적 역할이나 직능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것이 중앙과 지방에서 공통적이라는 점은 양자가 서로 유사한 장례 규범, 나아가 사회 규범과 체제를 갖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5. 소결 : 착장 이식을 중심으로 한 공통성

이번 장에서는 지방 고분 피장자의 성격이 어떻게 구성되고 표현되는지 적석목곽묘 피장자와 비교하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성별과 부곽의 설치 여부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지방 고분에서는 경주의 적석목곽묘와 같은 방식으로 피장자의 성별에 따라 묘곽 형식을 차별화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양자 간에 차이가 있었고 따라서 지방 고분 피장자의 성별에 접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후 적석목곽묘에서 실시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위세품과 토기·철기, 유구의 연결 관계로 나누어 검토하였는데, 성별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었으므로 주로 착장 이식의 대별을 통해 비교하였다.

먼저 착장위세품은 2점 이상이 출토된 지방 고분 69기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착장위세품의 구성은 세환군과 태환군으로 양분되는 점, 그리고 세환군에는 대도가, 태환군에는 경식과 중공구가 강하게 공반되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적석목곽묘와 공통적이었다. 또한 지방 고분 피장자의 착장위세품 출토율이 전반적으로 낮지만, 전체적인 출토 경향은 유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으며(그림 45), 그에 따라서 공통적인 복식 규정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 관류의 착장률이 적석목곽묘에서보다 높게 나타나고, 특히 금속제 관모와 관식의 착장은 적석목곽묘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지만 지방에서는 허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점이 인정되며, 이는 기존 연구에서 지적된 바였다(李熙濬 2002). 또한 지방 고분 피장자의 성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므로 적석목곽묘에서와 같은 해상도로 피장자의 계서를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관류의 정형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되 대체로 이식→대장식구→관류의 착장 또는 부장으로 이어지는 계서 구분은 마찬가지로 유효하다고 판단되었다.

한편 지역성으로 볼 수 있는 착장 경향 또한 볼 수 있었는데, 경식과 대도의 동시 착장은 경산지역에서만 확인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경식과 대도의 동시착장은 월성북고분군의 비적석목곽묘에서조차

확인되지 않고 적석목곽묘에서만 확인되며, 목곽묘 단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경주와 경산 지역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하여 예외를 허용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무구와 마구는 중앙과 지방이 사실상 동일한 부장 규정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었는데, 특히 태환군의 경우 성시구와 갑주, 등자의 부장이 크게 제한되어 있었고 이것이 출토율의 측면에서 지역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태환군의 분묘에서 성시구와 갑주, 혹은 등자가 부장된 무덤은 금관총, 황남대총 북분, 달성 55호와 같이 극소수의 최상위 위계 무덤에 한해 예외적으로만 이루어졌다.

즉 착장위세품에서는 관류, 특히 세환군의 금속제 모관 착장과 태환군의 대관 착장이 지방에서 큰 폭으로 허용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었으나, 다른 부분에서는 세환군과 태환군이 각각 배타적인 착장위세품(대도, 중공구)를 갖는 등 대체로 동일한 부장 규정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태환군에서 성시구, 갑주, 등자의 부장이 제한된 점에서, 양자 모두 공통의 복식규정과 그에 따른 부장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다음으로 토기의 부장 정형에서는, 전반적인 토기 부장양상에 있어서 대동소이하였으나, 지방에서 개배의 부장량, 출토율이 낮은 대신 단경호류의 부장량과 출토율이 높은 차이점을 보였다(그림 49, 50). 적석목곽묘에서 토기 부장과 가장 큰 연관성을 보여주었던 피장자의 성별과 관련하여서는, 지방 고분에서 그 판단이 불가능한 관계로 입체적인 비교가 어려웠다. 하지만 양자의 비교를 통해 연질조리용기의 부장이 성별보다는 부곽 자체와 관련된 것을 밝힐 수 있었고, 배류의 부장에 있어서 특히 개배 부장비가 높은 특이성이 여성 피장자를 갖는 적석목곽묘에만 한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51). 철기의 부장양상은 적석목곽묘에서 착장 이식과 강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비교가 가능하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방 고분의 철기 부장 양상은 피장자의 착장 이식에 따라 전반적인 수량은 물론(그림 52), 종류별 출토율(그림 54)까지 적석목곽묘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지방 고분의 연접축조 양상에 대한 검토는 11개 연접분의 31기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연접 사례 중에서는 태환

군과 태환군 사이의 연접은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피장자의 착장이식이 유구의 배치에 결정적인 변수였음을 시사하며, 적석목곽묘의 연접배치에서도 확인된 것과 동일한 양상이다. 이는 경주와 지방에서 동일한 연접규정이 존재하였고 그 기준 중의 하나는 착장 이식임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상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중앙과 지방을 포괄하여 신라권 전역에서 착장 이식을 중심으로 하여 복식의 구성이 일정하게 구분되는 평면적 정형성이 존재하며, 그에 따라 철기의 부장과 유구의 배치가 결정되는 공통적인 패턴이 확인되었다. 즉 착장 이식에 따라서 성지구, 갑주, 등자의 부장여부가 결정되고, 부장 철기의 양과 종류 또한 결정되며, 유구의 배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비교적 세밀한 부분까지 규정되며 경주와 지방에서 차별정보다는 공통성이 더 크므로, 양자를 포괄하는 장례 규범 혹은 부장 규범이 존재하였고 그것이 준수된 양상으로 해석된다. 유구와 토기의 지역성을 고려할 때 장례 규범의 내용적 측면에서 이러한 공통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것으로, 신라 사회의 내적 측면과 중앙-지방 간의 관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간 정치적 관계로만 보아 온 복식의 사여 혹은 복식제도의 공유가, 부장품의 구성에서 잘 드러나듯 장례 의례의 매우 구체적인 부분까지 지시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경주의 적석목곽묘와 지방 고분은 그간 관점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정치체의 산물로 해석될 정도로, 양식론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 내용과 외형에서는 차이점이 적지 않았다. 피장자 성격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차이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 가령 피장자의 성별에 따른 부곽의 설치 여부와 같은 부분이 존재하지만, 착장 이식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에는 공반 착장위세품, 무구와 마구의 부장, 철기의 구성과 출토율, 연접축조의 방식에서와 같이 공통적인 고분 구성 방식을 갖는 점이 확인된다. 이는 적석목곽묘 축조 집단에서 시작된 복식제도와 고층 축조를 위시한 의례 규범이 지방 사회의 엘리트에 수용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보다 포괄적인 사회 규범과 질서의 파급과 수용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VII. 고총기 피장자 성격 표현의 사회·정치적 함의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격이 갖는 제요소, 즉 성별과 착장 이식, 계서가 어떻게 구분되었고, 그에 따라서 고분의 유물과 유구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전반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따르면 적석목곽묘의 부장품과 묘곽은 피장자 개인의 특수성이나 조묘자의 임의적 혹은 전략적 선택을 통해 구성되기 보다는, 피장자의 성격을 규정하는 사회적 함의를 바탕으로 무덤이 결정되도록 조정하는 일련의 장례 수행 방식이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번 장에서는 그것이 어떠한 과정과 배경을 통해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체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시도한다. 이를 위하여 경주의 적석목곽묘와 지방의 고분으로 절을 나누어, 전자에서는 피장자 성격이 고분 자료 내에서 형성되는 과정을 시간적 측면에서 밝히고, 성별과 착장 이식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후자에서는 지방 고분의 피장자 성격 표현의 정형성이 갖는 정치적 함의에 대해 논할 것이다.

1. 적석목곽묘 피장자 성격을 통해 본 신라 사회의 구조

지금까지 이루어진 본고의 검토는 피장자 성격이 갖는 여러 요소에 대한 분석을 총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통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편년순으로 분석을 실시하게 되면 평면적인 정형성을 찾기 어려워지고, 점차적으로 구성되는 피장자 성격의 제 요소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부장양상의 차이를 감지하기 어려워진다. 가령 여성 복식의 완성은 남성보다 늦은데, 시간순으로 적석목곽묘를 분석한다면 양자의 부장양상 차이를 시간적인 변화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한 착오를 피하고자 본고에서는 통시적인 접근을 선택하였고, 분석결과 피장자 성격과 그에 따른 적석목곽묘의 제 양상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바, 이제 시간적인 측면에서 고분에 나타난 피장자 성격의 제 측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를 파악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그 구성의 과정을 적절히 추적할 수 있다면 각 요소가 가졌던 사회적 함의와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제 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것인데, 본고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은 피장자 성격의 여러 측면을 관통하는 요소는 착장위세품이었다. 성별은 천의 착장과 관련이 있었고, 이식의 주환 종류는 복식의 구성을 양분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였으며, 계서는 착장위세품의 누적적인 구성에 따라서 결정되었다. 따라서 착장위세품의 구성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며, 그에 따라서 피장자 성격의 여러 요소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지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복식제도의 형성 과정에 대한 추적이 가능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성별에 따른 피장자 성격의 구성이 어떻게 차별화되고 전개되는지 밝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토한다. 아울러 연구의 시작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의미의 추적이 어려웠던 착장 이식에 대해서, 세환군과 태환군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장 양상의 특이성을 통해 검토할 것이고, 다음 단계에서 고분 자료를 토대로 적석목곽묘 축조집단의 사회구조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1) 착장위세품을 통해 본 피장자 성격 표현의 형성과정

착장위세품은 본고의 분석에서는 관식에서 식리에 이르는 11종으로 분류하였는데, 각각의 등장 시점은 적석목곽묘 내에서도 조금씩 다르며 기원도 제각각이다. 멀리는 원삼국 시대에서부터 장신구로써 기능하던 것도 있고, 태환이식과 같이 고구려 복식에서 유래된 것도 있다(이한상 2014). 투조과대와 역심형과대 등 대장식구 또한 삼연과 고구려에서 수용된 것이다(김도영 2018). 그러나 각각이 모여서 복식으로써 구성되고 분명한 사회적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고창기 초엽, 즉 최병현(2016a)의 신라 전기 1기 무렵부터이다.

<표 33>은 적석목곽묘를 중심으로 11종의 착장위세품이 구성되는 시간적 순서와 최초 출토 고분을 월성북고분군과 그 외 지역으로 나누어 최병현

(2016a)의 편년안에 따라 요약한 것이다.¹³⁶⁾ 여기에는 비석목곽묘나 그 이전 시기에 출현하는 위세품도 함께 도시하였으며, 천의 경우 성별과 관련하여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여 원삼국시대의 사라리 130호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이하 등장 순서에 따라 기술하며 천부터 다루도록 하겠다. 천은 원삼국 시대 경주 탑동 목관묘나 사라리 130호에서부터 청동제로 제작되어 출토된다. 사라리 130호의 경우 12점을 수평으로 쌓아놓은 상태로 부장하였기 때문에 착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들의 내경은 신라 고분 출토품의 평균치와 동일한 65mm 전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여성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포항 마산리에서도 천이 두 점 출토되었는데, 이식에서부터 주곽의 장축방향으로 약 60cm 떨어져 출토되어 착장 가능성이 크며, 이 천의 내경도 61mm이다.

동시기의 월성북고분군에서는 월성로 가-29호분에서 왜계 석천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유구 내부의 교란으로 인해 혼입된 것일 가능성이 큰 점이 이미 지적된 바 있다(최병현 2012b). 따라서 적석목곽묘의 착장위세품 구성과는 거리가 있는 사례이고, 보다 유관한 사례는 신라 전기 1Bb기의 석재층 전목곽묘인 월성로 가-14호분의 청동제 천이다. 출토 위치로 보아 착장이 아니라 부장이지만, 월성북고분군에서는 가장 이른 금속제 천 출토 사례이다. 그 이후에는 황남동 110호 단계(1Bc기)에 해당하는 경산 임당 7A호에서 금동제 천 한 쌍이 출토되는데 출토 위치로 보아 순장자의 착장품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적석목곽묘에서 가장 이른 천 착장 사례인 황남대총 북분(금제)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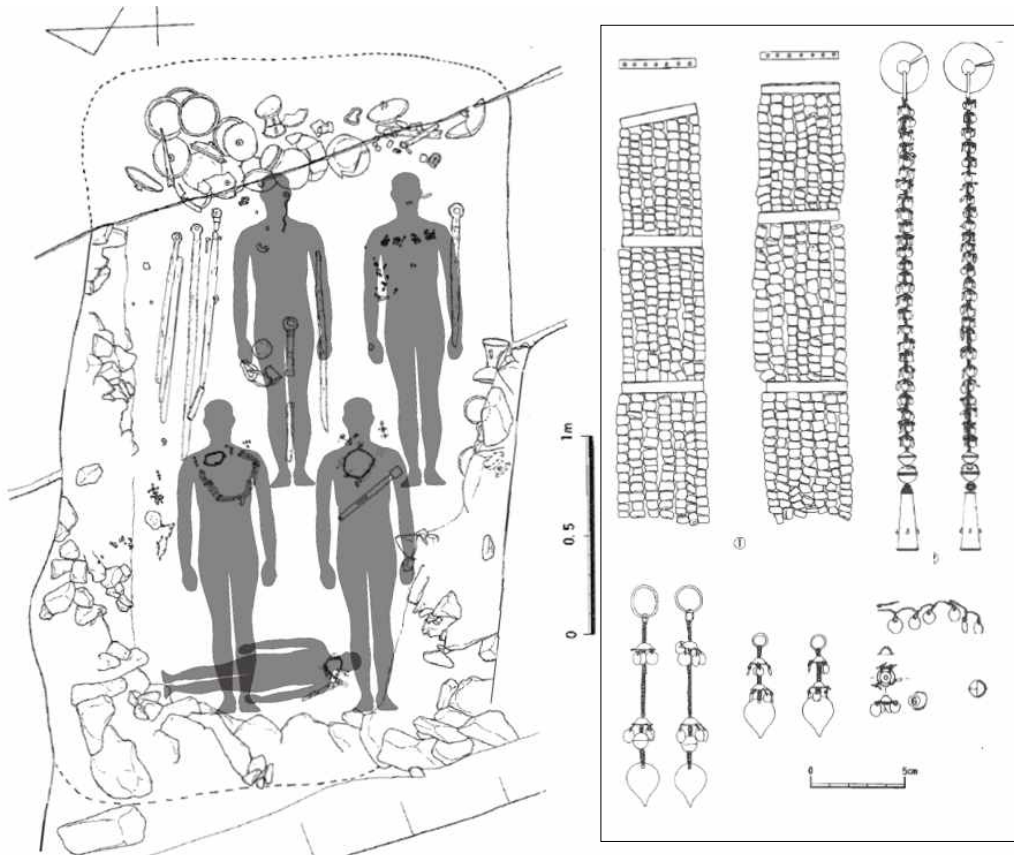
이러한 점에서 천은 신라 고분 착장위세품의 한 요소가 되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여성의 장신구로 기능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136) 해당 편년안에 따르면 신라 전기1A기는 4세기 중엽, 1B기는 4세기 후엽, 2a기는 4세기 말 4세기 초, 2b기는 5세기 전엽에 해당한다. 즉 1B기는 a~c의 소분기로 세분되나 소분기 내 고분 간의 시간적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현 편년안 내에서는 황남동 109호 3·4곽 → 월성로 가 13호의 순서이나 연구자에 따라서는 두 고분을 같은 단계로 놓되 월성로 가 13호를 더 앞에 놓는 경우도 있다(김용성 2003; 이희준 2007).

〈표 33〉 착장위세품의 시간대 별 추가·구성 양상

지역	편년	원삼국 조기1기	신라 초기		신라 전기						
			2a	2b	1A a·b	1Ba	1Bb	1Bc	2a	2b	3~4
월성북고분군	관식						㉑	황남동 110호			
	관모								황남대총 남분		
	세환이식				황남동 109호 3·4곽 (소환)	인왕동(문) 적9호 (수식부만)		황남동 110호 (수식부가세환)			
	대도			쪽샘 C-10호 (부장)	황남동 109호 3·4곽 (부곽 부장)	월성로 가 13호 (부장)		황남동 110호 (착장)			
	대장식구							황오동 14호 1곽 (삼엽문 투조)			
	대관								황남대총 남분		
	경식					월성로 가 13호 (곡옥부)		황남동 110호 (곡옥부)			
	지환								황남대총 남분		
	천		월성로 가 29호 (왜계석천)			월성로 가 14호 (청동제·부장)		㉒	㉓	황남대총 남분 (금제·착장)	
	중공구					월성로 가 13호		황오동 14호2곽			
	태환이식					월성로 가 13호 (수식)		황오동 14호2곽 (수식)			
	식리								황남대총 남분		
월성북고분군의외	세환이식		포항 마산리 (소환)					경산 임당CII-2 (수식부)			
	천	사라리130 (부장)	포항 마산리 (착장)					경산 임당7A호 (순장자 착장?)			
	경식		포항 마산리 (다면옥부)					경산 임당CII-2 (곡옥부)			
	대장식구	사라리130 (호형대구)						경산 조영 EIII-2 (삼엽문 투조)			
	지환							경산 조영 EIII-2 (화형장식)			
	대관							경산 조영 EIII-2			

※비고: 고딕체: 경주지역 적석목곽묘, 명조체: 경주지역 비적석목곽묘 또는 지방고분
 -복식군: ㉑ 세환군 복식 성립, ㉒ 태환군 복식 성립
 -성별: ㉑+㉒ 남성 복식의 완성, ㉓ 여성 복식의 완성



〈그림 56〉 월성로 가-13호분(우)과 출토 위세품 일부(좌)

※ 피장자 배치는 보고서의 안을 따름. 신장 160cm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서단의 피장자는 안치 공간으로 보아 아동일 가능성이 있음.

적석목곽묘에서 착장은 다른 위세품에 비해 늦은 편이다. 한편 신라 초기양식 토기가 부장되는 포항 마산리 석재충전목곽묘에서, 아직 경식은 곡옥부가 아니라 다면옥부이지만 이미 이식+경식+천의 조합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이것의 조형이 되는 조합은 월성북고분군에서 유래하였을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여기에서는 해당 시기 분묘의 조사 사례가 많지 않아 사실상 비교가 불가능하다.¹³⁷⁾ 만약 월성북고분군의 대형 목곽묘에서 초기적인 착

137) 신라 초기의 경주지역 중심 고분군도 월성북고분군에 위치할 가능성이 크며,

장위세품의 조합이 존재하였다면, 초기적인 복식제도의 시작은 조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대도는 쪽샘 C-10호에서 가장 이른 출토를 보이는데, 이식이 공반되지 않아서 착장 여부를 논하기 어렵지만 광벽에 가까운 점에서 미착장 부장이었던 것 같다. 뒤이은 황남동 109호 4곽(부곽)에서도 대도가 출토되지만 순장자가 착장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식(혹은 유리옥제 천)과 이식의 위치로 보아 착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월성로 가-13호분은 경식 등의 출토 위치로 보아 피장자가 다섯 명까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그림 56), 여기에서도 다수의 대도가 출토되지만 대체로 착장으로 보기에 곤란한 경우가 많고, 요부에 착장하는 것보다 소도를 흉부에 올리는 등 이후의 착장 방식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결국 피장자의 허리춤에 대도의 착장이 확실한 사례는 황남동 110호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월성로 가-13호분의 맥락에 대해서 첨언하자면, 이 고분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좁은 도로폭 내에서 발굴되어 유구의 성격에 모호한 점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피장자가 다섯명이나 된다는 점이 그러한데, 이를 합장묘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월성북고분군 뿐만 아니라 고총기신라 고분 전체의 전후 맥락을 따져 볼 때 이 정도의 인원을 주피장자로서 동시매장한 사례는 전무하기에 합장묘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남은 가능성은 순장이며, 그렇다면 월성로 가-13호분은 대형분의 부곽인 셈이 되고 아마도 그 동쪽에 발굴되지 않은 주곽이 있다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적석목곽묘에는 주곽에만 상부적석을 가하고 부곽에는 가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에 전, 후에 적석목곽묘가 축조됨에도, 그리고 상위위계 분묘임에도 불구하고 월성로 가-13호가 석재층전목곽묘인 점이 설명된다고 본다.

그런데 만약 피장자들이 순장자라면, 착장위세품으로 본 순장자들의 위

특히 동쪽 인왕동지구가 중심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은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다(김용성 2009; 최병현 2014; 홍보식 2013). 하지만 그에 대한 조사는 월성로고분군 이외에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계가 지나치게 높아 또다시 문제가 된다. 金製方形柱가 부가된 홍식은 이후 시기에 적석목곽묘의 최고위계 주피장자들이 착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착장 정형의 성립 이전에 나타난 특이현상인지, 혹은 주피장자의 위계가 그만큼 높아서 나타난 현상인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합장묘 가능성 보다 부곽의 순장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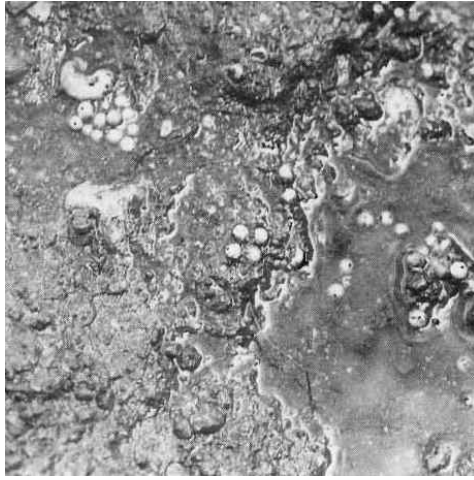
다시 위세품의 구성 과정으로 돌아가서 보면, 세환이식도 대도와 비슷한 상황으로, 소환이식은 마산리의 예에서 보듯 신라 초기까지 소급되지만 수식부가 부가된 세환이식의 가장 이른 착장예는 마찬가지로 황남동 110호이다.

경식은 마산리 단계까지는 원삼국 시대의 다면옥부 경식이고, 곡옥부 경식이 등장하는 것은 월성로 가-13호 부터이다. 여기에서는 이미 홍식을 비롯하여(그림 56 우측의 좌상부 참조) 다양한 형태의 경식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홍식은 이후 최고위계 적석목곽묘 피장자들이 착용한다.

태환이식의 주환(그림 56 우측의 우상부 참조)은 월성로 가-13호에서 초출한다. 이 경우 다음 시기의 용법과는 달리 영락부에 금사를 길게 연결한 형태를 띠는데, 출토 위치로 보아 관류의 수식 또는 이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태환이식+중공구+곡옥의 조합이 완성되는 것은 그 다음인 황오동 14호 2곽이다.

중공구+곡옥의 조합(그림 57의 좌측) 또한 월성로 가-13호에서 처음 나타나는데, 중공구의 수심 점이 곡옥과 같은 지점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이 단계에서부터 곡옥과 함께 조합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이후 황오동 14호 2곽에서는 태환이식의 주환까지 더해져 태환이식+중공구+곡옥의 조합이 완성되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57의 우측). 경산 임당 7A호의 주피장자 이식부에서도 태환이식이 없이 중공구+곡옥의 조합이 확인된 바 있으며 경산지역에서도 그 이후에는 태환이식+중공구+곡옥의 조합이 나타난다.

다음으로 대관은 황남대총 남분의 것이 가장 이르지만 선행하는 교동 68번지 출토품의 존재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朴天秀 2012), 적어도 전 단계에서는 이미 등장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황남대총 남분보다 약간 이른 것으로 보이는 경산 조영 EIII-2호분에서도 대관의 출토 사례가 있는데, 여기



〈그림 57〉 월성로 가-13호의 중공구+곡옥 출토 정황(좌)과
황오동 14호 2곽의 태환이식+중공구+곡옥 조합 양상(우)

에서는 대관과 함께 화형장식이 부가된 지환이 출토되므로, 동시기 월성북 고분군에도 이 정도의 완성도를 지닌 지환이 이미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 시기 경산지역의 금공위세품은 경주지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金載烈 2011).

관식의 경우도 황남동 110호가 가장 선행이고, 초출 당시부터 미착장 부장으로 나타나 이후에도 계속 미착장으로 이어진다. 금속제 관모는 황남대총 남분이 초출인데 은제와 금동제이며 금제는 금관총과 천마총에서만 확인되었다. 식리 또한 남분이 초출인데, 따라서 현재로써는 관모와 식리가 가장 늦고 다른 지역에서도 선행하는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착장위세품 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대장식구에 대해서 살펴보면, 적석목곽묘 출토품 중에서 가장 고식으로 알려진 것은 황오동 14호 1곽의 것이다(이한상 2004). 이보다 조영 EIII-2호분 출토품이 신라 고분 출토품 중에서는 가장 이르다는 견해가 있는데, 형식적인 기원은 삼연이지만 신라에서 재지 제작한 것으로 평가되며(金載烈 2011), 이러한 사례를 통해 볼 때 월성북고분군에서 더 연대가 빠른 사례가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상을 종합해서 본다면, 11종의 착장위세품은 등장 시점에 차이가 있고 기원도 상이하다. 또한 처음에는 이식과 경식을 제외하면 착장이 아니라 단순한 부장품으로써 피장자의 신체 외에 부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포항 마산리의 예로 보아 신라 초기에서부터 조합을 이루면서 피장자에게 착장되기 시작하지만, 어디까지나 시원적 형태로써 월성로 가-13호분 단계까지는 아직 복식군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조합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순장자로 판단한 월성로 가-13호분의 피장자들은 경흥식과 태환이식의 주환, 중공구와 대도 등 여러 요소는 갖추었으나 착장 방식의 정형성이 갖추어지지 않아, 아직 명확한 복식군의 분화로 보기에는 어렵다.

그 다음인 황남동 110호 단계(1Bc기)에 들어서 대장식구가 추가되면서 비로소 세환이식+대장식구+대도를 중심으로 하는 세환군의 조합이 완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시기 황오동 14호 2곽에서도 태환이식이 추가되면서 태환이식+중공구·곡옥수식의 태환군 조합이 마련된다. 그리고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미착장 위주였던 장신구 부장이 대거 착장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부장 방식의 전환은 복식제도의 성립과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데, 시기적으로 보아 결국 고구려 기원의 삼엽문투조과대와 태환이식이 그 결정적 계기가 되는 셈이다. 신라의 복식제도와 지방 사여가 고구려를 모델로 삼았을 것이라는 견해(李漢祥 1995; 李熙濬 2002)에 비추어 본다면 정황적인 개연성이 있다.¹³⁸⁾

세환군과 태환군이 갖추어지면서 그에 따른 부장양상의 분화도 동시에 나타나는데, 가장 이른 태환이식 착장자가 피장된 황오동 14호 2곽에서 등자 부장의 결락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재갈과 함께 금동제 운주와 행엽 등 다른 마구는 부장되었음에도 등자는 부장되지 않았으며, 앞서 보았다시피 등자를 부장하지 않는 것은 태환군에 나타나는 특이적 부장양상이었다.

한편 세환군과 태환군이 이 시기에 갖추어진다고 해도 현재 자료로 보

138) 이희준(2002)은 이와 관련하여 중원 고구려비에 고구려가 신라에 복식을 사여한 것을 언급하였다. 해당 비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用者賜之隨者節□□奴客人□教諸位賜上下衣服教東...”

아서는 아직 결락된 부분이 있다. 관모의 경우 1기에 출토 사례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복제에 관모의 도입이 늦은 결과라기 보다는 1기에 해당하는 최고위계 고분이 조사되지 않은 까닭으로 해석된다. 앞서 실시된 계서의 분석에서 보다시피 금속제 관모의 부장은 최고위계 고분에 비교적 엄격히 제한되지만, 해당 시기에는 그러한 계서의 고분이 조사된 예가 없다. 관모의 1기 미출 사유가 이러하다면 세환군과 태환군 복식군의 분할과 그에 따른 부장 규범의 분화는 신라 전기 1기 내에서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착장 이식에 따른 복식의 분화가 1기에 완료되는 데 반해, 성별에 따른 분화는 현재 자료 내에서 그보다 늦다. 천의 피장자 착장이 확실한 사례는 2b기의 황남대총 북분에서 처음 나타나고, 여성 한정적 적석목곽묘 묘곽 형식인 두부부장단독곽(2C)형도 그러하다. 장신구로써 천의 존재 자체는 1Bb기에 월성로 가-14호분에서 출토 사례에서 보다시피 이미 알려져 있었고, 두부부장단독곽의 묘곽 형식도 그 자체는 신라 초기와 1Bb기의 석재 충전목곽묘에서부터 이미 존재한다.

즉 여성과 관련된 중요 요소로써 묘곽 형식과 천 모두 이전 시기부터 존재하지만 그것이 적석목곽묘 내에서 결합하여 여성을 나타내게 된 것은 2기에 들어서이다. 그 이전에는 현재의 방법론을 통해서 여성 피장자가 어떤 방식으로 적석목곽묘에 피장되었는지는 알기 어려우며, 마산리의 예를 통해 어느 정도 짐작만 할 수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현재 자료로 보면 1B기, 즉 황남동 109호 3·4곽과 황남동 110호 사이의 기간 동안에, 착장위세품을 중심으로 계서에 따른 세분화된 수직적 분화, 이식에 따른 복식의 분할 및 그에 따른 부장 방식의 분화가 모두 이루어지고, 그 다음인 2b기의 황남대총 북분에 들어서 성별에 따른 분화가 뒤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본적인 계서 구분의 골격인 이식→대장식구→관류의 누층적 구조도 대장식구의 도입기인 1B기에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장자 계서의 구분이 4개 복식군으로 나뉘면서 다소 복잡해진 것은 이처럼 복식 구비 과정에서 시간차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서 시간순으로 본다면 적석목곽묘의 축조 개시, 금공위세품을 중심으로 한 복식제도의 구비와 그에 따른 계서의 세분화, 이식의 분

화와 그에 따른 부장 규범의 설정, 성별에 따른 분화가 차례로 일어난다. 성별에 따른 분화를 제외하면 이러한 변화가 거의 한 분기 내에 일어나, 결과적으로 피장자의 성격을 중심으로 한 무덤의 구성 방식, 즉 적석목곽묘의 피장자 성격 요소와 그에 따른 부장 규범의 대부분은 1B기에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황남동 109호 3·4곽과 황남동 110호 사이의 이 시기에는 고식도질토기적 경향을 탈피한 경주양식 토기(특히 고배)가 성립하는 때로 볼 수 있고(고상혁 2016), 더 넓은 틀에서 이른바 이동양식 토기가 성립하는 시기이기도 하다(李熙濬 1997a). 또한 신라 고분의 고총화가 이루어지는 때이기도 하고(金龍星 1996; 李熙濬 1997b), 동시에 下位古墳群의 발생에서 계층 분화를 읽을 수 있으며(金在弘 2001b), 본격적인 신라권의 형성 시점이자 소위 고총체계의 시발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金龍星 2004).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시기를 전후한 소위 고총체계의 성립을 초기국가 단계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김대환 2007, 2012b).

시간적으로는 이러한 변화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실은 목곽묘 단계에서부터 집적되어온 사회적 변화, 즉 철제농기구의 보급을 바탕으로 한 생산력의 증대와 그에 따른 사회 구성원의 수직적 분화 등 장기적 변천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金在弘 2001b; 李熙濬 1997b). 이처럼 누적된 양적인 변화에 더해 고구려나 삼연 등 다른 정치체와의 대외교류 또한 한 요소가 되어 질적인 변화로 전화되어 무덤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착장위세품이 정형성을 띠면서 부장되기 시작하는 것, 다시 말해 복식제도의 성립은 묘제와 고총화, 토기상의 변화까지 동반하고 있으며, 신라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표출된 것이다.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격이 착장위세품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그에 따라서 세분화된 부장 방식이 마련된 것에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나타난 사회적 질서의 변화를 적석목곽묘의 축조를 중심으로 한 장례 의례를 통해 기념물화하여 顯現하고 전시하여 경관 내에 고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복식제도에 의한 계층적인 분화와 세환군과 태환군의 수평적인

분할은 황남동 110호와 황오동 14호 1·2곽의 예로 보아 가까운 시기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자료에 따르면 성별에 따른 무덤의 차별화는 그 이후에 나타나는데, 이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구분이 계서에 의한 수직적 구분과 (이식에 의한) 수평적 분화보다 후행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찰이 필요한 바 다음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2) 성별에 따른 고분 구성의 차이

본고에서 이루어진 분석에 따르면, 신라 고분 출토 천은 크기로 미루어 보아 여성만 착용 가능하였기 때문에, 그 착용자는 여성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라 시대 이전의 원삼국시대에서부터 천은 여성용 장신구로 기능하여 왔던 것으로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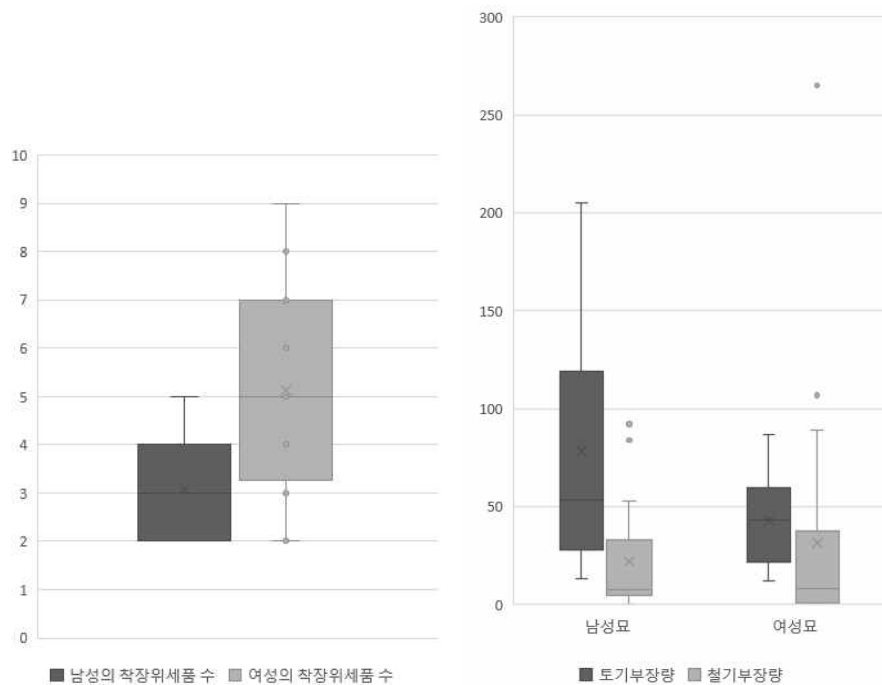
적석목곽묘에서 주피장자가 착용한 것이 확실한 사례는 황남대총 북분이지만 그 이전에도 월성북고분군에서는 천이 출토되고(월성로 가-14호), 북분 이전 단계의 지방 고분인 임당 7A호에서 주피장자 착용품은 아니지만 금동제 천이 확인되기 때문에, 북분 이전 단계에 위세품의 하나로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적석목곽묘에서 북분 이전의 여성 주피장자가 분명히 감지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이다. 그 이전에도 여성 피장자가 존재하였을 것이지만, 초기 적석목곽묘의 조사 사례가 적은 탓인지, 혹은 그 이전에는 성별에 따른 묘곽 형식의 분화나 천 착용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탓인지 월성북고분군에서 북분 이전의 여성 피장자는 인지가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단서가 되는 것이 앞서 언급한 포항 마산리 고분이다. 이 무덤은 동혈주부곽식의 석재충전목곽묘(연구자 관점에 따라서는 적석목곽묘)이며 천을 착용한 여성 피장자의 무덤인데, 부곽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무덤은 이전 단계 주변의 묘제와 다르고 초기 신라토기가 부장되어, 신라 초기에 포항지역이 사료국에 편입된 결과로 해석된다(최병현 2015). 따라서 마산리 고분의 축조에는 동시기 월성북고분군 묘제의 영향이 상정되므로, 해당 시기에는 월성북고분군에서 여성 피장자라 하더라도 부곽 설치에 제한이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라 초기에서 전기의 1기 어느 시점까지는 남성묘와 여성묘 사이에 묘곽 형식에 분별이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북분 단계에 이르러 부곽이 생략되는 형태로 여성묘는 남성묘와 달리 축조된다. 이 또한 중대한 함의를 갖는데, 남녀의 무덤이 달라졌다는 것은 이전 시기와는 다른 남성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무덤을 다르게 구성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적석목곽묘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첫째로 착장위세품의 구성이 서로 다르며, 둘째로 묘곽 형식이 부곽이 생략된 두부부장 단독곽에 한정되고, 셋째로는 부곽의 생략과 관련하여 부장품의 수량과 종류가 달라지는 것이었다. 고분의 구조와 내용 면에서 부곽의 생략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는 셈이다.

주지하다시피 부곽은 보다 많은 양의 부장품을 수납하기 위해 목곽묘단계에서부터 등장한다. 경주지역에서는 곽 개념의 정착 이후 묘곽 내에 보다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평면형태가 점차 세장한 형태를 띠다가, 3세기 후반 대에 부곽을 갖춘 경주식목곽묘로 변화하는 것으로 본다(이주헌 2009). 이때부터 모든 무덤이 반드시 부곽을 갖추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위계의 대형묘에는 동혈주부곽식의 형태로 부곽이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부곽을 대량의 부장품을 위한 부장 공간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적석목곽묘에서 여성 피장자에게만 부곽이 생략되는 현상은 해석이 어렵다.

하지만 남성묘와 여성묘의 부장양상을 실제로 비교해 보면, 토기를 제외하면 여성묘에서 어떤 부장량의 제한이나 규제가 존재하였고 남성묘에 비해 차등화하여 억제하였다는 뚜렷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으며, 착장위세품에 있어서는 오히려 여성묘가 압도적이다. 물론 부곽이 없기 때문에 앞서 실시된 분석에서는 남녀 무덤의 토기 부장량 차이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분묘 44기에서 토기의 평균 부장량은 여성묘가 남성묘의 절반 정도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기의 부장량에 있어서는 여성묘가 남성묘보다 오히려 많다(그림 58 참조).¹³⁹⁾ 물론 여기에는 착장 이식의 종류나 피장자의 계서 등 다른 변수도 개재되어 있지만, 부곽의 생략이 토기 외에



〈그림 58〉 적석목곽묘의 남성묘와 여성묘의 부장품 출토량 비교
(좌: 착장위세품(n=61), 우: 토기와 철기(n= 44))

다른 부장품의 축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부장되는 철기의 종류별 출토율에 있어서도, V장에서 실시된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출토율의 차이는 착장 이식에 따른 출토율의 차이보다 작았다. 철기 부장에 있어서 주된 변인은 착장 이식이었지 성별이 아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착장위세품의 전반적인 부장량에 있어서는 39개 남성묘에서 평균 3.1점이 부장되었으나 32개 여성묘에서는 평균 5.1점이 부장되어 여성묘의 위세품이 압도적이어서(그림 58 참조), 계서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139) 앞서 분석에 사용한 자료를 토대로 하면, 남성묘(남분 제외)의 토기 부장량 평균은 87.9점, 여성묘의 토기 부장량 평균은 42.3점으로 남성묘의 절반 수준이지만, 철기 부장량에 있어서는 남성묘 21.8점, 여성묘 31.6점으로 여성묘가 오히려 더 많다. 다만 여성묘에는 천마총(철기 265점 부장)이 이상치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다면 평균 22.3점으로, 남성묘와 거의 같은 철기 부장량 수치가 나온다.

양자를 분리해야 했을 정도였다. 또한 여성묘의 착장위세품이 압도적인 것은 단지 종류의 다양함에만 그치지 않고 재질에서도 뚜렷하다. 현재 확인된 금제 대관은 황남대총 북분, 금관총, 서봉총, 금령총, 서봉총 출토품 등 5점이고, 금제 관모 또한 금관총과 천마총 출토품 2점인데, 모두 여성묘에서만 출토되었다. 왕릉으로 비정됨에도 불구하고 황남대총 남분에서는 대관과 관모 모두 금동제이며, 이에 대한 해석을 놓고 발굴 당시부터 문제가 되었다.¹⁴⁰⁾ 그러나 관의 재질 문제는 착장자의 계서 보다는 성별과 관련시킨다면 보다 쉽게 해결된다. 금관이 모두 여성묘에서만 출토된 점은 여성 피장자의 위세 형성이 착장위세품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할 때 쉽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여성묘가 토기 부장량에는 열세이지만 착장위세품에서는 이렇게 압도적인 것은, 결국 성별에 따라 장례 맥락 내에서 피장자의 위세 과시 전략 내지는 부장 규정이 달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남성묘가 부곽을 통해 부장공간을 확장하고 다대한 양의 토기(혹은 그 내용물)를 부장하는 방식을 취했다면, 여성묘는 착장위세품에 집중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결국 부장품의 정치경제적 성격에 따라 위세를 형성하는 방식 상의 차이로 보인다.

이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되는 것이 고대경제를 생계경제와 위세경제로 구분하고 각 물자의 정치경제적 성격을 비교한 연구로(Kim 2001), 물자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공급 전략이 나타난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해당 사례에서 비교된 것은 위세경제 물품과 생계경제 물품이었지만, 신라 고분의 부장맥락 내에서 위세를 형성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물품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는 데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여성의 경우는 위세경제 물품인 착장위세품에 집중하여 위세를 표현하는 전략을 선택하였고, 남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생계경제 물품인 토기 혹은 그 내용물에 집중하여 위세를 표현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것이 적석목곽묘

140)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금관의 등장이 시간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남분에서는 금동관만 부장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입식의 형태로 보아 가장 이른 것으로 여겨지는 교동 68번지 출토 대관 또한 금제인 점에서 시간성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내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남성과 여성 엘리트에게 강조되었던 사회적 역할과 관련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남성묘와 여성묘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위세 형성의 전략상 차이가 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부곽의 생략은 그 과정에서 나타난 부분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각 성별의 무덤이 추구한 바는 남성은 토기의 부장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생산수단과 경제력을 과시하는 방식을 선택하였고, 여성은 금공위세품의 종류와 재질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성별에 따른 역할 구분에 대해 살펴보면, 왕과 왕비의 역할 구분에 대해서 혁거세 거서간조의 巡撫 기사¹⁴¹⁾를 왕은 농업을, 왕비는 양잠을 독려한 것으로 보고 각각의 정치적 행위와 역할이 뚜렷이 구분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이현주 2008). 이는 통치행위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역할 구분이 존재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최상층인 왕과 왕비에 한정된 내용이지만 보다 하위 엘리트에게서도 비슷한 역할 구분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더해 여성이 제사장적 역할을 수행한 기록도 있다. 남해왕이 시조 혁거세의 묘를 세워 네 철에 제사를 지내게 하는데, 이 제사를 친누이 阿老에게 主祭하게 하였다는 것이다¹⁴²⁾. 시조 혁거세의 묘라는 점에서 시조묘 제사는 건국신화와 연결되어 있으며, 국가 이념과 정통성을 강조하고 집단의 정체성을 제시하는 핵심적 행사이다. 또한 신라의 건국신화는 왕권의 기원과 성격을 설명하는 왕권신화이기도 하다(나희라 2005).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祭政의 분리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李鐘旭 1982), 왕실 여성이 여사제로서의 직능을 가진 것으로 보기도 한다(羅喜羅 1999: 96).

이러한 점을 종합해서 보면 왕실 여성에게 남성과 구분되어 할당된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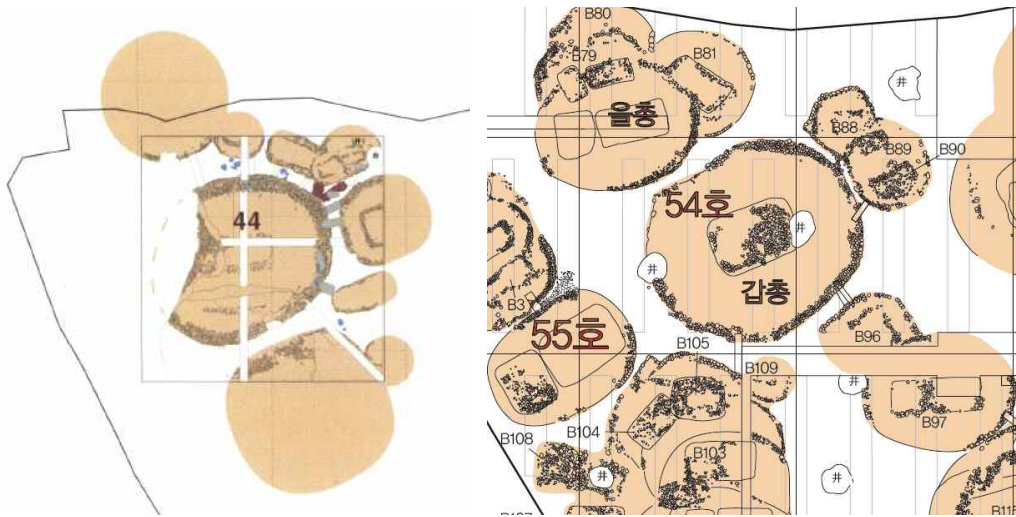
141) 三國史記 新羅本紀 始祖 赫居世 居西干條, “十七年, 王巡撫六部, 妃闕英從焉. 勸督農桑, 以盡地利.”

142) 三國史記 雜志 祭祀, “按新羅宗廟之制, 第二代南解王三年春, 始立始祖赫居世廟, 四時祭之, 以親妹阿老主祭.”

할이 있었으며, 국가 의례를 주관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역할의 차이가 무덤자료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요컨대 무덤 자료에서 여성묘의 존재가 남성묘와 다르게 나타나고 부장품의 구성도 다른 것은, 성별에 따른 역할의 분화에 따른 것일 공산이 크다고 여겨진다.

물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마립간기의 왕위는 남성만이 계승하였으며, 이 점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왕위 계승의 출계 원리에 대해서는 여성의 계승권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논쟁이 있어 왔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부계사회라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는 견해로 나뉘며, 전자는 신라 사회가 모계 사회에서 부계사회로 전환 과정에 있다고 보고, 후자는 부계사회가 아니라 二重血統(double descent)에 따랐다는 견해, 그리고 兩邊血統(bilateral descent)에 따랐다는 견해로 양분된다(성태규 2004). 이러한 논란의 근원은 사위나 외손에 의한 왕위계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성의 계승 혹은 상속권을 어떻게 보는가이다. 고고학계에서는 고분 자료에서 남성묘의 존재가 더 가시적이기 때문에 대체로 부계사회의 출계원리를 인정하는 관점에서 고분 자료를 해석하는 것이 보통인 것 같다(예를 들면 金龍星 1998: 361-384).

무덤의 배치에 이러한 계승관계 혹은 상속관계가 반영될 가능성은 상당하다. 그리고 만약 신라 사회가 부계사회의 계승원리를 중심으로 하였다면 가장 혹은 주상속권자인 남성묘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묘가 종속적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월성북고분군의 적석목곽묘에서도, 앞서 검토한 왕릉군에서는 주분인 남성묘를 중심으로 종속분인 여성묘가 배치되는 양상이 뚜렷하였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왕릉군에 한정된 것이고, 쪽샘지구로 넘어오면 묘곽 형식에서 여성묘로 판단되는 황오동 44호분과 황오동 54호 갑총은 주분으로써 입지하고 있다(그림 59). 황오동 54호 주변은 고분의 밀집도가 높은 관계로 군집화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북동쪽의 소형묘군은 54호 갑총의 종속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황오동 41호와 같이 남성묘가 주분인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정황을 종합한다면 왕릉군 바깥에서는 여성묘가 반드시 남성묘에게 종속적인 입지를 갖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림 59〉 여성묘의 주분 배치 사례(황오동 44호(좌), 황오동 54호 갑총(우))

이상의 검토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착장위세품의 전반적인 구성이나 재질에서 여성묘가 남성묘보다 우월하고, 여성묘에서 토기의 부장량이 적은 것은 사실이나 철기의 부장량에서는 반대로 더 많거나 같았으며, 고분군의 배치에 있어서도 왕릉군 바깥에서는 여성묘가 반드시 종속적인 위치에 입지하지 않는 점이 확인된다. 따라서 적석목곽묘의 여성묘에는 부곽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성별에 따른 차별화라기 보다는 위세 과시 전략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한편 부곽의 생략을 중심으로 한 남성묘와 여성묘의 분화는, 황오동 34호 3곽과 같이 극소수의 예외 가능성이 있지만 황남대총 북분의 축조 이후 매우 일관적으로 나타난다. 즉 조묘자들의 임의에 의한 변이 양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점에서, 이를 지시하는 축조 규정이 북분 이전의 어느 시점에 설정되었음을 시사한다. 다만 현존하는 자료와 방법론으로는 북분 이전의 여성묘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어렵고 추정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구분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고정되었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또한 월성북고분군 이후 서악동 고분군의 피장자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현재로서는 접근이 어려워, 적석목곽묘 축조기 이후에

성별에 따라 고분의 축조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여 갔는지를 추론하기는 힘들다.

이상을 따르면 적석목곽묘 사회의 성별은 무덤의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 중 하나로써 작동하였으며, 묘곽의 형식, 착장위세품을 위시한 부장품이 서로 다른 점 등은 성별에 따라 위세형성 방식에 차이가 있었고, 사서 기록 등을 통해 추론해 볼 때 엘리트 집단 내에서 성별에 따른 역할 분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기존에 피장자의 성별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던 피장자의 착장 이식은 어떠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지 검토할 차례가 되었으며, 다음에서 이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3) 착장 이식의 사회적 의미

착장이식은 주환의 종류에 따라 세환과 태환으로 구분된다. 비록 적석목곽묘 전반을 놓고 구체적인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지만, 개별 사례에 있어 착장 이식에 따라 고분 자료의 여러 측면이 달리 구성되었음은 기존의 여러 연구와 보고가 지적하여 온 바였으므로, 본고에서는 그 구체적인 의미 파악에 앞서 피장자의 성격 중의 한 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리라 가정하고 이를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일련의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제로 착장 이식에 따라서 피장자의 복식이 크게 양분되었으며, 계서에 따른 구성에도 차이를 보였다. 또한 성시구, 갑주, 등자의 부장 여부가 크게 달라지는 양상을 파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철기의 종류와 부장량이 태환군이 세환군에 비해 크게 열세인 점을 확인하였고, 유구의 연접에 있어서도 태환군 간에는 결코 연접되지 않는 점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양상이 월성북고분군의 적석목곽묘와 지방의 고분에서 공통적이었다는 점 또한 확인하였다. 반면 세환군과 태환군 간에서 토기 부장 양상의 결정적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왕묘로 비정되는 황남대총 남분이 세환군이라는 점 외에는 양자 간에 상하관계로 볼 만한 여지도 발견되지 않았다. 동시에 성별과 배타적으로 연계되는 양상도 아니었다.¹⁴³⁾ 즉 성별 또는 계서와는 별개로 사회 구성

원들을 구분하는 다른 원리에 따라 착장 이식의 종류가 달라졌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보되었다고 판단된다.

착장 이식과 관련하여서는 관련된 사료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고고학적 양상을 통해 추론하는 수 밖에 없다. <표 34>는 앞서 실시된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착장 이식에 따른 적석목곽묘의 구성 양상을 요약한 것이다. 또한 <그림 60>는 세환군과 태환군의 착장위세품과 토기, 철기의 부장량을 상자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종합해서 볼 때, 전반적으로 태환군에는 부장 여부에 제한이 많고 특히 철기 부장량이 적은 점이 눈에 띈다. 또한 연접에 있어서도 제한사항이 있으며, 왕릉군에서도 구분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양자의 차이 중에서 공통적인 맥락이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무기류의 부장이 태환군에서 결여되거나 축소된 점이다. 태환이식 착장자는 금관총이 예외일 가능성이 있지만 대도가 전부 미착장 부장이며, 성시구와 갑주의 부장도 기본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극소수 최고위계 고분에서만 예외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철촉, 철모, 철준의 출토율과 부장량이 모두 낮은 점도 같은 맥락인 것으로 이해되며, 기존에는 이러한 차이를 성별에 의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본고의 분석에 의하면 성별과는 별개의 원리로 구분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양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한 몇 가지 관점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한다. 먼저 부장품이 피장자의 사회적 역할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무기류의 부장이 많은 경우 피장자가 무장적 성격 혹은 군사지도자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다고 한다면 세환군은 군사·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성격의 피장자이고, 태환군은 그와는 무관한 다른 성격의 활동과 관련한 지도자로 볼 수 있겠다. 부장 유물 전반에 대한 검토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위세품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하지만 김용

143) 다만 남녀 성비는 세환군이 6:4, 태환군이 4:6 정도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약간의 편차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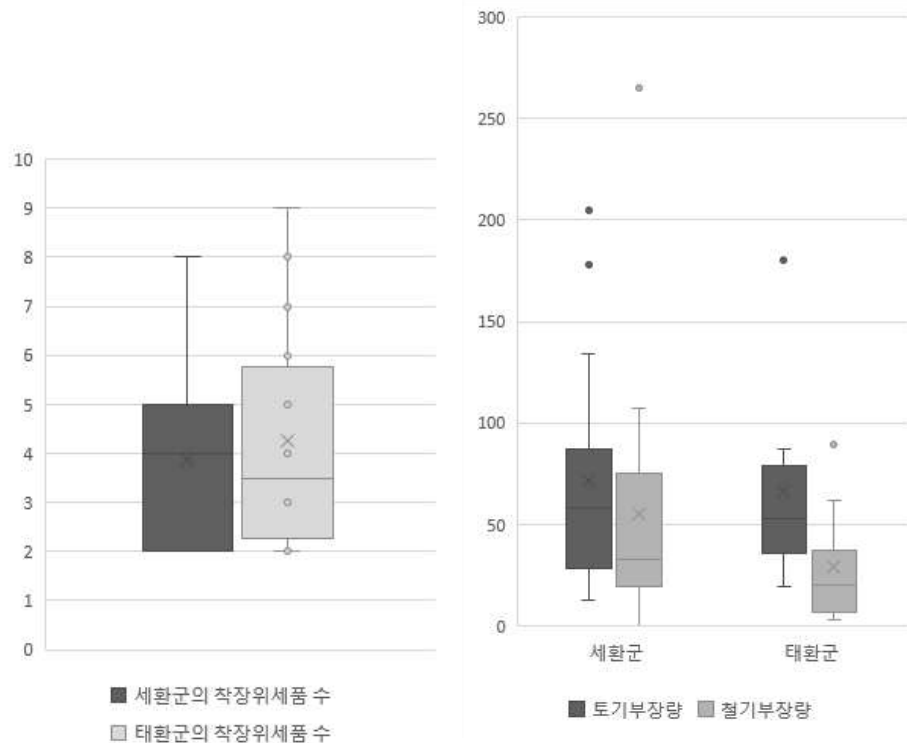
〈표 34〉 착장 이식에 따른 적석목곽묘의 구성 양상 비교

착장 이식 고고학적 양상	세환이식	태환이식
착장위세품	-높은 장식대도 공반착장을 -중공구수식 공반 전무	-장식대도 착장 사례 극소수 -높은 중공구수식 공반을
무구·마구	-부장 제한 없음	-성시구·갑주·등자 부장 제한
토기 부장 양상	-출토 기종, 부장량, 부장 비율에서 결정적 차이 없음	
철기 부장 양상	-철촉, 철모, 철준 등 무기류 중심으로 출토율이 높음 -철촉, 철모의 부장량 많음 -동일 계서 내에서 태환군의 부장량 압도	-살포, 철서의 부장율이 높음 -철서는 배타적 부장의 가능성 있음 -동일 계서 내에서 세환군의 부장량에 열세
연접축조 양상	-별도의 규제 없음	-태환군-태환군 간 연접 불가
왕릉군 군집	-주분 및 종속분 구분 없음	-왕릉군에서 주분은 없는 것으 로 추정됨
묘곽 형식	-주부곽식, 단곽식 공히 축조되며 양자 간 차이 없음	
피장자 성비 (n=61)	-남성 59%, 여성 41%	-남성 38%, 여성 62%

성(1998)은 동일한 내용으로 세환이식 착장자와 태환이식 착장자의 직능 구분을 언급한 바 있었다.¹⁴⁴⁾

이처럼 무기류와 같은 부장품이 피장자의 직능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는 관점은 가장 일반적이고 직관적인 해석이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단순화된 해석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무덤에 부장된 무기류를 무력의 기반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한쪽 측면만 읽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뒤집어 보면 무기류의 대량 부장은 군사력으로 환원될 수 있는 자원을 과기, 상실하는

144) 세환이식 착장자와 태환이식 착장자가 짝을 이루어 매장되는 점에서 양자를 부부관계로 보고 이식의 주환 종류가 성별과 관련있다고 결론내렸으나, 이식이 직능과 관련이 있다는 관점을 포기하지는 않았다(金龍星 1998: 336-338).



〈그림 60〉 적석목곽묘의 세환군과 태환군의 부장품 출토량 비교
(n=25, 좌: 착장위세품, 우: 토기와 철기)

것이기 때문이다. 한 사회의 생산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무력 기반의 유지가 필요한 상황, 특히 군사적인 긴장상황이라면 무기류의 부장은 축소되어 나타날 공산이 크며, 때문에 대량의 무기를 부장하는 행위는 역설적으로 그만큼 직접적인 군사력이 필요 없는 정치적 상황을 암시할 수 있다(Härke 1997b). 이러한 관점에서는 세환군의 무기 대량 부장을 무력의 과시 그 자체와 함께 무기류를 포함한 철기류의 생산과 공급 능력, 즉 경제력에 대한 과시로도 읽을 수 있다.¹⁴⁵⁾

즉 세환군의 무덤에서는 철기와 관련된 경제적 능력의 과시가 태환군보

145) 이와 약간 다른 의례경제적 관점에서는, 부장을 통한 무기류의 과시, 상실이 단순한 소모가 아니라, 그것을 소비하는 만큼 그와 관련된 상징적 효과를 얻는다고 해석된다.

다 더 필요하였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피장자에게 그 생산 및 공급과 관련된 역할이 기대되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황남대총 남분이 본고의 분석대상 고분 출토 철기의 70% 이상을 독점하고 있었던 것은 해당 피장자가 철기의 생산시설과 공급망을 독점에 가까운 형태로 점유하거나 접근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하며, 막대한 부장량은 그에 대한 과시로 읽힌다.

한편 태환군에서 철기의 부장량 과시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것은 태환군의 피장자는 경제력의 과시가 상대적으로 적게 필요한 사회적 입지에 있었다는 것이 되고, 그와 관련된 사회적 기대도 높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세환군과 태환군의 차이가 이러하다면 직능 혹은 계서에 의한 차이로 볼 수 있지만, 양자가 수직적인 계층화를 이루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¹⁴⁶⁾

남성묘와 여성묘에 있어서는, 여성묘에 부곽이 설치되지 않고 토기 부장량이 적은 측면을 착장위세품의 종류와 재질을 통해 보충하려는 듯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환군과 태환군에서는 철기의 부족을 다른 요소를 통해 상쇄하려는 양상이 확인되지 않는다. 양자는 착장위세품의 숫자도 거의 유사하고, 토기 부장량에 있어서도 유사한 부장량을 보이되 철기에서만 차이가 나타난다(그림 60 참조).

결국 부장의 맥락을 감안할 때 세환군과 태환군의 차이는 직능의 차이, 혹은 더 넓은 차원에서 권력의 분화 내지는 분담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무기류를 중심으로 한 철기류의 양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점에서는 세환군의 피장자를 군사력 내지 무력과 관련한 직능으로 볼 수 있고, 철기 부장량 전반을 감안한다면 철기 생산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역할과 연관지을 수 있다. 상대적인 측면에서 태환군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 군사력이나 생산력과는 상보적인 성격의 종교적, 이념적 권력과 관련된 권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태환군의 성격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요소는 등자 부장의 결락이다. 태환군에는 최상위 고분 소수의 예외를 제하고는 등자를 부장하

146) 다만 남성 태환군은 A군에 해당하는 분묘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에서 적어도 남성 태환군에게는 계서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

지 않지만, 세환군에는 하위위계에도 등자 부장이 활발하며 출토율은 70%에 가깝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이 마구 전반에 걸친 것은 아니어서, 등자의 결락에도 불구하고 재갈, 안교, 운주, 행엽 등 다른 마구는 제한 없이 부장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첫 번째 가능성은 태환군의 마구 구성이 車馬具를 의도한 것일 가능성이다. 차마구라면 기승자는 수레에 앉게 되므로 등자가 필요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교는 세환군의 騎馬具와 동일하게 부장되고 있으며, 적석곽묘 내에서 수레부속구의 출토 사례는 전무한 점에서,¹⁴⁷⁾ 마립간기에 수레의 존재는 불투명하다. 따라서 차마구를 구성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두 번째 가능성은 등자를 무기류적 성격과 관련하여 보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등자는 안정구로써 중요한 마구일 뿐만 아니라, 기수의 전투능력을 강화시켜주는 수단이기도 하다. 무용총 수렵도에 묘사된 것과 같이 고삐를 놓은 상태에서 양손을 사용한 騎射의 난이도를 낮추고, 마상전투나 대보병 돌격에서 낙마를 방지하고 전투능력을 극대화시켜주기 때문에, 중세 유럽에서는 등자 도입이 전문 전투 집단으로써 기사 계급, 나아가 봉건제의 탄생을 촉발시켰다는 가설도 있다(White 1962). 따라서 태환군의 분묘에서 등자가 결락되는 이유는 마구만 보아서는 판단이 곤란하나, 갑주, 성시구, 대도와 함께 결여되는 양상에서 미루어 판단하면 그 이유는 비전투용 마구를 의도한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갑주와 등자, 성시구, 대도를 태환군 분묘에 부장하지 않고, 철기 전반에서 무기류의 부장량이 적은 이유는 그들에게 권력과 경제력이 결여된 것을 표현한 것이라기 보다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무력과 상보적 관계에 있는 이념적, 종교적 권능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추론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자료는 금령총 출토 기마인물상 토기 두 점이다. 주인상과 하인상으로 명명된 두 점의 토기는 각각 세환군과 태환군의 착장위세품과 무구, 마구 구성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으며(표 35 참조), 특히 주인은 갑주, 등자, 대도를 모두 갖추어 완전무장하고 있으나, 하인은 비무장이며 무등자

147) 수레부속구와는 성격을 달리하지만, 계림로 25호 옹관에서 車形土器의 출토 사례가 있다.

〈표 35〉 금령총 출토 기마인물형토기와 세환군·태환군의 복식·마구 비교

기마 인물형 토기	 금령총 주인상		 금령총 하인상	
	세환군의 착장 및 부장 정형	금령총 주인상	태환군의 착장 및 부장 정형	금령총 하인상
비교				
위세품				
세환이식	○	?	×	?
태환이식	×	?	○	?
관모	○	○	×	×
관식	○	○	×	×
대도	○	○	×	×
대장식구	○	?	○	?
갑주	○	○	×	×
성시구	○	×	×	×
안교	○	○	○	○
재갈	○	○	○	○
등자	○	○	×	×
행엽	○	○	○	×
운주	○	○	○	○

기승을 하고 있고, 손에는 모종의 의례용구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었다(윤상덕 2012). 따라서 이 둘은 주인과 하인의 수직적 관계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각각 세환군과 태환군에 속하는 인물을 묘사한 것으로, 신라 엘리트층 양분하는 대표 원리와 그 복식 및 마장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세환이식과 태환이식은 경제력과 무력을 바탕으로 하는 세속적 권력과,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적 권력의 分掌을 의미하며, 착장위세품과 무기·마구, 그리고 무기류의 차별적 부장은 그들이 분장한 권력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대등하고 상보적인 관계이지

만, 현재 자료로 볼 때 남성 태환군의 최상층(A군)은 확인되지 않고 황남대총 남분의 피장자는 세환군인 점에서 왕은 기본적으로 세환군에 속한다고 판단되며, 이는 세환군의 권력 성격이 구조적으로 상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에게는 세환군과 태환군 모두 최상층이 존재하였으며, 특히 왕릉군의 여성 피장자들은 왕실 여성으로써 왕비나 왕의 직계일 가능성이 크다. 극소수 최고위계 태환군에서는 등자, 갑주, 성시구의 부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왕을 비롯한 왕실 직계의 최상층 엘리트가 권력을 통할하였음을 상징하는 과시로 이해할 수 있다. 남성 세환군에서는 대관의 착장이 전무하지만, 황남대총 남분에서만 착장이 나타나는 이유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양자가 무덤에서 입지하는 관계를 보면, 왕릉군의 주분-종속분 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세환군과 태환군은 모종의 상응관계를 이루는 경우가 있다. 가령 세환군인 황남대총 남분과 태환군인 북분이 연접분이면서 그러하고, 세환군으로 추정되는 봉황대와 서봉황대는¹⁴⁸⁾ 각각 금관총과 서봉총을 종속분으로 거느렸다. 이는 태환군의 성립과 관련되는 고분인 황오동 14호 1, 2곽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황오동 고분 남북곽 등 여러 표형분에서 나타난다. 이는 두 종류의 권력이 서로 상보적인 관계였으며 그 담당자들의 직능 또한 그러한 측면이 강했음을 나타낸다고 여겨지는데, 무덤에서 출토된 숫자상의 비율에 있어서는 반드시 1:1은 아니고 세환군과 태환군이 대략 1.5:1의 비율을 보이는 것이 관찰된다.¹⁴⁹⁾ 이는 아마도 사회적인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세환군 및 태환군과 관련된 사회적 역할은, 현재 월성북고분군의 옹관묘에서 분명한 이식의 출토 사례가 없는 점에서,¹⁵⁰⁾ 생득적으로 부

148) 앞서 이 두 고분은 크기와 입지로 보아 왕묘로 보았고, 따라서 남성 피장자인데, 남성 태환군의 경우 A군이 없으므로 세환군으로 추정한 바 있다.

149) 본고의 월성북고분군 분석 대상 중에서, 착장이식이 확인되면서 착장위세품이 2점 이상인 고분은 세환군 45기, 태환군 30기로 1.5:1의 비율을 보인다.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된 지방 고분에서는 세환군 39기, 태환군 18기로 적석목곽묘보다 높은 2.2:1의 비율을 보인다.

150) 월성북고분군 옹관묘의 이식 출토와 관련하여 볼 만한 사례로는 인왕동 668-2번지 1호 옹관묘가 있다. 여기에서는 금제이식의 수식부만 출토되었다.

여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연령에 도달하였을 때 후천적으로 획득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¹⁵¹⁾ 금령총의 예로 보아 최소한 아동기에는 접어 들어야 해당 역할의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 것 같다.

한편 일본의 고훈시대 전기~중기 초 고분의 부장품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분고와 유사한 결론이 도출된 바 있어 주목된다. 白石(2003)은 다수의 완륜형석제품이 부장된 고분을 무기와 갑주의 부장 여부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를 무기와 갑주의 부장이 희소한 것(A류)과 다량 부장되는 것(B류)로 나누고, 전자를 주술적·종교적 수장으로, 후자를 정치적·군사적 수장이되 주술적·종교적 성격도 겸비한 것으로 보았다. 전자의 경우 여성이 많고 후자의 경우 남성이 많았을 것으로 보고, 그 근거로는 삼국지 위지 왜인전에 남동생이 卑彌呼를 보좌한 것 등의 사료를 들었다. 그리고 양자가 조합을 이루는 양상을 ‘聖俗의 二重首長制’라 칭하였다.

사실 白石의 논증은 분석 대상 고분이 수 기에 불과하고, 피장자의 성별에 대한 실제적인 검토가 결여되어 있는 등 문제점이 있으나, 권력의 성격에 따른 분장이 무덤 자료에서 감지된다고 본 점은 크게 보아 분고의 분석 결과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문제는 신라와 일본의 고총기에 이러한 권력의 분장이 왜 공통적으로 일어나며 그 배경은 무엇인가하는 점이다. 그것은 분할되는 권력의 성격을 볼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경우 모두 무력 및 경제력, 그리고 이념적 권력의 분할이 고총, 즉 기념물의 축조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주지하다시피 신진화론적 관점에서 권력의 원천은 경제, 무력, 이념으로 분할되며(Earle 1997), 이와는 약간 다른 시각에서 권력의 세 가지 측면을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력으로 나누어 보기도 한다(Yoffee 2004). 이 중 후자의 관점에서 경제적 권력은 잉여의 생산과 축적을 통해, 정치적 권력은 군사조직 등 전문화된 집단을 통해, 사회적 권력은 공공상징의 창조와 의례,

151) 다만 지방의 옹관묘에서는 분명한 이식의 출토 사례가 소수 존재하여 대조를 이룬다. 대표적인 것이 임당 7호 옹관묘에서 출토된 수식부가금제세환이식인데, 주환의 크기가 15mm정도에 불과하여 본래 소아용으로 제작된 것 같다. 이는 착장위세품의 지방 제작 사례와 함께 볼 때 지방 엘리트 단위에서 자치적인 세환-태환 분장을 비롯한 착장위세품 수여가 일부 있었음을 시사한다.

기념물의 축조를 통해 획득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세 가지 측면은 서로 획득하는 수단이 다르지만 이들에 대한 통제 강화가 서로 지지하고 공진화하면서 사회복합화가 진전된다고 본다(Yoffee 2004: 34-38).

신라 사회에서 고총의 축조와 세환군과 태환군의 분할, 복식제도의 성립을 통한 계서화, 그리고 그에 따른 부장규범의 성립, 성별 역할의 분화 등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나타나는 것은 사회 내외적인 여건의 충족을 통해 사회복합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는 시점이기 때문일 것이다. 결과론적 해석이지만,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기념물로써 고대한 봉토를 갖추고 막대한 양의 부장품을 갖춘 적석목곽묘는, 이전 시기와는 다른 차원으로 잉여가 축적되었음을 자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그렇게 축적된 잉여의 과시적 소비를 통해 신라 엘리트들이 얻고자 한 바는 사회적 질서의 전시를 통해 통제와 지배를 강화하려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과시적 소비와 전시 자체만으로는 그러한 목적의 달성이 어렵고, 공동체 단위에서 특정한 이념을 바탕으로 한 종교적 의례가 배경이 될 때 경제적, 이념적 권력의 상승효과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마립간기에는 초기적인 행정조직은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 고도화된 관료제가 존재하지 않는 시기로¹⁵²⁾, 왕은 존재하였으되 완전히 중앙집권화된 지도력이 존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여겨지는 바 일정한 권력의 분장이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한편 이사금기까지의 신라 초기 왕은 탄생 신화와 행적, 죽음에서 알 수 있다시피 司祭王적 속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羅喜羅 1999).¹⁵³⁾ 동시에 기원전후에서 4세기대에 이르기까지 부장품의 성격 변천 과정을 통해 수장의 기능 변화를 추정하여 보면, 의기류의 축소와 철기, 무기류

152) 법흥왕 7년(520)에 관등과 공복이 제정되었다는 기사를 관등제와 연결짓는 해석이 일반적이고, 그를 전후한 금석문 기록을 통해 볼 때 그 이전에도 일부 관등이 존재하였으나 경위 17관등이 정비된 것은 법흥왕 7년이라 한다(전덕재 2010).

153) 이는 왕명 차차웅에서 잘 드러난다. 三國遺事 卷一 紀異第一 南解王, “稱或曰次次雄或作慈充. 金大問云 次次雄方言謂巫也. 世人以巫事鬼神尚祭祀故畏敬之, 遂稱尊長者爲慈充.”

의 증가로 미루어 보아 제의적인 것에서 지속적으로 정치군사적인 측면으로 변화하여 왔던 것으로 지적되었다(權五榮 1997). 사제적 성격의 권력이 정치적, 군사적 성격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은 이념적 권력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권력의 공진화를 염두에 둘 때, 그리고 초기적인 행정 조직을 염두에 둘 때 상위 엘리트 내에서 수평적인 분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원삼국시대 이래 사회복합화와 생산력의 증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권력과 이념적 권력의 분장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생각된다. 사회적 잉여의 생산 및 관리와 군사력을 비롯한 인력의 동원, 그리고 의례적 역할의 수행 등을 초기적인 행정조직에만 기반하여 왕을 위시한 소수의 최상위 엘리트가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효율성을 위한 역할분담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앞서 본 성별에 따른 역할 구분과 함께, 세환군과 태환군의 권력분장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을 잘 축약해서 보여주는 것이 왕의 친누이로 하여금 시조묘의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으로, 성별에 의한 역할 분담과 정치적 권력과 이념적 권력의 분장을 동시에 볼 수 있다.

세환군과 태환군에 의한 권력분장이 언제까지 이어졌는지는 확실히 알기 어렵다. 종래의 세환이식과 태환이식 자체는 석실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부장되지 않지만 그것이 곧바로 권력구조의 개편을 의미하는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마립간기의 국가 이데올로기를 대체한 불교의 도입과, 관료제를 통한 중앙집권화는 이념적, 정치적 권력의 진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바, 마립간기 방식의 권력 분장은 법흥왕대의 불교공인 및 율령반포와 함께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645년에 건축되었다고 하는 황룡사지 목탑의 초석 하부에서 태환이식이 출토된 점에서, 기존의 의미를 상실한 장신구로써 상당기간 존속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출토 유물상의 비교를 통해 착장 이식의 의미를 추론하였으며, 그 결과 경제적, 정치적 권력과 이념적, 종교적 권력의 분장을 상징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양상이 성별과는 완전히 다른 원리를 갖고있는 바, 그러한 점에서 착장 이식은 성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적석목곽묘 피장자 집

단을 수평적으로 양분하는 사회 구조화 원리이기도 하였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제도와 조직이 완비되기 이전까지의 과정적인 것이었고, 이식을 착장할 수 있었던 계층에만 한정되는 것이었다.

4) 적석목곽묘의 구성 원리와 월성북고분군 축조집단의 사회구조

이상의 검토를 통해 볼 때 적석목곽묘와 그 하위묘제를 포괄하는 월성북고분군은 피장자의 성격을 구분하는 몇가지 원리에 따라 구조화되어 있었다. 첫째는 계서로써, 착장위세품의 누층적 구조에 따라서 복식을 통해 수직적인 구성원리로 작용하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넓은 틀에서 보아서는 묘제가 하나의 계서 표현 방식으로써 작용하였으며(최병현 2016a), 고분의 입지 또한 계서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왕릉군에서 보다시피 왕을 중심으로 한 최상층은 배타적인 묘역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수평적인 구성원리를 갖는데, 첫째는 착장 이식이고 둘째는 성별이다. 앞서 논증한 바와 같이 착장 이식은 상보적인 관계를 갖는 권력의 분장이 복식에서 표현된 것으로, 적석목곽묘 피장자 집단을 수평적으로 분할한다. 세부적으로 본다면 남성 태환군은 최상층에 존재하지 않는 등, 내부적으로 계층적인 차별화가 감지되기도 하나 기본적으로는 수평적 구성원리이다.

성별은 현재 자료로 보아 착장 이식보다 나중에 추가되는 수평적 구성원리으로써, 묘곽 형식과 착장위세품이 남성과 명백히 다르게 구성되었으나 차등을 두어 차별화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토기의 부장량은 열세이나 착장위세품의 수와 재질에서는 월등하기 때문이다.

월성북고분군의 비적석목곽묘 또한 성별과 내부적인 계서에 따라 수평적, 수직적으로 구조화되었을 것이지만,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 또한 늦은 시기의 석실을 제외하면 태환이식이 출토되는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여, 적석목곽묘 피장자 집단과는 달리 착장이식에 의한 분화는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장자 간 분화가 미약한 양상은 상위 엘리트 무덤에서 분화가 뚜렷한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비적석목곽묘 피장자 집단이 기본적으로 피지배 계층이었음을 시사한다.

월성북고분군의 피장자는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구조화되어 있었으며, 성별과 계서, 이식이 피장자를 구분하는 기본적인 기준이었고 이것이 무덤에 잘 표현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적석목곽묘 피장자 집단은 성별과 착장이식에 따라 수평적으로 4개 복식군이 분리되고, 각 복식군은 착장위세품의 누적적 구성, 즉 이식→대장식구→관류의 부장 또는 착장을 통해 위계적으로 계서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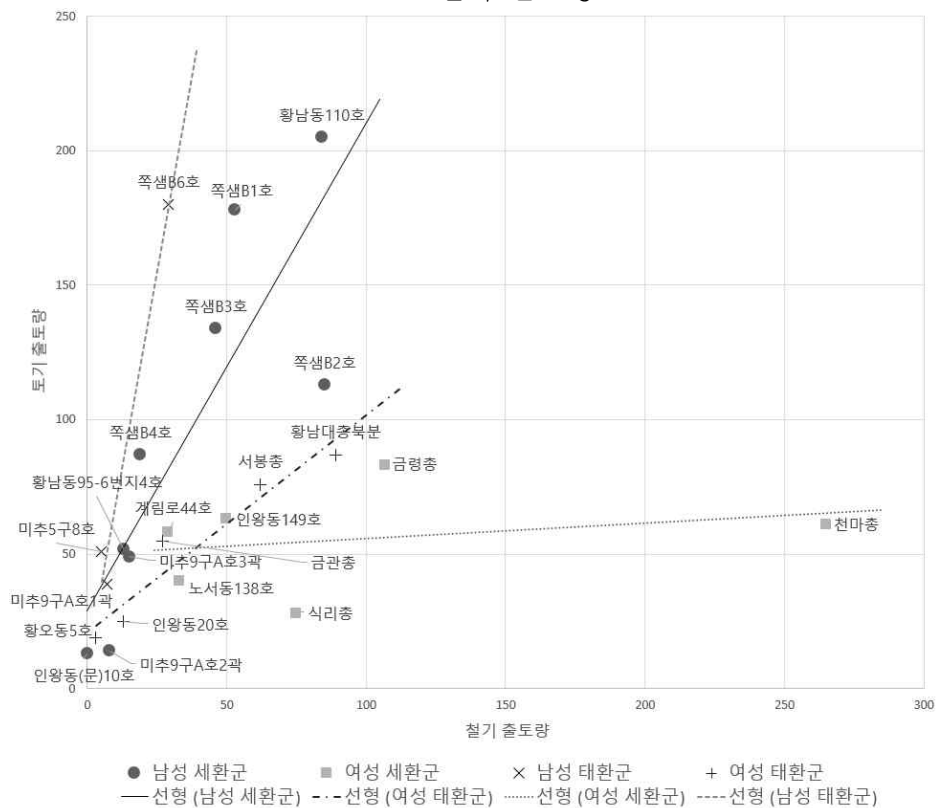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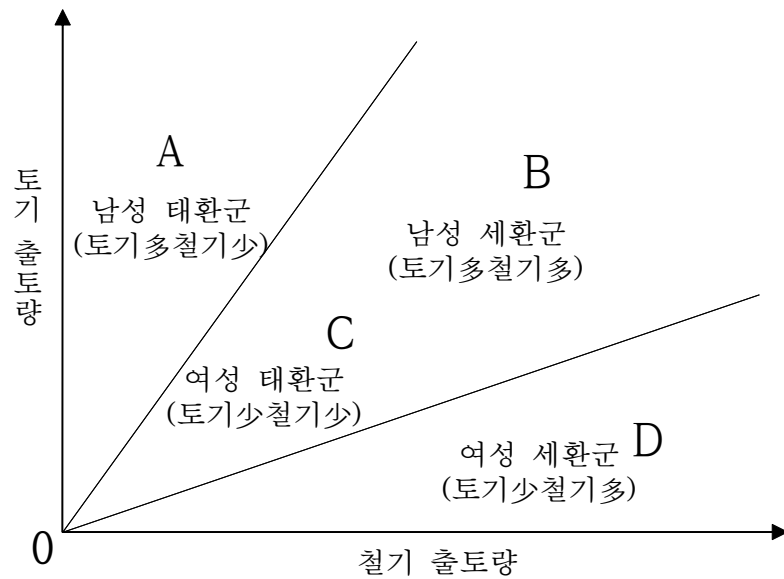
성별과 착장 이식, 계서 등 피장자 성격의 제 측면에 따라 적석목곽묘의 위세품, 토기와 철기, 유구 등이 구성되는 양상을 지금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간략히 정리하면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 표에서는 구체적인 상관 계수나 출토율, 부장량은 모두 생략하고 최소한의 관계만을 표시하였지만 큰 틀에서 피장자 성격에 따라 적석목곽묘의 여러 측면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다. 그 중에는 태환군 간의 연접이 사실상 금지되는 것과 같이 예외없이 지켜지는 경우도 있지만, 태환군에 등자·성시구·갑주가 부장되는 등 극소수 상위위계 고분에서는 예외가 있는 것도 있다.

현재 안에서는 철기와 토기의 부장량이 성별과 착장 이식에 따라 多少가 나뉘는데, 보다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구해볼 수도 있다. 성별에 따라 토기 부장량의 다소가 결정되고 착장 이식에 따라 철기 부장량의 다소가 결정되기 때문에, 4개 복식군 중에서 어느 것에 속하느냐에 따라 토기와 철기 부장량의 대략적인 비율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모델을 설정하면 <그림 61>의 상부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철기 출토량과 토기 출토량을 xy그래프로 나타내었을 때, 남성 태환군은 토기 출토량이 많고 철기 출토량은 적을 것이기 때문에 A~0 사이의 구역에 위치할 것이되 계서가 높을수록 부장량이 많아 0점에서 멀어질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여성 세환군은 토기 출토량은 적고 철기 출토량은 많을 것이기에 D~0에 해당하는 구역에 위치할 것이다. 남성 세환군은 토기와 철기 모두 부장량이 많기에 B~0구역에, 여성

〈표 36〉 피장자의 성격에 따른 적석목곽묘의 구성

분류	구성요소	피장자 성격		
		성별	계서	착장 이식
위세품	착장위세품	천의 착장 여부	이식→대장식구→관류의 누층적 구조	세환군, 태환군의 분할 대도의 착장 여부
	무구·마구	상관관계 없음	구성차이 없음 상위위계 금장, 은장	태환군의 등자·성시구·갑주 부장 제한
토기·철기	토기 부장량	남성 多, 여성 少	상위위계 多 하위위계 少	상관관계 없음
	토기 기종구성	남성묘 부곽에 연질조리용기, 배류에서 이단고배 중심 여성묘 연질조리용기 없음 배류에서 일단고배, 개배 중심	상위위계와 하위위계 간 큰 차이 없음	상관관계 없음
	철기 부장량	차이 없음	상위위계 多 하위위계 少	세환군 多 태환군 少
	철기 종류	대차 없음 철서 여성묘 한정 가능성	상위위계 종류 多 하위위계 종류 少	세환군 무기류 多 태환군 무기류 少
유구 형태 및 배치	묘곽 형식	남성 부곽 설치 (1A, 1B, 2A, 2B) 여성 부곽 미설치(2C)	상관관계 없음	상관관계 없음
	연접배치	여성묘 선축, 남성묘 후축의 연접 불가	연접은 동일 계서 중심으로 이루어짐	태환군 간 연접 불가
	군집화 (왕릉군)	남성묘 주분, 여성묘 종속분	-	주분은 세환군 추정, 태환군 1기가 주분과 짝을 이룸
	군집화 (왕릉군 외)	남성묘, 여성묘 모두 주분 가능	-	표형분 중에 세환-태환 짝을 이루는 경우 있음
비고	세환군과 태환군의 숫자상 비는 1.5:1 세환군의 성비는 남녀 6:4, 태환군의 성비는 남녀 4:6			



<그림 61> 성별과 착장 이식에 따른 토기·철기 부장량 모델(상)과 실제(하)
(n=23, 황남대총 남분 제외)

태환군은 토기와 철기 모두 부장량이 적어 C~0구역에 위치할 것이다. 또한 계서에 따라 부장량이 증가하므로 각각의 복식군은 서로 다른 증가 경향을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의 검증을 위해 4개의 복식군과 토기·철기 부장량을 비교해 보면, <그림 61>의 하단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설정한 모델과 거의 동일한 양상이 나타난다. 여기서는 4개의 복식군이 보여주는 출토량 회귀선의 기울기에서 보다시피 각각의 부장 경향은 모델을 통해 예측한 대로 뚜렷이 달라, 피장자의 성격 중에서 성별과 착장 이식의 조합이 토기와 철기의 상대적인 부장량을 사실상 결정하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표 36>과 <그림 61>을 기반으로 하여 볼 때, 피장자의 성격에 따라 적석목곽묘의 여러 부분이 정형적으로 결정되는 양상이 뚜렷하다 할 수 있다. 특히 피장자의 성별과 착장 이식으로 적석목곽묘 부장 경향의 큰 틀은 대부분 결정되어, 4개 복식군 중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알 수 있다면 토기와 철기의 부장 경향을 예측할 수 있다. 착장위세품을 통해 계서에 대해 알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토기·철기의 전반적인 부장량, 그리고 봉토의 크기 또한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복식군에 대해 부장 경향을 요약하면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처럼 적석목곽묘는 피장자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매우 구체적인 규범을 바탕으로 축조된 것으로써, 조묘자에 의한 임의적인 간섭이나 피장자 개인의 선택에 의해 그것이 교란된 경우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적어도 황남대총 북분 이후로는 정형화되어 준수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정도로 제도화된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적석목곽묘에는 성별과 착장 이식에 따른 수평적 분화와, 착장 위세품의 구성에 따른 수직적 분화 등 당시 경주지역 엘리트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사회 질서와 구조가 적극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부장품의 세부적인 구성 정형을 통해 그것을 보장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무덤에 표현된 것으로써,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실제 신라 사회의 구조를 있는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다소 지나치게 낙관적인 관점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되 이상화된 질서를 상징적

〈표 37〉 피장자의 복식군에 따른 적석목곽묘의 부장 경향과 묘곽 형식

복식군 주요 특징	남성 세환군 (甲)	남성 태환군 (乙)	여성 세환군 (丙)	여성 태환군 (丁)
착장 이식	세환이식	태환이식	세환이식	태환이식
천 착장	불가	불가	가능	가능
대도 착장	가능	불가	가능	불가
성시구·갑주· 등자 부장	부장 가능	부장 불가	부장 가능	부장 불가
토기 부장량	多	多	少	少
철기 부장량	多	少	多	少
묘곽 형식	1A, 1B, 2A, 2B	1A, 1B, 2A, 2B	2C	2C

으로 표현한 것에 가까울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립묘지를 예로 들면,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계서와 수평적 분화는¹⁵⁴⁾ 우리 사회의 일부분을 특정한 형태로 이상화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념물적 형태로 표현한 것이기에, 사회의 특정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반영하였지만 있는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만약 현충원의 국립묘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사회구조를 복원한다고 하면, 관점에 따라서는 실제와 상당히 다른 형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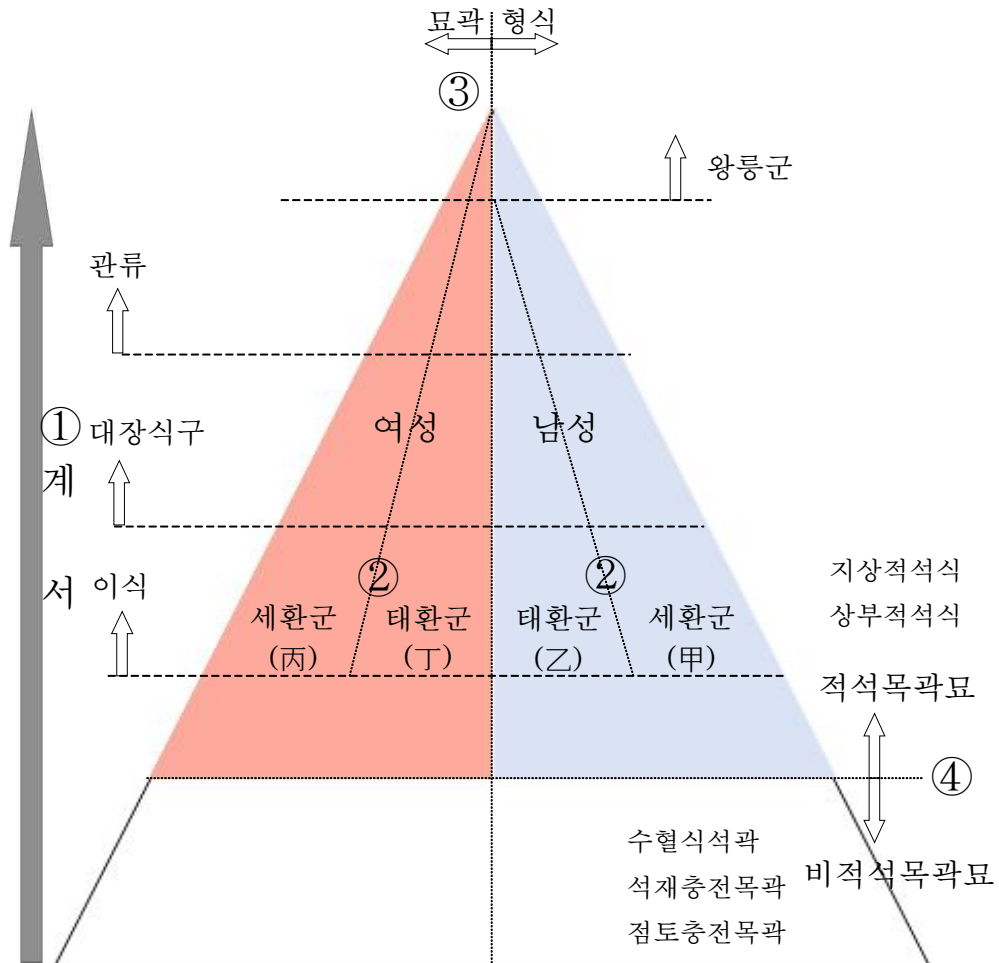
월성북고분군의 적석목곽묘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기서 신라 엘리트들이 의도한 사회적 질서를 읽을 수 있는 것이며, 유구와 유물을 통해 그것을 표현하고 어떻게 스스로를 구조화하였는지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154) 우리나라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생전의 사회적 계서의 특정한 측면(대통령, 장군, 사병 등), 직능과 역할(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 업적과 사후의 평가(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등) 등 피장자의 성격에 따라 매장 자격, 묘역의 면적, 매장 구역 등이 세세히 규정되어 있다. 즉 피장자의 성격이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무덤에 표현되도록 하는 일련의 체계가 존재하며 거기에는 우리 사회가 중시하는 이념과 질서, 조직과 구성이 반영되어 있지만, 그 결과물이 반드시 사회 구조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신라 엘리트들에 의해 물질화(Earle 1997; DeMarrais *et al.* 1996)된 그들의 세계관과 사회질서를 볼 수 있는 것이다.¹⁵⁵⁾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파악한 월성북고분군 피장자 집단이 무덤에 표현하고자 한 구조 및 구조화의 원리를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그림 6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 절에서는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격의 제 측면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피고, 그 과정에서 성별과 착장 이식이 가졌던 사회적 의미에 대해 논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적석목곽묘의 여러 측면을 구성하였는지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피장자 성격 요소들이 수평적, 수직적으로 결합하여 월성북고분군 엘리트들을 어떻게 조직화, 구조화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적석목곽묘에는 신라 엘리트의 내부적 질서와 분화가 피장자 성격의 제 요소 및 그에 따른 부장 규정을 통해 표현된 결과물이자 공동체의 기념물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지방의 고분에서도 적석목곽묘와 유사한 방식으로 피장자 성격이 구성되었음을 앞서 본 바 있다. 그에 대한 고찰 또한 필요한 바, 다음 절에서는 경주 외 지방 고분에서 나타난 피장자 성격의 함의는 무엇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155) Earle(1997)의 견해에 따르면, 이념은 의례, 상징, 기념물을 통해 ‘물질화(materialization)’ 하여 지배 엘리트들에 의해 전략적으로 창조·조작되어 권력의 유지와 창조에 기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적석목곽묘 조묘자 집단이 장기간에 걸쳐 무덤에 표현하고자 한 사회적 질서와 이념은 물질화의 대상이며, 거기에 나타난 피장자 성격과 그에 수반된 부장 방식들은 물질화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62〉 월성북고분군 피장자집단과 주요 구조화 원리의 모식도

①: 계서 ②:착장 이식 ③:성별 ④:묘제

(※甲~丁의 부장 경향은 <표 37>참조)

2. 지방 고분의 피장자 성격 표현의 정치적 함의

이번 절에서는 지방 고분의 피장자 성격 표현이 나타내는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 고찰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석목곽묘와 지방 고분은 피장자 성격의 구성과 표현에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적석목곽묘에서는 성별에 따라 묘곽 형식이 결정되었으나, 지방 고분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착장 이식과 관련하여 볼 때에는 세환군의 모관을 제외하면 양자가 위세품의 착장에 있어서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른 무구·마구와 철기의 부장도 동일한 양상을 나타냈다. 계서에 있어서는 성별의 판단이 불가능한 관계로 적석목곽묘와 동일한 방식으로 판단이 어려웠으나, 대체로 이식-대장식구-관류로 이어지는 누적적 구성은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차이점과 공통점이 무엇을 함의하는지 고찰하고 그 정치적 의미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1) 지방 고분의 구성 정형과 그 함의

주지하다시피 경주 외 낙동강 이동의 고총이 갖는 정치적 성격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논쟁이 있어 왔다. 주로 매장주체부의 형태와 재료, 토기의 양식적 특징에서 나타나는 지역성을 어떻게 해석하는 지가 주된 논점이었다.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통일성에 중점을 둔 입장에서는 신라 고분 내의 지역적 변이로 보며(崔秉鉉 1992), 1990년대 중반부터는 그 배경에 위세품의 사여론(李漢祥 1995; 李熙濬 2002)과 간접지배설(朱甫敦 1996; 李熙濬 1998)이 추가되면서 한층 입지가 강화되어,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고총체계(金大煥 2004; 金龍星 2004)로 설명하고 있다. 반대로 각지의 개성에 중점을 둔 입장에서는 그러한 지역성을 가야 소국 내지는 정치적 독립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며(李殷昌 1970, 1982; Kwon 1991; 김두철 2011a, 2011b), 최근에는 사여론에 대한 반론으로 위세품의 지방제작이 적지 않음을 들어 양식적인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문화적 자극에 의한 모방 제작의 결과 나타난 유사성으로 해석한다(金斗喆 2014, 2016).

결국 논의의 핵심은 양식적 지역성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이다. 양식론의 측면에서 보면 결국 같음과 다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로 환원되는 측면이 있어, 방법론적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고분 자료에 나타난 피장자 성격의 구성과 그 표현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앞 절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단편적인 부장 관습이 아니라 피장자를 중심으로 구조화된 복잡한 부장 규정의 체계이며, 나아가 적석목곽묘 축조집단의 사회 질서와 구조를 물질화하는 규범이었기 때문이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월성북고분군의 적석목곽묘와 지방의 신라 고분은 피장자의 성격과 관련하여 공통적인 측면이 분명히 확인되었다. 양쪽 모두 착장 이식을 중심으로 일정한 공반 착장 양상을 보이며, 이는 서로 다르지만 상보적인 성격의 권력 분장으로 해석되는 바 월성북고분군과 지방에서 공통적인 엘리트의 구조화와 분화를 시사한다. 또한 적석목곽묘와 동일한 양상으로, 낙동강 이동 여러 지역의 고분에서도 세환군과 태환군은 차별적인 무구·마구류의 부장 양상을 갖고, 동시에 무기류의 부장량과 출토율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재갈·행엽·운주·안교 등의 마구는 부장비에 다소 차이는 있어도 공통적으로 부장되지만, 등자·성시구·갑주는 태환군에는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부장하지 않으며, 세환군과 태환군은 전반적인 철기류의 부장량에 큰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무기류에서 그러하였다.

이상의 분석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축적된 신라 고분 자료 중에서 착장 위세품이 2점 이상 출토된 모든 고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철기의 분석은 출토 유물이 전량 보고된 모든 고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지역적으로도 경주에서부터 경산, 대구, 창녕, 양산, 의성, 성주, 강릉 등 다양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자료의 편중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처럼 광범위한 시공간을 아우르는 자료에서 착장 이식을 중심으로 강한 정형성이 관찰된다는 것은, 낙동강 이동지방 전역에서 고총기 동안 조묘자들이 장례 의례 내에서 일관적인 행위를 장기적으로 반복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의 반복성과 일관성, 정형성은 피장자와 조묘자의 임의적인 간섭을 제한하는 장례 의례상의 규범으로밖에 설명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는 피장자의 성격

에 따라 부장 유물의 구성이 결정되는 모종의 의례적 규범과 부장 정형이 존재하였고 그것이 고총 축조기 동안 경주를 중심이자 정점으로 하여 공유되고 준수되었음을 시사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금속제 모관의 착장과 같은 일부 측면에서 적석목곽묘와 지방 고분 사이에는 차이가 확인되나, 그 차이점에서도 지역 별로 모두 다른 것이 아니라 월성북고분군의 적석목곽묘 / 지방의 수혈계 묘제로 구분되어 일정한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이지, 각 지방 별로 강한 지역차를 보이는 것이 아니다.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는 금속제 모관의 착장도, 각 지방에서 제각각인 것이 아니라 세환군과 태환군의 구별을 바탕으로, 지방 고분의 세환군에만 엄격하게 한정되고 태환군에서는 착장이 전무한 점에서, 경주지역의 적석목곽묘에서 유래한 세환군과 태환군의 구별을 그 바탕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착장위세품의 공반 양태, 등자·성시구·갑주의 차별적 부장, 무기류의 차별적 부장 등이 공통적이고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보아 낙동강 이동 지방의 모든 고총기 신라 고분은 모종의 공통된 의례적 행위와 선택 하에서 조영, 운영된 것일 가능성이 크며, 그것이 아니면 착장 이식에 따른 착장위세품의 공반 양상의 정형성과 그에 따른 마구, 무구의 차별적 부장을 중심으로 한 고분 자료 내에서 관찰되는 일관성을 설명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즉 피장자의 성격에 따라 부장품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는 규범은 월성북고분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며, 일정한 과정을 거쳐 지방 엘리트에게도 전달되고 준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규범의 배경에는 신라 엘리트들이 스스로를 규정하고 정의하는 내부적 질서와 분화가 있으며, 이러한 이념적 측면이 장례의례의 결과물이자 기념물인 고총을 통해 구현된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피장자 성격의 측면을 공유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장례의례의 실행 방식까지 공유한다는 것은 단순한 부장관습의 공유가 아니라 의례적 차원에서, 그리고 그 배후의 이념적인 차원에서 통합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간접지배론에서는 지방 엘리트를 포섭하기 위해 착장형 위세품을 하사한 것으로 보는데(朱甫敦 1996; 李漢祥 1995, 1997), 본고의 분석에서 드러나

듯 신라 고분에서 나타나는 정형성은 착장유물을 넘어서서 부장품의 종류와 구성, 그리고 무덤의 배치 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단순히 위세품의 하사를 통한 지배종속 관계의 형성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장례 의례를 위시한 의례적 규범, 나아가 엘리트의 분화를 비롯한 사회 조직화 방식과 이념적 측면까지 신라 중앙에서 파급되었고 지방에서는 그에 대한 수용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보다 전면적으로 사회 조직과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동화로 해석되며, 그러한 바 이를 반드시 지배와 피지배, 정복과 복속의 관점으로 보고 그 여부만 판별하려 한다면 그 과정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놓치기 쉽다. 신라 영역에 편입된 지역에서 반드시 신라토기가 일색으로 부장되는 현상의 이유가 무엇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이희준 2015), 본고의 분석을 통해서 볼 때 그 배경에는 지방 엘리트가 사회 조직과 구성에서, 그리고 이념적인 차원에서 신라 중앙에 동화된 결과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피장자 성격과 신라 고분의 지역적 다양성

위에서 살펴본 고분의 구성적 측면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모두에서 언급하였듯 낙동강 이동 지방의 신라 고분에는 지역적 다양성이 존재한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신라 토기는 크게 하나의 양식으로 묶을 수 있되 분명히 구별되는 독특한 지역 양식이 존재하고, 묘제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수혈식석곽에서 출발하지만 묘곽의 배치, 매장주체부의 설치 재료, 설치 방식에 있어서 지역성이 뚜렷하며(李熙濬 1998, 金大煥 2004, 金龍星 2004), 주피장자와 순장자를 배치하는 방식(金龍星 2002)도 그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여러 보고에서 금은제 착장형 위세품도 지방 제작이 이루어져 지역색이 분명한 경우가 있고, 마구 또한 지역별로 상이한 양식을 보여(김두철 2011a), 상당 부분은 지역 제작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간의 연구에서는 지방의 고층에서 간취되는 이러한 지역성을 근거로 제 지방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하여 별개의 정치체로 보거나(金斗喆 2011b), 간접지배를 전제로 지방 지배층의 의례적 정체성이 표현된 것이라 보았다(金大煥 2004).

그러나 착장 이식을 중심으로 한 피장자 성격과 그에 대한 표현에서 사실상 동일한 규범이 적용되어 있음이 드러난 바, 이러한 지역성은 지역적 독립성이나 정체성이라기 보다는 신라식의 의례를 지역단위에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¹⁵⁶⁾

이러한 관점에서는 고분 부장품으로서 신라토기의 정형성은 결국 매장 의례법의 보급과 공통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토기에 나타나는 지역 간의 양식적 차이는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성주 2009). 그러므로 토기 양식이 점차 통일 양식토기로 수렴하는 현상의 동인, 즉 양식적 선택압(李熙濬 1996a)의 배후에는 의례적 공통성이 전제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신라 고분에서 확인되는 지역성의 본질은 월성북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피장자 성격의 구성과 그 표현이 기본적으로 신라식 금공품이 출토되는 지역에서 공유된다는 것이 파악될 때 이해할 수 있다. 이식(이현정·류진아 2011), 대장식구(김도영 2018), 대관(김재열 2010; 박보현 1987)등 여러 착장 위세품의 지방 제작 사례가 존재하지만, 이 또한 정치적·의례적 독립성이나 단순한 모방 제작의 결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단순히 위세품만을 입수하여 착장하거나 모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피장자 정체성의 표현과 부장양상의 공통성, 연접 양상의 특이성 등을 적석목곽묘와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제작된 착장위세품이라 하더라도 신라권 내에서 피장자의 성격과 관련하여 일정한 의미를 지니고 고분의 다른 속성과 연계되어 있어야 비로소 정치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므로(李熙濬 2005), 대부분의 지역제작 위세품은 이념적, 정치적 통합을 바탕으로 신라 중앙의 허가 내지는 합의를 통해 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고총기 후반에 중소형분묘에 다른 위세품 없이 단독 부장되는 경우가 증가하는 사례로 볼 때,

156) 다만 묘제는 적석목곽묘가 경주지역에만 한정되고 타 지역에는 축조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 어떤 규제가 작용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점에서 경주의 엘리트들이 의도한 것은 완전한 동화가 아니라 차별을 전제한 동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별은 추후 제도화하여 경위제와 외위제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주의 방식을 모방하여 지역단위에서 금공품을 제작, 사여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황종현 2011). 그러나 이는 대관이나 소환이식 등 일부 품목에만 한정된 것으로 보이며, 어디까지나 지역 소단위에서 일어난 현상이다.

착장위세품의 공급과 소비는 반드시 경주 중심의 사여체계에 의존한 것이 아니며, 토기의 지방제작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방 단위 엘리트들에 의한 자체적인 공급과 소비를 포함한 능동적인 참여가 허용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세품의 지방 제작을 정치적 독립이나 단순한 모방제작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지방 제작품이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일정한 공반양상, 즉 피장자 성격의 구성과 부장양상이 월성북고분군의 적석목곽묘와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이처럼 구체적인 수준에서 동일한 의례적 정형성은 이미 여러차례 설명한 바와 같이 공통의 이념적 배경을 갖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양상이기 때문이다.

신라의 고총은 특정한 이념적 배경 하에 막대한 잉여를 이용하여 기념물로써 구축한 것이고, 지방 엘리트들은 지역 단위에서 자신들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데 유리하였기 때문에 적석목곽묘 축조집단의 사회 질서와 이념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고총기 동안 세환군과 태환군으로 분리된 복식군과 부장규범을 바탕으로 축조된 각지의 지방 고분이 이를 잘 보여주며, 누세대에 걸친 축조 과정에서 지방 엘리트들은 점차 신라 중앙에 동화되어 간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신라 고총의 확산은 신라의 물리적 지배력의 확대에 있다기보다는 신라 중앙의 이념적, 사회적 질서를 지방 엘리트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역단위에서 재생산한 데에 있을 공산이 크다. 지역단위의 재생산 과정에서 토기에서 지역양식이 발생하였고(이성주 2009), 매장주체부의 축조 방식이나 피장자의 배치 방식에서도 그러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고총기는 적석목곽묘 축조집단의 사회질서와 구조를 다른 지역에 준용하고 지역 엘리트는 이를 수용하여 신라 중앙에 동화하는 시기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소결 : 고분 구성의 핵심 요소로써 피장자 성격

이번 장에서는 앞서 이루어진 피장자 성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월성 북고분군 내에서의 사회적 함의와 그 바깥에서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피장자 성격의 제 측면이 적석목곽묘 자료 내에서 형성되는 과정을 검토하였으며, 성별과 계서, 착장 이식 등 세 측면을 모두 관통하는 요소는 착장위세품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11종의 착장위세품은 기원이나 등장 시점 등이 다양하지만, 일정한 공반양상을 보이면서 피장자의 신체에 착장되는 시기는 세환이식과 태환이식의 분화 시점과 대체로 일치하며 신라 전기의 1B기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시기는 고총기 신라양식 토기의 성립, 적석목곽묘의 축조, 신라 고분의 고총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여, 신라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때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성별에 의한 분화는 그보다 늦어 신라 전기 2기의 황남대총 북분에서 정형화된 여성묘가 처음 나타난다. 이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사회적 구분이 계서에 의한 수직적 구분과 이식에 의한 수평적 분화보다 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사회 복합화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다른 형태의 무덤을 축조한다는 것은 성별에 대한 인식이 점차 구분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남성묘와 여성묘에 나타난 차이는 장례 의례의 맥락 내에서 위세 형성 방식의 차이로 인한 부장 규정의 차이로 보았다. 토기 부장량에서는 남성묘가 압도적이었으나 철기 부장량에서는 동등하였고, 착장위세품에서는 여성묘가 오히려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착장 이식의 의미와 관련하여서는 세환군과 태환군의 무구·마구와 철기 부장 경향이 뚜렷이 다른 점에서 추론이 이루어졌다. 전자는 경제력과 무력을 바탕으로 하는 세속적 권력을, 후자는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적 권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권력의 분장에 따른 신라 엘리트의 평면적 분화로 판단하였다.

이상에서 적석목곽묘의 피장자 집단은 성별과 착장 이식의 두 가지 측

면에서 평면적으로 분화되어 남성 세환군, 남성 태환군, 여성 세환군, 여성 태환군의 네 가지 복식군으로 분리되었고, 각각은 계서에 의해 수직적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각 복식군은 유물과 유구에 있어 뚜렷이 차별화되는 부장 규범을 갖는 바, 적석목곽묘에는 이러한 원리에 의해 구조화된 신라 사회의 질서가 이상화된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월성북고분군에 나타난 피장자 성격이 갖는 함의가 이러하였다면, 지방의 고분에서는 착장 이식을 중심으로 한 측면이 적석목곽묘와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었다. 착장위세품의 공반 양상이나 무구·마구 및 철기류의 부장 경향, 연접축조 양상 등이 적석목곽묘와 대부분 동일하였던 것이다. 이는 바는 경주 내부의 사회적 질서와 구조가 다른 지역에 준용되었고 지역 엘리트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음을 시사한다. 신라 고분에서 나타나는 지역성은 그러한 지역단위의 재생산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적석목곽묘에 나타난 피장자의 성격은 신라 사회의 구조화 원리이자 신라 엘리트의 이념과 사회 질서를 물질화하는 단위이기도 하였다. 본고에서 새로이 드러난 피장자 성격에 따른 신라 고분의 구성 방식은 고총기 동안 준수된 신라 고분 조묘자 집단에 의한 신라 엘리트 이념의 물질화를 잘 보여준다.

VIII. 결론

본고에서는 적석목곽묘의 구성을 파악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지점은 무덤의 주인공인 피장자라는 판단 하에, 피장자의 정체성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개념 중에서 피장자 성격을 선택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적석목곽묘의 구성 원리를 파악하고 그 축조 집단의 조직과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사적 검토를 통해 살펴본 바,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격에 대해 논한 기왕의 논고는 고분의 계서와 피장자의 성별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성별은 세환이식과 태환이식이 각각 남성과 여성에 대응한다는 이식-성별 가설을 전제로 하고 있었음을 보았다. 따라서 본고의 검토 대상인 피장자 성격의 주요 측면은 착장 이식과 성별, 계서로 정리되었으며, 각 측면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중심으로 적석목곽묘의 유물과 유구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착장 이식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착장 이식과 현존하는 신라 고분 출토 인골 자료를 대조하여 검증하였으나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지나치게 많아, 이식-성별 가설은 재고를 요하게 되었다. 다만 인골 자료는 그 숫자가 매우 적어,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별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동시에 착장 이식은 성별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만 중요한 복식의 요소임이 연구사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므로, 피장자 성격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설정하고 그 의미를 궁구할 필요성 또한 제기되었다.

대안적인 성별 추정을 위해 선택한 방법은 인간 신체의 성별이형성에 기초한 착장 유물의 계측적 해석이었으며, 먼저 야요이시대 패천을 다룬 관련 연구사례를 검토하여 인간 유체가 직접 잔존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간접적인 신체 반영물을 통해 성별을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방법의 적용에 유리한 신라 고분 출토 유물은 천으로 판단하고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신라 고분의 천은 기본적으로 금속제로, 원형으로 단혀 있기 때문에 손끝에서 손등을 지나 손목 또는 하완에 착장하며, 따라

서 손너비의 크기에 따라 착장 여부에 제한이 있게 된다. 손너비 또한 성별 이형성이 나타나므로 천 내경의 분포에서도 그러할 것으로 보고 현존 출토 사례 108점의 계측치를 종합한 결과 뚜렷한 단봉분포를 보이고 정규성 검정 결과 그 모집단이 정규분포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성별이형성을 전제로 할 때 하나의 성별만이 착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일본의 야요이 시대 남녀 인골이 착장한 채 출토된 패천의 최대 내경, 무령왕비 소유품, 그리고 현대 성인 남녀가 착장하는 천의 크기와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신라 고분에서 착장한 천은 대부분의 남성이 착장 불가능한 크기로 제작되었으며, 모두 여성이 착장하는 크기로 제작된 것으로 최종 판단할 수 있었다.

다만 천은 비교적 상위위계 고분에서 출토되고, 시간적으로도 황남대총 북분부터 착장이 확인되기 때문에, 보다 넓은 범위에서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별 추정을 위해서는 천의 출토 여부를 넘어서서 성별과 관련된 적석목곽묘의 속성을 찾을 필요가 있었다. 천의 출토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다른 적석목곽묘의 특징은 묘곽 형식과 관련하여 찾을 수 있었는데, 현재 확인된 모든 천은 전부 부곽이 존재하지 않는 두부부장단독곽(최병현 2016a의 2C식)에서만 확인된 것이었다. 반면 부곽이 존재하는 묘곽 형식(1A·1B·2A·2B식)의 적석목곽묘에서는 단 한 건의 출토 사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착장위세품이 2점 이상 출토된 월성북고분군의 적석목곽묘 52기 중에서 피장자가 천을 착장한 22기는 예외 없이 2C식이었고, 1A·1B·2A·2B식 26기 중에서는 피장자가 천을 착장한 사례가 전무하였다. 이에 따라서 적석목곽묘에서는 묘곽 형식과 피장자의 성별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현존하는 인골 자료로 이를 검증한 결과 모두 예측과 일치하여, 피장자의 성별에 따라 묘곽 형식이 결정된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었다.

이제 피장자의 성별에 대한 구체적인 복원이 이루어졌으므로, 성별을 포함한 피장자 성격의 제 요소에 따라 부장품의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본격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착장위세품과 무구·마구 등 위세품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착장위세품이 2점 이상 출토된 적석목곽묘 71기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성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여성(평균 5.1점)이 남성(평균 3.1점)보다 전반적인

착장율이 크게 높아 우세를 보였으며, 특히 천, 지환, 중공구, 식리 등의 착장율이 크게 높았다. 성별에 따라 착장위세품의 양과 종류가 이처럼 다르다면, 착장위세품을 기준으로 한 계서 판단에 있어 양자를 분리하여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반면 기존에 주요한 성별 표지로 보았던 대도가 남녀 공히 착장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성별에 따른 무구와 마구의 부장양상은 양자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같은 자료를 대상으로 착장 이식에 따라서 위세품의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는데, 세환이식 착장자(세환군)와 태환이식 착장자(태환군)는 각각 크게 다른 위세품 구성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환군은 장식대도, 태환군은 중공구수식이 배타적으로 부장되며, 천, 지환, 이식은 태환군에서 더 높은 부장율을 보였고 대장식구와 경식, 식리의 부장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없었다. 무구와 마구에 있어서도 세환군과 태환군은 크게 달랐는데, 태환군은 성시구·갑주·등자의 부장이 크게 제한받는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등자는 세환군에 있어 70%에 가까운 부장율을 보였으나 태환군에서 등자 부장 사례는 황남대총 북분, 금관총, 인왕동 20호 등 3례에 불과하여, 착장 이식에 따른 모종의 부장 정형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성별과 착장 이식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적석목곽묘 피장자 집단의 계서를 착장위세품을 기준으로 새로이 설정하였는데, 남성과 여성, 세환군과 태환군의 착장위세품 구성이 서로 달랐음이 드러났으므로 남성 세환군, 남성 태환군, 여성 세환군, 여성 태환군의 4개 집단을 서로 분리하여 착장위세품의 구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각 집단이 이식→대장식구→대관의 착장 및 모관의 부장이라는 누적적 구성을 동일하게 나타내어, A~F군에 이르는 계서를 설정할 수 있었다. 다만 각 집단마다 성별과 착장이식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이 달랐는데, 가령 천은 여성 피장자만, 대도는 세환군만 착장하는가 하면, 남성 피장자군은 경식 착장의 정형성이, 여성 피장자는 대도 착장의 정형성이 낮게 나타나는 식이었다. 그에 따라서 4개 집단은 위세품의 누적적 구성에 서로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남성 태환군에게는 금속제 모관이 부장되는 최상위군인 A군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피장자 성격의 세 요소, 성별과 착장이식, 계서의 검토 방법을 모두 확보하고, 각각에 따라서 토기와 철기의 부장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토하였다. 토기의 기종은 12종으로, 철기는 19개 종류로 분류하고 출토 유물이 전량 보고된 미도굴 적석목곽묘 45기와 거기서 출토된 토기 4,549점과 철기 4,500점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토기의 부장양상에 대해서, 부장량만 알려진 고분을 포함하여 63기를 대상으로 계서와 관련하여 검토하였는데, 일견 계서와 부장량 간에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성별을 분리하여 검토한 결과 계서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남성묘는 F~A군으로 계서가 올라감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부장량이 증가하였다. 여성묘는 그와 달리 계서에 따라 토기 부장량의 증가폭이 크지 않았으며, 따라서 여성묘의 계서 과시 전략은 토기의 부장량이 아닌 다른 요소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기종 구성과 계서는 큰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비록 수량에 큰 차이는 있더라도 하위 위계 고분에도 기본적인 기종 구성이 갖춰지는 방식의 부장이 이뤄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연질조리용기(연질완, 연질옹, 시루 등)는 부곽에만 부장되는 기종이므로 남성묘에서만 배타적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장자의 성별이 부장 수량과 기종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별에 따른 토기 부장양상을 좀 더 살펴보면, 배류(이단고배, 일단고배, 개배)의 부장에 있어서 남성묘는 이단고배 중심인 남분형 토기부장이 주류인데 반해, 여성묘는 개배와 일단고배 중심인 금관총형 토기 부장이 대부분으로 나타난다. 결국 배류의 부장양상에서 남성묘와 여성묘는 크게 달랐으며 이는 토기 부장비의 주성분분석에서도 확인되었다. 반면 착장 이식은 토기 부장양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토기의 부장은 피장자의 성별과 묘곽 형식이 연계되어 기종 구성과 부장 비율, 수량이 결정되었으며, 적어도 피장자 성격의 일부가 묘곽의 설계에서부터 부장품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변수였음을 확인하였다.

동일한 방법론으로 적석목곽묘의 철기 부장양상 또한 검토하였다. 먼저 계서와 출토량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철기는 토기보다 상

위위계 분묘, 특히 황남대총 남분에 의한 독점(전체 출토량 중에서 73%)이 극심한 것이 특징적이었다. 또한 기본적으로 F~A군의 계서에 따라 철기 부장량은 증가하지만, 토기에서 남성묘와 여성묘 간에 기본적으로 부장량 차이가 컸던 것과 대칭되는 양상으로, 철기에서는 세환군과 태환군 간의 부장량 차이가 컸다. 철기의 종류 별 출토율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세환군은 높고 태환군은 낮은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철촉, 철모, 대도, 철준 등 무기류의 출토율과 수량에서 세환군이 우세하였다. 태환군은 상대적으로 철서, 살포, 쇠삽날, 쇠스랑 등 농기구류에서 출토율이 약간 높았다. 반면 성별은 상대적으로 철기 부장양상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토기와 철기의 부장양상은 크게 보아 기본적으로 계서에 따라 수량이 결정되지만, 토기의 부장량과 배류의 부장비는 성별에 따라, 철기의 부장량과 종류는 착장 이식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컸다. 이는 적석목곽묘의 전반적인 부장양상이 피장자의 계서와 성별, 착장 이식에 따라 사실상 결정되었음을 의미하며, 피장자의 개인적 특징이나 조묘자 임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부장품의 종류와 양을 통제하는 부장규범이 존재하였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러한 규범의 존재를 상정하였을 때 여러 특이적인 부장사례가 설명되는데, 가령 황남대총 남북분의 경우, 양자가 신라 고분을 대표하는 최고위계 고분이지만 토기 부장량에서는 수천 점의 차이가 나는 현상은 동급 피장자의 성별에 의한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천마총이 금관총보다 철기 부장량이 압도적인 이유는 착장이식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서봉총에 등자 부장이 결락된 이유 또한 착장 이식이 태환이식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적석목곽묘에는 피장자 성격을 기준으로 부장양상을 관통하는 일단의 부장 정형이 존재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피장자 성격과 적석목곽묘의 배치관계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적석목곽묘의 배치는 크게 나누어 봉토와 호석을 공유하는 연접 축조와, 공유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간격을 두되 일정 공간 안에 소군집을 이루는 방식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연접축조에 대해 살펴보면, 월성북고분군에서 조사된 연접분은 19

기가 있고 거기에는 51기의 표곽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들 간에서 32회의 연접이 발생하였다. 연접관계 내에서 피장자 성격의 제 요소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먼저 성별에 대해서 기존에 부부묘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던 표형분의 구성이 주목되는데, 표형분 10기 중에서 황남대총 남북분을 제하면 모두 동성 2인 간의 합장으로 확인되어, 이성간의 연접은 오히려 드물어 부부묘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형분을 포함한 연접관계 전반에서 보면 선축분과 후축분의 관계 내에서 여러 가지 조합이 확인되지만 여성 선축 → 남성 후축의 관계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착장 이식에서도 마찬가지로, 태환군 선축 → 태환군 후축의 관계는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결국 피장자의 성별과 착장 이식에 따라 연접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규정이 실행 가능하려면 후축분의 조묘자가 선축분 피장자의 성격에 대해, 특히 성별과 착장 이식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하므로, 이들은 생전에서도 서로에 대해 잘 인지하고 관계를 유지해 온 인척이나 가족관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다만 전반적인 성비에 있어 남성이 더 많고, 동성간의 연접이 대부분인 점에서 핵가족적 가족구성은 아닐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계서에 따른 연접 관계를 보면, 동급에서 연접되는 경우가 많고 차이가 있더라도 대부분 1,2등급 내에서 연접이 이루어져, 선후축분 간의 계서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시간적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연접이 1~2분기 내에 이루어지는데, 인골 자료와 신라 촌락문서 등에서 나타난 당시의 평균수명을 고려할 때 한 분기 내라 하더라도 반드시 동세대로 단정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으며, 대체로 1~3세대 내에서만 연접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 세대는 다른 지점에서 단독분 혹은 연접분을 조영해 나간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호석과 봉토를 공유하지 않되 일정 구역 내에 모여서 소군집화하는 경우의 피장자 구성을 살폈다. 이러한 군집의 내용이 가장 밀도높게 밝혀진 곳은 왕릉군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폈는데, 여러 연구자들이 비정한 바에 따르면 왕릉을 주분으로 하고 주변에 종속분이 입지하여 군집을 이

룬다. 왕릉으로 비정되는 고분 중 봉황대와 서봉황대는 조사되지 않았지만, 봉토 크기에서 A군으로 판단되고, 마립간기 왕은 모두 남성이므로 피장자도 남성일 것이고 따라서 주부곽식이며, 또한 남성 태환군 중에는 A군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세환이식 착장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 주변의 종속분은 지난 세기부터 조사가 다수 이루어졌는데, 서봉총, 데이비드총, 금관총, 금령총, 식리총, 호우총, 은령총, 노동동 4호, 노서동 215번지고분 등으로 피장자는 모두 여성이다. 따라서 왕릉군에는 왕릉 주변에 여성묘가 종속분으로 입지하는 형태이다. 종속분은 세환군이 주를 이루되, 봉황대의 가장 큰 종속분인 금관총은 태환군이고, 서봉황대의 가장 큰 종속분인 서봉총도 태환군 이어서 황남대총에서와 같이 세환군과 태환군이 짝을 이루는 양상으로 보인다.

이들 간의 관계는 성비 불균형으로 보건대 핵가족적 가족 구성을 소군 집에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배우자를 포함하여 주부의 피장자와 관련있는 동세대 혹은 차세대의 여성 친족·인척 집단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만 남성묘 주분, 여성묘 종속분의 양상이 적석목곽묘 전반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고, 왕릉군 바깥에서는 여성묘로 판단되는 황오동 44호 주변에 다수의 종속분이 확인되는 점에서, 여성도 주분의 피장자일 수 있다.

경주지역 적석목곽묘 피장자의 성격에 따른 부장품과 배치 관계가 이러하였다면, 지방 고분은 어떠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같은 방법론을 사용하여 지방 고분을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피장자 성별과 관련하여 천의 착장 여부와 묘곽 형식을 비교하였는데, 적석목곽묘 이외의 묘제에서는 묘곽 형식 또는 부곽의 설치 여부와 피장자의 성별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지방 고분 피장자의 성별에 접근하는 것에는 명백한 제한이 있어, 적석목곽묘와 같은 방식으로 피장자를 분류하고 비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착장 이식을 통한 비교는 가능하였는데, 이를 위해 착장위세품이 2점 이상 출토된 지방의 고분 69기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적석목곽묘에서 실시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위세품과 토기·철기, 유구의 연결 관계로 나누어 검토하였는데, 착장위세품에서 세환군과 태환군으로 양분되는 점, 그

리고 세환군에는 대도가, 태환군에는 경식과 중공구가 강하게 공반되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적석목곽묘와 공통적인 점에서, 양자가 공통적인 복식 규정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반면 관류의 착장률이 적석목곽묘에서보다 높게 나타나고, 특히 금속제 관모와 관식의 착장은 적석목곽묘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지만 지방 고분에서는 허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점이 인정되며, 이는 기존 연구에서 지적된 바였다.

또한 지방 고분 피장자의 성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므로 적석목곽묘에서와 같은 해상도로 피장자의 계서를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관류의 정형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대체로 이식→대장식구→관류의 착장 또는 부장으로 이어지는 계서 구분은 마찬가지로 유효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처럼 착장위세품에서는 관류, 특히 세환군의 금속제 모관 착장과 태환군의 대관 착장이 지방에서 큰 폭으로 허용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었으나, 다른 부분에서는 세환군과 태환군이 각각 배타적인 착장위세품을 갖는 등 대체로 동일한 부장 규정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태환군에서 성시구, 갑주, 등자의 부장이 제한된 점에서, 적석목곽묘와 동일한 복식제도와 그에 따른 부장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다음으로 토기의 부장 정형에서는, 전반적인 토기 부장양상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였으나, 지방 고분이 개배의 부장량, 출토율이 낮은 대신 단경호류의 부장량과 출토율이 높은 차이점을 보였다. 적석목곽묘에서 토기 부장과 가장 큰 연관성을 보여주었던 피장자의 성별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에서 그 판단이 불가능한 관계로 입체적인 비교가 어려웠다.

반면 철기의 부장은 적석목곽묘에서 착장 이식과 강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비교가 가능하였다. 지방 고분의 철기부장 양상은 피장자의 착장 이식에 따라 전반적인 수량은 물론, 종류별 출토율까지 적석목곽묘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며, 부장 비율에서도 사실상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지방 고분의 연접축조 양상에 대한 검토는 11개 연접분의 31기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연접 사례 중에서는 태환군과 태환군 사이의 연접은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적석목곽묘의

연접배치에서도 확인된 것과 동일한 양상으로, 경주와 지방에서 동일한 피장자 배치 규정이 존재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적석목곽묘와 지방 고분을 포괄하여 신라권 전역에서 착장 이식을 중심으로 하여 복식의 구성이 일정하게 구분되는 평면적 정형성이 존재하며, 그에 따라 철기의 부장과 유구의 배치가 결정되는 공통성이 확인되었다. 즉 착장 이식에 따라서 성지구, 갑주, 등자의 부장 여부가 결정되고, 부장 철기의 양과 종류 또한 결정되며, 유구의 배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상의 피장자 성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월성북고분군 내에서의 사회적 합의와 외에서의 정치적 합의에 대해 고찰하자면, 먼저 피장자 성격의 제 측면이 적석목곽묘 자료 내에서 형성되는 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별과 계서, 착장 이식 등 세 측면을 모두 관통하는 요소는 착장위세품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1종의 착장위세품은 기원이나 등장 시점 등이 다양하지만, 일정한 공반양상을 보이면서 피장자의 신체에 착장되는 시기는 세환이식과 태환이식의 분화 시점과 대체로 일치하며 신라 전기의 1B기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시기는 고총기 신라양식 토기의 성립, 적석목곽묘의 축조, 신라 고분의 고총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여, 신라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때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성별에 의한 분화는 그보다 늦어 신라 전기 2기의 황남대총 북분에서 정형화된 여성묘가 처음 나타난다. 이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사회적 구분이 계서에 의한 수직적 구분과 이식에 의한 수평적 분화보다 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적석목곽묘의 남성묘와 여성묘에 나타난 차이는 장례 의례의 맥락 내에서 위세 형성 방식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았는데, 토기 부장량에서는 남성묘가 압도적이었으나 철기 부장량에서는 동등하였고, 착장위세품에서는 여성묘가 오히려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다. 역사학계의 연구 결과에서도 역할의 분담과 관련된 기록이 확인되었다.

한편 착장 이식의 의미와 관련하여서는 세환군과 태환군의 무구·마구와 철기 부장 경향이 뚜렷이 다른 점에서 추론이 이루어졌다. 전자는 경제력과 무력을 바탕으로 하는 세속적 권력을, 후자는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적 권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권력의 분장에 따른 신라 엘리트의 평면적 분화로 판단하였다.

이상에서 적석목곽묘의 피장자 집단은 성별과 착장 이식의 두 가지 측면에서 평면적으로 분화되어 남성 세환군, 남성 태환군, 여성 세환군, 여성 태환군의 네 가지 복식군으로 분리되었고, 각각은 계서에 의해 수직적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각 복식군은 유물과 유구에 있어 뚜렷이 차별화되는 부장 규범을 갖는 바, 적석목곽묘에는 이러한 원리에 의해 구조화된 신라 사회의 질서가 이상화된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월성북고분군에 나타난 피장자 성격이 갖는 함의가 이러하였다면, 지방의 고분에서는 착장 이식을 중심으로 한 측면이 적석목곽묘와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었다. 착장위세품의 공반 양상이나 무구·마구 및 철기류의 부장 경향, 연접축조 양상 등이 적석목곽묘와 대부분 동일하였던 것이다. 이는 바는 경주 내부의 사회적 질서와 구조가 다른 지역에 준용되었고 지역 엘리트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음을 시사한다. 신라 고분에서 나타나는 지역성은 그러한 지역단위의 재생산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적석목곽묘에 나타난 피장자의 성격은 신라 사회의 구조화 원리이자 신라 엘리트의 이념과 사회 질서를 물질화하는 수단이기도 하였다. 본고에서 새로이 드러난 피장자 성격에 따른 신라 고분의 구성 방식은 고종기 동안 준수된 신라 고분 조묘자 집단에 의한 신라 엘리트 이념의 물질화를 잘 보여준다.

본고의 한계는 방법론에서 착장위세품이 필수적이었던 바, 주로 상위계층의 고분을 다루었고 하위계층의 분묘에는 소홀하였다는 점이다. 신라 고분 전체로 보면 이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므로, 하위계층 분묘 피장자에 대한 분석도 반드시 필요하다. 차후 방법론적 개발을 통해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신라 고분 피장자 집단 전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해 나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국문-

- 江原文化財研究院, 2007, 『江陵 草堂洞 遺蹟 III』.
- 강석범, 2011, 「고령 지산동고분군 출토 철제농구에 대한 연구 : 석곽묘를 중심으로」, 『文物研究』 19.
- 兼若逸之, 1980, 「新羅《均田成冊》에서 推定되는 平均壽命」, 『韓國史研究』 30.
- 경북대학교박물관, 2000, 『경북대학교박물관 유적발굴 40년』.
- 慶熙大學校博物館, 1974, 『慶州 仁旺洞 (十九, 二〇號) 古墳發掘 調査報告』.
- 啟明大學校行素博物館, 2006, 『星州星山洞古墳群』.
- 구자봉, 2005, 「삼국시대의 장식대도 연구」, 『북방사논총』 5.
- 국가기술표준원, 2008, 『손 인체치수 데이터』.
- _____, 2015,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사업 - 최종보고서』.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8, 「경주 쪽샘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
- _____, 2013, 『慶州 쪽샘地區 新羅古墳 III』.
- _____, 2014, 『慶州 쪽샘地區 新羅古墳 IV』.
- _____, 2016, 『慶州 쪽샘地區 新羅古墳 VII』.
- 국립경주박물관, 2001, 『新羅黃金』.
- _____, 2014, 『天馬, 다시 날다: 신라능묘 특별전 전시도록』.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1995, 『慶州 皇南洞 106-3番地 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 _____, 2011, 「다. 노서동 129호분 - 데이비드층」, 『신라고분 정밀 측량 및 분포조사 연구보고서』.
- 國立慶州博物館, 1990, 『慶州市 月城路古墳群-下水道工事に 따른 收拾發掘調査報告』.
- _____, 2011, 『慶州 普門洞合葬墳 : 舊 慶州 普門里夫婦塚』.
- 國立金海博物館, 2015, 『유리건판으로 보는 창녕 고분군』, 국립김해박물관.
- 國立中央博物館, 1998, 『光復以前調査遺蹟遺物未公開圖面』.
- 權五榮, 1997, 「斯盧六村의 위치문제와 首長의 성격」, 『新羅文化』 14.
- _____, 1999, 「한국 고대의 새(鳥) 관념과 제의(祭儀)」, 『역사와 현실』 32.
- _____, 2000, 「고대 한국의 상장의례」, 『한국고대사연구』 20.
- 權龍大, 2009, 「경주지역 적석목곽묘 조영집단의 성층화와 지배구조」, 『야외고고학』

7.

- 기도형, 2010, 「한국인 손 치수의 추세 변동 및 외국 자료와의 비교」, 『대한산업공학회지』 36(3).
- 김건수 2008, 「우리나라 新石器時代 패전(貝釧) 考察」, 『韓國上古史學報』 59.
- 金基雄, 1970, 「新羅古墳의 編年에 關하여」, 『漢坡李相玉博士回甲紀念論文集』.
- 김대욱, 2014, 『임당 고총의 축조와 그 장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7, 「신라고분 빈(殯)의 가능성 검토 - 임당고총 자료를 중심으로」, 『제32회 고분문화연구회 정기발표회 자료집』.
- 金大煥, 2001, 「嶺南地方 積石木槨墓에 대한 研究」, 嶺南大學教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_____, 2004, 「新羅 高塚의 지역성과 의의」, 『新羅文化』 23.
- _____, 2007, 「古墳 資料로 본 新羅의 國家 形成」, 『제 3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 _____, 2012a, 「신라 장경호 부장 정형과 신라 토기의 확산 - ‘토기제사법’ 및 ‘양식적 선택압’의 실제」, 『중앙고고연구』 11.
- _____, 2012b, 「한반도 국가형성론에서 ‘초기국가’의 제안」, 『한일지역 고대왕권과 국가의 형성』, 영남고고학회 2012년 학술워크샵.
- _____, 2013, 「조영EIII-3호 출토 토기에 대하여」, 『慶山 林堂地域 古墳群 X』.
- _____, 2016a, 「IV. 2015年 發掘 調査」, 『慶州 金冠塚(遺構篇)』, 국립중앙박물관.
- _____, 2016b, 「地上積石式 積石木槨墓의 木槨部와 積石部の 性格」, 『考古學誌』 22.
- _____, 2017, 「신라 마립간기 왕릉의 새로운 성과와 해석」, 『한국고대사연구』 88.
- 김도영, 2018, 「신라 대장식구의 전개와 의미」, 『韓國考古學報』 107.
- 김두철, 2009, 「積石木槨墓의 구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古文化』 73.
- _____, 2000, 「金海 禮安里遺蹟의 再檢討 - 性・年齡을 통한 社會構造 復原 試案」, 『韓國 古代史와 考古學 - 鶴山金廷鶴博士 頌壽紀念論叢』, 학연문화사.
- _____, 2011a, 「皇南大塚 南墳과 新羅古墳의 編年」, 『韓國考古學報』 80.
- _____, 2011b, 『고대 창녕 지역사의 재조명』,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_____, 2014, 「신라·가야의 경계로서 경주와 부산」, 『嶺南考古學』 70.
- _____, 2016, 「高塚古墳時代の 蓮山洞古墳群」, 『考古廣場』 19.
- 金東鎬, 1990, 「昌寧 桂城地區 古墳群의 再檢討」, 『考古歷史學志』 5-6.
- 金善珠, 2002, 「경주지역 瓢形墳의 특징」, 『慶州文化研究』 5.

- _____, 2010, 「출토유물을 통해서 본 피장자 성별의식」, 『신라의 고분 문화와 여성』, 국학자료원.
- 김성태, 2016, 「황남대총 북분 피장자의 성별에 대한 새로운 접근」, 『중앙고고연구』 20.
- 金承玉, 2001, 「金海 禮安里古墳群 築造集團의 社會構造와 性格」, 『嶺南考古學』 29.
- 金龍星, 1996, 「임당 1A-1호분의 성격에 대하여 - 고총의 시원적 양상」, 『碩晤尹容鎮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同刊行委員會.
- _____, 1998, 『新羅의 高塚과 地域集團: 大邱·慶山의 例』, 춘추각.
- _____, 2000, 「황남대총의 편년적 위치」, 『황남대총의 제조명』,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_____, 2002, 「新羅 高塚의 殉葬」, 『古文化』 59.
- _____, 2003, 「皇南大塚 南墳의 年代와 被葬者 檢討」, 『韓國上古史學報』 42.
- _____, 2004, 「新羅 高塚의 擴散過程」, 『新羅文化』 23.
- _____, 2006, 「호우총의 구조 복원과 피장자 검토」, 『先史와 古代』 24.
- _____, 2008, 「경산 임당고총의 제의와 부장품의 의미」, 『한국 고대사 속의 경산』, 대구사학회.
- _____, 2009, 「신라 고총의 장제 -경산 임당고총의 예-」, 『신라 왕도의 고총과 그 주변』, 학연문화사.
- _____, 2010, 「新羅 麻立干時期的 王陵 皇南大塚 南墳」, 『황금의 나라 신라의 왕릉 황남대총』, 국립중앙박물관.
- _____, 2011a, 「昌寧地域의 新羅高塚과 그 意義」, 『新羅史學報』 22.
- _____, 2011b, 「대구 서북부 고총과 그 축조집단의 성격」, 『중앙고고연구』 8.
- _____, 2014, 「신라고총과 고총체계의 관점」, 『嶺南考古學』 70.
- 金元龍, 1960, 『新羅土器의 研究』, 국립박물관.
- _____, 1965, 「皇吾里第一號墳」, 『慶州皇吾里第一·三三號, 皇南里第一五一號 古墳發掘調査報告』, 文化公報部.
- _____, 1974, 「新羅古墳의 몇가지 特性」, 『東洋學』 4.
- _____, 1981, 『新羅土器』, 悅話堂.
- 金載烈, 2010, 「5~6세기 신라 慶山地域 政治體의 冠」, 『新羅史學報』 20.
- _____, 2011, 「신라 식리의 葬送儀禮의 性格」, 『考古學探究』 9.
- 金載元, 1948, 『壺杆塚과 銀鈴塚』.
- _____. 金元龍, 1955, 『慶州路西里 雙床塚·馬塚·一三八號墳 調査報告』, 乙酉文化

- 社.
- 金宰賢・田中良之・舟橋京子, 2001, 「慶山 林堂遺蹟 出土人骨에 대한 分析」, 『慶山 林堂遺蹟 IV -G地區 墳墓-』.
- 金在弘, 1996, 「신라(사로국)의 형성과 발전」, 『역사와 현실』 21.
- _____, 1997, 「살포와 鐵鋤를 통하여 본 4~6세기 농업기술의 변화」, 『科技考古研究』 2.
- _____, 2001a, 「4~5세기 新羅의 古墳文化和 地域支配」, 『한국고대사연구』 24.
- _____, 2001b, 『新羅 中古期 村制의 成立과 地方社會構造』,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_____, 2011, 『韓國 古代 農業技術史 研究 - 鐵製 農具의 考古學』, 도서출판 考古.
- _____, 2014, 「‘尙斯智王’ 銘 대도와 금관총의 주인공」, 『금관총과 이사지왕 - 국립중앙박물관 학술 심포지엄』 국립중앙박물관.
- 김정학, 1973, 『五倫臺 古墳群 發掘報告書』, 부산대박물관.
- 김종일, 2007, 「“계층 사회와 지배자의 출현”을 넘어서」, 『韓國考古學報』 63.
- 김차규, 2009, 「로마(비잔티움) 유리용기의 신라유입 과정에 대한 해석 : 5~6세기 초 비잔티움의 동방 교역정책과 관련하여」, 『西洋中世史研究』 24.
- 김창호, 2014, 「신라 금관총의 尙斯智王과 적석목곽묘의 편년」, 『신라사학보』 32.
- 羅喜羅, 1999, 『新羅의 國家 및 王室 祖上祭祀 研究』, 서울大學校大學院 文學博士學位論文.
- _____, 2005, 「신라의 건국신화와 의례」, 『한국고대사연구』 39.
- 南翼熙, 2009, 「5~6세기 성주양식토기 및 정치체 연구」, 『嶺南考古學』.
- _____, 2011, 「5~6世紀 星州地域 墳墓의 特徵과 星州樣式土器의 分布」, 『韓國上古史學報』 74.
- 東國大學校慶州캠퍼스博物館, 2008, 『慶州 皇吾洞100遺蹟』 I.
- 東亞大學校博物館, 1992, 『昌寧校洞古墳群』.
- 류위남, 2009, 「삼한시대 영남지역 출토 주조철부와 판상철부 연구」, 『嶺南考古學』 51.
- 류진아, 2010, 「경주 황오동 34호 출토 장신구류 보고」, 『慶北大學校博物館 年報』 8, 경북대학교박물관.
-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4, 『天馬塚 : 發掘調査報告書』.
-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94, 『皇南大塚(南墳) 發掘調査報告書』.
- 朴光烈, 1992, 「琴湖江下流域 古墳의 編年과 性格 - 陶質土器를 中心으로」, 『嶺南考

- 古學』 11.
- _____, 2016, 「‘金冠塚 被葬者の 性格 再考’에 대한 討論文」, 『考古學誌』 22.
- 박매자·조희중, 1990, 「경주시 월성로에서 발굴된 고인골에 대한 소견」, 『慶州市月城路古墳群- 下水道工事に 따른 收拾發掘調査報告』.
- 朴普鉉, 1987, 「樹枝形立華飾冠의 系統」, 『嶺南考古學』 4.
- _____, 1990, 「積石木槨墳에 보이는 多葬墓」, 『大邱史學』 39.
- _____, 1992, 「積石木槨墳의 階層性 試論」, 『古代研究』 3.
- _____, 1995, 『威勢品으로 본 古新羅社會의 구조』, 慶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_____, 2000, 「耳飾으로 본 普門里夫婦塚의 性格」, 『科技考古研究』, 6.
- 박선미, 2011, 「한반도 출토 덩이쇠[板狀鐵斧·鐵鋌]의 성격과 의미」, 『白山學報』 89.
- 박순발, 2000, 「墓制의 政治·社會的 含意」, 『荷谷金南奎教授停年紀念史學論叢』, 荷谷金南奎教授停年紀念 史學論叢刊行委員會.
- 朴永福, 1977, 「古新羅時代의 墓制考察」, 『史學志』 11.
- 박진옥, 1964, 「신라 무덤의 편년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4-4.
- 박천수, 2010, 『가야토기』, 진인진.
- _____, 2012, 「新羅·加耶古墳 曆年代 再論」, 『원삼국·삼국시대 역연대론』, 학연문화사.
- _____, 2016, 「慶州 皇南大塚의 曆年代와 新羅 陵園의 形成 過程」, 『新羅文化』 47.
- 朴熙明, 2001, 「三國時代 팔찌에 대한 研究」, 漢陽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변태섭, 1958, 「한국고대의 계세사상과 조상숭배신앙(상)」, 『역사교육』 3.
- _____, 1959, 「한국고대의 계세사상과 조상숭배신앙(하)」, 『역사교육』 4.
- 釜山大學校博物館, 1985, 『金海禮安里古墳群』 I.
- _____, 1993, 『金海禮安里古墳群』 II.
- _____, 2017, 「III. 1. 5세기대 부산지역 고분출토 대호의 부장양상 검토」, 『북천동고분군 IX』.
- 徐榮教, 2004, 「고구려 기병과 鎧子: 고구려 고분벽화 분석을 중심으로」, 『歷史學報』 181.
- 성태규, 2004, 「신라상대 왕실에 있어서 외손의 왕위계승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 『古文化』 63.
- 松永悅枝, 2009, 「고분출토 취사용 토기로 본 고대 한·일 장송의례의 비교 - 일본 열도 瀬戸内地域을 중심으로」, 『嶺南考古學』 50.

- 신동조, 2014, 「신라의 농공구」, 『신라고고학개론』, 진인진.
- 신동훈·김명주·김이석·우은진·오창석·홍종하·이원준, 2016, 「경주 천원마을 유적출토 인골에 대한 법의인류학적 분석 보고서II」, 『경주 교동 94-3 일원 유적 - 천원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부지 발굴조사 보고서』.
-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7, 「경주 황남동 95-6번지 유적」, 『2015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IX』, 한국문화재단.
- 申恩憲, 2005, 「三國時代 慶南地域 古墳出土 金屬製 팔찌의 性格」, 『文物研究』 9.
- 愼仁珠, 2002, 『新羅 象形 注口附土器 研究』, 東亞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沈奉謹, 1991, 『梁山金鳥塚・夫婦塚』, 東亞大學校博物館.
- _____, 2013a, 「新羅 積石木槨墓의 구조와 축조과정」, 『韓國考古學報』 88.
- _____, 2013b, 「창녕 교동 12호분의 구조와 성격」, 『야외고고학』 18.
- _____, 2014, 「三國時代 嶺南地方 封土墳의 連接築造에 관한 研究」, 『考古廣場』 15.
- 쏠렌센, 마리 루이스 스티그(우정연 역), 2014, 『젠더고고학』, 진인진.
- 嶺南大學校博物館, 1975, 『皇南洞古墳發掘調査概報』.
- _____, 2013, 『영남대학교박물관 소장 경산 임당유적 출토 인골연구자료집』.
- _____, 2016, 『慶山 林堂地域 古墳群 XIII: 造永EII-2號墳』.
- 吳桂鉉, 2007, 「南人の 家系와 天主教 受容 - 初期 天主教 관련 인물을 中心으로」, 西江大學校大學院 文學碩士學位論文.
- 우리文化財研究院, 2014, 『昌寧 校洞과 松峴洞 古墳群 - 第I群 7號墳 및 周邊 古墳』.
- 우병철, 2014, 「신라의 무기」, 『신라고고학개론』, 진인진.
- 有光敎一・藤井和夫, 2000, 「慶州皇吾里第16號墳」, 『朝鮮古蹟研究會遺稿』 I, 유네스코東아시아문화연구센터.
- 尹武炳, 1974, 「韓國古代文化의 特性 座談會鈔」, 『東洋學』 4.
- 尹相憲, 2009, 「유리팔찌 製作方法에 대한 小考」, 『新羅文物研究』 3, 國立慶州博物館.
- _____, 2010, 「2. 被葬者의 性格」, 『慶州 鷄林路 14號墓』, 國立慶州博物館.
- _____, 2011, 「VII. 考察」, 『慶州 普門洞合葬墳 : 舊 慶州 普門里夫婦塚』, 國立慶州博物館.
- _____, 2012, 「기마인물형토기」, 『국립중앙박물관 선정 우리 유물 100선』,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92&contents_id=8741.

- _____, 2014, 「봉토 외형으로 본 신라 전·중기의 왕릉 추정」, 『韓國考古學報』 93.
- _____, 2016, 「금관총 피장자의 성격 재고」, 『마립간의 기념물 적석목곽묘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국립경주박물관.
- 李蘭暎·金斗喆, 1999, 『韓國의 馬具』, 한국마사회·마사박물관.
- 李盛周, 1993, 「洛東江東岸樣式土器에 대하여」, 『제2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및 토론 요지』, 嶺南考古學會.
- _____, 2009, 「新羅·加耶 土器樣式的 生成」, 『韓國考古學報』 72.
- _____, 2014, 「貯藏祭祀와 盛饌祭祀 : 목곽묘의 토기부장을 통해 본 음식물 봉헌과 그 의미」, 『嶺南考古學』 70.
- _____, 2017, 「辰弁韓 ‘國’의 形成과 變動」, 『嶺南考古學』, 79.
- 李殷昌, 1970, 「加耶地域土器의 研究」, 『新羅伽耶文化研究』 2.
- _____, 1977, 「慶州仁旺洞古墳發掘調査」, 『韓國考古學年報』 5.
- _____, 1982, 「加耶古墳의 編年研究」, 『韓國考古學報』 12.
- _____, 1991, 「新羅古墳의 造營과 思想: 新羅墳墓가 지니고 있는 思想의 移行發展을 中心으로」,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4-1.
- 李仁淑, 1974, 「古新羅期 裝身具에 대한 一考察」, 『歷史學報』, 62.
- 李鐘旭, 1982, 『新羅國家形成史研究』, 一潮閣.
- _____, 1990, 「新羅 古墳의 主人公」,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11.
- 이주현, 2009, 「경주지역 목관,목곽묘의 전개와 사로국」, 『文化財』 45.
- _____, 2015, 「경주 황남대총 북분 주인공 성격 재고」, 『신라문화』 43.
- 이준정·하대룡·박순영·우은진·이청규·김대환·김종일·한영희, 2008, 「경산 임당 유적 고총군 피장자 집단의 성격 연구 - 출토 인골의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을 중심으로 -」, 『韓國考古學報』 68.
- 李漢祥, 1995, 「5~6世紀 新羅의 邊境支配方式 - 裝身具分析을 中心으로」, 『韓國史論』 33.
- _____, 1997, 「裝飾大刀의 下賜에 반영된 5~6世紀 新羅의 地方支配」, 『軍史』 35, 國防軍史研究所.
- _____, 2004, 『황금의 나라 신라』, 김영사.
- _____, 2009, 「裝身具로 본 5~6世紀 昌寧地域의 政治的 動向」, 『한국 고대사 속의 창녕』,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 _____, 2010, 「금동식리로 본 삼국시대 장송의례의 한 단면」, 『新羅史學報』 20.
- _____, 2014, 「신라의 장신구」, 『신라고고학개론』 下, 중앙문화재연구원.

- 이현정·류진아, 2011, 「마구와 이식을 통해 본 창녕지역의 금공품 제작 가능성」,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30주년 기념논총』 경북대학교 출판부.
- 이현태, 2013, 「慶州 仁旺洞 19・20號墳의 發掘成果 追報 - 未報告 金속유물의 소개를 겸하여」, 『한국고대사연구』 70.
- 이현주, 2008, 「新羅 上古期 王妃族의 등장과 추이」, 『사림』 31.
- 李熙濬, 1987, 「慶州 皇南洞 第109號墳의 構造 再檢討」,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 _____, 1995, 「경주 皇南大塚의 연대」, 『嶺南考古學』 17.
- _____, 1996a, 「낙동강 이동 지방 4, 5세기 고분 자료의 정형성과 그 해석」, 『4・5세기 한일고고학』, 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
- _____, 1996b, 「경주 月城路 가-13호 積石木槨墓의 연대와 의의」, 『碩晤尹容鎮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同刊行委員會.
- _____, 1997a, 「토기에 의한 新羅 고분의 分期와 年次」, 『韓國考古學報』 36.
- _____, 1997b, 「新羅 高塚의 특성과 의의」, 『嶺南考古學』 20.
- _____, 1998, 『4~5세기 신라의 고고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0a, 「대구지역 古代 政治體의 형성과 변천」, 『嶺南考古學』.
- _____, 2000b, 「달성 고분군의 착장형 유물 출토 정형」,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20주년 기념논총』.
- _____, 2002, 「4~5세기 신라 고분 피장자의 服飾品 着裝 定型」, 『韓國考古學報』 47.
- _____, 2004, 「경산 지역 고대 정치체의 성립과 변천」, 『嶺南考古學』 34.
- _____, 2005, 「4~5세기 창녕지역 정치체의 읍락 구성과 동향」, 『嶺南考古學』 37.
- _____, 2007, 『신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 _____, 2010, 「皇南大塚 南墳 奈勿王陵說의 提起 背景과 概要 그리고 意義」, 『황금의 나라 신라의 왕릉 황남대총』, 국립중앙박물관.
- _____, 2015, 「삼국시대 - I 총설」, 『영남의 고고학』, 영남고고학회.
- 張信堯·金達澤, 1994, 「人骨에 對한 考察」, 『皇南大塚(南墳) 發掘調査報告書』.
- 張容碩·金大郁, 2009, 「慶山 林堂地域 古墳의 大壺 副葬과 그 意味」, 『嶺南文化財研究』 22.
- 전덕재, 2010, 「6세기 금석문을 통해 본 신라 관등제의 정비과정」, 『목간과 문자』, 한국목간학회.

- 鄭尙洙, 2014, 『新羅 古墳을 통한 古代 人口 研究 - 慶山 林堂 및 大邱 時至 遺蹟을 中心으로』, 慶州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_____, 2015, 「경산 임당지역과 김해 예안리 고분 출토 인골의 평균수명」, 『야외고고학』 22.
- 조성원, 2010, 「고분 출토 고배로 본 5세기대 낙동강하류역의 소지역성 연구」, 『嶺南考古學』 55.
- 趙榮濟, 2017, 「金屬遺物 副葬樣相을 통해 본 加羅國圈 古墳群의 性格」, 『韓國古代史研究』 87.
- 趙由典, 1989, 「신라 積石木槨墳 연구의 제문제」, 『韓國上古史 -연구현황과 과제-』, 民音社.
- _____, 1991, 「신라 積石木槨墳 연구의 제문제」, 『韓國上古史 : 연구현황과 과제』, 韓國上古史學會.
- 朱甫敦, 1996, 「麻立干時代 新羅의 地方統治」, 『嶺南考古學』 19.
- 진홍섭, 1960, 「경주 황오리고분 정리조사약보」, 『考古美術』 2.
- _____, 1965, 「慶州 皇吾里古墳整理調查概要」, 『考古美術』 61.
- _____, 1969, 「皇吾里第三十三號墳」, 『文化財管理局古墳發掘調查報告』.
- 崔茂藏, 1994, 『忠州 丹月洞 古墳群』, 建國大學校博物館.
- 崔秉鉉, 1980, 「古新羅 積石木槨墳 研究 (上) - 墓型과 그 性格을 중심으로 -」, 『韓國國史研究』 31.
- _____, 1981, 「古新羅 積石木槨墳 研究 (下) - 墓型과 그 性格을 중심으로 -」, 『韓國國史研究』 32.
- _____, 1992, 『新羅古墳研究』, 一志社.
- _____, 2012a, 「경주지역 신라 횡혈식석실분의 계층성과 고분 구조의 변천」, 『韓國考古學報』 83.
- _____, 2012b, 「신라 초기양식토기의 설정과 편년」, 『嶺南考古學』 63.
- _____, 2014a, 「5세기 신라 전기양식토기의 편년과 신라토기 전개의 정치적 함의」, 『고고학』 13-3.
- _____, 2014b, 「경주 월성북고분군의 형성과정과 신라 마립간사기 왕릉의 배치」, 『韓國考古學報』 90.
- _____, 2015, 「신라 초기 경주지역 목곽묘의 전개와 사로국 내부의 통합과정」, 『韓國考古學報』, 95.
- _____, 2016a, 「신라 전기 적석목곽분의 출현과 경주 월성북고분군의 묘제 전개」,

- 『文化財』 49-3.
- _____, 2016b, 「신라 적석목곽묘의 축조기법과 전개」, 『崇實史學』 37.
- _____, 2017a, 「신라 전기 경주 월성북고분군의 계층성과 복식군」, 『韓國考古學報』 104.
- _____, 2017b, 「신라 전기 적석목곽분의 모형과 집단복합묘군의 성격」, 『文化財』 50(4).
- 최수형, 2013, 「경주지역 적석목곽묘의 위계구조 검토」, 『중앙고고연구』 12.
- 최순정, 2015, 「창녕 교동 7호분 유물부장양상 복원」, 『昌寧 校洞 7號墳』, 國立金海博物館.
- 崔鍾圭, 2011, 「積石塚의 封, 槨, 殉」, 『考古學探究』 9.
- 하대룡, 2016, 「고총단계 신라 고분의 부장 정형과 그 함의 - 착장위세품과 무구, 마구를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 101.
- _____, 2017, 「경산 대동 57-1번지 유적 출토 인골 분석, 경산 대동 57-1번지 유적」, 『2015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IV -경북 2』, 韓國文化財財團.
- _____, 이준정, 2012, 「마산 현동 유적 청동기시대 3호 석관묘 출토 인골에 대하여」, 『馬山 縣洞遺蹟: 마산 현동-임곡간 국도건설 공사구간내 유적』 I, 東西文物研究院.
- 한국고고학회, 2010, 『한국고고학강의』, 사회평론.
- 한국과학기술연구소, 1980, 『산업의 표준치 설정을 위한 국민표준체위 조사 연구 보고서』.
- 한국문화재연구원, 2014, 『釜山 加德島 獐項遺蹟』.
- 한국문화재재단, 2016, 「황남동 95-4번지 유적 국비지원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3.
- 함순섭, 2007, 「성균관대학교 소장 유리건판과 일제강점기 경주의 신라무덤 발굴조사」, 『慶州 新羅 유적의 어제와 오늘 - 석굴암·불국사·남산』,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 _____, 2010, 「皇南大塚을 둘러싼 論爭, 또 하나의 可能性」, 『황금의 나라 신라의 왕릉 황남대총』.
- 洪潛植, 2011, 「고분을 통해 본 고대 창녕지역 정치체의 성격」, 『고대 창녕지역사의 재조명』, 제2회 고대 창녕지역사 학술대회.
- _____, 2015, 「신라·가야지역 象形土器의 변화와 의미」, 『韓國上古史學報』 90.

- 黃宗鉉, 2003, 「慶山 林堂遺蹟 出土鐵器에 대한 研究」, 嶺南大學校大學院 文學碩士學位論文.
- _____, 2011, 「생산과 소비 시스템으로 본 신라의 금공품」, 『2011년도 천마고고연구회 발표회 자료집』.
- 黃奭根, 1976, 『韓國裝身具美術研究』, 一志社.

-일문-

- 金元龍, 1977, 「新羅壺衿塚の被葬子は誰か」, 『特輯謎の古代遺迹遺物百科』, 歴史讀本臨時増刊.
- 梅原末治, 1931,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 『大正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 1.
- 毛利光俊彦, 1983, 「新羅積石木槨墳考」, 『文化財論叢(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創立30周年記念論文集)』.
- 木下尚子, 1996, 「古墳時代南島交易考-南海産貝釧と貝の道を中心に」, 『考古學雜誌』 81-1.
- _____, 2005, 「古浦遺跡の貝輪」, 『古浦遺跡』, 古浦遺跡調查研究会.
- 白石太一郎, 2003, 「考古学からみた聖俗二重首長制」,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08.
- 小栗梓, 2008, 「腕輪形石製品の出土状況と性差」, 『考古学からみた古代の女性』, 大阪府立近つ飛鳥博物館.
- 有光教一, 1934, 「皇五里第五四號墳甲・乙塚」, 『昭和八年度古蹟調査概報』, 朝鮮總督府.
- 齊藤忠, 1937a, 「慶州皇南里第109號墳」, 『昭和九年度古蹟調査報告』 1.
- _____, 1937b, 「新羅の瓢形墳」, 『考古學雜誌』 27-5, 日本考古学会.
-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 3.
- 中山平次郎, 1934, 「飯塚市立岩運動場発見の甕棺内遺物」, 『福岡懸史蹟名勝天然紀念物調査報告書』 9.
- 池田次郎・片山一道, 1994, 「四. 人骨」, 『斑鳩藤ノ木古墳 第二・三次調査報告書』, 檀原考古学研究所.

- 樋口清之, 1972, 「腕輪」, 『美容研究』 54.
- 坂田邦洋・宇都宮英二・蔵座活一・古屋貴世・若桑司・山田洋一郎・尾畑亮・金城透,
1984, 「腕輪の着脱について」, 『史学論叢』 15, 別府大学史学研究会.
- _____, 上田成彦・金本義孝, 1987, 「腕輪の着装について」, 『史学論叢』 16, 別府
大学史学研究会.
- 片山一道, 2013, 「藤ノ木古墳人骨再考-南側被葬者は男性である-」, 『橿原考古學研究
所論集』 16.
- 穴沢和光, 馬目順一, 1975, 「昌寧校洞古墳群」, 『考古學雜誌』 60-4.

- 영문 -

- Arnold, B., 2016, Belts vs. Blades: the Binary Bind in Iron Age Mortuary Contexts
in Southwest Germany, *Journal of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23,
832-853.
- Bass, W. M., 1995, *Human Osteology: A Laboratory and Field Manual*, Columbia,
Missouri: Missouri Archaeological Society.
- Berrizbeitia, E. L., 1989, Sex Determination with the Head of the Radius, *Journal
of Forensic Science* 34(5): 1206-13,
- Binford, L. R., 1971, Mortuary practice: their study and their potential, In
Approaches to the Social Dimensions of Mortuary Practices, J. Brown eds.,
pp. 6-29, Washington DC: Memoir of the Society for American archae-
ology 25.
- Brothwell, D. R., 1981, *Digging up Bone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Brown, J. H., 1995, On mortuary analysis—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axe-Binford research program, In L. A. Beck, eds., *Regional Approaches
to Mortuary Analysis*, New York: Plenum Press, 3-26.
- Carr, C., 1995, Mortuary practices: their social, philosophical-religious, circum-
stantial, and physical determinant, *Journal of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2.
- Chapman, R., 2013, Death, Burial, and Social Representation, in S. Tarlow and L.

- N. Stutz 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Archaeology of Death and Buria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and K. Randsborg, 1981, Approaches to the archaeology of death, In: Chapman, R., I., Kinnes and K. Ransborg eds., *The Archaeology of Death*, Cambridge.
- Chazine, J. M. and A. Noury, 2006, Sexual determination of hand stencils on the main panel of the Gua Masri II Cave (East-Kalimantan/Borneo e Indonesia), *International Newsletter On Rock Art* 44.
- Conte, M. and J. Kim, 2016, An economy of human sacrifice: The practice of sun-jang in an ancient state of Korea,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44.
- DeMarrais, E., Castillo, L. J. and T. Earle, 1996, Ideology, Materialization, and Power Strategies, *Current Anthropology* 37-1.
- Earle, T., 1997, *How chiefs come to power*, Stanford University Press.
- Fowler, C., 2004, *The Archaeology of Personhood – An anthropological approach*, London: Routledge.
- Goldstein, L. G., 1981, One-dimensional archaeology and multidimensional people: spatial organization and
- Goodenough, W. H., 1965, Rethinking ‘status’ and ‘role’ : toward a general model of the cultural organization of social relationships, in: M. Banton eds., *The relevance of models for social anthropology*, Tavistock: London.
- Gunn, R. G., 2006, Hand sizes in rock art: interpreting the measurements of hand stencils and prints, *Rock Art Research* 23.
- Hammer, Ø., Harper, D. A. T., and P. D. Ryan, 2001, PAST: Paleontological Statistics Software Package for Education and Data Analysis. *Palaeontologia Electronica* 4(1): 9pp.
- Härke, H., 1997a, The Nature of Burial Data, in Jensen, C. K. and K. H. Neilsen eds., *Burial and Society*, Aarhus University Press.
- _____, 1997b, Material Culture as Myth: Weapons in Anglo-Saxon Graves, in Jensen, C. K. and K. H. Neilsen eds., *Burial and Society*, Aarhus University Press.
- _____, 2014, Grave goods in early medieval burials: messages and meanings,

Mortality 19-1.

- Hodder, I. 1980, Social structure and cemeteries: a critical appraisal. In P. Rahtz, T. Dickinson and L. Watts, eds., *Anglo-Saxon Cemeteries*, Oxford: British Archaeological Reports 82.
- Insoll, T., 2007, Introduction: configuring identities in archaeology, in T. Insoll, eds., *the Archaeology of Identities*, Abingdon: Routledge.
- Jaffe, Y. and C. Bin, 2017, Communities of Mortuary Practice: A Renewed Study of the Tianma-Qucun Western Zhou Cemetery, *Cambridge Archaeological Journal* 28:1, 23-44.
- Kamp, K. A., 1998, Social hierarchy and burial treatments: a comparative assessment, *Cross-Cultural Research* 32(1), 79-115.
- Kim, J., 2001, Elite strategy and the spread of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spread of iron in the Bronze Age societies of Denmark and souther Korea,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hcaeology* 20.
- Kwon, H. S., 1991, *A regional analysis of the Kaya polities in Korea: chronology, economy, and sociopolitical interactions in systemic perspective*, Ph.D. dissertation, Urbana, Illinois.
- Lee, S. H., 1999, *Evolution of Human Sexual Dimorphism: Using Assigned Resampling Method to Estimate Sexual Dimorphism When Individual Sex Is Unknow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 Mackie, M. E., 2015, Estimating age and sex: Paleodemographic identification using rock art hand sprays, an application in Johnson County, Wyoming,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Reports* 3: 333-341.
- Mann, R. W., W. M. Bass and L. Meadows, 1990, Time Since Death and Decomposition of the Human Body: Variables and Observations in Case and Experimental Field Studies, *Journal of Forensic Sciences* 35-1: 103-111.
- Mant, A. K., 1987, Knowledge Acquired from Post-War Exhumations, In A. Boddington, A. N. Garland and R. C. Janaway eds., *Death, Decay and Reconstruction: Approaches to Arhcaeology and Forensic Science*,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Meindl, R. S., C. O. Lovejoy, R. P. Mensforth and L. D. Carlos, 1985, Accuracy

- and direction of error in the sexing of the skeleton: implications for paleodemography,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 68.
- Nikita, E., 2017, *Osteoarchaeology: A Guide to the Macroscopic Study of Human Skeletal Remains*, London: Elsevier.
- O' Shea, J. A., 1981, Social configurations and the study of mortuary practices: a case study, In: Chapman, R., I., Kinnes and K. Ransborg eds., *The Archaeology of Death*, Cambridge.
- Parker Pearson, M., 1982, Mortuary practices, society and ideology: an ethnoarchaeological study. In I. Hodder, ed., *Symbolic and structural archa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3, The Powerful Dead: Archaeological Relationships between the Living and the Dead, *Cambridge Archaeological Journal* 3-2.
- _____, 1999, *The Archaeology of Death and Burial*, Phoenix Mill, UK: Sutton.
- Pearson, R., J. Lee, W. Koh and A. Underhill, 1989, Social Ranking in the Kingdom of Old Silla, Korea: Analysis of Burials,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8, 1-50.
- Peebles, C. S. and S. M. Kus, 1977, Some archaeological correlates of ranked societies, *American Antiquity* 42-3.
- Rodriguez, W. and W. Bass, 1983, Insect Activity and its Relationship to Decay Rates of Human Cadavers in East Tennessee, *Journal of Forensic Sciences* 28-2: 423-432.
- Saxe, A. A., 1970, *Social Dimensions of Mortuary Practices*, PhD Thesis, University of Michigan.
- Shanks, M. and C. Y. Tilley, 1987, *Social Theory and Archaeology*,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 Shennan, S. E., 1975, The social organisation at Branc, *Antiquity* 49.
- Snow, D. R., 2006, Sexual dimorphism in Upper Palaeolithic hand stencils, *Antiquity* 80.
- _____, 2013, Sexual dimorphism in European Upper Paleolithic cave art, *American Antiquity* 78.
- Solberg, B., 2004, Ritual feasts: Glass vessels in Norwegian graves of the late

- Roman and Migration period, In M. Lodewijcx eds., *Bruc Ealles Well: Archaeological essays concerning the peoples of north-west Europe in the first millennium AD (Acta Archaeologica Lovaniensia Monographiae 15)*,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 Stone, T., 2003, Social Identity and Ethnic Interaction in the Western Pueblos of the American Southwest, *Journal of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10(1), 31-67.
- Sutherland, L. D. and J. M. Suchey, 1991, Use of the ventral arc in pubic sex determination, *Journal of forensic sciences* 36.
- Tainter, J., 1975, Social inferences and mortuary practices: an experiment in numerical classification, *World Archaeology* 7.
- Simmons, T., P. A. Cross, R. E. Adlam and C. Moffatt, 2010, The Influence of Insects on Decomposition Rate in Buried and Surface Remains, *Journal of Forensic Science* 55(4): 889-892.
- Ubelaker, D. H., 1989, *Human Skeletal Remains: Excavation, Analysis, Interpretation*, Washington, DC: Taraxacum.
- _____ and J. E. Buikstra, 1994, Standards for data collection from human skeletal remains, *Arkansas Archaeological Survey Research* 44.
- van Driel-Murray, C. 1995, Gender in Question, in P. Rush, eds., *Theoretical Roman Archaeology: Second Conference Proceedings - Worldwide Archaeology Series 14*, Aldershot: Avebury/Ashgate.
- Wang, J. Z., Ge, W., Snow, D. R., Mitra, P. and C. L. Giles, 2010, Determining the sexual identities of prehistoric cave artists using digitized handprints: a machine learning approach,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media*.
- White, L. Jr., 1962, *Medieval Technology and Social Chan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hite, T. D., and P. A. Folkens, 2000, *Human Osteology*, San Diego: Academic Press.
- Yoffee, N., 2004, *Myths of the Archaic State: Evolution of the Earliest Cities, States and Civiliz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부표 1> 신라 고분 출토 천 목록 및 계측치

순번	출토 고분	지역	정보 수준	재질	공반 이식	최대 내경	최소 내경	내측 둘레	두께	폭	외측 장지름	외측 단지름	외측 둘레	출전	보고서상 출처
1	강릉 초당동 6호 석곽	강릉	a	금동제	없음	66	63	203	5	5	76	73	234	예맥문화재연구원, 2008, 강릉 초당동유적 IV	그림 22의 27
2	경산 임당 7A호	경산	a	금동제	국옥수식	64	63	199	6	6	74	73	231	영남대학교박물관, 경산임당지역고분군 8	92번
3	경산 임당 7A호	경산	a	금동제	국옥수식	64	63	199	6	6	74	73	231	영남대학교박물관, 경산임당지역고분군 8	92번
4	경주 황오리 고분	경주	b	금제	태환	?	?	?	?	?	73	?	?	경주박물관, 2001, 신라황금	도판197
5	경주 황오리 고분	경주	b	금제	태환	?	?	?	?	?	73	?	?	경주박물관, 2001, 신라황금	도판197
6	교동7호분(2015)	창녕	a	금제	세환	64	61	196	3	5.5	69	66	212	국립김해박물관, 2015, 창녕 교동 7호분	도면 17의 105
7	교동7호분(2015)	창녕	a	은제	세환	65	64	203	4.1	6.6	79	78	247	국립김해박물관, 2015, 창녕 교동 7호분	도면 18의 115-1
8	교동7호분(2015)	창녕	a	은제	세환	65	63	201	4.2	6.9	79	76	243	국립김해박물관, 2015, 창녕 교동 7호분	도면 18의 115-2
9	교동7호분(2015)	창녕	a	은제	세환	66	65	206	5	7	79	78	247	국립김해박물관, 2015, 창녕 교동 7호분	도면 18의 115-3
10	교동7호분(2015)	창녕	c	청동제	세환	?	?	?	?	?	?	?	?	국립김해박물관, 2015, 창녕 교동 7호분	
11	교동7호분(2015)	창녕	c	청동제	세환	?	?	?	?	?	?	?	?	국립김해박물관, 2015, 창녕 교동 7호분	
12	國博 菊隱 收集品	경주	a	유리제	불명	59	59	185	8	7	74	73	231	윤상덕, 2009, 유리팔찌 제작방법에 대한 소고, 신라문화연구 3집	도면 90의 2
13	國博 菊隱 收集品	경주	a	유리제	불명	61	58	187	7	8	78	75	240	윤상덕, 2009, 유리팔찌 제작방법에 대한 소고, 신라문화연구 3집	도면 8
14	금관총	경주	a	은제	태환	63	60	193	5.4	7	73	70	225	국립박물관, 2016, 경주 금관총(유물편)	유물번호 417
15	금관총	경주	a	은제	태환	65	63	201	3.5	4.5	72	71	225	국립박물관, 2016, 경주 금관총(유물편)	유물번호 418
16	금관총	경주	a	은제	태환	65	61	198	4.9	5.6	74	70	226	국립박물관, 2016, 경주 금관총(유물편)	유물번호 415
17	금관총	경주	a	금제	태환	65	63	201	5.7	5.8	76	74	236	국립박물관, 2016, 경주 금관총(유물편)	유물번호 407
18	금관총	경주	a	금제	태환	66	64	204	5.2	4.8	75	74	234	국립박물관, 2016, 경주 금관총(유물편)	유물번호 408
19	금관총	경주	a	금제	태환	66	65	206	5.3	5.5	76	74	236	국립박물관, 2016, 경주 금관총(유물편)	유물번호 413
20	금관총	경주	a	금제	태환	67	65	207	4.4	4.5	74	73	231	국립박물관, 2016, 경주 금관총(유물편)	유물번호 406
21	금관총	경주	a	금제	태환	67	65	207	4	4.8	75	74	234	국립박물관, 2016, 경주 금관총(유물편)	유물번호 409
22	금관총	경주	a	금제	태환	67	64	206	4.3	5.2	76	73	234	국립박물관, 2016, 경주 금관총(유물편)	유물번호 405
23	금관총	경주	a	금제	태환	67	65	207	5.4	5.9	76	74	236	국립박물관, 2016, 경주 금관총(유물편)	유물번호 414
24	금관총	경주	a	금제	태환	67	65	207	5.7	5.6	78	77	243	국립박물관, 2016, 경주 금관총(유물편)	유물번호 403
25	금관총	경주	a	은제	태환	68	61	203	5	6	76	70	229	국립박물관, 2016, 경주 금관총(유물편)	유물번호 419
26	금관총	경주	a	금제	태환	68	67	212	4.8	5	78	76	242	국립박물관, 2016, 경주 금관총(유물편)	유물번호 404
27	금관총	경주	a	금제	태환	68	64	207	5	5.6	78	74	239	국립박물관, 2016, 경주 금관총(유물편)	유물번호 412
28	금관총	경주	a	금제	태환	69	65	211	5.5	6.2	78	75	240	국립박물관, 2016, 경주 금관총(유물편)	유물번호 411
29	금관총	경주	a	은제	태환	70	60	205	6.3	5.1	82	70	239	국립박물관, 2016, 경주 금관총(유물편)	유물번호 420
30	금관총	경주	a	금제	태환	71	68	218	3.8	4.7	79	76	243	국립박물관, 2016, 경주 금관총(유물편)	유물번호 410
31	금관총	경주	c	은제	태환	?	?	?	?	?	?	?	?	국립박물관, 2016, 경주 금관총(유물편)	유물번호 416

순번	출토 고분	지역	정보 수준	재질	공반 이식	최대 내경	최대 소경	내측 둘레	두께	폭	외측 장지름	외측 단지름	외측 둘레	출전	보고서상 출처
32	금관총	경주	c	은제	태환	?	?	?	?	?	?	?	?	국립박물관, 2016, 경주 금관총(유물편)	유물번호 421
33	금관총	경주	c	은제	태환	?	?	?	?	?	?	?	?	국립박물관, 2016, 경주 금관총(유물편)	유물번호 422
34	금관총	경주	c	은제	태환	?	?	?	?	?	?	?	?	국립박물관, 2016, 경주 금관총(유물편)	유물번호 423
35	금관총	경주	c	은제	태환	?	?	?	?	?	?	?	?	국립박물관, 2016, 경주 금관총(유물편)	유물번호 424
36	금관총	경주	c	은제	태환	?	?	?	?	?	?	?	?	국립박물관, 2016, 경주 금관총(유물편)	유물번호 425
37	금관총	경주	c	은제	태환	?	?	?	?	?	?	?	?	국립박물관, 2016, 경주 금관총(유물편)	유물번호 426
38	금령총	경주	a	금제	태환	47	44	143	5.2	?	60	57	184	조선총독부, 1931, 대정13년도고적조사보고	제33도의 우
39	금령총	경주	a	은제	태환	52	48	157	4.9	?	62	57	187	조선총독부, 1931, 대정13년도고적조사보고	제33도의 좌
40	노동리4호분	경주	a	동제	세환	71	70	221	7	7.8	85	83	264	국립중앙박물관, 2000, 경주노동리4호분	도면 10의 3
41	노동리4호분	경주	c	은제	세환	?	?	?	?	?	?	?	?	국립중앙박물관, 2000, 경주노동리4호분	도면 10의 1
42	노동리4호분	경주	c	은제	세환	?	?	?	?	?	?	?	?	국립중앙박물관, 2000, 경주노동리4호분	도면 10의 2
43	노서리 138호분	경주	b	은지금장제	세환	?	?	?	5	?	60	?	?	김재원·김원용, 1955, 경주노서리 쌍상총·마총·138호분	도판29 a
44	노서리 138호분	경주	b	은지금장제	세환	?	?	?	5	?	60	?	?	김재원·김원용, 1955, 경주노서리 쌍상총·마총·138호분	도판29 a
45	노서리 138호분	경주	b	은지금장제	세환	?	?	?	5	?	65	?	?	김재원·김원용, 1955, 경주노서리 쌍상총·마총·138호분	도판29 a
46	노서리 138호분	경주	b	은지금장제	세환	?	?	?	5	?	65	?	?	김재원·김원용, 1955, 경주노서리 쌍상총·마총·138호분	도판29 a
47	노서리 215번지 고분	경주	a	은제	태환	65	64	203	8	6	78	77	243	유광교일·등정화부 편, 2000, 조선고적연구회유고	제3도 3
48	노서리 215번지 고분	경주	a	은제	태환	65	64	203	8	6	78	77	243	유광교일·등정화부 편, 2000, 조선고적연구회유고	제3도 4
49	노서리 215번지 고분	경주	a	금제	태환	66	65	206	7.6	5.5	82	81	256	유광교일·등정화부 편, 2000, 조선고적연구회유고	제3도 2
50	노서리 215번지 고분	경주	a	금제	태환	67	66	209	7.6	5.5	83	81	258	유광교일·등정화부 편, 2000, 조선고적연구회유고	제3도 1
51	미추왕릉C지구 3호	경주	c	은제	태환	?	?	?	?	?	?	?	?	영남대학교박물관, 1975, 황남동고분조사발굴개보	
52	미추왕릉C지구 3호	경주	c	은제	태환	?	?	?	?	?	?	?	?	영남대학교박물관, 1975, 황남동고분조사발굴개보	
53	보문리 고분(다이쇼7년)	경주	a	금동제	세환	66	66	207	?	?	76	76	239	조선총독부, 1918, 대정7년도 조선고적조사보고	
54	보문리 고분(다이쇼7년)	경주	a	금동제	세환	66	66	207	?	?	76	76	239	조선총독부, 1918, 대정7년도 조선고적조사보고	
55	보문리 고분(다이쇼7년)	경주	a	은제	세환	69	69	217	4.5	?	80	80	251	조선총독부, 1918, 대정7년도 조선고적조사보고	
56	보문리 고분(다이쇼7년)	경주	a	은제	세환	69	69	217	4.5	?	80	80	251	조선총독부, 1918, 대정7년도 조선고적조사보고	
57	보문리 합장분(석실)	경주	c	은제	태환	?	?	?	?	?	?			국립중앙박물관, 2011, 경주보문리합장분	사진 79의 1
58	보문리 합장분(석실)	경주	c	금동제	태환	?	?	?	?	?	?			국립중앙박물관, 2011, 경주보문리합장분	사진 79의 2
59	보문리 합장분(적석목곽)	경주	a	은제	태환	70	68	217	6.6	4	83	77	251	국립중앙박물관, 2011, 경주보문리합장분	도면 6의 3
60	보문리 합장분(적석목곽)	경주	a	은제	태환	73	62	212	6.6	3	85	71	246	국립중앙박물관, 2011, 경주보문리합장분	도면 6의 4
61	보문리 합장분(적석목곽)	경주	c	동제	태환	?	?	?	?	?	?	?		국립중앙박물관, 2011, 경주보문리합장분	도면 6의 5
62	보문리 합장분(적석목곽)	경주	c	동제	태환	?	?	?	?	?	?	?		국립중앙박물관, 2011, 경주보문리합장분	도면 6의 6
63	서봉총	경주	a	유리제	태환	60	60	188	7	7	75	74	234	국립중앙박물관, 2014, 경주 서봉총	본관14336(2-2)
64	서봉총	경주	a	유리제	태환	61	61	192	7	7	76	75	237	국립중앙박물관, 2014, 경주 서봉총	본관14336(2-1)

순번	출토 고분	지역	정보 수준	재질	공반 이식	최대 내경	최소 내경	내측 둘레	두께	폭	외측 장지름	외측 단지름	외측 둘레	출전	보고서상 출처
65	서봉총	경주	a	금제	태환	62	62	195	5.4	7.1	72	72	226	국립중앙박물관, 2014, 경주 서봉총	본관14335(3-1)
66	서봉총	경주	a	은제	태환	62	58	189	4.9	7.1	72	68	220	국립중앙박물관, 2014, 경주 서봉총	본관14337
67	서봉총	경주	a	은제	태환	62	61	193	4.8	6.8	72	71	225	국립중앙박물관, 2014, 경주 서봉총	본관14337
68	서봉총	경주	a	금제	태환	62	62	195	5.6	6	73	71	226	국립중앙박물관, 2014, 경주 서봉총	본관14335(3-3)
69	서봉총	경주	a	은제	태환	62	61	193	6.5	8.9	75	75	236	국립중앙박물관, 2014, 경주 서봉총	본관14337
70	서봉총	경주	a	금제	태환	63	62	196	4.8	6.2	74	73	231	국립중앙박물관, 2014, 경주 서봉총	본관14335(3-2)
71	서봉총	경주	a	은제	태환	66	65	206	6	4.3	77	78	243	국립중앙박물관, 2014, 경주 서봉총	본관14337
72	식리총	경주	a	은제	세환	67	67	210	4.6	?	76	76	239	조선총독부, 1931, 대정13년도고적조사보고	
73	양산 금조총	양산	a	금제	태환	65	63	201	5.5	4.5	76	75	237	동아대학교박물관, 1991, 양산 금조총, 부부총.	도면 8의 3
74	양산 금조총	양산	a	금제	태환	66	63	203	5.6	4.7	76	73	234	동아대학교박물관, 1991, 양산 금조총, 부부총.	도면 8의 4
75	양산 부부총	양산	a	금제	태환	61	60	190	6.7	3.6	71	70	221	동아대학교박물관, 1991, 양산 금조총, 부부총.	도면 29의 1
76	양산 부부총	양산	a	금제	태환	62	60	192	6.7	3.6	72	70	223	동아대학교박물관, 1991, 양산 금조총, 부부총.	도면 29의 2
77	양산 부부총	양산	a	은제	태환	62	61	193	6.3	7.6	76	75	237	동아대학교박물관, 1991, 양산 금조총, 부부총.	도면 29의 3
78	양산 부부총	양산	a	은제	태환	63	62	196	6.3	7.6	77	76	240	동아대학교박물관, 1991, 양산 금조총, 부부총.	도면 29의 4
79	월성로 가-14호분	경주	a	청동제	없음	64	59	193	5.6	5.6	73	69	223	국립경주박물관, 1990, 경주시월성로고분군	도면 90의 2
80	월성로 나-11호	경주	a	청동제	불명	62	62	195	5	5	72	72	226	국립경주박물관, 1990, 경주시월성로고분군	
81	월성로 나-11호	경주	a	청동제	불명	62	62	195	5	5	72	72	226	국립경주박물관, 1990, 경주시월성로고분군	
82	은령총	경주	c	은제	세환	?	?	?	?	?	?	?	?	국립중앙박물관, 1948, 호우총과 은령총	도판 48의 1
83	은령총	경주	c	은제	세환	?	?	?	?	?	?	?	?	국립중앙박물관, 1948, 호우총과 은령총	도판 48의 1
84	의성 대리리 47-1호	의성	a	청동제	없음	61	60	190	4	4	70	68	217	성림문화재연구원, 2016, 의성 대리리 고분군	도면 176의 1237
85	인동총	경주	b	금제	불명	?	?	?	?	?	79	?	?	경주박물관, 2001, 신라황금	도판196
86	인동총	경주	b	금제	불명	?	?	?	?	?	79	?	?	경주박물관, 2001, 신라황금	도판196
87	인왕동 20호분	경주	c	은제	태환	?	?	?	?	?	?	?	?	경주 인왕동(19호20호) 고분발굴 조사보고	
88	인왕동 20호분	경주	c	은제	태환	?	?	?	?	?	?	?	?	경주 인왕동(19호20호) 고분발굴 조사보고	
89	인왕동 B군 2곽	경주	c	은제	태환	?	?	?	?	?	?	?	?	李殷昌·金元龍 編, 1978, 慶州仁旺洞古墳發掘調査	
90	창녕 계성 A지구 1호분	창녕	a	은제	불명	64	62	198	7.1	4.3	78	76	242	동아대학교박물관, 1977, 창녕계성고분군발굴조사보고서	도면 8의 2
91	창녕 계성 A지구 1호분	창녕	a	은지금장제	불명	65	63	201	6	4.3	77	75	239	동아대학교박물관, 1977, 창녕계성고분군발굴조사보고서	도면 8의 1
92	창녕 계성 Ⅲ지구 1호분	창녕	a	은제	세환	63	57	189	6.1	3.4	77	70	231	경남고고학연구소, 2001, 창녕계성신라고총군	도면 130의 3
93	창녕 계성 Ⅲ지구 1호분	창녕	a	은제	세환	64	59	193	5.6	5	76	71	231	경남고고학연구소, 2001, 창녕계성신라고총군	도면 130의 4
94	창녕 계성 Ⅱ지구 1호분	창녕	a	은제	태환	60	59	187	6	6	72	71	225	호림미술관, 2000, 창녕 계성 고분군 상,하	도면 11의 2
95	창녕 계성 Ⅱ지구 1호분	창녕	a	은제	태환	62	60	192	6	6	73	70	225	호림미술관, 2000, 창녕 계성 고분군 상,하	도면 11의 1
96	창녕 계성 Ⅱ지구 1호분	창녕	a	은제	태환	64	62	198	6	5	77	76	240	호림미술관, 2000, 창녕 계성 고분군 상,하	도면 11의 3
97	창녕 계성 Ⅱ지구 1호분	창녕	a	은제	태환	65	64	203	6	6	76	74	236	호림미술관, 2000, 창녕 계성 고분군 상,하	도면 11의 4

순번	출토 고분	지역	정보 수준	재질	공반 이식	최대 내경	최소 내경	내측 둘레	두께	폭	외측 장지름	외측 단지름	외측 둘레	출전	보고서상 출처
98	창녕 교동 11호	창녕	b	금제	불명	?	?	?	?	?	70	?	?	혈탁화광, 마목순일, 1975, 창녕교동고분군, 고고학잡지 60-4	비사벌 도록 40p,
99	창녕 교동 12호	창녕	b	금제	태환	?	?	?	?	?	70	?	?	혈탁화광, 마목순일, 1975, 창녕교동고분군, 고고학잡지 60-4	비사벌 도록 40p,
100	창녕고분군출토(유구미상)	창녕	a	은제	불명	63	59	192	3	3	69	65	211	국립김해박물관, 2015, 유리건판으로 보는 창녕 고분군	소판180298
101	창녕고분군출토(유구미상)	창녕	a	은제	불명	63	61	195	3	3	69	67	214	국립김해박물관, 2015, 유리건판으로 보는 창녕 고분군	소판180298
102	창녕고분군출토(유구미상)	창녕	a	은제	불명	64	63	199	3	3	70	69	218	국립김해박물관, 2015, 유리건판으로 보는 창녕 고분군	소판180298
103	창녕고분군출토(유구미상)	창녕	a	은제	불명	65	64	203	3	3	71	70	221	국립김해박물관, 2015, 유리건판으로 보는 창녕 고분군	소판180298
104	창녕고분군출토(유구미상)	창녕	a	은제	불명	66	60	198	3	3	72	66	217	국립김해박물관, 2015, 유리건판으로 보는 창녕 고분군	소판180298
105	창녕고분군출토(유구미상)	창녕	a	은제	불명	66	65	206	3	3	72	71	225	국립김해박물관, 2015, 유리건판으로 보는 창녕 고분군	소판180298
106	천마총	경주	a	금제	세환	65	65	204	6.4	7.5	76	76	239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천마총 : 발굴조사보고서	압도 47
107	천마총	경주	a	금제	세환	65	65	204	6.4	7.5	76	76	239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천마총 : 발굴조사보고서	압도 47
108	천마총	경주	a	금제	세환	65	65	204	6.4	7.5	76	76	239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천마총 : 발굴조사보고서	압도 47
109	천마총	경주	a	금제	세환	72	65	215	6.4	7.5	80	76	245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천마총 : 발굴조사보고서	압도 47
110	충주 단월동 5호	충주	a	청동제	세환	63	62	196	6.2	5.3	74	73	231	건국대박물관, 1994, 충주 단월동 고분군	단5-48
111	충주 단월동 5호	충주	a	청동제	세환	64	62	198	6.2	5.5	75	74	234	건국대박물관, 1994, 충주 단월동 고분군	단5-47
112	호우총	경주	a	금제	세환	64	57	190	7	?	76	70	229	국립중앙박물관, 1948, 호우총과 은령총	도판 25의 1
113	호우총	경주	a	금제	세환	65	62	200	7	?	79	73	239	국립중앙박물관, 1948, 호우총과 은령총	도판 25의 1
114	황남대총북분	경주	a	금제	태환	62	59	190	6.4	7.1	77	72	234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5, 황남대총(북분)	압도24
115	황남대총북분	경주	a	금제	태환	63	59	192	6.7	7.3	77	73	236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5, 황남대총(북분)	압도24
116	황남대총북분	경주	a	금제판형	태환	67	67	210	3.3	21	73	73	229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5, 황남대총(북분)	압도25
117	황오리 16호 1곽	경주	c	은제	세환	?	?	?	?	?	?	?	?	유광교일, 등정화부 편, 2000, 조선고적연구회유고I	도판 제6
118	황오리 16호 1곽	경주	c	은제	세환	?	?	?	?	?	?	?	?	유광교일, 등정화부 편, 2000, 조선고적연구회유고I	도판 제6
119	황오리 33호 서곽(주곽)	경주	b	금동제	태환	?	?	?	?	?	84	?	?	문화공보부, 1969, 황오리 제1, 33호, 황남리 151호	도판 65
120	황오리 33호 서곽(주곽)	경주	b	금동제	태환	?	?	?	?	?	85	?	?	문화공보부, 1969, 황오리 제1, 33호, 황남리 151호	도판 65
121	황오리 33호 서곽(주곽)	경주	b	금동제	태환	?	?	?	?	?	85	?	?	문화공보부, 1969, 황오리 제1, 33호, 황남리 151호	도판 65
122	황오리 33호 서곽(주곽)	경주	b	금동제	태환	?	?	?	?	?	85	?	?	문화공보부, 1969, 황오리 제1, 33호, 황남리 151호	도판 65
123	황오리 4호분	경주	b	동지은장제	세환	?	?	?	?	?	80	?	?	국립박물관, 1964, 황오리 4,5호분, 황남리 파괴고분	도판 21의 1
124	황오리 4호분	경주	b	동지은장제	세환	?	?	?	?	?	80	?	?	국립박물관, 1964, 황오리 4,5호분, 황남리 파괴고분	도판 21의 1
125	황오리 4호분	경주	b	동지은장제	세환	?	?	?	?	?	80	?	?	국립박물관, 1964, 황오리 4,5호분, 황남리 파괴고분	도판 21의 1
126	황오리 4호분	경주	b	동지은장제	세환	?	?	?	?	?	80	?	?	국립박물관, 1964, 황오리 4,5호분, 황남리 파괴고분	도판 21의 1
127	황오리 54호 갑총	경주	c	은제	태환	?	?	?	?	?	?	?	?	유광교일, 1934, 고적조사개보 : 신라고분, 소화팔년도	
128	황오리 54호 갑총	경주	c	은제	태환	?	?	?	?	?	?	?	?	유광교일, 1934, 고적조사개보 : 신라고분, 소화팔년도	
129	황오리 5호분	경주	b	금제	태환	?	?	?	?	?	75	?	?	국립박물관, 1964, 황오리 4,5호분, 황남리 파괴고분	도판 34의 2
130	황오리 5호분	경주	b	금제	태환	?	?	?	?	?	75	?	?	국립박물관, 1964, 황오리 4,5호분, 황남리 파괴고분	도판 34의 2

순번	출토 고분	지역	정보 수준	재질	공반 이식	최대 내경	최소 내경	내측 둘레	두께	폭	외측 장지름	외측 단지름	외측 둘레	출전	보고서상 출처
131	황오리 5호분	경주	b	동지은장제	태환	?	?	?	?	?	85	?	?	국립박물관, 1964, 황오리 4,5호분, 황남리 파괴고분	도판 34의 2
132	황오리 5호분	경주	b	동지은장제	태환	?	?	?	?	?	85	?	?	국립박물관, 1964, 황오리 4,5호분, 황남리 파괴고분	도판 34의 2
133	황오리 고분 복곽	경주	c	은제	태환	?	?	?	?	?	?	?	?	조선고적연구회, 1951, 昭和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	
134	황오리 고분 복곽	경주	c	은제	태환	?	?	?	?	?	?	?	?	조선고적연구회, 1951, 昭和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	
-	무령왕릉 왕비		a	금제	-	59	58	184	4.9	7	70	67	215	공주대학교백제문화재연구소, 1991, 백제무령왕릉	
-	무령왕릉 왕비		a	금제	-	59	58	184	4.9	7	70	67	215	공주대학교백제문화재연구소, 1991, 백제무령왕릉	
-	무령왕릉 왕비		a	은제	-	60	60	188	10	10	80	80	251	공주대학교백제문화재연구소, 1991, 백제무령왕릉	
-	무령왕릉 왕비		a	은제	-	60	60	188	10	10	80	80	251	공주대학교백제문화재연구소, 1991, 백제무령왕릉	

〈부표 2〉 수량분석 대상 월성북고분군 적석목곽묘와 출토 유물

유구명	성별 추정	착장이식	계서	일단 고배	이단 고배	개배	대완	장경류	단경류	대호	연질 날	파배	기대	연조리 기	이형 토기	철축	대도	철모	철준	주조 이	쇠날	쇠스 랑	살포	철서	철검	단조 부	철착 사	집게	유자 검형	철정	도자
금관총	여성	태환이식	A	7	1	13	0	3	15	0	6	1	0	0	9	2	4	5	6	1	0	0	0	2	0	2	2	1	0	0	6
금령총	여성	세환이식	A	8	8	8	5	16	11	0	8	3	0	0	16	28	0	4	1	4	0	0	2	0	4	0	0	1	4	6	53
서봉총	여성	태환이식	A	0	1	28	2	7	6	0	32	0	0	0	0	19	0	0	0	0	0	2	4	2	4	3	0	0	4	0	24
천마총	여성	세환이식	A	8	3	10	3	9	15	0	1	2	0	0	10	118	9	35	0	7	0	0	0	0	2	1	1	0	0	37	55
황남대총남분	남성	세환이식	A	445	847	334	112	19	4	45	128	1	11	22	44	1028	32	424	31	300	16	20	0	0	0	80	0	0	10	1296	54
황남대총북분	여성	태환이식	A	36	0	24	1	10	3	0	10	2	0	0	3	38	0	8	0	6	0	0	3	0	4	0	0	1	0	20	9
식리총	여성	세환이식	B	0	0	1	4	10	10	0	0	2	0	0	1	30	1	10	3	0	0	0	1	0	1	0	0	0	2	0	27
황남동110호	남성	세환이식	B	36	73	46	2	8	17	2	21	0	0	0	0	49	1	3	0	6	0	0	0	0	7	6	1	0	2	0	9
노서동138호	여성	세환이식	C	12	9	6	0	2	5	0	4	0	0	0	2	1	0	2	1	0	0	0	0	0	0	1	1	0	2	8	17
인왕동149호	여성	세환이식	C	26	4	0	2	6	0	0	21	2	2	0	0	10	0	6	0	2	0	0	0	0	0	1	0	0	13	12	6
인왕동20호	여성	태환이식	C	4	0	9	0	5	7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5	0	0	0	4	3
쪽샘B1호	남성	세환이식	C	20	64	6	6	9	22	0	45	3	0	2	1	20	6	3	3	2	0	0	0	0	1	2	0	0	2	3	11
황남동95-6번지2호	여성	없음	C	0	25	0	0	2	3	0	18	1	0	0	0	9	0	1	1	0	0	0	0	0	1	0	0	0	1	0	3
황오동5호	여성	태환이식	C	0	2	4	1	9	1	0	0	1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미추9구A호1곽	남성	태환이식	D	0	13	3	11	2	3	1	5	0	0	0	1	0	0	0	0	0	0	0	0	1	1	2	0	0	2	0	1
인왕동(경문연)10호	남성	세환이식	D	0	6	0	0	6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쪽샘B2호	남성	세환이식	D	6	41	14	0	13	15	2	21	1	0	0	0	56	0	1	1	0	0	0	0	0	5	2	0	0	3	0	16
쪽샘B3호	남성	세환이식	D	13	62	10	2	7	21	5	14	0	0	0	0	27	0	0	0	0	0	0	0	0	4	2	0	0	4	0	9
쪽샘B6호	남성	태환이식	D	5	94	5	8	14	18	4	30	0	0	2	0	0	0	0	0	0	0	0	0	0	2	3	0	0	2	0	22
계림로44호	여성	세환이식	E	13	3	7	4	12	6	0	13	0	0	0	0	22	0	2	0	0	0	0	0	0	2	1	2	0	0	0	0
미추5구8호	남성	태환이식	E	11	22	4	1	7	0	0	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0	1
미추9구A호2곽	남성	세환이식	E	0	6	0	0	4	0	0	4	0	0	0	0	1	0	0	0	0	0	0	0	0	1	3	0	0	0	0	3

유구명	성별	착장이식	계서	일단고배	이단고배	개배	대완	장경류	단경류	대호	연질발	파배	기대	연조리기	이형기	철촉	대도	철모	철준	주쟁이	쇠삽날	쇠스랑	살포	철서	철검	단철조부	철착시	집게	유자검	철정	도자
인왕동(경문연)6-A호	여성	없음	E	1	8	4	2	3	2	0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인왕동(경문연)6-B호	여성	없음	E	5	0	2	2	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미추9구A호3곽	남성	세환이식	E	0	30	0	1	3	4	1	9	0	0	1	0	2	1	0	0	0	0	0	0	0	1	1	1	0	1	0	8
인왕동(경문연)1호	남성	없음	E	2	61	1	8	8	6	4	18	3	0	2	1	0	0	1	0	0	0	0	0	0	1	0	0	0	2	0	3
인왕동(경박)1호	여성	없음	E	9	24	6	0	6	4	0	10	0	0	0	0	7	0	0	0	0	0	0	0	0	1	1	0	0	0	0	1
인왕동(경박)2호	여성	없음	E	21	0	0	5	5	7	0	9	1	0	0	0	1	0	0	0	0	0	0	0	0	1	0	0	0	0	0	1
쪽샘B4호	남성	세환이식	E	0	21	26	6	4	6	3	18	0	0	3	0	0	0	0	0	0	0	0	0	0	3	3	0	0	3	3	7
황남동95-6번지4호	남성	세환이식	E	0	18	3	5	4	5	1	14	0	0	2	0	2	0	0	0	0	0	0	0	0	1	1	0	0	2	1	6
계림로17호	여성	없음	F	6	44	5	0	4	1	0	1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계림로43호	여성	없음	F	3	2	11	1	5	6	0	4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계림로45호	남성	없음	F	14	16	14	2	3	1	0	9	0	0	0	0	1	0	1	0	0	0	0	0	0	1	0	0	0	0	0	0
계림로46호	여성	없음	F	0	18	11	2	6	6	0	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계림로54호	여성	없음	F	6	4	5	1	7	3	0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미추5구15호	남성	없음	F	7	23	0	2	1	8	0	1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인왕동(경문연)2호	여성	없음	F	20	3	4	3	7	3	0	4	2	0	0	0	4	0	0	0	0	0	0	0	0	0	1	0	0	0	0	1
인왕동(경문연)7호	여성	없음	F	8	10	0	1	3	3	0	5	1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1	0	1
인왕동(경문연)8호	여성	없음	F	4	0	0	0	4	5	0	1	1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인왕동(경박)10호	여성	없음	F	0	5	0	1	8	3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인왕동(경박)14호	남성	없음	F	1	9	0	1	2	5	0	4	0	0	2	1	0	0	0	0	0	0	0	0	0	3	0	0	0	2	0	1
인왕동(경박)15호	남성	없음	F	5	8	1	0	1	6	0	7	1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인왕동(경박)21호	남성	없음	F	0	4	0	0	2	2	0	5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인왕동(경박)4호	여성	없음	F	0	5	0	0	2	2	0	3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부표 3〉 수량분석 대상 지방 고분과 출토 유물

유구명	착장이식	지역	일단 고배	이단 고배	개배	대부 완	장경류	단경류	대호	연질 발	파배	기대	연질리 기	기타 토기	철촉	대도	철모	철준	주조 괭이	쇠삽	쇠스 랑	살포	철서	철검	단조 부	철착 철사	집게	유자 검형	철정	도자
대리리3호	세환이식	의성	7	4	0	0	2	4	0	0	1	0	0	0	16	0	2	0	0	0	0	0	0	1	1	0	0	0	0	2
대리리5호	태환이식	의성	5	0	5	1	1	7	0	9	1	2	0	1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대리리7호	세환이식	의성	0	6	0	2	14	7	0	5	1	2	0	1	26	0	3	0	0	0	0	0	0	0	0	0	0	0	0	1
대리리46-1호	세환이식	의성	16	20	2	0	4	25	0	15	1	2	4	0	32	0	2	0	0	0	0	0	0	3	3	0	0	0	0	5
대리리46-2호	세환이식	의성	14	6	0	0	2	7	0	7	1	0	0	0	59	0	2	0	0	0	0	0	0	2	2	1	0	0	0	1
대리리46-4호	세환이식	의성	9	6	0	2	2	2	0	0	0	0	1	2	11	0	0	0	0	0	0	0	0	1	2	0	0	0	0	1
대리리46-5호	태환이식	의성	3	9	0	2	1	2	0	0	0	0	1	0	1	0	0	0	0	0	0	0	0	0	0	1	0	0	0	5
대리리47-1호	세환이식	의성	9	12	0	1	7	12	0	5	4	1	5	3	1	0	0	0	0	0	0	0	0	1	0	1	0	0	0	1
대리리49-1호	세환이식	의성	15	42	0	0	4	17	0	1	4	0	0	1	28	0	1	0	0	0	0	0	0	3	2	1	0	0	0	5
대리리49-2호	세환이식	의성	18	6	0	4	3	8	0	0	2	1	0	1	15	0	1	1	0	0	0	0	0	1	2	0	0	0	0	3
태화동7호	세환이식	안동	18	1	0	2	3	5	0	1	2	1	0	0	2	0	2	0	1	0	0	0	0	0	2	0	0	0	0	2
병산동9호	세환이식	강릉	0	50	0	11	11	1	0	12	0	0	2	0	11	0	0	0	0	0	0	0	0	3	0	0	0	0	0	2
장학리1호	세환이식	성주	37	6	0	1	5	7	1	4	0	0	2	0	18	0	1	0	0	0	0	0	0	0	2	1	0	0	0	5
화원성산1호4곽	태환이식	대구	6	6	0	2	4	9	0	3	0	3	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황상동1호	세환이식	대구	4	47	0	4	3	14	1	0	0	3	0	2	12	0	3	0	0	0	0	0	0	1	2	0	0	1	0	2
대리리2호주변2호	태환이식	의성	12	0	0	0	2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5
계남1호	세환이식	창녕	6	25	7	3	2	19	1	2	2	1	0	1	44	3	11	0	0	0	0	2	1	4	21	1	0	4	21	0
달성34호1곽	세환이식	대구	15	9	0	1	3	9	0	3	0	0	0	0	6	0	2	0	0	0	0	0	0	3	2	1	0	4	0	11
달성37호1곽	태환이식	대구	2	2	1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1	0	0	8	0	20
달성37호2곽	세환이식	대구	12	16	0	1	4	1	0	4	0	1	0	0	14	0	4	0	0	0	0	0	0	3	2	1	0	8	0	10

유구명	착장이식	지역	일단 고배	이단 고배	개배	대부 완	장경 호류	단경 호류	대호	연질 발	파배	기대	연질 조기	기타 형기	철축	대도	철모	철준	주조 광이	쇠삽 날	쇠스 랑	살포	철서	철겸	단조 부	철착 철사	집게	유자 검형	철정	도자
달성50호	태환이식	대구	17	56	3	2	6	66	2	13	0	0	12	2	0	0	0	0	0	0	0	0	0	2	1	1	0	4	0	10
달성51호2곽	세환이식	대구	14	20	0	3	2	8	0	2	4	0	0	0	11	0	0	1	0	0	0	1	0	2	0	0	0	0	0	6
달성55호	태환이식	대구	44	7	0	2	9	4	0	8	1	1	0	0	0	0	1	0	0	0	0	1	0	2	20	0	0	4	17	22
대리리2호A-1호	세환이식	의성	25	48	0	1	4	41	0	0	7	3	0	0	0	0	1	0	0	0	0	0	1	0	0	0	0	0	0	3
대리리2호B-1호	세환이식	의성	15	10	0	1	3	81	1	4	1	3	0	0	4	2	1	0	0	0	0	0	1	2	0	0	0	0	0	10
대리리3호2곽	세환이식	의성	30	56	0	2	2	41	1	5	5	2	1	0	9	0	0	0	0	1	0	0	1	2	1	0	0	0	0	6
북정리21호	태환이식	양산	0	14	0	1	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3	
북정리8호	세환이식	양산	1	8	0	0	3	0	0	2	0	2	0	0	0	0	0	0	0	0	0	0	0	2	1	0	0	0	0	0
화원성산1호	세환이식	대구	18	26	0	8	5	19	1	1	0	2	3	0	12	0	2	0	0	0	0	0	1	1	2	0	2	0	0	9
성산동1호	세환이식	성주	5	6	0	0	3	0	0	0	0	1	0	0	1	0	2	2	0	0	0	0	0	2	0	0	0	0	0	3
성산동38호	세환이식	성주	26	107	1	2	18	28	1	8	4	1	0	0	0	0	1	1	0	1	0	0	3	1	0	0	0	0	0	4
성산동57호	세환이식	성주	4	24	1	1	8	3	0	1	0	0	0	0	37	0	1	1	0	0	0	0	1	2	0	0	0	0	0	8
성산동58호	태환이식	성주	16	41	0	9	10	5	1	0	2	2	0	1	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
임당5B2호	태환이식	경산	0	0	0	3	9	12	0	5	0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2	0	0	3
임당7C호	태환이식	경산	7	14	11	2	15	8	2	13	2	0	0	1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조영CI-1호	세환이식	경산	28	75	21	3	19	29	2	13	0	0	1	0	147	5	12	4	1	0	0	0	0	8	6	2	0	2	0	20
조영CII-1호	태환이식	경산	0	45	16	2	19	32	5	49	1	1	6	0	5	0	29	0	0	1	0	0	0	6	4	0	0	1	0	10
조영CII-2호	세환이식	경산	8	68	0	7	23	18	7	16	1	0	4	1	93	0	53	1	0	0	0	1	2	9	0	0	3	25	10	
조영E1-1호	세환이식	경산	37	71	6	3	22	55	4	26	5	2	6	1	77	0	22	3	0	0	0	0	3	6	7	1	2	0	0	21

Abstract

Patterns of Mortuary Practice : the Social Implications of the Graves and Grave Goods Composition of Silla High-mound Tombs

Silla high-mound tombs are regarded as proxies of the growth of Silla as a state and symbols of political domination. As the core materials investigated in the study of Silla burials, the wooden chamber tombs with stone mounds in the Wolseong North Burial Ground in Gyeongju have long been the focus of research concentrating mainly on chronology and social hierarchy.

Nevertheless, the composition of grave goods, the arrangement of graves, and the socio-political implications of Silla burials are not well understood.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social identities of the deceased, the compositional principles of the graves, and the social significance of Silla high-mound tombs with stone mounds. Three major aspects of social identity were investigated: dress accessories (with an emphasis on earrings), sex/gender, and social rank. Silla earrings consist of two specific types-thick hollow earrings (TTE) and thin solid earrings (TSE)-which can be used to distinguish two elite groups. In contrast with much former research, the current osteological data suggest that these two types of earrings do not correspond with the biological sex of the deceased. In order to determine the gender of the deceased, the inner diameter of the metal bangles worn by the deceased were analyzed on the basis of sexual dimorphism. Rather than showing a bimodal distribution, the normal distribution of bangle diameters strongly suggests that only females

wore the bangles, and unlike the Japanese Yayoi bangles worn by both males and females, metal bangles were clearly gendered objects in Silla burials.

Considering these analyses, four different groups of Silla elites were identified: the male TTE group, the male TSE group, the female TTE group, and the female TSE group. Each group was associated with cumulative dress accessories that can be classified into six hierarchical ranks, but each group was associated with distinctive subsidiary accessories at the same time. Moreover, each group had clearly distinct grave types and grave-good assemblages that differed according to gender or earring type. For example, only male graves had separate pits for grave goods and large quantities of pottery, and only the TSE-group grave assemblages consisted of iron swords, armor, stirrups, and weaponry, regardless of gender. By contrast, the TTE group graves contained limited amounts of ironware and weaponry, implying that the TSE and TTE groups had different social roles.

The social identities of the deceased were also a decisive factor in the arrangement of graves. In contrast with commonly accepted interpretations, this study revealed that Silla burials were not family graves; single-gender clustering was prevalent, inferring that family relations were not a key factor in the arrangement of graves. In the case of conjoined mounds, not a single example of two conjoined TTE-TTE graves was observed, suggesting the existence of restrictive regulations in the arrangement of burials.

The results of the above analyses suggest that there were certain types of funerary norms based on the social identities of the deceased that followed a social consensus of Silla society. These results also suggest that Silla elites differentiated themselves by gender, social role, and social rank, and the social order of Silla society structured by these principles is

clearly expressed in idealized form in the burials at Gyeongju, the center of the Silla state.

At the periphery of Silla, in the Yeongnam Province area, gender expression was quite different from the center. Female graves also had separate pits for grave goods and therefore had similar quantities of pottery with male graves. However, graves in the periphery shared similar norms with Gyeongju graves in terms of grave-good composition and conjoined mounds with TTE and TSE assemblages. This strongly suggests that the social order and structure of the central elites of Gyeongju proliferated to the periphery of Silla and that local elites in the periphery actively accepted and reproduced them in their mortuary practices. These strong patterns in the composition of burials suggest that elites shared a common background in social structure and ideology. From this point of view, the high-mound tombs period is regarded as a time of assimilation of peripheral elites to the center, the state of Silla.

Keywords : Silla, Silla high-mound tombs, wooden chamber tombs with stone mounds, social identity, social structure, grave goods, gender, mortuary practice

Student Number : 2012-30029